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변천

백기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변천

백기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 간 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조 성 훈

도성(都城)은 한 나라의 수도이자 국왕(國王)과 관부(官府)가 위치한 통치의 중심지로서 실제적인 정치·군사적 기능이 작동하는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성(王城) 형태를 띤 도읍(都邑)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궁성과 내·외성을 쌓고 군사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으로써 국가의 심장부인 도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군사사(韓國軍事史)에서는 도성을 지키기 위한 방위태세와 이와 연동된 군사제도 및 수비체계를 총칭하여 이른바 ‘도성방위체제(都城防衛體制)’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성방위체제는 나라를 세우는 건국 과정에서의 정도(定都), 유사시의 천도(遷都)를 포괄하는 방어전략과 군사제도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는데, 고대국가 단계인 고구려의 산성과 평지성을 연결한 2성 체제(二城體制)가 그 시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두 차례의 전란인 왜란·호란을 겪은 후,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수도를 사수해야 한다는 ‘도성사수(都城死守)’의 관념이 형성되면서 이중적 보장처(二重的保藏處)와 3선방어(三線防禦)의 개념을 실현하는 도성방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한 도성사수 정신은 현대에 와서 6·25전쟁 시에도 그대로 요청되고 재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서는 통시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도성방위체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도성방위라는 주제가 왕조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군사·문화사적으로는 지금도 수도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이 많습니다. 생활공간인 수도를 방위하겠다는 정신적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무기·장비 및 시설,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인간(군사조직, 부대)이 함께 추구한 구체성[城操]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도성방위체제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학계의 연구 성과가 대체로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본서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전·후기에 이르기까지 도성방위에 대한 역사적 형성 과정과 변천의 역사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한국군사사 전 시대를 아우르는 만큼, 도성방위의 구조적 측면과 전개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함으로써 향후의 심층적인 연구에 디딤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본서를 집필한 백기인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출간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본서가 한국군사사 연구에 일조하고 현대의 수도방위체제를 정립하는 데에도 역사적 경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부·장·절·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장: 제1장, 제2장, ... 등으로 배열

절: 제1절, 제2절, ... 등으로 각 장의 세부 전개

항: 가, 나, 다 ... 등으로 각 절의 세부 구성

목: 굵은 서체의 소제목

2. 각종 문헌이나 인용문은 가능한 원전에 가깝게 표현을 살렸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문에 가깝게 다듬어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로 병기하였다.

3.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사진 자료를 통해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자 했다. 사진 설명은 본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사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되 혼동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혹은 한자어 등은 원어를 ()에 넣어 서술하였다.

5.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 완결된 문장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부분 인용
- 『 』 : 단행본 · 저서
- 「 」 : 논문 · 작품
- . . : 동일 사항의 나열

6. 주기(註記)는 전거 위주로 본문의 하단부에 표시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주를 달아 관련 사실이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서적이거나 논문은 저자, 제목, (계재지명), 발행처, 발표연대, 페이지 순으로 표기

7. 본서에서 활용한 사진은 소장 기관(개인)의 사용 승인을 득했으며, 현지에서 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은 일일이 별도 표기하였다.

- 문화재청,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서울시청, 전쟁기념관, 경주문화재연구소

8. 부록에 첨부한 『守城機要』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守城機要』(한古朝 76-44) 영인본 자료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1
제 2 장 고대 삼국의 도성방위	19
제 1 절 삼국의 건국과 방위전략	19
가. 고구려 건국과 방위전략	19
나. 백제 건국과 방위전략	30
다. 신라 건국과 방위전략	39
제 2 절 고구려·백제 천도와 도성방위	48
가. 고구려의 천도와 도성방위	50
나. 백제의 천도와 도성방위	62
제 3 장 고려의 도성방위	83
제 1 절 고려의 건국과 북진정책	83
제 2 절 고려의 도성방위체제	87
가. 도성 축조	87
나. 도성방위체제의 형성	99
제 3 절 수도 이전 전략	112
가. 강화 천도	112
나. 개경 환도와 도성방위	121

제 4 장 조선의 도성방위	129
제 1 절 조선의 한양 정도	129
제 2 절 조선 초기의 도성방위	132
가. 한양 도성 건설	132
나.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	138
제 3 절 조선후기의 도성방위체제	146
가. 북한산성과 도성외곽 축조	146
나. 삼군문 도성수비체제의 형성	163
 제 5 장 맺음말	 179
용어해설	191
참고문헌	218
색인	237
수성기요(원문)	262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한국은 성(城)의 나라다. 현재 남한지역에만도 2천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악이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외침이 잦았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산성(山城)은 적을 막아 생활공간을 지키는 최적의 시설이었다. 처음에는 토성(土城) 축조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견고한 석성(石城)을 축조하였다. 산성 또한 자연물에 의존하여 축성하다가 점차 축성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시설을 곁들였다. 그리하여 보루·토벽·석벽·목책·해자 등이 부대시설로 구축되었고 성을 둘러싼 이중시설로 곽(郭)이 조성되었다.¹⁾

대체로 한국의 성은 축성술 발전으로 점차 도성(都城)·읍성(邑城) 같은 평지성(平地城) 등 여러 형태로 축성되었다. 도성은 안쪽에 쌓은 내성(內城)과 바깥쪽에 쌓은 밖인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진 두 겹의 성곽이나 혹은 중간에 중성(中城)을 쌓아 만든 세 겹의 성곽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중(이·삼중)의 군사적인 방어시설과 더불어 무기체계 및 전략전술을 동시에 구비하게 되면서 최적의 통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듯 한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는 도성은 기본적으로 왕궁과 이를 보호하는 시설로 이루어진다. 안쪽의 왕성[王城, 宮城, 皇城], 바깥쪽의 나성(羅城)이 배치되는 것이 그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고대 도성은 산성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전시(戰時) 도성으로서 산성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구려의 졸본성(卒本城)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졸본성은 환인(桓仁) 근처의 평지성으로 평시 도성이었으며, 전시에는 인근 험준한 산악에 위치한 오녀산성(五女山城)으로 옮겨 임시 도성으로 삼았다. 후일의 도읍인 국내성(國內城)

1) 서영일, 『한국군사사 -성곽-, 육군본부, 2012, p.2.



한양 도성 원경(문화재청)

역시 주변에다 방어에 유리한 환도산성(丸都山城)을 축조하여 전시 도성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²⁾

대부분 4세기 말부터 7세기 후반 사이에 성곽(城郭) 축조가 이

루어졌으나, 도성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건축물로서나 군사·행정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다 완전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도성을 둘러싼 성곽은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궁궐을 비롯한 도성 내 인마와 건축물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시설이었다.³⁾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수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도성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쪽의 성인 궁성과 바깥쪽의 성인 나성(羅城)이라는 이중방어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산성과 달리, 도성은 평지성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호력을 강화하고자 내성과 외성을 갖춘 이중구조로 구축한 것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수도 자체를 도성이라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도성은 시설로서 성곽 자체를 가리킨다. 고구려의 국내성과 평양성, 백제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부여의 사비성, 고려의 개성, 조선의 한양 성곽

2) 백기인 외,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재간), p.36.

3)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왕성, 도성, 왕도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왕성이란 말 그대로 왕이 평상시 거주하기 위해 축조한 성곽을 말한다. 왕도는 왕성을 포함한 일정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도읍지란 의미다. 도성이란 왕도에 시가지 전체를 에워싼 나성이 축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며, 도읍지를 에워싼 성곽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왕도와 도성은 다 같이 도읍지를 가리키지만, 도읍지에 나성이 있으면 도성이 되고 없으면 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도성을 왕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왕도를 도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서정석,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 『한국사 시민강좌』 44, 2009, p.66). 더 자세한 왕도·도성·왕경의 개념 설정과 적용에 대해서는 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7, I-2를 참조.



조령에 축조한 산성(필자)

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 도시 주변을 둘러싼 나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도시 주변에 유사시 산성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나성과 같은 시설물을 축조하지 않은 까닭이다. 따

라서 경주 월성과 같이 도성과 궁성 자체를 혼동하는 일이 있었다.⁴⁾

수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군사적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는 수도 천도를 자주 행한 반면, 신라는 초기 부족국가의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서라벌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전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의 수도 천도는 각기 자국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양상과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달리 말하자면, 고대 삼국 간에 펼쳐진 각축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국의 천도(遷都)는 다분히 전략적인 성격을 띤 것인 만큼 그것이 계획적이었는지 혹은 임기응변적이었는지 간에 도성방위⁵⁾

4) 서영일, 『한국군사사 -성곽』, p.18.

5) 군사술어로서 '방어(防禦)'와 '방위(防衛)'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다. 전술적으로 방어가 정규작전과 같은 적의 예상 공격에 대해 직접적 이를 저지·보호하는 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방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의 예상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는 물론 평시의 일반적인 방호·보호행위(치안·경비)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방위가 평시 상황에도 적용된다면, 방어는 전시나 실제 작전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본서에서는 양자를 내용상 구별해서 사용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서술 상황에 따라 뒤양스가 달라 '방위'를 상위의 추상적 개념으로, '방어'를 하위의 구체적 개념으로 구분하되, 이를 혼용하고자 한다. 학계에서는 이를 별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이태진(李泰鎭) 교수에 의해서 '도성수비(都城守備)'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한국군제사』, 육군본부, 1977), 그 이후 '도성방위(都城防衛)'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강성문, 『수도 서울방위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45, 1993 ; 손승철, 『풍천유항』의 도성방위책, 『향토서울』54, 1994). 최근에는 '수도권 방어'나 '도성수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한국군사사 - 조선후기』7, 육군본부, 2012.). 자세한 내용은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연구』, 혜안, 2004, p.16을 참조.

의 또 다른 형태였다고 하겠다.

먼저 고구려는 최초 도읍인 졸본성에서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군사적 방어는 물론 국가의 생산성이나 문화발전을 수도의 조건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 최적의 지역으로서 평양성이 최종 수도가 되었다. 평양은 군사적으로 상대의 공격로를 신장시켜 방어상 ‘중심(縱深) 깊은’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이거니와 대동강 유역을 기반으로 난숙한 문화를 형성할



도성의 면모를 갖춘 고구려 왕도, 평양성(동북아역사재단)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수도의 안정성은 결과적으로 대외적 위협에 안도하여 귀족 내부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단초가 되고 말았다.⁶⁾

한편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재정비 차원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러나 백제 왕조의 천도 역시 끝내는 정치적 불안정과 염전사상(厭戰思想), 신라에 대한 성급한 공세 위주의 전면전, 대외관계의 고립 등이 겹치며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신라는 시종일관 하나의 수도를 지키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이를 두고 비판하듯이 신라는 통일 이후에도 수도를 옮기지 않아 한반도의 북방지역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의 통합적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어떤 의미에서 ‘통일국가에

6) 백기인 외,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p.23.

결맞은 천도 없는 신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내재된 모순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삼국시대 수도의 존재는 이를 설정하는 정도(定都)나 이를 옮기는 천도가 각국의 존망이나 국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고려의 수도인 개경(開京)은 궁예의 고려에서 7년 동안, 왕건의 고려에서 474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에서 8년 10개월 동안 수도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 외에 서경(西京, 평양), 남경(南京, 양주), 동경(東京, 경주)의 3경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부도(副都)였고, 강도(江都, 강화) 또한 대몽항쟁기 37년 10개월 동안 개경을 대체한 수도였다. 강도(江都)는 천도 직전부터 고려 왕조가 궁궐 조영을 시작하였고, 곧이어 외성을 비롯하여 강도 성곽을 완성함으로써 궁궐을 둘러싼 내성, 중성, 외성의 3중 구조를 이루었다. 성곽 중심의 방어망을 구성한 고려의 도성방위체계는 국경방어로부터 중심 깊은 산성방위체계(山城防禦體系)와 개별 군현 단위로 이루어진 치소성(治所城) 중심의 거점방어체계(據點防禦體系)와 연계되었다.

고려 왕조에서는 초기에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견해가 비등하였다. 태조대의 '서경천도론(西京遷都論)'은 창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북방 이민족을 경계하고, 장차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여 국세를 보존하려는 이른바 '건국방략(建國方略)'의 일환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태조가 서경정비를 서둘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경으로 천도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정종 집권기의 서경천도론은 혜종대 불안한 정치 상황을 거쳐 즉위한 국왕 정종이 연약한 왕권 강화를 위하여 천도를 모색한 데서 비롯되었다.⁷⁾ 정종이 내건 천도론의 주된 근거는 도참(圖讖)에 의한 것이었는데,⁸⁾ 개경의

7) 『高麗史』 2, 세가 정종 4년 3월 ; 『高麗史』 93, 열전6, 崔承老.

8)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1946(재판, 아세아문화사, 1980), pp.111-113.

지력이 미약하고 수덕(水德)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일어난 천도운동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천도 추진은 정종이 천도 경영에 착수했다가 원성이 높아진 데다가 왕의 유일한 옹호자이자 천도파인 왕식렴이 죽고, 정조 또한 갑자기 질병으로 승하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끝으로 조선시대 도성(都城)은 1308년 양주(남경)를 한양부(漢陽府)라 개칭했다가 왕조 개창 후에 한성부(漢城府)로 고쳐 불렀다. 한성부에는 종묘 사직과 궁궐, 관아, 성곽 등 왕실과 조정의 주요한 시설이 위치하였고, 체성(體城)과 여장(女牆), 문과 수문 등으로 이루어진 성곽이 축조되었다. 형태적으로는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것이었다. 도성 중앙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평지나 고개에 성문이 나 있고, 도성 외곽으로는 북으로 탕춘대성(蕩春臺城), 북한산성(北漢山城), 강화의 문수산성과 강화 외성, 음성, 돈대, 남으로는 광주(廣州)의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수원의 화성(華城)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도성은 점차 서울과 주변 지역을 연계시켜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복합화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의 반성 위에서 반드시 수도인 도성을 시수해야 한다는 이른바 ‘도성시수(都城死守)’ 관념이 형성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도성방위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조대(正祖代) 이르러 서울 주변의 지역(개성·강화·광주·수원)이 도성을 에워싸는 이중 방위망과 3선방어(三線防禦)의 개념을 갖춘 ‘환상형(環狀型) 도성수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도성방위체제는 재래적인 전통의 도성방위체제를 정교하고 안정된 형태의 군사방어체계로 재정비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제 2 장 고대 삼국의 도성방위

제 2 장 고대 삼국의 도성방위

제 1 절 삼국의 건국과 방위전략

가. 고구려 건국과 방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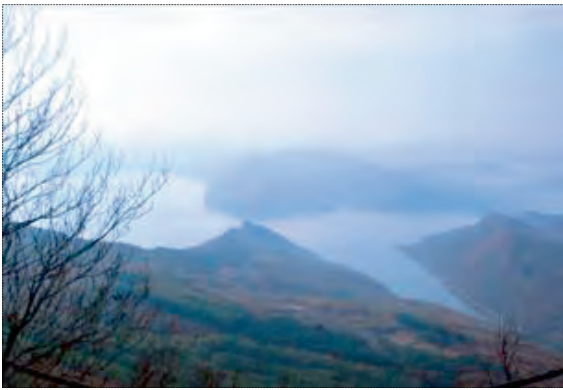
고구려는 연맹국가, 곧 초기국가(Pristine State) 단계에 이르러 부여(夫餘)로부터 남하 이동해 온 주몽(朱蒙, 東明聖王)에 의해서 건국되었다(B.C. 37). 도읍지는 졸본(卒本, 또는 忽本)으로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修佳江, 또는 혼강, 渾江) 유역에 위치한 오늘날의 환인(桓仁, 또는 懷仁)이었다. 고구려에는 이미 B.C. 4세기부터 형성된 여러 성읍국가로서 예맥(濊貊) 사회가 있었고,⁹⁾ 이를 통합하는 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⁰⁾

고구려는 수도이자 국가 통치의 중심지인 도성(都城, 수도)을 모두 8회에 걸쳐 옮겼다. 이렇듯 빈번하게 수도를 이전한 것은 정복전쟁에 유리한 지역을 사전에 확보하여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주변 농토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 안정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도성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흔히 도읍(都邑)이라고 하는 왕도(王都)인데, 왕도 전체를 에워싸는 나성(羅城)이 축조되면 이를 도성이라고 부를 때 고구려의 초기 왕도가 도성에 부합하는지는 미지수다.¹¹⁾ 일반적으로 통치 집단의 치소를 보호할 목적으로 축성되어 행정기관과 백성을 함께 수용하는 성곽을 갖추었느냐, 특히 도읍지를 에워싸는 성곽으로서 나성이 축조되었느냐 하는 나

9) 고구려 건국 세력이 동가강(修佳江) 유역에 자리잡고 있을 무렵에 주변에는 여러 성읍국가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비류국(沸流國, 일명 多勿國)이 가장 우세했던 것 같다. 『三國史記』는 주몽, 곧 동명왕이 '비류국의 왕인 송양(松讓)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 나라를 합병했다고 전한다.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 고구려조에서는 고구려 왕실이 연[涓]노부(奴部)에서 계루부(桂婁部)로 바뀌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사실로 추측된다(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一潮閣, 1985(重版), p.84 ; 이병도, 『고구려국고』,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p.359).

10) 고구려 건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p.82를 참조.

11) 박방룡, 『도성·성지』, 『한국사론』 15, 국사편찬위원회, 1986, p.337.



오녀산성에서 바라 본 혼강(필자)

성 축조 여부가 도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초기 고구려 도성은 사실상 왕성이거나 왕도쯤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성은 평지에는 평지성을 사용하

다가 전시에는 험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오녀산성으로 이동하여 외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졸본은 폐쇄 지형으로 한 나라의 수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생산성 향상과 문화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주몽 세력은 졸본에 정착한 후에 비류수 서쪽의 기존 산성을 증축·정비하여 외침에 대비함으로써 일종의 전시 도성을 보조적으로 갖추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¹²⁾ 강안(江岸)의 평지성인 하고성자성(下古城子城)이나 나합성지(蝸蛤城址)와는 달리 전시용(戰時用)이었을 오녀산성(五女山城)은 크기는 제한적이지만 천혜의 방어력을 갖춘 방어시설이었다.¹³⁾

고구려에서는 도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소위 ‘천도(遷都)’가 국가성장기에 그들이 취한 기본적인 도성방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시 도성으로서 졸본에 위치한 고구려의 오녀산성은 전형적인 산정식(山頂式) 산성이다.¹⁴⁾ 환인분지(桓仁盆地)에서 가장 험

12)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始祖 東明聖王 卽位年條, “至卒本川(魏書云至紇升骨城,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皇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一云 朱蒙至卒本扶餘, 王無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광개토왕릉비」 “于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王于忽本東置, 履龍眞昇天.”

13) 桓仁地域 山城에 대해서는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編纂委員會,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1990을 참조.

준한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오녀산성은 『위서·고구려(魏書·高句麗)』에 의하면 흘승골성(紇升骨城)이라고도 불렸다.¹⁵⁾

오녀산성에서는 전국 연(燕) 계통의 철기(선철제 주조도끼)가 출토될 정도로 일찍부터 방어시설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혼강(渾江)이 휘돌고 있



고구려 백암성. 산성 저 너머로 흐르고 있는 태자하(필자)

는 산은 험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상에는 남북 100m, 동서 300m 넓이의 분지가 있다. 그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샘물이 솟아나며 사방이 트여 있어 적정

을 관측하기에도 용이하다. 고구려 주민들은 혼강을 낀 절벽을 이용하여 동남쪽에 석성을 쌓았고 서북쪽은 자연 절벽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오녀산성 남쪽으로 5km 지역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 지금은 일부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 하고성자성(下古城子城)이라 부르는 토성이 있었다.¹⁶⁾ 일찍이 고구려 이주민이 정착하여 일상생활을 하던 평지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인 졸본 지역에는 이렇게 평지성과 산성이 있어 후대에 일반화된 고구려의 평지성과 산성의 2성 체제(평지성-산성의 도성방위체제)가 이미 국초부터 운용되었던 것이다. 졸본성의

14) 여호규, 『高句麗 城』 I(鴨綠江 中上流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pp.16-19.

15)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朱蒙遂至普述水, 遇見三人, 其一人著麻衣, 一人著納衣, 一人著水藻衣, 與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爲氏焉.”

16) 黃斌·黃瑞, 『曹魏毌丘儉東馬懸車破丸都山城』, 『走進東北西國』, 長春, 遠方出版社, 2006, p.135.

특성상 평상시에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충적평원(水上)에 자리 잡고 있다
 가 비상시에 군사방어거점(山上)으로 삼았으므로 평지성·산성을 이용한 방
 어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셈이다.¹⁷⁾

그러나 2대 유리왕(B.C. 19~A.D. 18)은 외침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면
 서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를 물색하고자 하였다. 줄
 본성이 군사적인 이점은 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제



반 요건이 불비했
 기 때문이었다. 도
 읍이란 단지 군사
 적인 방어에 유리
 한 지리적 특성 외
 에도 민생의 경제
 적 기반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물리

환도성, 고구려 국내성 북쪽에 위치한 산성(동북아역사재단) 적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하고, 또한 곡식이나 짐승 등 물산이 풍부하면서도 지정학적으로도 대
 외적인 위협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하였다.

『三國史記』의 유리왕조에는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
 는 부분이 보인다. 서기 2년(유리왕 21), 교시(郊豕)가 달아나자 희생(掌牲)
 을 맡은 설지(薛支)가 새로운 도읍지를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여호규,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I, 國防軍史研究所, 1998, p.47.

“신이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나암에 이르렀는데, 그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이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또 순록, 사슴, 물고기, 자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약 수도를 옮기시면 백성의 이익이 끝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걱정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⁸⁾

설지의 주장은 입지 조건상으로 국내성이 외부 침입으로부터 지형적으로 안전하며 정착에 의한 농경생활이 가능하고, 수렵생활도 겸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후계자로 지명된 태자 해명(解明)은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유리왕은 “백성을 편안케 하여 나라의 기초를 굳게 하려 한다”면서 태자의 반대를 물리쳤다. 태자는 그의 기반세력이 졸본의 기존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인데, 유리왕이 천도를 반대하는 태자를 자결케 하면서까지 끝내 수도 이전을 관철시켰다.¹⁹⁾ 졸본 지역을 벗어나 정복전쟁(征服戰爭)에 유리하고 토지생산력이 높은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영토와 백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²⁰⁾

서기 3년(유리왕 22), 고구려는 국내(國內)로 천도하고 위나암성(尉那巖城)을 쌓았다.²¹⁾ 국내성(國內城)은 집안시 서남쪽에 있는데 남으로 압록강과 통구강을 끼고 성립된 분지에 위치한다. 통구분지(通溝盆地) 일대는 압록강 중류 연안에서 가장 넓은 충적평원으로 압록강이 천혜의 해자를, 노령산맥(老嶺山脈)이 자연적인 방어벽을 형성한다. 북방에는 우산(禹山)과 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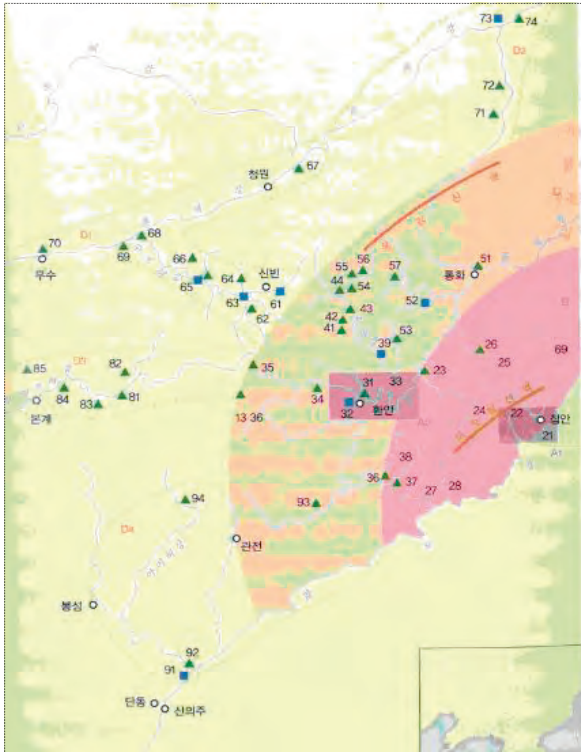
18)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1, 瑠璃明王 21년.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產,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19)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1, 瑠璃明王 28년. “吾遷都, 欲安民以固邦業, 汝不我隨, 而恃剛力, 結恐於鄰國, 爲子之道, 其若是乎, 乃賜劍使自裁, 太子卽欲自殺, 或止之曰, 大王長子已卒, 太子正當爲後, 今使者一至而自殺, 安知其非詐乎, 太子曰, 嚮黃龍王, 以強弓遺之, 我恐其輕我國, 故挽折而報之, 不意, 見責於父王, 今父王以我爲不孝, 賜劍自裁, 父之命其可逃乎, 乃住礪津東原, 以槍射地, 走馬觸之而死. 時年二十一歲, 以太子禮, 葬於東原, 立朝, 號其地爲槍原.”

20) 장학근, 「三國 統一의 軍事戰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22.

21)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1, 瑠璃明王 22년.

(龍山)이 있고 통구강 건너에 환도산(丸都山)이 있어 전체적인 구도가 산을



뒤로 하고 앞쪽으로 강이 흐르는 천연의 요새였다.²²⁾

또한 국내 지역(國內地域)은 생산 활동과 군사방어에 적합한 지형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이었다. 고구려인들은 그곳에 둘레 2,688m의 석성을 쌓고 그 안에 궁궐과 관청, 그리고 주민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 성 밖 각처로 연결되는 지점 4곳을

고구려 성의 위치 및 분포도(『한국군사사』14(성곽), p.181)

선정하여 4대문과 누각을 지어 외부 침입에 대비하는 군사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내성이 평지성이라면, 이로부터 북방 2.5km 지점에 위치한 고도 600m 위나암산 정상 부근에 산상왕 당시 축조한 환도성은 포곡식(包谷式) 산성이었다. 새로이 천도한 수도 국내성(國內城)과 환도산성(丸都山城) 역시 전형적인 고구려식 2성 체제(평지성-산성의 도성방위체제)를 형성하고 있

22) 군사적 목적으로 평지성 주위에 산성을 축조한 고구려식 성곽은 집안의 국내성과 환도성, 환인의 하고성자성과 흘승골성(오녀산성)이 잘 보여준다(김종복, 「집안의 고구려 도성」, 『집안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p.185 ; 임기환, 「고구려 성 개관」, 『高句麗城』, 동북아역사재단, 2006, p.14).

었다. 평상시에는 국내성을 도성(都城)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환도성을 군사방어거점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²³⁾

이렇게 하여 고구려는 서기 3년에서 장수왕 재위기인 427년까지 집안(集安)을 중심으로 한 평시 수도인 국내성과 전시 수도 역할을 한 환도성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평지성-산성의 2성 체제에 의한 도성방위체제를 유지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국내성으로 천도한 고구려에서는 여전히 동황성(東黃城)을 피난성으로 활용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대국가 단계에 이른 고구려가 산성-평지성의 2성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서도 유사시 피난처로 동황성까지 보조적으로 운영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초기부터 고대국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위체제를 갖추었지만 당시 적군이 곧바로 도성까지 진격할 것으로 보아 국경지대로부터 도성에 이르는 중간지대에는 별다른 방어시설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로소 3세기 이후에야 병력동원의 규모가 일정한 규모에 이르러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선(弧形防禦線)이나 거점성(據點城)이 구축되면서 국경과 도성 중간지대에서 적군을 저지하는 방어전략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4세기 이후 마침내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위체제를 비롯하여 도성외곽의 호형방어선, 나아가 국경지대의 축선방어체계 등 다양한 입체적인 고구려의 군사방위체계가 구축되었다.²⁴⁾

국내성에 도성을 둔 고구려는 처음에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고 현도군을 퇴축하며 급속히 발전했으나 대외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서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세력과의 충돌로 두 차례나 수도인 환도성이

23) 여호규, 「國內城期 高句麗의 軍事防禦體系」, p.48. 최근에 환도성이 209년(산상왕 13)부터 247년(동천왕 21)까지 38년간이나 국왕이 평상시 거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종래 ‘임시’ 수도로 보았던 것과 달리 명실상부한 왕성으로 기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기경량, 「환도성·국내성의 성격과 집안 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사학연구』 129, 2018, p.247).

24)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44-45.

합락되었고, 다시 남쪽으로 진출하여 백제·신라와 쟁탈을 벌이며 삼국 간 각축전이 본격화한 것이었다.²⁵⁾ 천혜의 도읍지인 국내성 또한 3세기 전반 기경에 고구려의 대외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외침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다.

특히 동천왕대(東川王, 227~248)에 북중국의 패자인 위(魏)나라가 요동의 공손씨(公孫氏)를 멸망시킨 다음 곧바로 고구려를 위협하였다. 242년(동천왕 16) 고구려는 압록강 하류 우안(右岸)인 서안평(西安平, 지금의 九連城)을 선제공격하여 중국 본토와 낙랑군과의 통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위나라와 충돌하는 발단이 되었다.

244년(동천왕 18)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毌丘儉)이 1만 군사를 앞세워 고구려를 침공해 왔다.²⁶⁾ 처음에 고구려는 관구검의 침입에 맞서 2만 군사[步·騎]로 비류수(沸流水, 渾江) 상류에서 위군을 저지하고, 비류수 상류 지역인 양맥곡(梁貊谷)에서 재차 격파하고 3천여 명을 참획(斬獲)하였다. 그러나 관구검은 방진(方陣)을 펼치며 결사적으로 대항했는데 동천왕이 철기 5천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패하여 1만 8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채 1천 기만이 압록강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고구려군은 이른바 ‘속마현거(東馬懸車)’의 전법으로 맹렬히 달려드는 적군을 저지하지 못하고 수도를 내주어야만 했던 것이다.²⁷⁾

당시 위군은 요동의 신성(新城)으로 진출한 후 흔히 이용한 통로인 남로

25) 김종복, 「집안의 고구려 도성」, 『집안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p.181.

26) 관구검 침공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전투상황이 애매하다. 2차 침공은 245년 10월이나 『삼국사기』에서는 246년(동천왕 20)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천왕 20년 기사는 『魏志·齊王芳紀』에 의한 것으로 관구검 기공비 기사와 연관해 볼 때 잘못이라고 한다(『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18년, 20년 ; 黃斌·黃瑞, 「曹魏毌丘儉東馬懸車破丸都城」, 『走進東北國』, pp.116-117).

27)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p.123 ; 『冊府元龜』 권349, 將帥部 「10. 立功 2. 毌丘儉. “…句驪王宮將步騎二萬人, 進軍沸流水上, 大戰渦(水)○, 宮連破走. 儉逢東馬懸車, 以登先都, 屠句驪所都, 斬獲首虜以千數.” ;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동천왕 20년. “二十年 秋八月, 魏遣幽州刺史毌丘儉, 將萬人, 出玄菟來侵. 王將步騎二萬人, 逆戰於沸流水上敗之, 參首三千餘級, 又引兵, 再戰於梁貊之谷, 又敗之, 斬獲三千餘人.”

나 북로를 이용하지 않았다. 남로는 신성에서 동남진하여 환인을 통과한 뒤 압록강 상류 쪽으로 북동진하여 국내성에 이르는 길이고, 북로는 신성에서 동진하여 통화를 거쳐 다시 남하하여 대판차령을 넘어 국내성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그들은 통화 근교에서 남하하여 양맥과 양맥 계곡을 경유한 후 소판차령(小板岔嶺)을 넘어 국내성에 이르는 북로의 지선도로를 이용하였다.²⁸⁾ 바로 양맥곡에서 북로의 우회 도로[소판차령]를 통하여 고구려의 심장부인 수도 환도성(丸都城, 通溝)으로 진격하여 이를 포위했던 것이다. 245년(동천왕 19) 10월, 환도성이 함락되자 동천왕은 압록원을 거쳐 남옥저로 달아났다. 동천왕은 굴하지 않았고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²⁹⁾ 위군이 철수한 수도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재침마저 우려되었다. 고구려는 환도성을 포기하고 압록강 동안의 동황성(東黃城, 江界로 추정)에 피난 수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⁰⁾

이런 상황은 초기 고구려의 도성방위체계가 아직은 견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국경으로부터 도성에 이르기까지 중간단계 방어전략의 실제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고구려군이 맞서야 할 전방의 대적 공간(對敵空間)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병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간단계의 방어시설도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동천왕 때부터 중천왕(中川王, 248~270)을 거쳐 서천왕(西川王, 270~292), 봉상왕(烽上王, 292~300)이 뒤를 잇고 미천왕(美川

28) 서인한, 『한민족전쟁통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p.98.

29)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0년. “田丘儉者, 魏之名將, 今日命在我掌握之中乎, 乃領鐵騎五千, 進而擊之. 儉爲方陣, 決死而戰, 我軍大潰, 死者一萬八千餘人, 王以一千餘騎, 奔鴨綠原, 冬十月, 儉攻陷丸都屠之, 乃遣將軍王頎追王, 王奔南天沮, 至于竹嶺, 軍士分散殆盡.”

30) 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7, p.95. ;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1년에는 환도성 난리를 피해 평양성을 축성하여 이주했다고 했으나, 이기동·이병도 등은 이를 강계 지방으로 보고(공석구·여호규: 압록강 유역), 동황성이라고 하였다(이기동·이기동, 『한국사강좌』 1, p.124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그러나 최근 기경량은 이를 ‘평양 동황성’이라는 기존 견해와 결부시켜 이에 대한 문제를 재고하고 있어 주목된다(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pp.129-131).



전성기의 고구려 영토(장수왕대, 서인한, 동북아의 왕자를 꿈꾸다, p.169)

王, 300~331)이 통치하는 기간에 전세를 역전시켰다.³¹⁾ 4세기 초, 진(晉)이 약화되자 북방민족이 장성을 넘어 중국을 침입한 틈을 이용하여 꾸준히 요동 지방을 공략한 결과였다. 그 결과로 고구려는 현도(玄菟)와 낙랑(樂浪)은 물론 남쪽의 대방(帶方)마저 장악함으로써 중국 군현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러다가 342년(고국원왕 12) 10월, 요동군으로 진출하고 있던 모용씨(慕容氏) 특히 모용황(慕容皝)이 연왕(燕王)을 자처(337)하며 수도를 대릉하의 북안에 위치한 용성(朝陽)으로 옮기고, 이해 11월 4만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고구려를 침공하자 고국원왕(故國原王, 331~371)의 고구려 진영은 다시 수세에 몰렸다. 적군은 환도성(丸都城)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선왕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약탈하고, 인질로 미천왕의 시신 외에 왕모 주씨(周氏)와 왕비 등 5만여 명의 남녀를 끌고 갔다.³²⁾ 이때에도 고구려는 1

31) 중천왕 12년(259)에 위장(魏將) 위지해(魏遲楷)가 쳐들어 왔을 때 정병 5천으로 이를 양맥곡(梁貊谷)에서 격파하고 적군 8천 명을 죽인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의 국력 회복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본다(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p.124).

32) 백기인 외, 『한민족전쟁사총론』, 교학연구사, 1988, pp.61-68.

세기 전에 위나라 군대가 침공할 당시 동황성으로 옮겼던 것처럼 343년(고국원왕 13) 수도를 다시 동황성에 두었다.³³⁾

이처럼 고구려는 국내성을 수도로 하는 동안 북방 민족의 발흥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맞았으나 소수림왕(小獸林王, 371~384) 집권기에 국가를 안정시키며 4세기 말 이후 남진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백제는 왜의 군사적 지원을 얻으려 했고,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힘을 빌어 백제·왜의 연합군에 맞서고자 하였다. 427년(장수왕 15)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平壤)으로 천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다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응하여 신라가 친고구려 노선을 버리고 적국이던 백제와 동맹을 맺으면서 삼국 관계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안에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고구려는 처음에 평양 일대의 안학궁(安鶴宮)에 도읍하다가 이후 552년(양원왕 8) 장안성(長安城) 축조를 시작하여 586년(평원왕 28)에 그곳으로 도읍지를 옮겼다.³⁴⁾ 장안성은 지금의 평양 시가지에 위치한 성인데,³⁵⁾ 축성 과정은 내성(內城)을 쌓고 후에 도읍지를 둘러싼 외성(外城)을 쌓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안성은 나성(羅城)을 두르고 시장이 개설되어 물물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성(都城)의 형태를 갖추었다.³⁶⁾ 고구려의 도성방위체제가 국내성에서 환도성을 병용하는 평지성-산성의 2성 체제에다 동황성을 보조적으로 운영하던 데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도성방위체제로 재정비된 것이다.

33)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 13년.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遣使如晉朝貢.”

34)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7, 平原王 28년. “移都長安城.”

35) 북한에서는 427년 천도 직후의 평양성(平壤城)은 대성산성(大城山城)을 가리키고, 그 아래의 평지에 위치한 안학궁(安鶴宮)이 왕궁이었다고 본다(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36) 전덕재, 「한국 고대의 왕경과 도성, 지방도시」, 『역사학보』 207, 2010, p.332.

요컨대 고구려는 초기에 평지성·산성의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첫 수도인 졸본에서 국내성을 거쳐 마침내 평양성에 이르러서 평산성을 완성하였다. 이전까지 고구려는 국경에서 도성에 이르는 구간에 국내성 외곽에 동심원 모양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바깥에 하천 연안로를 따라 중심방어선을 구축하였다.³⁷⁾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방위전략과 군사적 수단에 의한 대비태세와 도성방위체제를 새롭게 하였다. 이 점은 후술하겠지만 고구려의 최후 전투인 평양성 전투에서 잘 드러난다.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주변의 여건에 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한 전력을 구비했고, 특히 수도방위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3중성 방어망 구축에 의한 도성방위체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나. 백제 건국과 방위전략

백제가 건국하여 국가적 기틀을 다진 곳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인 한강 유역이었다. 한강 유역에 왕성을 건설한 백제는 왕도 조직을 갖추었다.³⁸⁾ 왕도의 변천에 따라 한성 도읍기(B.C. 18~475), 웅진 도읍기(475~538), 그

37) 여호규, 「고구려 성곽과 방어체계의 변천」, 『한국군사사』 14, 육군본부, 2012, p.199.

38) 「삼국사기」의 온조왕조 기록에는 애초에 온조가 한강 남쪽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고(B.C. 18), 다시 동왕 14년에 도읍을 옮겼다고 했다. 통상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옮기면서 한성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하면 흔히 얘기하는 하북위례성의 존재가 모호해지는데, 한성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다양하다. 최초의 도읍지는 하북위례성이었고, 하남위례성을 거쳐 한성이 건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한성 내에는 북성과 남성 2성이 있었다.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천도 시기에 대해서는 온조왕대, 비류왕대, 혹은 근초고왕대 등 여러 설이 있다(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pp.55-59). 하북위례성의 위치는 중랑천으로, 하남위례성의 북성은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風納土城) 남성은 송파구 오륜동의 몽촌토성(夢村土城)으로 비정된다(김병남, 「백제 웅진천도 초기의 한강 유역상황」, 『한국사상과 문화』 26, 2004, pp.114-115 ; 김기섭, 「백제전기 도성에 관한 일고찰」, 『정제사학』 7, 1990, p.65 ; 이도학, 「백제 한성시기의 도성제에 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 1992, p.38 ; 이종욱, 「삼국사기에 나타난 초기 백제와 풍납토성」, 『서강인문논총』 12, 2000, p.135).

리고 사비 도읍기(538~660)로 구분한다.

최초에 시조인 온조(溫祚)가 한강 하류 지역에 도읍을 정할 때의 사정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비류와 온조는 …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 명의 신하가 간하였다. ‘하남의 땅은 북으로 한수(漢水)를 띠고, 동으로 높은 산을 의지했으며, 남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며, 서로는 큰 바다로 격하였으니, 그 천혜의 험준한 지리적 이점이 얻기에 어려운 지세라 여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³⁹⁾

온조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한 것은 신하의 말대로 한강이 외적에 대한 방어는 물론이고 비옥한 땅으로서 생산의 측면에서나 그 지형적 이점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인천)에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으므로 다시 위례성으로 와서 안정된 도읍을 보고 후회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한다.⁴⁰⁾ 백제의 초기 수도인 한성(漢城)은 그렇듯 지리적으로 수도로서 천혜의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었다. 물산과 교통,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한강 지역을 수도로 정하여 출발한 백제는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백제의 한성 도읍기(B.C. 18~475)에 도성방위체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¹⁾ 개로왕대 고구려의 침공에 의한 함락 기사로 미루어

39)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 1, 溫祚王.

40)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 1, 溫祚王. “沸流以彌鄒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41) 서정석,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 『한국사 시민강좌』 44, 2009, p.66.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의 양성 구조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한성 도읍기의 도성제도(都城制度)는 단일 궁성인 위례성에서 두 개의 궁성을 갖춘 한성으로 변천되었다고 이해된다. 전기에는 위례성인 풍납토성(風納土城)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과 이남에 아차성(阿且城)과 사성(蛇城)을 축조하여 도성 자체의 방어에 치중했으며, 후기에는 평상시 거성(居城)인 위례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후에 방어성으로서 몽촌토성(夢村土城)을 축조하는 등 도성 외곽의 방어시설을 강화하였다.⁴²⁾

전기 위례성인 풍납토성은 천혜의 방어지역인 한강을 끼고 위치한 판축



몽촌토성(문화재청)

토성으로 규모가 거
대하며 견고한 축조
기법으로 조성되었
다. 풍납토성은 한
강 남안에 위치한
둘레 약 3,500m의
토성으로서 판축성
(版築城)이고 기저
부 폭이 40m에 이
른다. 대체로 3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³⁾ 위례성은 주변의 아차성·사성과 함께 도성방위를 위한 핵심 시설이었다. 아차성은 한강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고, 삼성동토성으로 추정되는 사성은 도성의 서쪽에서 한강 하구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방어시설이었다. 이렇게 백제의 한성 도읍기 전기에는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42) 신희권, 「백제 한성도읍기 도성방어체계 연구」, 『향토서울』 86, 2014, pp.5-38.

43) 國立文化財研究所, 『風納土城 II』, 2002.

아차성과 사성이 도성방위를 위한 핵심방어시설로 활용되었다.

또한 백제 한성 도읍기 후기에는 평상시 거성인 위례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후에 방어성으로서의 몽촌토성을 축조하는 등 도성을 확대 정비하였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 남쪽의 얇은 구릉상에 축조된 둘레 2,285m의 토성으로 남한산 자락의 구릉을 이용하여 축성하고, 고지대에 망루를 설치함으로써 방어력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주변에 해자를 두르고 성벽 정상부나 외벽 단상(段上)에 목책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 축조 연대는 풍납토성보다 다소 뒤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⁴⁴⁾ 토성 내부에는 군사 지휘소와 군인들의 처소 등을 조성하여 유사시 피난성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한편 몽촌토성은 한산, 즉 한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풍납토성이 위례성 이라면 몽촌토성은 한성으로 『삼국사기』 근초고왕대의 기록에 따라 토성을 쌓아 왕이 거주하는 왕성이었다고 보는 것이다.⁴⁵⁾ 한성은 그 입지가 북쪽의 한강과 남쪽의 남한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충지였으므로 이에 덧붙여 한강 이남으로 삼성동토성(사성)에서 검단산까지 제방과 토성을 쌓아 강물의 범람으로부터 도성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한성도읍기 후기에 위례성과 몽촌토성의 양궁성(兩宮城), 한강과 제방, 남한산 일대의 산성으로 이루어진 도성방위체제가 형성되었다.⁴⁶⁾

본래 한강 유역은 일대에서 상당량의 농공구와 무기들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철산지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선진적인 철기문화의 중심지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철기의 보급 측면은 금강 유역이 한 걸음 앞서갔지만 사회적 생산력을 증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 유역의 철기문화가

44) 박순발,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2010, pp.121-152.

45)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年 ;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책계왕(여호규, 『漢城時期 百濟의 都城制와 防禦體系』, 『百濟研究』,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46) 신회권, 『백제 한성도읍기 도성방어체계 연구』, pp.31-32.

조금 늦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된 단조기술로 풍부한 농기구류를 제작했기에 가능하였다. 하남 미사리유적에서는 늦어도 4세기 무렵의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한강(서울시청)

발 흔적이 발견된다.

실제로 한강은 해상 교통로로서 중국-낙랑·대방-가야-왜를 잇는 통로로 각국의 발전에 긴요한 지역이었다.⁴⁷⁾ 백제

로서는 변진(弁辰)

구야국(狗耶國)의 풍

부한 철산지와 낙동강 유역의 정치체에 대한 관문으로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미추홀 집단을 병합하며 한강 하구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내륙지방,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 및 진(晉)과의 교역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다. 3세기 후반의 서진(西晉) 시기의 물품들이 서울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반면, 4세기 이후의 동진(東晉) 물품이 몽촌토성은 물론 풍납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한강 일대가 백제의 일원화된 대외 창구였음이 분명하다.⁴⁸⁾

이밖에도 백제 한성 도읍기에는 지방성 또한 등장한다.〈광개토왕릉비〉에는 백제성 58개를 획득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58개 성

47) 신라는 진흥왕대에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했는데, 한강 점령은 신라에게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 이외에 서해를 거쳐 직접 중국과 통할 수 있는 문호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신라는 남양만에 당항성이란 요새를 쌓아 이를 거점으로 564년 이래 거의 매년 중국의 진(陳)·북제(北齊) 두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신라의 성공적인 외교 관계의 기반은 한강 점령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pp.182-183).

48) 권오영,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6, 1995, p.27.

가운데 관미성(關彌城), 아단성(阿旦城), 미추성(彌鄒城) 등이 비정 가능할 뿐 나머지는 불확실하며, 그 지역도 종래 임진강(또는 예성강)과 한강 사이에서 오늘날 한강 이남의 인천 지역 일부를 포함한다. 심지어 아단성을 을아단현(乙阿旦縣, 지금의 단양 영춘)으로 연결하여 남한강 유역에 이르렀을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성의 실제 모습이 모호하며, 오두산성이나 아차산성·문학산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라성으로 조사되었는가 하면 포천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천 설성산성, 충주 장미산성 등은 석축 성벽으로 되어 있고, 성지에서는 백제 유물과 신라 유물이 동시에 출토되었다.⁴⁹⁾ 이로 인하여 한성기 백제 성은 대체로 목책(木柵)과 토성(土城)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⁰⁾ 대체로 임진강 주변의 육계토성을 비롯하여 길성리토성, 고모리산성, 월릉산성, 모락산성 등이 대표적인 토성이다.

다음으로 웅진·사비 도읍기(475~660)의 도성방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공략으로 인한 초기 한성으로부터 웅진(熊津, 지금의 공주)으로의 천도에서 비롯된다. 웅진성은 오늘날의 공산성에 비정되며, 해발 110m의 정상부와 그 서쪽에 있는 85m의 봉우리를 둘러싼 포곡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가 2,660m에 달한다. 외성과 내성이 있으며, 외성벽은 백제 때 축조된 것이나 내성벽은 후대에 축조되었다. 웅진 도성 가운데 왕궁의 위치는 논란이 있으며, 도성은 구조상 사비 도성과 유사하지만 평지의 시가지가 뚜렷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성 내부의 추정 왕궁지와 북쪽 계곡부의 성안마을에서 웅진·사비 도읍기의 건물지와 기타 시설이 확인되고 있다.⁵¹⁾ 결과적으로 웅진으로의 천도는 임시적인 수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백제의 도성방위체제는 포곡

49) 박성현, 「백제·신라 성곽의 발견」, 『한국군사사』 14, 육군본부, 2012, pp.206-207.

50)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 1, 濫祚王 11년 ;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仇首王 4년 ;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3, 蓋鹵王 15년 ;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東城王 23년.

51) 박성현, 「백제·신라 성곽의 발견」, pp.209-210.

식 산성의 지형상 이점을 이용한 임기응변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협소하여 얼마 후 63년이 지나 사비로 천도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제가 수도를 사비(泗泚)로 옮긴 것은 538년(성왕 16년)의 일인데,⁵²⁾ 사비성은 부소산성과 전체 시가지를 둘러싼 나성이 존재하여 도성으로서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었다. 도성의 중심은 해발 106m에 위치하고 있는 부소산성이다. 전체 둘레가 2,495m에 해당하는 포곡식 성이며, 평지 시가지 전체를 둘러싼 나성은 총 6.3km에 이르렀다. 축조 방식은 먼저 성벽 내측을 성토하고 다시 그 외부에 폭 약 4m 가량 할석이나 다듬은 돌로 석축 성벽을 쌓아 마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비성은 도성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면서 도성방위의 수비체계를 구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당서』 소정방전에서 당군이 사비 도성을 공격할 때 먼저 관(郭)으로 진입한 뒤에 성(城)을 포위했다고⁵³⁾ 한 것으로 보아 도성민의 거주 공간을 둘러싼 외곽과 지배자의 공간을 둘러싼 내성으로 이



부소산성(한국학중앙연구원)

루어진 성곽 구조였을 것이다. 특히 도성의 공간 구획을 5부 5방제를 기초로 도성 내부를 5부 5향으로 하고, 각 부에는 군사 500인을 상주시켜 달솔(達率)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한 것으로

52)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16년. “春, 移都於泗泚, 國號南扶餘.”

53) 『舊唐書』 권83, 「列傳」 33, 蘇定方. “顯慶五年, … 率師討百濟. … 定方自城山濟海, 至熊津江口, … 去城二十許里, 賊傾國來拒, 大戰破之, 殺虜萬餘人, 追奔入郭. … 定方進圍其城.”

보아 도성 내 지역적 통제가 실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달솔의 휘하에 놓여 있는 군사는 명목상으로는 도성 내부의 치안 등을 담당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이렇듯 백성들의 생활공간과 통치자의 궁성을 함께 아우른 백제 왕조의 사비 도성방어는 비교적 안정적인 군사방어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면모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전투 양상을 통하여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⁵⁵⁾

앞에서 백제의 지방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서는 도성과 조응하는 후기 백제의 지방성에 관하여 덧붙이고자 한다. 백제에서는 지방에 22개 담로를 설치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인데 담로에는 지방의 읍으로 치소가 있는 성과 더불어 왕의 자제나 종족들이 분거(分居)하고 있었다. 사비 도읍기에 지방은 5개 방(方)으로 편제하였고, 5방의 중심 성으로 5개 방성(方城: 고사성·득안성·지하성·도선성·웅진성)이 존재하였다.⁵⁶⁾ 또한 방 이하의 군(郡) 단위에도 군성(郡城)이 있어서 백제의 지방성은 모두 200여 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보면 백제의 방위전략과 도성방위는 427년(비유왕 1)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성으로 천도한 후 그 영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475년(개로왕 21)에 백제는 장수왕의 침공으로 국왕이 피살되고 수도 한성을 점령당함으로써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다.⁵⁷⁾ 웅진으로 긴급 천도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군사요충인 한산성의 방위력을 회복하고, 신

54) 고소진, 「백제 성왕대 사비천도와 도성」, 『계명사학』 21, 2010, pp.105-106.

55)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 나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56) 『周書』卷四十九, 「列傳」第四十一,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 故其地界東極新羅, 北接高句麗, 西南俱限大海, 東西四百五十里, 南北九百餘里.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遷津城.”)

57)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蓋鹵王 21년, “秋九月, 麗王巨璉帥兵三萬來圍王都莫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라와 맺은 나제동맹(羅齊同盟)을 493년(동성왕 15) 혼인관계를 통해 강화하면서⁵⁸⁾ 마침내 551년(성왕 29) 고구려가 점령한 한강 유역 일대를 탈환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백제의 도성방위체제(都城防衛體制)는 수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하여 한강권(漢江圈)에서 위협을 받아 한산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도성을 웅진과 사비로 천도하는 수세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해갔다. 도성방위라는 관점에서 최초 한강권에 도읍한 백제의 수도방위는 오히려 2개 상대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침공을 당하는 위협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천도한 웅진은 완전한 도성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야말로 임시적인 수도에 지나지 않았다.⁵⁹⁾ 금강과 통하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삼면은 산봉(山峯)이 에워싸고 있어 자연적인 방어벽을 이루지만 한성이나 신라의 경주보다 훨씬 좁은 곳이었다.⁶⁰⁾ 나성은 없었지만 공주라는 지역이 주변에 산봉이 에워싸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성과 같은 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웅진 도성은 결국 사비로 다시 천도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수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백제는 538년(성왕 16)에 사비로 천도했던 것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사비는 주변에 부소산성과 나성(羅城)을 쌓아 도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사비 지역은 분묘가 모두 나성과 백마강 외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백제에서도 경외매장(京外埋葬)을 시행하고 나성이 방어 기능뿐만

58) 백제·신라의 관계를 ‘나제동맹’으로 설정한 견해는 종래 433년으로 보는 견해(노중국, 『백제의 대외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등 다수)로부터 455년 군사동맹으로 진전되었다고 보는 견해(이우태,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밖에 474·475·541년을 동맹의 결성 시점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강민식, 『5세기~6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관계』,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최근에는 신라·백제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제한적으로 ‘군사협력체제’라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가야,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고대사탐구학회 공동학술대회), 2020, p.39을 참조.

59)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文周王 1·2년. “冬十月, 移都於熊津. 二年, 春二月,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

60) 서정석, 『백제 웅진 왕도와 대통사지』, 『한국사연구』 155, 2011, p.200.

아니라 수도와 그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기능했음을 말해준다.⁶¹⁾ 이때부터 백제의 도성방위체제가 5부·5항의 시행과 함께 일정한 수비체계(守備體系)를 갖추어 갔을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⁶²⁾

다. 신라 건국과 방위전략

신라의 모태는 진한 12국 중의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이었다. 사로국은



경주 월성 원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분지에 있었던 6개 읍락의 연합에 의해서 형성된 듯하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신라의 건국설화에 의하면, B.C. 57년 하늘에서 내려온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사로국에 살던 6촌(알천의 양

산촌, 돌산의 고허촌, 취산의 진지촌, 무산의 대수촌, 금산의 가리촌, 명활산의 고야촌)의 우두머리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나라를 세우고 서라벌 혹은 사로라 했다고 한다. 고조선(古朝鮮)이 멸망한 뒤 그 유민들이 무리지어 신라 지역으로 옮겨왔는데,⁶³⁾ 철제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았던 이들이(박혁거세 세력) 경주의 토착세력을 지배하면서 세운 국가가 신라였다.

신라는 남·동해안에 있던 울산과 동래 지역의 소국들을 정복했고, 동해

61) 전덕재, 「한국 고대의 왕경과 도성, 지방도시」, 『역사학보』 207, 2010, p.335.

62) 이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63)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始祖朴赫居世,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一曰闕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鶯山珍支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 …”

안과 낙동강 유역의 소국을 복속시켜 4세기 후반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신라의 수도 경주 지역은 삼국의 수도 가운데 가장 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중심 깊은 방어축을 형성하여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상 유리한 장점이 많았다. 신라의 수도방위는 지형적으로 삼국 가운데 가장 좋은 여건에 있었다. 신라에서 석성을 비롯한 군사적인 방어시설의 축조가 시기적으로 타국에 비해 늦은 것도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처음에 신라의 성곽은 토성이었다. 경주 월성, 대구 달성, 경산 임당토성 등이 그것이다. 신라에서 토성 축조는 470년 전후까지 계속되었다. 초기 신라의 왕성(王城)은 금성(金城)이라 하였다. B.C. 37(혁거세거서간 21)에 경성(京城)을 축조하고 이를 금성이라 한 것이다. B.C. 32(혁거세거서간 26)에 그곳에 궁실(宮室)을 짓고, A.D. 101(파사이사금 22) 2월에 월성(月城)을 축조하여 7월에 이거하였다⁶⁴⁾. 월성은 재성(在城)이라고도 했으며 그 길이는 1,023보에 이르렀다.⁶⁵⁾ 이후 4세기 중엽부터 경산이나 대구와 같은 신라권 지역에서 토성 축조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경주에서 사망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에 토성을 축조함으로써 더 먼 지역에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고 이해된다.⁶⁶⁾

대외관계 측면에서 보면, 신라는 눌지왕(417~458) 때 비로소 백제와 동맹을 체결하고 고구려의 정치적·군사적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백제의 동성왕과는 혼인동맹까지 맺어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며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였다. 지증왕(智證王, 500~514)은 파리·미실·진덕·골화 등 12성을 쌓아 국경수비를 튼튼히 하는 한편, 지방제도로 주군(州郡)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통치를 강

64)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1, 赫居世居西干·婆娑尼師今.

65) 박용운,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9, 2008, p.99.

66) 박성현, 「백제·신라 성곽의 발견」, p.224.

화하였다. 이사부를 등용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지방 영토를 경략하면서 내·외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중국의 북위(北魏)와도 502년과 508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교섭을 재개하여 120년간 단절된 대외 관계를 크게 진전시켰다. 이 시기에 신라의 석축 산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래의 토축과 함께 470년(자비마립간 13)에 완공된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신라 석축(石築) 산성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⁶⁷⁾ 석축의 축성으로 신라는 대외적인 침략에 대한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⁶⁸⁾

이렇듯 고대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는 가운데 법흥왕(法興王, 514~540)은 영토 확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부(兵部)를 설치(517)하고 군사를 장악하는 군 지휘체통을 확립하였다. 이제 신라의 군사조직과 군사시설의



경주 월성의 집단 관청 발굴지(문화재청)

발전적 토대를 기반으로 진흥왕(眞興王, 540~576) 집권기에 이르러 대외적인 팽창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550년 3월, 왕은 이 사부에게 군대를 주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각축전을 벌이던 도살성과 금현성을 함

67)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3年,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 三年訖功, 故名之.”

68) 최근 삼년산성의 축조 이유와 관련, 신라가 백제의 제안을 받아들여 삼년산성과 그 인근의 산성을 축조하여 고구려의 충주지역 군사거점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위가야는 삼년산성의 운용이 백제가 신라에게 고구려 군사거점을 견제하도록 하여 고구려 전력을 분산시키는 한편, 대(對)고구려 공세에 전력을 집중하는데 신라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위가야,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pp.50~54).

락시킨 뒤 그곳에 각각 1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켜 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금관가야를 멸한(532) 후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고령지방의 대가야를 병합(562)함으로써 660년간의 가야사를 종식시켰다. 이로써 기름진 낙동강 유역을 송두리째 차지하게 돼 국경을 사방으로 크게 넓히면서 대야주(大耶州)를 설치하여 가야 지역 통치의 중심으로 삼는 동시에 백제에 대한 방어의 전진기지로 삼았다.⁶⁹⁾ 신라는 이제 동북으로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여 안변(安邊)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함흥평야까지 진출하였다.

이 같은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은 도성방위(都城防衛) 차원에서 중심 깊은 방어축(防禦軸)의 건설과 성곽 등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6세기를 전후로 신라는 종래 6부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수립하며 수도의 행정구역단위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의 주군촌(州郡村) 편



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유물(경주문화재연구소)

제와 대비하여 종래 6부지역을 왕경(王京) 또는 왕도(王都)로 개편하였다. 6세기 중엽, 신라는 서천이나 남천, 북천변 및 늪지를 활발하게 개간하며 왕경 중심부의 주거 공간을 크게 확대하여 왕도가 제법 그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수도 경주 왕경에는 나성(羅城)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도성(都城)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왕도는 길이가 3,075보, 너비가 3,018보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는데, 이를 미터법(唐尺=29.4cm)로 환

6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興王.

산하면 각각 5,424m, 5,323m에 해당한다. 왕도의 중심인 월성을 기준으로 그 범위도 서쪽으로 서천, 동쪽으로 명활산성, 북쪽으로 황성동과 동천동에 이르렀고, 남쪽의 동편은 망덕사지, 서편은 포석정과 배리 사이를 경계로 할 정도였다. 왕도의 범위는 달구벌(達句伐,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다 포기한 다음인 689년(신문왕 9) 무렵에 다소 축소 조정되었다.⁷⁰⁾

특히 왕도 주변에 명활성을 석성(石城)으로 개축하고 기존의 남산토성(南山土城)에 대신하여 남산신성(南山新城)과 서형산성(西兄山城)을 축조한 것은 왕성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⁷¹⁾ 금성의 동남쪽에 월성(재성)을, 월성의 북쪽에 만월성을 축조하는 것과 함께 궁성이나 피난처로서 명활성(명활산성)과 남산성을 축조함으로써 왕성의 방위력을 보다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궁성 주변에 설치한 일련의 성(명활산성·남산신성·고허성)은 왕경을 방어하기 위한 나성(羅城)의 기능을 대신하는 보조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⁷²⁾ 이는 신라가 나성 축조 대신에 주변 지역의 성곽 정비를 통하여 도성방위(都城防衛)를 강화했음을 말해준다. 최근의 발굴 조사에서는 월성 주변에서 연못형 해자가 거론되고, 명활성 북문 인근에서는 치성(雉城)이 확인되었다. 초기 신라의 왕경이 평지성-산성의 이원구조를 이루어간 것이다.⁷³⁾

이러한 신라 왕성의 변화는 통일 후에 금성·월성·월궁지의 체제로 발전해갔다. 요컨대, 중고기 신라에서 평지의 월성과 동쪽으로 월성을 방어하

70) 전덕재, 「韓國 古代의 王京과 都城 地方都市」, 『역사학보』 207, 2010, pp.337-339.

71)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平王 “十三年, … 秋七月,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尺, 十五年, 秋七月, 改築明活城, 周三千步, 西兄山城, 周二千步.”

72) 최근 연구에 의하면, 6세기 중반 신라에서 왕궁 보조성으로 나성을 정비해 가다가 6세기 후반 사방의 산성에 군사기지를 둔 나성이 완비되었다고 한다. 왕경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나성, 예컨대 명활산성은 고구려의 평양성의 대성산성과 같은 기능을 하였고, 그 체성(體城)의 축조기법도 기단보축(基壇補築)으로 고구려와 관련성이 있다(박방룡, 「6세기 신라왕경의 제양상」,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6, 2005, pp.163-165).

73) 이동주,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19, pp.43-47.

는 명활산성 그리고 남산신성(南山新城)을 축조하여 월성의 서남쪽을 방어 하도록 하고, 이어서 진평왕~문무왕대를 거치며 왕경을 방어할 목적에서 경주 분지를 벗어나 산성을 축조함으로써 도성방위가 왕궁 자체에서 그 주변부 외곽의 산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대도시로서 왕경의 면모를 갖추었던 것이다.⁷⁴⁾

이렇게 신라의 도성방위가 강화된 것은 삼국통일전쟁 이후에 수반된 제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676년(문무왕 16)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경사(京師)의 성곽을 축조하려다가 의상(義湘)의 건의로 중단했지만⁷⁵⁾ 679



신라 왕경 발굴지(경주문화재연구소)

년(문무왕 19) 궁궐을 중수하고 동궁(東宮)을 건립한 다음에 각 문의 액호를 제정하고 남산신성까지 중축하였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사천왕사(四天王寺)도 창건하여⁷⁶⁾ 통일 왕국에 걸맞은 중국식 왕궁과 왕경으로 개조해

갔다.⁷⁷⁾ 왕도의 외곽인 낭산(狼山) 남록(南麓)의 신유림(新遊林)에 사천왕사를 세운 사실은 도성을 낭산 일대로 확장하고 이방(里坊) 구획을 단행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무왕(文武王, 661~680)의 조치가 신문왕(神文王代, 681~691)

74) 강현숙, 「동아시아 도성과 신라 왕경의 비교연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9, 2008, pp.211-212.

75) 『三國遺事』 권2, 「紀異·文虎王法敏」

76)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7, 文武王 19년 8월조.

77) 이영호, 「7세기 신라 왕경의 변화」,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26, 2005, p.212.

재위기에 달구벌로의 천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아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었다고 한다. 서라벌 자체가 군사적으로는 중심 깊은 최적의 방어지인 만큼 달구벌로 천도를 포기한 통일 신라는 군사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수비와 변경 방어를 강화하였다. 문무왕에서 신문왕대에 걸쳐 왕성을 월성 동남쪽의 남천-낭산 구간으로 이방(里坊)의 구획을 도모하고, 효소왕(孝昭王, 692-701) 재위기에 다시 낭산-명활산 구간까지 전면 확장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방의 구획으로 신라 수도는 동남쪽을 본피부(本彼部), 동쪽을 한기부(漢岐部), 북쪽을 습비부(習比部) 등으로 편제되고, 도성은 금성·월성·월궁지의 3궁 체제로 정비되었다.⁷⁸⁾ 이는 도성 중심부와 더불어 왕경(王京)으로 설정된 경주시 외곽의 6부지역을, 부(部)가 아닌 군(郡)으로 재편하며 왕경(王京)으로부터 분리시켜 왕기(王畿)로 설정한 사실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7세기 삼국통일 이후 왕궁의 주요 건물로 정전(正殿), 조원전(朝元殿), 숭례전(崇禮殿), 강무전(講武殿), 임해전(臨海殿) 등을 건축하고, 서시(西市)·남시(南市)의 개설과 함께 시가지를 확대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조방제(條坊制)를 본격 실시하여 중국식 9문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신라 도성은 중국식 왕궁과 왕경의 형태로 개조되었던 것이다.⁷⁹⁾

게다가 왕경은 행정 편제에 의해 부(部)-리(里)-방(坊) 형태를 띠었고, 왕기는 부(部)-리(里)-촌(村)이나 부(部)-촌(村) 형태를 띠었다. 결과적으로

78) 통일 후 신라는 왕권 강화를 확립하고자 달구벌 천도계획을 세웠으나 좌절되자 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그 대표적 인 것이 왕경 범위를 축소하면서 도시를 방(坊)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조치였다. 황룡사지 동쪽에서 확인된 방의 남북도로 중심축 간 거리는 172.5m, 동서도로 중심축 간 거리는 167.5m, 그리고 동천동 유적에서 발견된 방의 규모는 160×125m였다. 방내에 30여 채의 가옥이 존재하고 각 가옥마다 독자적으로 도로를 향해 문을 만들어 출입하였다. 신라의 방제(坊制)는 당(唐)과 달리, 정부가 주민들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방제를 통해 부랑자의 방내 거주를 차단하고 지방민의 무분별한 왕경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9세기 후반 현강왕대에 왕경에는 6개의 부(部), 55개의 리(里), 1,360개의 방(坊)이 존재했으며, 인구는 총 17만 8,000여 명이었다(전덕재, 『新羅 里坊制의 施行과 그 性格』, 『신라문화학술발표논문집』26, 2005, p.130).

79) 이영호, 「7세기 신라 왕경의 변화」, pp.191-200.



복원한 신라 왕경(박방룡 교수)

통일기 신라 왕경은 자연지리적 제한으로 인한 도성계획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웠지만 왕경 지역을 경주분지 내부로 축소하고 분지 가장자리에 사교(四郊)를 설치함으로써 외곽지역의 왕기와 함께 왕경-사교-왕기로 유교적 정치체제를 구현하는 일원적 공간 재편에 따른 도성제(都城制)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하겠다.⁸⁰⁾

이와 같은 변화는 도성방위 차원에서 신라 왕경체제가 차츰 후

일의 고려 도읍지에 들어서는 도성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으로써 유교적 정치이념에 부합하는 도성제를 구현해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준다.⁸¹⁾ 통일 이후, 신라군이 새로운 군제인 9서당(誓幢) 10정(停) 5주서(州誓) 체제에서 공성 무기인 운제(雲梯)나 충차(衝車) 등 특수장비를 갖춘 기술병(技術兵) 편성을 이루었다는 점은 도성제에 따른 수성전(守城戰) 중심의 도성방위체제를 강화해 간 방증이다.⁸²⁾ 백제인·고구려인·말갈인 군단까지 포함한 새로운 신라 군제에 지휘체계상으로 2명의 장군 휘하에 기·보병과 합

80) 여호규, 「新羅 都城의 空間構成과 王京制의 成立過程」, 『서울학연구』 18, 2002, pp.67-75. ; 이동주,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19, pp.167-233.

81) 박용운,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p.133 ; 신상화 외, 「고대 신라의 도성·경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6(7), 2001, pp.8-25.

82) 『守城錄』은 성방시설(城防施設)과 성시(城市)의 방어전법 등을 수록한 수성전(守城戰)에 관한 병법서다. 중국 남송대(南宋代, 960~1279)에 당(唐) 도성제(都城制)의 성립 이후 수성전법을 집성한 것이다. 특히 도시전(都市戰)에서 성지(城池)·성호(城壕)·화포(火炮)의 운용 등 공성작전(攻城作戰)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백기인, 『중국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152, 163-165).

계, 공성 장비인 운계·충차 등을 운영하며 수성전에 조응하는 부대편성을 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특히 기병 대 보병 비율을 3:2 정도로 한 기병 중심의 군 편성·운용 체계, 주군제(州軍制) 시행과정에서 소멸되었던 군진(軍鎭)의 재설치, 군사요충지나 변경방어를 위한 전국 요해처에 대한 성지 축성 등은 모두 도성방위와 연계된 전략전술 상의 변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⁸³⁾ 기병의 강화는 전술적으로 원거리에서 질주해 오는 적의 충격력을 완화하여 아군과 적군의 근접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성전에서 추격전으로 전세 이전하는 단계에서 퇴각하는 적을 요격하고 추격할 때 기동성을 발휘하며 적에게 결정타를 가하는 부대로 투입되는 병력이었기 때문이다.⁸⁴⁾

그런데 이런 변화 외에 통일 후 신라의 도성방위체제가 군사조직 편성과 뚜렷하게 연동되어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경덕왕(景德王, 742~764) 당시 왕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조직은 왕도 외곽을 방어하는 육기정(六畿停) 체제와 내부에서 방어하는 시위부(侍衛府, 獅子隊)로 재편된 것이었다.⁸⁵⁾ 육기정 체제는 허설화된 대당(大幢)의 군사 주둔지로 이름만 남아 있던 6개 정(停)을 재편하여 왕도의 외곽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인데, 육기정은 왕도를 지키는 6개의 군사조직을 갖추고서 왕도 주위의 성곽을 거점으로 이용하여 주변에서 일정 영역을 관할하고 왕도로 진입하

83) 백기인 외,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pp.114-115.

84)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중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2002, p.128, 주 5)를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청야전술(淸野戰術)과 이일대로(以逸待勞)를 전형적인 수성전의 전투방식의 일환으로 사용했는데, 고려 때는 견벽고수(堅壁固守)와 함께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추격전(追擊戰) 개념의 인병출격(引兵出擊), 곧 주·진을 근거로 하여 적 배후나 퇴각하는 적 후방을 교란·습격하는 전술로 기병 중심의 기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수성전에서 공세이전(攻勢移轉)으로 나아가는 개념을 운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서 부록의 〈용어해설〉에서 ‘수성전법’ 항목 참조.

85) 侍衛府와 獅子隊는 일종의 군사지휘부와 예하부대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시위부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신범규, 「신라 중고기 시위부의 역할과 배치 양상」, 『신라사학보』 47, 2019; 신범규, 「신라 중고기 시위부의 활동범위와 주둔지 운용」, 『한국사학보』 78, 2020.

는 교통로를 통제하면서 왕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반하여 시위부는 원래 왕실의 경호와 호종 및 궁궐 숙위·경비의 임무를 확장하여 왕도 안에서 최후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조직이 되었다. 육기정이 6개의 현(縣)급 지역 단위로 그 안에 군영을 두었다면 시위부는 왕도 안의 시가지에 군영을 두고 남산신성과 명활성을 주둔지로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⁸⁶⁾

이러한 통일 이후 신라의 군사적 변화는 실제로 신라군의 군제·지휘체계 등에서 당(唐)나라 제도·문물이 수용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예컨대, 신라 군율(軍律)과 군례(軍禮)는 진덕왕대 중국 문물제도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신라에서는 법흥왕대 율령 반포와 병부 설치로 ‘모모법(某某法)’ 형태의 법체계가 운영되었지만 진덕왕대 나당연합군이 형성되면서 당 군율(『唐律疏議』)이 신라 군율에 반영되었던 것이다.⁸⁷⁾ 군례(軍禮)에서 686년(신문왕 6) 당의 『정관례』·『개원례』와 연계되는 『길흥요례』를 수용한 후 문무왕대에 대열(大閱)·관사(觀射)·선조묘(先祖廟) 등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였다.⁸⁸⁾

제 2 절 고구려·백제 천도와 도성방위

수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간적 주축이다.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백제가 수도의 이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행한 반면, 신라는 초기 부족국가들을 통합한 이후 여전히 서라벌(경주)을 수도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신라와 달리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잦은 천도를 한 것은 각기 자국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한 만큼 고대국가의 수도 이전문제

86) 이문기, 「신라 경덕왕대에 재편된 왕도 방어 군사조직과 성곽의 활용」, 『신라문화』 34, 2009, p.141.

87) 신범규, 「6~7세기 新羅 軍律의 운용과 그 양상」,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88) 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한국사연구』 149, 2010.

는 왕조의 명운을 건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검토의 여지가 크다.

먼저 고구려의 수도 이전을 보면, 국가 건설기에 외침으로 인하여 임시로 수도를 옮긴 경우가 잦았다. 고구려의 천도는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이전이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리왕 때 졸본성에서



무용총 주실 좌벽 벽화(수렵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은 궁극적으로 군사적 방어는 물론 국가의 생산성이나 문화발전을 수도의 조건으로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더욱 안전하고 국력을 확장할 수 있는 수도는 평양성이었다. 고구려의 평

양 천도는 대동강 유역의 경제적 기반과 문화를 튼튼히 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북진을 적극 차단한다는 전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평양에서 고구려는 고대국가로서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배질서를 만들었다.

반면에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도를 이전하였다. 첫 번째 웅진으로의 천도는 전적으로 외압(外壓)에 의한 일방적인 이주였다. 웅진은 천험의 요새였지만 너무 협소했고 임기응변적인 천도였기에 각종 토목공사가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민심이반과 왕권의 실추로 정치 불안이 계속되었고, 결국 성왕은 사비로의 천도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사비에 수도를 둔 백제는 지도층이 우유부단했고, 신라와의 관계에서는 성급한 공세 위주의 전면전을 유발하였다. 게다가 대외관계에서 주변국의 지

지를 얻지 못한 채 고립을 자초하였다. 백제는 잦은 수도 천도와 연관되는 내·외치의 불안정, 염전사상, 왕권 강화를 위한 대외전쟁의 불균형적 수행 등 전반적인 ‘힘의 조절’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스스로를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

한편 신라는 시종일관 하나의 수도를 지켰다. 통일 이전에 이질적 집단을 병합한 역사적 경험의 축적 위에서 삼국 중 후발국이었지만 끝내는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신라가 통일 이후에도 수도를 천도하지 않아 한반도의 북방지역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신라는 삼국통일 후 조명(朝命)이 당군을 완전히 요동성으로 축출한 676년에서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한 935년까지 불과 259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8세기 중엽 이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신라의 통일 역량이 약화되었음을 볼 때, 기존의 외적으로 표출되었던 국세 팽창의 에너지가 내부로 투사된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 집단이 중국에는 정치적 실행행사의 주체로 전략해버린 것이나 수도 천도를 하지 않은 채 기왕의 내재된 내부적 모순에 빠져들게 된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⁸⁹⁾ 비단 삼국시대만이 아니라 수도를 설정하는 정도(定都)나 수도를 이전하는 천도(遷都)문제는 역사적으로 각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가. 고구려의 천도와 도성방위

고구려의 평양 천도 삼국시대에 한강은 처음에 백제 영토였으나 고구려

89)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휘문출판사, 1978, pp.183-184. : “신라의 수도 경주는 한반도의 동남 구석에 너무 치우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국가를 통치하기에는 불편이 많았고,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왕 때에는 달구벌로 천도하자는 의론이 있었지만 토착 귀족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 천도론의 좌절은 신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듯 수도가 봉요지지(蜂腰之地)에 위치했던 나라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의 수중에, 그리고 다시 백제를 거쳐 결국에는 신라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한강의 주인이 누구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삼국통일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한강 지역은 백제의 영토였을 때에는 그곳이 수도였지만, 삼국 간의 각축전이 전개되던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든지 간에 더 이상 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백제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내주고 남천(475)하여 천도할 당시,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 동북방 대성산(大城山) 일대로 옮겨 새 국도를 경영하던 상황이었다.⁹⁰⁾

고구려의 남쪽으로의 이동은 수대에 걸쳐 최초 도읍이던 졸본성에서 시작하여 국내성으로, 또 다시 평양성으로 이동한 것이었지만 그 위협은 백제와 신라에게 동시에 미쳤다. 고구려의 남천(南遷), 그것은 백제나 신라에게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삼국 간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는 위기의 시발이었다. 지형상 한강 일대는 한반도의 중심부(中心部, heartland)로서 삼국 간 패권전의 핵심적인 승부처가 될 만한 곳이었다.

사실 4세기 말 고대국가의 성장기에 이른 고구려는 남북으로 북방 제 민족과 백제·신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특히 북쪽의 중국세력에 의한 침략 위협은 고구려의 성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개토왕은 392년(광개토왕 2)에 전략거점인 관미성(關彌城)을 점령하고, 이듬해에는 백제의 관미성 수복전을 격퇴한 뒤에 평양에 9개 사찰과 남쪽 변방에 7개 성을 축조하는 한편, 409년(광개토왕 18)에 평양 동쪽 독산 등에 6개의 성을 축조하고 주민을 이주시켰다.⁹¹⁾ 이렇게 평양으로의 천도에 앞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그의 아들 장수왕이 즉위 15년인 427년(장수왕 15) 마침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⁹²⁾

90)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15년.

91)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2년 10월 ; 3년 8월 ; 18년 7월.

92)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15년.



안학궁지 남동문터(국립문화재연구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데, 당시는 지금의 평양성(장안성)이 아니라 대성산성 아래에 위치한 안학궁(安鶴宮)이었다.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후 도성제(都城制)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양지역에 남아 있는 유적을 근거로 평지성인 청암동토성과 산성인 대성산성(大城山城), 그리고 평지궁성인 안학궁성(安鶴宮城) 일대가 하나의 도성 권역을 이루었다. 이들 중에서 대성산성과 청암동 토성은 축조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대성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서 성벽 총 길이가 약 9.3km에 달하며, 방어성 기능 상 국내 도성의 환도성과 동일하며 행궁지도 발견되었다.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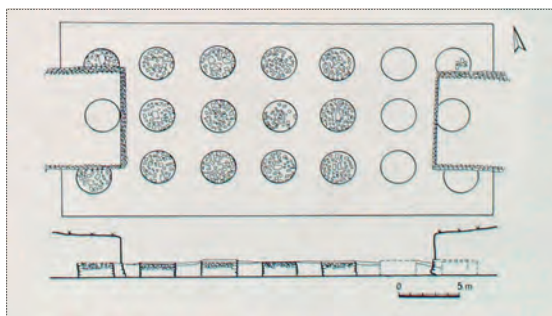
평지성인 안학궁성은 고구려식 도성제의 체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총 길이 2,488m로 쌓았으며, 성 밑에 해자(壕字)를 만들어 외침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궁궐로부터 750m 거리에 있는 대성산에 둘레 7,076m의 산성을 쌓았는데, 이 성은 소문산, 을지산, 장수산, 국사봉, 주작봉 등 여섯 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한 산성이다. 새로운 도읍인 평양은 국내성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고구려의 전통적인 성곽방어체계인 평지성(平地城)과 산성(山城)의 2성 체제를 갖추었다.⁹⁴⁾ 평지성은 도성 주

93)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2007, pp.11-12.

94) 6세기 후반에 축조된 평양성(장안성)은 외부 성곽 둘레가 약 16km에 달하며, 내성·중성·북성(이상 石城, 외성[土城])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을 합치면 성벽의 총연장 길이는 약 23km에 해당한다.

민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산성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한 전시 수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에 산성에 군수물자를 비축해두었다가 전시가 되면 즉시 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태세를 갖추는 방위체제였다.⁹⁵⁾ 이러한 평양성의 도성방위는 우선 요하로부터 평양성에 이르는 구간에 전연방어선, 종심방어체계, 도성의 외곽방어선 등을 겹겹이 구축했으며, 남부 방면에도 한반도 중남부로의 남진을 도모하면서 백제·신라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⁹⁶⁾

고구려가 이렇듯 새로운 수도로 대동강 일대의 평양을 설정했던 데에는



안학궁지 남서문터 실측도(국립문화재연구소)

이미 1세기 전에 고구려의 영역으로 복속된 이곳을 선진화된 조건으로 국가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 고려된 것이었다. 특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직전까지 요동

(遼東)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패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북위(北魏)의 동북방면 진출의 포기정책이 고구려로 하여금 북방경역을 남방경역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대륙지향의 북방경략을 일정 선으로 제한하고 남방경략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적인 영토경영을 하겠다는 판단이었다.⁹⁷⁾ 게다가 일찍이 대동강 일대가 고조선과 낙랑문화

95) 장학근, 『三國 統一의 軍事戰略』, pp.24-25.

96) 여호규, 「고구려 성곽과 방어체계의 변천」, 『한국군사사』 14, p.199.

97) 천도문제는 군사적인 면 외에도 고대국가의 수도가 갖는 정치·사회·문화적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할 사안이다. 평양 천도 관련해서는 임기환,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137, 2006을 참조.

의 중심지로서 선진문물이 발달한 곳이었으며, 농업생산성도 상당히 보장되는 곳이었다. 정치적으로 장수왕은 수도인 국내성을 떠나 대동강 일대로 천도하여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새로운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남진정책은 백제와 신라의 경계심을 강화하고, 삼국 간의 각축전을 본격화하는 도화선이 되었다.⁹⁸⁾ 대외정책으로 북위와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반도 경략에 치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륙 정세의 변화, 예컨대 수나 당이 부상하는 시기에 고구려의 대외 상황은 결국 남·북 양 측으로부터의 더욱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야 하였다. 고구려는 수·당의 침략을 제압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위기극복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외관계와 복합적으로 얽혀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삼국 간의 각축전에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대외침공에 다면적으로 노출되었고,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수도의 안정성이 보장된 반면에 정치적으로 귀족 간 내부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북방 경략과 그에 따른 남진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도의 지리적 환경이 정치 세력 간 대립 갈등에 직·간접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라 화랑도가 삼국통일 이후에 정치적 갈등요인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적대자에 대한 원력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고구려에서는 평양 천도가 대외적 안정을 보장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듯하지

98) 고구려가 427년 수도를 이전했다가 백제나 신라를 곧바로 침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침입에 대응하여 433년 나제동맹(羅濟同盟)을 결성했고, 이후 양국 동맹은 493년 혼인동맹(婚媾同盟)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형식적 동맹관계의 성격이 강했고, 특히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를 이용하여 고구려 압박에 대비하는 방책의 일환이었다. 후일 진흥왕 대에 고구려로부터 551년 백제-신라 연합군이 한강을 탈취한 후,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한강 상류를 신라에게 주었기 때문에 신라는 대중국 해상통로가 없었다. 진흥왕은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553년 7월 신라가 한강을 기습 점령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서인한, 『한국고대 군사전략』, pp.243-244, 264-265).

만 역설적이게도 내부갈등을 야기하는 정치환경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고구려의 왕조 말기에 일어난 연개소문의 쿠데타도 실상은 정치적 파열상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남생(男生)·남건(男建)의 분열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고구려의 내분 분열은 남생이 당에 원군을 청하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고구려 내분은 평양 천도 이후에 귀족연립체제 속에서 갈등을 계속해 온 무단정치의 최종 모습이 었다.⁹⁹⁾

수도 평양성 방어전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긴 후, 평양에 평지성인 안학궁성(安鶴宮城)과 인근의 대성산(大城山)에 산성을 쌓아 종래와 같이 전통적인 성곽방어의 형태인 평지성-산성의 2성 체제를 갖추었다. 평지성은 평상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었고, 산성은 전시에 외침에 대비하여 전시 수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전개된 고구려 최후의 전투인 평양성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 도성방위의 실제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군과 당군으로 구성된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660년 12월에 지휘부를 편성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 공략에 나섰다. 661년 4월에는 지휘부를 재편성하여 전체 35개 군(軍) 약 17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¹⁰⁰⁾ 나당연합군은 처음부터 고구려를 침공하고자 지휘부를 재편한 뒤 전열을 가다듬어 육군과 수군을 합해 대규모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수륙양면작전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다. 연합작전에는 소정방 외에 방효태·유백영·조계숙 등 백제 원정에 참가했던 당나라 장수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99) 백기인 외,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p.23 ; p.128.

100) 『資治通鑑』 권200, 『唐記』 16 高宗 龍朔 元年.

나당연합군이 재편성되면서 신라군은 661년 6월 태자 법민(法敏)이 무열왕에 이어 문무왕으로 즉위하자 당 측으로부터 고구려 원정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신라군은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7월 17일 지휘부를 편성하고, 웅산성(대덕 계족산성)의 백제 부흥군을 포위 공격해 점령하였다.¹⁰¹⁾ 그러나 충청지방에 병력을 집결한 채 북상 속도를 조절하며 잠시 정세를 관망하였다. 그런 사이에 당의 원정군은 요하를 건너 고구려 수비군들을 분산시키는 작전을 펼치면서 그 주력이 바다를 건너 평양성을 향해 진격하였다.

소정방(蘇定方)이 지휘하는 당군이 먼저 대동강의 방어선을 뚫고 8월 평양 일대의 마읍성을 빼앗아 평양성을 포위했다. 평양성이 농성하는 동안 연개소문은 아들 남생을 압록강 전선으로 보냈다. 북쪽의 적을 저지해 남쪽과 연결을 끊어 소정방 군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처음엔 남생군이 잘 막았지만 음력 9월이 지나 계필하력(契苾何力)군이 얼어붙은 압록강의 얼음을 타고 파죽지세로 돌진하면서 고구려군이 당군 앞에 무너졌다. 3만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남생은 겨우 목숨만 건졌다. 그런데 평양성이 포위된 채 당군이 유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당 고조의 철군 명령이 하달되었고, 당의 주력부대가 철수하였다.¹⁰²⁾

이렇게 당군이 갑자기 철수하게 된 것은, 고구려군이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지휘 아래 6개월에 걸쳐 효과적인 수성전술을 구사하며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저지하는 동안에 중국 대륙에서 서북지역 북방민족이 당의 군사력 공백을 이용하여 10만 대군(回紇軍)으로 남침해왔으므로 고구려 침공부대의 병력 일부를 차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⁰³⁾ 부대를 감소 편성한 당군이 고구려군을 향해 공성작전을 펼쳤지만 지역 부대가 전멸하고 지역

101)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6, 文武王 上 元年.

102)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下 20년.

103)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 1, 1994, p.334.

사령관마저 급사하는 등 당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662년 정월 연개소문이 사수(蛇水)에서 당군을 대파했는데, 남하하던 방효태군은 전멸했고 그 자신은 물론 13명의 아들과 휘하 군사 전원이 이국땅에서 주검이 되었다.¹⁰⁴⁾ 이제 당군은 겨우 소정방 부대로 공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겨울철로



임진강 일대(파주시청)

접어들면서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신라군의 도움을 받아 이듬해 662년 2월 고구려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⁵⁾ 이로써 663년부터 3년간 전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평양성을 지키는데 고구려군의 수성전술(守城戰術)이 주효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군의 도성방위를 위한 기본 전술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전략적인 산성방어체계에 이어지는 도성방위체제에 의한 성곽전이었다. 게다가 당이 현재 중앙아시아 회흘군(回紇軍)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것에는 연개소문이 회흘로 하여금 당을 공격하도록 유도한 외교적 성과가 곁들여졌다. 당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회흘도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틈을 노렸고,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또한 평양성 전투와 관련하여 당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이 전개한 연합작전의 일환인 군량수송작전도 간과해서는 안

104)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下 21년.

105) 『舊唐書』 권4, 「本紀」 4 高宗上 龍朔二年 三月.

된다. 당시 평양성의 소정방군은 식량의 부족과 폭설로 인한 고립상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신라군의 보급작전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군량의 보급작전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장 김유신이 직접 자원하였다. 그는 2000량의 수레에 쌀 4000석과 벼 2만여 석을 싣고 북상 길에 올랐다. 662년 1월 18일 풍수촌에서 길이 열여 군량을 소와 말에 옮겨 실었으며, 칠중하(七重河, 적성 임진강)를 건너 이현을 지날 무렵에 고구려군을 만나 격파하고 2월 1일 장새(獐塞, 수안)에 도착하였다. 눈보라 치는 몹시 추운 날씨로 동사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를 그대로 '노루의 목'처럼 길고 좌우가 막힌 고개에 도착하자 수송부대는 더 움직일 수 없었다. 이때 칠순에 가까운 김유신이 옷통을 벗어부치고 스스로 채찍을 휘두르면서 몸소 마차의 뒤를 밀고 나갔다고 전한다.¹⁰⁶⁾

수송작전 후반에 와서 김유신은 열기(裂起)와 구근(仇近)이 이끄는 15명의 특공대를 급파하였다. 당군과 연결한 신라군이 드디어 고구려의 저지선을 뚫고 통로를 열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정방에게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운반하여 가까운 거리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소정방이 글을 지어 답례하였다. 마침내 2월 6일 양오(楊嶼)에서 군량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 군량을 받은 소정방은 662년 3월 회흘군의 침공으로 막힌 육로 대신 병력을 해상을 통하여 이동함으로써 본국으로 성공리에 철수시킬 수 있었다.¹⁰⁷⁾

고구려와 당 나라의 전쟁이 소강상태를 지나 다시 나당연합군의 재원정으로 고구려가 멸망에 이른 것은 666년 연개소문 사후의 일이다. 연개소문

106) 『三國史記』 권42, 「列傳」 2 金庾信 中.

107) 『三國史記』 권42, 「列傳」 2 金庾信 中. “庾信營楊嶼, 遣解漢語者仁問良圖及子軍勝等, 達唐營, 以王旨餽軍糧, 定方以食盡兵疲, 不能力戰, 及得糧, 便廻唐, 良圖以兵八百人泛海還國.” 당의 고구려 원정에 실패와 보급문제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01, pp.44-47.

이 죽자 고구려에는 내분이 일어났다. 장자인 연남생이 대막리지를 승계했지만 남건·남산과의 대립으로 골육상쟁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성으로 탈출한 연남생은 아들 현성을 당에 급파해 지원을 요청했고, 연개소문의 아우인 연정토는 심복 부하 24명과 함께 12개 읍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하였다. 고구려는 급격히 항전 능력을 상실했고 나당연합군에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¹⁰⁸⁾

666년 12월에 당군이 다시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이번에는 끝장내겠다고 작심한 듯 고구려 원정에 한 맺힌 80세의 이세적(李世勣)을 내세웠다. 그러나 준비 관계로 원정 실행이 지체되었는데, 667년 7월에 신라의 문무왕이 대각간 김유신과 장군 30명을 거느리고 참전하였다.¹⁰⁹⁾ 그러나 신라군이 고구려의 국경선에 도착할 때까지도 당군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소식에 다시 되돌아와야 했다.

이해 9월, 당군이 마침내 막대한 전력으로 공격을 개시했는데 고구려군의 저항으로 겨우 신성(길림 무순 고이산성)을 차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인 신성이 함락되자 이세적이 지휘하는 주력부대가 북방의 16개 요충지를 차례로 점령하면서 당군의 압박이 거세어졌다. 당군은 국내성의 연남생군과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668년 2월 당의 설인귀군이 부여성(길림 사평시)을 공략해 1만 명의 고구려군을 무력화시켰다. 연남건은 5만을 급파했으나 때가 늦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연남건군은 설하수에서 당군을 만나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퇴하고 말았다. 부여 지역의 40여 성이 단체로 항복했고 주도권을 장악한 당군의 남진 속도가 빨라졌다.¹¹⁰⁾ 마지막 목표는 평양성이었다. 이해 6월, 신라군도 원정군 편성을 마치고 고구려로 떠났다. 이때 74세의 김유신이 — 풍병으로 출동하지는 못했지만 —

108) 백기인 외,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p.72.

109)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6, 文武王 上 7년.

110) 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p.196.

대당대총관(大幢大摠官)으로 임명되었다. 마침내 7월, 총사령관 김인문이 이끄는 신라군이 먼저 평양성 외곽에 도착하였다.¹¹¹⁾

이어 당군이 도착하자 9월 21일 연합군은 포위망을 구축했고 신라군은 평양성의 대문과 북문을 공략하였다. 전투는 대동강의 남교 다리에서도 벌어졌고 평양 주변의 여러 성에서도 치러졌다. 신라군의 공격을 받은 고구려군은 신라 군영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마침내 신라군은 평양성 내부까지 공략해 들어갔고 고구려군도 이를 격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연합군의 견고한 포위망에 고구려군은 결국 포위 1개월 만에 보장왕이 연남산 이하 98명의 지도자와 함께 백기를 들고나와 항복하고 말았다.¹¹²⁾

지금까지 고구려 최후의 전투인 수도 평양성 전투(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고구려의 도성방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전투의 양상을 볼 때 고구려는 평양성 방어전에서 도성 자체의 방어와 함께 도성외곽방어(都城外廓防禦)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내·외선 작전을 병행하는 2선 작전에 의한 수성전을 전개한 것이다. 고구려군은 이미 전투에서 661년 3만 명이 전사했고 667년 신성 함락 이후 설인귀 부대에 의해 5만 명의 군사가 궤멸된 상태였다. 그런가 하면 남소성·목저성·창암성 등이 차례로 함락되어 많은 손실이 있었고, 평양성 함락 후 보장왕 이하 20만여 명이 포로가 된 것으로 미루어 나당연합군에 비해 병력상 상당한 열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군은 전선의 신장(伸張)으로 작전에 제한을 받았고 신라군 역시 평양성 포위전에서 곧바로 평양성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

111)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6, 文武王 上. 한편 『三國史記』 권44, 「列傳」4 「金仁問」에는 신라군 수가 약 2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12)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下 27년.

113)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p.90.

지만 평양성은 그렇게 쉽게 함락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단번에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가 근 1개월간이나 지속되었던 것을 보면 고구려군의 수성방어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¹¹⁴⁾ 무엇보다 도성 자체의 방어전과 도성 외곽방어전으로 전선을 내선(內線)과 외선(外線)으로 이분화했고, 각 성에서 수성작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했다. 고구려는 전통적인 중심 깊은 성곽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를 최종적으로 도성방위까지 연계시켰던 것이 적군의 파상적인 공격력을 완충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고구려 군의 수성전에 대항한 나당연합군의 전술은 남북 협격에 의한 도성포위작전(都城包圍作戰)이었다. 포위작전은 적에게 활동의 공간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하여 아군에게 유리한 공격조건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최종적 단계의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성의 지세는 동서로 낭림산맥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평양을 끼고 서해로 흐르는 대동강과 평양 중부 일대에 높이 솟은 대성산이 위치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협격하는 것 자체가 포위작전의 효과를 배가하며 평양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여러 지역의 성들이 함락되고 나당연합군의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고구려 병사들이 평양성으로 몰려든 상황에서 보장왕이 남산(男産) 이하 98명과 함께 백기를 들어 항복했지만 남건(男建)과 승려 신성(信誠)이 적장과 대통하여 성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평양성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방어지로서 평양성의 장점을 엿보게 한다. 평양성은 견고했으며 도성방위체계의 근간인 평양성 구조는 난공불락이었다.

114) 고구려군의 강점은 이미 고구려-수 전쟁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로 활, 칼, 창 등을 사용하면서도 공성전의 특성상 '원사무기(遠射武器)', 즉 쇠뇌(弓弩)와 같은 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던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정동민,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양상」, 『한국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0, pp.86-89).

셋째, 고구려 입장에서 평양성 전투의 결정적 패인은 이군 스스로의 항복(降伏)에 의한 패배였다. 위에서 말한 첫째 항 및 둘째 항의 작전적 측면이 평양성 전투의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양성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은 최후의 요인은 내부 분열과 자체 붕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형적으로 유리한 방어지인 평양성도 결국 남북 협격에 의한 포위작전으로 말미암아 내부적 고립감에 시달리던 군사들의 동요와 불안이 자발적인 항복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이 곧바로 고구려 패망으로 귀결되었다.

나. 백제의 천도와 도성방위

웅진으로의 천도 한강 유역에 도성을 두고 한성(漢城)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백제는 이미 왕도 조직을 갖추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보면, 왕도 한성 내에는 왕성이 있었고 왕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었다. 왕도 내의 왕성에는 왕궁이 있었고 별궁도 있었다. 그리고 온조의 아버지인 동명을 모시는 동명묘(東明廟)와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남단(南壇)이 있었다. 정청(政廳)으로서 남당(南堂)과 여러 관부가 있었고, 왕과 귀족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는 사대(射臺)도 있었다. 왕궁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은 기와집이었다.¹¹⁵⁾

한성을 도읍으로 성장한 백제는 그 영토를 동으로 신라의 북쪽 변경과 북으로 대방, 남으로 마한을 정복하며 고대국가체제를 이루었다.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는 고구려 기병에 대항하여 산악전과 매복전으로 대응하면서 고구려군을 격파하며 전승을 거두곤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의 북방 요새인 치양(雉壤)으로 기습해오자 태자 근구수(近仇首)

115) 노중국,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한국사』 6, 1995, p.175.

에게 군사를 지휘하여 반격하게 하고, 고구려군의 경계가 약해진 틈을 공략하여 고구려군을 궤멸시켜 5천 명의 포로를 이끌고 귀환한 일이다.¹¹⁶⁾ 2년 후 고구려군이 재침했을 때도 패강 상류에서 매복전을 전개하여 기병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1만 명의 군대로 고구려 수도를 공략하여 고국원왕을 살해하고 회군하는 전과를 거두었다.¹¹⁷⁾

대외적으로 백제는 고구려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교책을 강구했는데, 신라와 433년(비유왕 7)에 맺은 나제동맹이 고구려 남진에 대응하는 기본 축이었다. 455년(개로왕 1)인 455년에 백제는 신라의 원병과 함께 고구려군을 격퇴했으며, 동왕 7년에는 왕제 곤지를 일본 하내(河内)의 근비조지방(近飛鳥地方)에 파견하여 유사시에 청병을 대비하여 외교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물길(勿吉)과도 연합하여 고구려를 측면에서 견제하는가 하면, 남조인 유송(劉宋)과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남조 일변도를 벗어나 고구려와 긴밀한 외교교섭을 맺고 있는 북위에도 국서를 보내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고구려 봉쇄망을 형성하려는 백제의 이 같은 전략은 도리어 고구려를 자극하여 화근이 되었다.¹¹⁸⁾

북방이 안정되자 고구려는 남쪽으로 눈을 돌렸다. 광개토대왕의 남진정책은 백제에게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위기로 다가왔다. 백제는 수륙양면 작전을 구사하는 고구려군에 밀려 예성강 방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신왕(阿莘王, 392~405)은 굴욕적인 강화회담 끝에 황해도 일원의 58개 성과 700여 개에 달하는 촌락을 내주었다. 게다가 개로왕(蓋鹵王, 455~475) 때에는 북위를 도와 고구려를 침공하도록 한 것이 탄로 나 급기

116)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4년.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117)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년. “高句麗舉兵來, 王聞之伏兵於淇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118) 양기석, 「한성 시대 후기의 정치적 변화」, 『한국사』 6, 1995, p.54.

야 장수왕이 직접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성을 함락하였다.¹¹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성은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왕도(王都)인 위례성이 한성으로 확장되어 도성(都城)의 모습을 갖춘 첫 번째 수도였다. 백제는 전기에는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 도성방위체제를 유지했고, 후기에는 배후에 방어성으로서 몽촌토성을 축조하여 도성방위를 강화하였다. 특히 몽촌토성은 성 외곽을 따라 물을 가둔 해자를 운영하였고, 하천과 제방 및 배후산성을 활용하여 한성 외곽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남한산성 자락의 구릉을 이용하여 토성을 축조하고 고지대에 망루를 설치함으로써 방어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군 지휘소와 군인들의 처소를 조성하여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성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¹²⁰⁾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고구려 장수왕의 친정으로 백제는 불의에 왕도 한성을 내주어야 했다. 당시 개로왕의 동생인 문주(文周)는 신라로부터 원병 1만 명을 얻어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개로왕이 전사하고 고구려군은 퇴각한 상태였다. 신라군에 대한 지원 요청은 433년(비유왕 7)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이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지만 구원병이 늦게 도착한 것이 전세의 향방을 갈라놓았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지체된 것인지 고구려군과의 격돌을 피하고자 신라군이 의도적으로 지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신라군은 출동으로 생색은 냈으나 나제동맹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고구려군이 백제군의 전진기지인 북성을 쳐 7일 만에 함락시킨 다음, 남성을 치자 백제의 개로왕이 성문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달아나다가 고구려군에게 생포되었다. 고구려 장수 결루(桀婁)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고 그 죄를 꾸짖어 포박한 후 아차성

119)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년 ;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63년.

120) 신희권, 「백제 한성도읍기 도성방어 체계 연구」, 『향토서술』 86, 2014, pp.22-31.

(阿且城) 밑으로 끌고 가 죽였다.¹²¹⁾ 이때 왕뿐만 아니라 태후·왕자들이 고구려군에 몰살당했고 신하 등 백제인 8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한성을 포함한 한강 유역 일대를 송두리째 고구려에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써 고구려 영토가 죽령·조령 일대로부터 남양만에 이르는 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에 구원 요청차 갔던 — 『송서』에 이름이 ‘여도’로 기록되어 있는 — 상좌평 여도(餘都)가 즉위하여 문주왕(文周王, 475~477)이 되었던 것이다.¹²²⁾ 그는 왕위에 오른 후 10월에 중신들의 보필을 받으면서 남쪽의 웅진(熊津, 공주)으로 도읍을 옮겼다. 웅진은 고구려군의 직접적인 예봉을 피하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새로운 도읍지가 되었다. 웅진 지역은 북으로 차령산맥과 금강에 둘러싸여 있고, 동으로는 계룡산이 있어 고구려와 신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는 천험의 요새였다. 이곳을 관통하여 흐르는 금강을 통하여 서해로 나갈 수 있었고, 또 남쪽에는 곡창인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관방뿐만 아니라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로서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¹²³⁾

그런데 최근에 웅진 천도를 단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공주 수춘리에서 금동관모가 부장된 고분군이 발견되면서 공주지역에 토대를 둔 재지세력(在地勢力)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수춘리 세력과 관련하여 공산성의 축조 시기가 백제의 웅진 천도 이전이나 이후이나 하는 것과 웅진시대의 왕궁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에 논란이 일었다. 공산성은 2,450m 정도로 삼국시대 산성 가운데 최대급에 속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121)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년.

122)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文周王 1년, “蓋鹵王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 麗兵雖退, 城破王死, 遂即位.”; 백기인 외,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pp.40-42.

123) 양기석, 「웅진 천도와 중흥」, 『한국사』 6, p.58.

는 점에서 공산성 남쪽 산기슭 일대를 왕궁지로 추정해왔으나, 왕궁으로 볼 만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산성의 서남쪽 쌍수정(雙樹亭)이라는 누각이 세워져 있는 주변에서 백제시대의 건물지 중에서 최대급에 속하는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이 건물지의 발견으로 공산성 서남쪽 지역이 남쪽의 산기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왕궁지로 부각되고 있다.¹²⁴⁾ 이런 사정을 말해주기라도 하듯이 웅진 천도 당시, 백제 조정은 한성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정착할 장소가 없어서 아산의 대두산성(大豆山城)과 직산의 새로운 위례성에 분산 거주시켰던 것이다.¹²⁵⁾

백제가 한성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475년(문주왕 원년)에 차령, 금강, 계룡산으로 둘러싸인 천험의 방어지 웅진으로 천도한 후, 성왕대 사비(泗泚)로 도읍을 다시 옮기기까지 웅진에 정도(定都)한 기간은 63년이었다.¹²⁶⁾ 하지만 웅진은 도성(都城)이라고 할 정도로 나성(羅城) 등 도성제(都城制)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후 나성과 관련한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웅진성의 동·서에 각각 또 하나씩의 보조 산성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¹²⁷⁾ 그러나 나성은 도성 방어를 위한 최후의 방어시설이자 도성제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도성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웅진 도성에서 나성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동편과 서편이 보조 산성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도성 전체를 둘러싼 유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나성이란 적어도 부여에서 볼 수 있는 사비시대의 나성처럼 기저부의 폭 넓이가 22m에 이르며, 그 축조방법은 석벽(石壁)이나 판축(版築) 기법에 의했고, 탄화목층(炭化木層) 등도 발견되는 대단한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124) 서정석,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 pp.68-71.

125)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文周王 2년.

126) 백제가 처음에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것은 475년(문주왕 1) 10월의 일이었고, 다시 사비로 천도한 것은 538년(성왕 16)년 1월의 일이었다(『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文周王 1년 ;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16년).

127) 성주탁, 「백제 웅진도성과 사비성 연구」, 『백제연구』, 1980.

유적이어야 하였다.¹²⁸⁾ 따라서 부분적인 삭토(削土)에 의한 지역을 고분(古墳)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편의주의적으로 나성으로 추정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다.¹²⁹⁾ 더군다나 웅진으로의 천도가 개로왕 전사 후 한 달 만에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왕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는 시일이 소요되었다.

결국 왕도의 중심성인 웅진성은 신축할 겨를이 없어서 문주왕과 동성왕 때에 걸쳐 증수했고,¹³⁰⁾ 왕권을 진작시키고자 토목공사를 추진했으나 재정 형편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운 도읍지의 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상실과 왕권의 실추로 웅진 천도 이후 정치 상황이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해씨(解氏)가 한강 이북에 있던 민호(民戶)를 대두성(大豆城, 아산~온양 사이)으로 옮겨 세력의 기반으로 삼아 고구려에 대한 항쟁에서 군사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를 통제하지 못한 문주왕이 해씨가 보낸 자객의 손에 쓰러졌다. 이에 새로운 한성(위례성)인 직산(稷山)에 기반을 둔 진씨(眞氏) 세력이 해씨의 권력독점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진씨와 해씨가 서로 경쟁하던 시기에 동성왕(東城王, 479~501)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수도권 주변의 연씨(燕氏)·백씨(苜氏)·사씨(沙氏) 등 신흥세력을 이용하여 상호 간 견제와 균형으로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2담로제도는 이런 재지세력(在地勢力)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성왕은 임류각(臨流閣) 건조 등 호화로운 토목공사를 벌여 민심을 잃었다. 그는 사비 천도의 계획을 세우고 날로 세력이 커지는 백가(苜加)를 축출하려다 원한을 사서 자객의 손에 피살되고 말았다.¹³¹⁾ 동성왕의

128) 윤무병, 「扶餘羅城發掘調査概報」, 1991, pp.5-8.

129) 유원재, 「웅진도성의 나성문제」, 『역사와 담론』 19·20, 1992, p.41.

130)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文周王 3년 2월 ;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7년 7월.

131)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22년. “春, 起臨流閣於宮東, 高五丈, 又穿池養奇禽, 諫臣抗疏, 不報, 恐有復諫者, 閉宮門.” ;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4 東城王 23년. “初王以苜加鎮加林城, 加不欲往, 辭以疾, 於不許, 是以怨王. 至是, 使人刺王, 至十二月乃斃.”

뒤를 이은 무령왕(501~523)이 백가를 토벌하고 정국을 안정시켰는데, 그는 국력을 회복시켜 동예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고구려군을 수차례 격퇴하였다. 501년(무령왕 1) 11월 달솔 우영(優永)을 보내 군사 5천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수곡성(水谷城, 신계)을 습격하는가 하면, 502년(무령왕 2) 11월에는 고구려의 변경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사주를 받은 말갈이 침공해 오자 5천 명의 군사로 이를 물리쳤고(503, 무령왕 3), 이듬해에는 고목성(高木城, 연천)에서 말갈군 6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고구려의 장수 고로(高老)가 말갈과 함께 쳐들어와 한성을 공략할 때(507, 무령왕 7)에도 이들을 격퇴하는 한편, 위천(葦川)의 북쪽에서 고구려군을 격파(512, 무령왕 12)하였다.¹³²⁾

이처럼 주변국인 고구려나 말갈의 침공을 격퇴한 무령왕은 점차 정국의 불안을 극복하면서 왕권을 회복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났다. 512년(무령왕 12) 이래 중국 남조인 양(梁)에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강화하고, 521년(무령왕 21)에는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의 관작을 받으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였다.¹³³⁾ 무령왕은 남방경영에도 주력했는데 이는 고구려에게 상실한 한강 유역을 대신할 새로운 농업생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남원·임실에서 하동에 이르는 섬진강 일대를 백제 영토로 귀속시켰고, 가야연맹을 친백제 세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¹³⁴⁾

사비로의 천도 백제는 성왕(聖王, 523~554) 집권기에 웅진을 떠나 천

132)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武寧王 원년, 2년, 3년, 6년, 7년, 12년.

133)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武寧王 12년 ; 21년. “十二月, 高祖詔册王曰, 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餘隆, 守藩海外, 遠修貢職, 迺誠款到, 朕有嘉焉, 宜率舊章, 授茲榮命, 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

134) 연민수, 「6세기 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동향」, 「新羅文化」7,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1990, p.119.

도를 단행하였다. 성왕은 밖으로 양나라로부터 봉책을 받고 조공하고 신라와도 사신을 교환하는 한편, 안으로 538년(성왕 16) 8월에 사비(泗水)로 도읍을 옮겨 백제의 웅비(雄飛)를 도모하였다.¹³⁵⁾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 지정학적으로 협소하여 도성으로 적당하지 못하던 웅진에서 새로운 도읍지로 선정된 사비로 천도한 것이다. 이로써 불의의 신라 침공으로 열렸던 백제의 웅진시대가 끝났다.



사비성(서인한, 동북아의 왕자를 꿈꾸다, p.256)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성왕의 사비 천도 결정은 결국 불안정한 정치의 혁신과 왕실의 내분 종식, 그리고 천도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고구려의 침략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성왕 즉위년인 523년 11월, 고구려군이 패수로 남진해왔는데, 성왕은 좌평 지충(志忠)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인솔하여 고구려군의 남하를 방어하게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위 7년이 되던 해인 529년 고구려의 안장왕이 친정하여 백제의 북방 변경인 혈성을 함락시켰다. 성왕은 좌평 연모(燕謨)에게 보기 3만을 주어 오곡 언덕(五穀之原)에서 남진해 오는 고구려군을 격퇴하도록 했으나 전사자만 2천여 명을 내고 패전하였다.¹³⁶⁾ 이러한 수도권 근처에서의 백제군 패전은 왕실과 귀족들에게 위기

135)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2年. “梁高祖詔, 冊王爲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3年 “春二月, 與新羅交聘.”; 16年 “春, 移都於泗水, 國號南扶餘.”

136)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元年 秋八月; 7年 冬十月.

의식을 고조시켰고, 이로 인하여 538년(성왕 16) 봄 성왕의 사비 천도 결정이 실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³⁷⁾

백제의 천도와 관련하여 일찍이 역사학자 천관우(千寬宇, 1925~1991)도 웅진도읍기의 정치 정세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점이 수도 이전(首都移轉)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¹³⁸⁾ 개로왕이 전사하고 한성이 함락되자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했지만 우유부단한 성품의 소유자인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병관좌평 해구(解仇)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이어서 13세의 삼근왕(三斤王, 477~479)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 역시 즉위 3년 만에 사망하였다. 이렇듯 불안정한 왕위는 정국의 변수로 작용하여 곧지계의 동성왕이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즉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무령왕의 이복동생인 동성왕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지방 지배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그 역시 가림성주 백가(苗加)에 의해서 피살되었는데 조정의 실권자였던 내신좌평 곤지와 삼근왕도 피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성왕이 피살된 이후 혼란을 수습하면서 무령왕이 즉위한 다음에는 그의 후손이 백제 말기까지 왕통을 계승하였다. 사비 천도를 단행한 성왕은 바로 무령왕의 적자였다. 백제는 음모와 직칙한 내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웅진 땅을 벗어나 국가와 왕실의 분위기를 일대 쇠신할 필요가 있었다. 국왕의 거듭된 피살과 내분의 종식을 통한 강력한 왕권의 확립, 그것이 바로 사비 천도의 한 이유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¹³⁹⁾

이런 정치적 배경에다 사비의 실제 지형적 여건은 넓은 평원과 백마강에 둘러싸여 외침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

137)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16년 春.

138)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1976, p.142.

139) 이도환, 「백제 사비 천도의 재검토」, 『동국사학』 39, 2003, pp.29~31.

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성왕은 천도와 더불어 국호를 남부여(南夫餘)로 개칭하고 웅진시대의 실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국력을 증대시켜 왕조의 증흥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는 22부의 중앙 관부와 5방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는 한편, 불교 진흥정책을 펼쳐 국민정신을 고양하고 양(梁)나 라나 왜(倭)와 화친을 강화하며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유역에 대한 구토수복전(舊土收復戰)을 전개하였다. 이렇듯 사비로의 천도는 16관등제와 22부사제의 실시, 왕도 5부제와 방군성제(方郡城制) 실시, 오제신(五帝神)과 구태묘(仇台廟)에 대한 제의(祭儀) 실시, 시호제(諡號制)의 정비와 무령왕계에 의한 왕위계승권 확립 및 대외관계의 강화 등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모색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¹⁴⁰⁾

흔히 사비 도성은 정비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성 전체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구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비 도성은 종래 5부(部)와 5항(巷)으로 나누어져 5부제가 실시되었고, 각 부 밑에 항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도성 내에는 금성산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5부와 5항이 자연부락처럼 도성 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로망이 직교하고 있어 도성 안을 일정한 계획하에 인위적으로 편제했을 가능성이 크며,¹⁴¹⁾ 자연부락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민가와 귀족의 집, 절터, 관공서, 시장 등이 자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하에 배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도시의 배치 구조상으로 사비 도성은 정치적인 상징성이 크게 드러난다. 성왕은 도성의 맨 북쪽에 왕궁과 관청을 배치하고, 그 남쪽으로는 일정한 원칙하에 귀족과 평민들이 거주하는 5부와 5항의 거주처를, 그리고 다시 도성의 한 가운데에 사원을 위치시킴으로써 세속과 종교를 넘나드는 절대

140) 양기석, 「백제의 사비 천도와 그 배경」, 『백제와 금강』, 2007, p.55.

141) 박순발, 「사비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백제연구』 31, 2000.

군주로서의 모습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엄격한 신분질서에 입각한 예치(禮治)를 꾀하며 웅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증흥을 꿈꾼 의지가 그대로 사비 도성의 구조에 반영된 것이다.¹⁴²⁾ 도성방위 차원에서 사비 도성은 도성 자체가 금강 이남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성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강남에 도읍을 정한 공통점이 있고,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도읍지를 조성하여 초기 백제의 한성과 유사하게 도성과 그 외곽방어를 동시에 강화하는 도성방위체제를 갖추었던 것이다.

백제는 사비로 천도한 후,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고토수복전쟁(故土收復戰爭)을 활기차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548년(성왕 26) 고구려의 양원왕이 한강 북쪽의 백제 영토인 독산성을 공격해오자 신라 원병과 연합하여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¹⁴³⁾ 550년 달기(達己)가 지휘하는 백제군 1만 명은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점령하고, 금현성(金峴城)에서 고구려 군사와 혈전을 벌였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북진을 단행하여 한성을 포함하여 한강 하류의 6군을 수복(551, 성왕 29)했는데, 이때 신라가 죽령과 고현 사이의 한강 상류 10군을 차지하였다.¹⁴⁴⁾ 그러나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긴 후 신라와 대결이 한층 격렬해졌고 양국동맹은 신라의 한강 하류 점령(553, 성왕 31)으로 인하여 파기되었다. 외형적으로는 나제동맹이었지만 양국은 실제로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신라의 동맹 파기에 분개한 성왕은 554년(성왕 32, 위덕왕 1) 대가야와 협력하여 신라에 대한 보복작전으로 신라의 군사적인 거점인 관산성(옥천)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김무력이 지휘하는 신라군에게 패하며 백제는 국왕 성왕이 전사하는 등 대대적인 참패를 당했다.¹⁴⁵⁾ 관산성 패전은 백제

142) 서정석,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 p.80.

143)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26년 정월.

144)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28년 정월 ;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12년.

145)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32년 7월 ;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15년.

의 부흥에 치명상을 입혔고, 한강 유역의 상실로 인한 삼국 쟁탈전의 주도권에 큰 변수를 제기하였다. 백제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고립되었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모든 방면이 신라에 포위되었다. 이에 백제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와 전면전을 치르고자 하였다. 특히 의자왕(義慈王, 641~660)에 이르러 그 대결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신라의 대야성(합천)을 비롯한 여러 성을 탈취하고,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대당(對唐) 교통로를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비로의 천도는 백제에 중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정치적 안정과 국력확장의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비시대의 백제는 삼국 간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왕조가 절박한 생존에 내몰리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적 발전과 외침방어가 유리한 사비 지역에서 왕조의 중흥을 피하며 고토수복전쟁을 전개한 백제 왕조는 그 과정에서 연합군인 신라의 배반으로 동맹관계가 깨졌고, 이에 성급하게 성왕이 신라에 대한 보복전을 전개하려다 관산성에서 패전함으로써 침몰 국면으로 내몰렸다. 백제는 다시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신라와의 전면전을 치르고자 했으나 대외관계의 실책으로 인해 결국 신라가 당의 지원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에 기초한 나당연합군에게 왕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 사비성 방어전 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642년(의자왕 2)부터 신라의 요충지 대야성 등 40여 성을 점령하고, 당·왜와는 공존을 모색하며 적대적이던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648년(의자왕 8) 신라

“秋七月，修築明活城，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逆戰失利，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及交戰，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急擊殺百濟王，於時諸軍乘勝大克之，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匹馬無反者。”

가 당과 군사동맹을 성사시키면서 무왕(武王, 600~641) 때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백제와 당의 입지가 많이 축소되었다. 652년(의자왕 12), 결국 백제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중단하고, 대신에 653년(의자왕 13)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655년(의자왕 15) 의자왕은 고구려·말갈과 연합해 신라 북쪽 변경 30여 성을 빼앗으며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해 3월, 당나라도 소정방을 앞세워 고구려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658년(의자왕 18) 6월에는 설인귀(薛仁貴)가, 그 이듬해 3월에는 계필하력(契苾何力)이 요동의 고구려 지역을 공격하였다.¹⁴⁶⁾ 백제와 고구려의 파상적인 공세에도 신라는 근 4년이나 단독으로 공방전을 치렀고, 당도 고구려의 후방을 견제하였다.

대외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자 신라는 659년(의자왕 19) 4월 당군이 서돌궐을 무찌를 무렵, 무열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하였다.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던 당 고종(高宗)은 660년(의자왕 20) 3월 육·해군 13만으로 백제를 공격하겠다고 나섰다.¹⁴⁷⁾ 총사령관은 소정방, 부사령관은 당에서 청병외교의 실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왕자 김인문(金仁問)이 맡기로 하였다. 당군은 660년 6월 산둥반도와 내주 항에서 출항하여 최단 거리의 서해안에 상륙하였다. 신라의 김법민이 전선 100척을 이끌고 덕물도(德物島, 웅진 덕적도)에서 합류하고, 대장군 김유신을 주축으로 한 신라의 김품일·김흠춘 장군 등이 신라군 5만 대군을 이끌었다. 사비성을 목표로 공격 개시일을 7월 10일로 하는 동서 협공에 의한 수륙양면작전(水陸兩面作戰)을 계획하였다.

7월 초, 백강(금강) 입구에서 당군이 백제군 저항을 뚫고 목표를 향

146) 『資治通鑑』 권 200, 唐記 16, 高宗 顯慶3.

147) 『三國史記』·『東國通鑑』 등 한국 측 자료에는 13만, 『資治通鑑』·『中國歷代戰爭史』 제8책 등 중국 측 기록에서는 1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서인한, 『나당전쟁사』, p.251).



황산성(한국학중앙연구원)

해 진격하였다. 당군은 육지에 상륙한 다음 육로로 이동하여 백제 수도 사비성으로 향하였다.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사태가 급해지자 의자왕은 장흥에 유배

중인 흥수(興首)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는 “백강에서 당군을 저지하고 탄현에서 신라의 진입을 차단한 후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지만 유배 중인 그가 선의의 제안을 했을 리 없다면서 믿지 않았다.¹⁴⁸⁾ 백제 지휘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신라군은 이미 탄현을 넘어 황산별(충남 연산)로 진입하고 있었다. 백제군은 소수 병력으로 신라군을 막고 당군을 저지·격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일본에도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출정은 3년이 지나 부흥군의 최후 일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제 백제는 계백(階伯) 장군에게 5천명의 결사대를 편성하게 하여 황산에서 신라군을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좌평 충상(忠常)과 달솔 상영(常永)도 대진했는데 백제군은 결사대를 좌군 1,500명, 우군 1,500명, 중군 2,000명으로 편성하였다.¹⁴⁹⁾ 7월 9일 황산에 먼저 도착한 백제군은 유리

148)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6 義慈王.

149) 황산별 전투에는 계백의 5천 결사대뿐만 아니라 좌평 충상(忠常)과 달솔 상영(常永) 등이 각각 독립된 부대를 이끌고 대진하였다. 이에 따라 3영의 군사도 1만 5천 명이었던 주장이 제기되었다(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별 전투의 현장」, 『역사교육』 91, 2004,

한 세 곳을 선점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신라군은 5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나 실제 보급부대를 제외하면 2만 3,000명이 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⁵⁰⁾

이날 이미 네 차례 접전을 치른 양군 간 전투는 잠시 중단되었으나 곧이어 다섯 번째 공격에 나선 신라군은 ‘화랑의 자살공격’이라는 새로운 작전을 전개하였다. 백제군의 시선을 한곳에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 우회공격을 시도하려는 전술이었다. 『삼국사기』에는 두 화랑이 적진으로 돌격해 장렬히 전사하자 신라 군사들이 감격해 죽기를 맹세하고 싸워 백제군을 대파했음을 전하고 있다.¹⁵¹⁾ 신라군은 계백군과 맞설 중군을 1만 7,000명으로 증원하여 병력의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고 그 여세를 몰아 계백군의 후면을 기습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연산천 동쪽의 백제군이 먼저 궤멸되었으며, 기습을 당한 계백군은 잔여 병력을 이끌고 사비 방면인 황성으로 후퇴하였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은 전사하고 충상과 상영 등 2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한편 당군도 7월 9일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날에 기벌포(伎伐浦, 충남 장항)에 상륙해 강변의 백제군을 휩쓸었다. 신라군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7월 11일 사비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연합작전은 차질이 불가피하였다.¹⁵²⁾ 소정방이 ‘작전 책임’ 운운하며 신라의 독군 김문영을 참수하려 하자 김유신은 황산 전투의 치열한 상황을 해명하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결국 12일로 공격개시일이 조정되었고, 이날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으로 진군하였다. 진격의 방향은 소부리벌로 그곳에는 백제군이 주둔하여 4개의 방어

pp.140-142. ; 서인한, 『한국 연합작전사』, 2009, p.53. ; 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 p.144).

150) 육군본부, 『위국헌신의 길』, 2004, pp.79-86.

151) 『三國史記』 권47, 「列傳」 7.

15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5 太宗武烈王 7년 7월. ; 『三國史記』 권42, 「列傳」 2 金庾信 中.

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다. 나당연합군은 병력을 4분하여 백제군을 개별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성 외곽 30여 리에 구축한 최후방어선을 무력화시켰다.

백제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소정방은 사비성 함락을 목표로 분명히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자왕은 전투를 포기하고 부소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성이 포위된 것을 알고 다시 태자와 함께 웅진성(공주)으로 탈출하였다. 그러나 끝내 사



황산벌 전투 상상도(전쟁기념관 소장)

비성의 왕족들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줄을 타고 성을 탈출하여 이 탈하자 들째 태자 태(泰)가 자립하여 왕이 되어 사비성을 지켰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민심이 크게 동요하며 마침내 수도 사비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였다.¹⁵³⁾ 소정방은 기회를 포착하여 전면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일부 당군의 병력이 백제 수비병을 격파하고 성에 올라 당군의 깃발을 세우자 백제군의 방어대형이 무너지면서 곧바로 성이 떨어졌다. 의자왕은 사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7월 18일 되돌아와 항복하였다.¹⁵⁴⁾ 9월 3일 의자왕과 네 아들은 88명의 장군과 1만 2000여 명의 백성

153)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6 義慈王.

154) 백제군의 군사조직은 평시에는 방성(防城)과 진성(鎭城) 및 변경의 요충지에 상비군이 배치되었고, 내지에는 군(郡) 단위로 성병(城兵)이 편제되었다. 전시가 되어 출전할 때 이들은 방을 군관구(軍管區)로 결집하여 방령군(方領軍)을 구성하였다. 방령군의 최고지휘자는 방령(方領)이었고, 지방군은 방령에 의해서 지휘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비 도성이 함락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웅진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군의 활동도 방령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 웅진방령 이식(禰植)이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졌다고 판단하고, 웅진방으로 피신한 왕과 태자를 사로잡아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이 백제 왕실의 최후가 되었다(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 pp.151-152).

과 함께 소정방군에게 이끌려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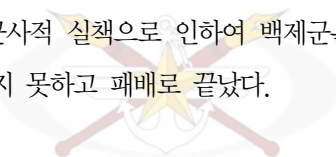
지금까지 백제 최후의 전투인 황산벌 전투와 수도 사비성 전투(사)를 살펴보았다. 백제의 도성방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전투의 양상을 볼 때 연합군의 상륙작전 및 신라군과 당군의 공조에 의한 남북 협격전이 펼쳐졌다. 이는 백제의 수도 위치가 서해에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고려한 작전이었다. 국내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비성은 고구려나 신라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깊은 중심을 갖는 지역에 위치한 것이지만 나당연합군(당군)이 직접 서해를 건너 상륙작전을 실시할 경우에 속전속결을 허용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었다. 백제 사비성 방어가 어려웠던 것은 서해를 건너 남에서 북으로 진격하는 당군의 주전투력과 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와서 백제군의 동북방을 압박하는 신라군의 협격이 전체 전장을 남북 협격하여 백제군을 포위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백제군은 도성방어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군을 맞닥뜨려야 했고, 체계적인 도성수비를 갖추지 못한 채 불완전한 수성전(守城戰)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내몰렸다.

둘째, 앞의 첫 번째 항의 조건으로 인하여 백제군은 최후의 도성방어전에 앞서 외곽지역에서 결사대에 의한 저지전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계백을 앞세운 결사대(5,000명)의 결전은 사실상 사비성 전투에서 가장 정점을 이룬 나당연합군과 백제 간 격전이었다. 그러나 당군에 의해서 기벌포 지역에서 백제군의 제1선이 무너졌고 이윽고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의 최후 저항 역시 장렬했지만 결국은 붕괴되었다. 이러한 사비성을 둘러싼 인근의 제1선이 단기간 안에 돌파됨으로써 사비성은 고립무원의 외로운 상태에서 적군의 전면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백제의 군사방어는 수적으로 중과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적으로도 나당연합군을 대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계백이 지휘한 백제의 결사대는 백제군의 강인한 전투의지와 군

인정신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군인상을 역사 속에 남겨 놓았다.

셋째, 최후의 사비성 전투는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보다 훨씬 간단하게 승부가 갈렸다. 백제의 최고 통수권자인 의자왕 자신이 부소산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웅진성으로 탈출한 것을 시작으로 귀족들도 차례로 성을 탈출해 나갔다. 그 상태에서 태자가 이끄는 수성군은 전투의지가 현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적과 대치해야만 하였다. 백제 측에서 협상전으로 나왔던 것은 적군의 예봉을 지연해보고자 한 시도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결국 소정방군의 전면 공격 앞에 백제군은 방어대형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허물어지고 말았다. 백제의 도성방어전은 전략적 기습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치러진 것이었고, 도성의곽방어를 위시한 지역방어에 치중한 나머지 수도방위에 집중하지 못한 군사적 실책으로 인하여 백제군은 적군과 상대할 만한 전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로 끝났다.



제 3 장 고려의 도성방위

제3장 고려의 도성방위

제1절 고려의 건국과 북진정책

한반도에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열리면서 태봉(泰封)을 세운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彌勒佛)이라 부르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미신적 불교와 참위사상에 빠져 횡포가 심했으므로 민심이 크게 이반되었다. 결국 휘하 장수였던 왕건(王建, 877~943)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高麗)’를 건국하였다.¹⁵⁵⁾ 고려라는 명칭은 본래 산고수려(山高水麗)한 국



태조 왕건의 동상(한국학중앙연구원)

토를 의미한다. 그 이름에는 옛 고구려를 계승한 정통국가라는 자부심이 내재한 것이었는데,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 중흥을 재현하겠다는 건국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태조는 왕위에 오른 다음 해인 919년(태조 2) 도읍을 송악(松嶽)으로 옮겼다.¹⁵⁶⁾ 송악은 그의 고향이자 풍수지리상으로 삼한의 통치자가 정도(定都)할 것이라는 예언이 널리 퍼져 있었다. 태조가 도읍을 송악으로 이전한 것은 풍수지리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송악이 기본

155) 『高麗史』 권1, 「世家」 1, 太祖 元年 6월 丙辰 “(戊寅)元年 夏六月 丙辰 卽位于布政殿, 國號高麗, 改元天授.”

156) 『高麗史』 권1, 「世家」 1, 太祖 2年 1월 “(己卯)二年 春正月 定都于松嶽之陽, 創宮闕, 置三省·六尚書官·九寺, 立市廛, 辨坊里, 分五部, 置六衛.”

적으로 자신의 성장 기반이었고 한반도의 중심부라는 지형상 요인 때문이었다.

잘 알다시피 신라는 통일 후에도 수도를 경주(慶州)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따라서 국세가 북쪽으로 퍼져나가지 못했고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데 크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 고려의 건국자 태조는 옛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포부 아래 한반도의 중앙부에 도읍을 정하고 평양을 서경으로 하여 북쪽으로 뻗어 나갈 경륜을 내세웠다.

수도 개성에 못지않게 태조는 서경(西京)인 평양(平壤)의 재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왕건의 포부는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중시하고 이를 개경(開京)과 연계시켜 장차 도읍으로까지 설정하고자 할 정도로 지대하였다. 그런데 고려가 건국할 무렵 평안도 일대는 여진족들이 부락 단위로 산거하여 평안도와 황해도 북쪽 지역이 불확실한 국경지대로 변모해 있었다. 왕건은 즉위와 동시에 평양을 북진정책의 전초기지로 삼고서 바로 황해도 북부와 평안도 지역을 개척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고려가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 왕건의 통치권이 미친 영역은 사실상 예성강 이남에 불과하였다. 그로 인해 북방고토(北方故土)를 회복하는 일은 삼국통일의 궁극적인 지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¹⁵⁷⁾

왕건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기초는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황해도 북쪽과 평안도 일대가 황폐하여 여진족이 출몰하여 변방 지역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나라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여 후세에 이익이 되도록 백성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민(徙民)의 실시는 북방정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평양의 개척과 연계되었다.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부터 왕건은 평양을 대도호(大都護)로 정하고 그의 종형인 왕식렴(王式廉) 등을 보내 지키게

157) 『高麗史節要』 권1, 태조원년 9월조. “平壤古都, 荒廢已久, 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 因而侵掠, 宜徙民實之, 以固蕃屏.”(『高麗史』 권1, 세가, 태조 원년 9월 병신); 『高麗史』 권2, 세가, 태조15년 5월조.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方, 平定三韓, 將都於此.”

했으며, 송악으로 천도한 후에도 평양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919년 10월 평양에 성을 쌓게 하고 이듬해에 북계를 순행하며 평양을 서경(西京)이라 부르고 양민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 평양에 서경을 설치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고구려 역사 계승이라는 왕조적 정체성 외에도 우선적으로 북방지역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고려 초 서경 건설 사업은 건국 이후부터 광종대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왕건은 서거 한 달 전인 943년 4월, 후대의 군왕들에게 내린 ‘훈요10조(訓要十條)’를 통해서 서경과 북방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¹⁵⁸⁾

이렇듯 고려 초기 상황에서 평양 개척을 위한 노력은 성곽(城郭) 수축으로 드러났다. 성곽 수축은 고구려 고토의 수복과 북변인(北蕃人)의 침략으로부터 고려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태조가 즉위한 이듬해부터 시작된 성곽 축조는 9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평양 재성(在城)은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을 보면서 요새화되었다. 938년(태조 21)에는 나성(羅城)을 축조하여 북진정책의 전진기지인 평양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는데,¹⁵⁹⁾ 재성과 나성의 축조는 여진으로부터 군사기지 평양을 지키려는 의지와 동시에 백성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겠다는 애민애토(愛民愛土) 사상이 반영된 조치였다.¹⁶⁰⁾ 특히 서경 건설은 비록 재변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순탄하지 않았지만 태조의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후대 국왕들에게 북진정책의 이정표가 되었다.¹⁶¹⁾

왕건의 북방영토(北方領土)에 관한 관념은 평양성 도성화(都城化) 사업

158) 『高麗史』 권2, 세가, 태조26년 4월, 상책. ;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혜안, 2019, p.219.

159) 『高麗史』 권1, 세가, 태조5년, “幸西京, 新置官府員史, 始築在城.”; 『高麗史』 권82, 지36, 병지2, 성보, “五年始築西京在城, 凡六年而畢.”; 『高麗史』 권2, 세가, 태조21년, “築西京羅城.”

160) 서경의 재성과 나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도, 「서경의 재성과 나성」, 『고려시대의 연구』 (개정판), 아세아문화사, 1980, pp.123-135를 참조.

161) 정해은,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59-61.

외에 대동강 이북과 청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성책(城柵)의 축조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축조가 주로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왕조의 변경(邊境)이 아직 분명하게 구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33년(덕종 2) 천리장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양계지역에서 축성은 고려 왕조의 영토의식 구현과 변경 구축이라는 국가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¹⁶²⁾ 서경이 북방 민족과 근접하여 방어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북방지역 축성을 그만큼 중요시한 까닭이었다.

〈표〉 북쪽 지역의 성곽 축조 현황

연 도	축성 지역
918(태조 1)	평양에 사민(徙民) 실시
919(태조 2)	평양(서경) 용강현
920(태조 3)	골암성(안변), 함중현, 안북부(안주)
921(태조 4)	운남현(영변)
922(태조 5)	서경 재성(6년 만에 완성)
925(태조 8)	성주(선천), 진국성(鎭國城, 숙천) • 태조 10년, 북계 순행시 진국성 → 통덕진으로 개명
928(태조 11)	안북부(안주), 진국성
929(태조 12)	안정진(수안), 영청진(영유), 안수진(개천), 흥덕진(은산)
930(태조 13)	연주(개천), 안북부(안주), 조양진(개천), 마산(안주진)
931(태조 14)	안북부, 강덕진(성천)
934(태조 17)	통해진(평원)
935(태조 18)	숙주(숙천)
937(태조 20)	순주(순천)
938(태조 21)	영청현(영유), 서경 나성(羅城), 양암(양덕), 용강현, 평원
939(태조 22)	숙주, 대안주(순천)
940(태조 23)	은주(은산)

* 출처: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pp.122-123.

162)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pp.71-72.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방지역 축성은 기마병(騎馬兵)을 운용하는 북방민족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였다. 고려가 북방의 여러 민족, 즉 거란·여진·몽골 등과 지난한 전쟁을 벌일 때 성곽은 실제로 중요한 관방시설로 이용되었다. 태조는 북방지역에 대하여 해마다 서경 등 북변을 순주(巡駐)하며 안북부를 설치하고, 용강·함중·자산·순안·은산·개천·숙천·양덕·성천 등지에 성진(城鎭)을 쌓았다.¹⁶³⁾ 축성 사업에서는 진(鎭)의 설치가 기본 토대가 되었으며, 본래 성(城)을 진(鎭)으로 개편한 것이거나 새로 성(城)을 쌓아 만들었다. 축성 지역은 평양에서 안주까지 평야지대가 주로 해당되었고, 중간 지점인 숙천, 순천, 영유, 자산, 은산 등지에도 성을 축조하여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요컨대 고려는 건국 직후인 920년부터 청천강 유역인 안북(안주)에 성을 쌓은 이래 931년(태조 14)에 부(府)를 설치하고 군대까지 파견함으로써 북방의 군사방어체계를 크게 강화시켰다.¹⁶⁴⁾ 청천강 상류 지역인 개천에도 성을 쌓아 청천강 방어선을 공고히 했으며, 서경에서 시작하여 청천강을 경계로 축차적으로 성·진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방위를 위해 중앙군까지 파견하여 주둔시켰다. 이로써 고려는 청천강 이남 지역을 행정·군사적으로 편입시켜 평양을 기점으로 북쪽 방어선을 크게 확장하기에 이르렀고, 여진족 등 주변의 북방 이민족에 대해서 엄격한 경계를 유지하는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제 2 절 고려의 도성방위체제

가. 도성 축조

정도와 도성 축조 태조 왕건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송악을 수도로

163)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122.

164) 『高麗史』 권58, 「地理」 3, 安北大都隲府, 「太祖14年 置安北府」.

정한 것은 태봉국의 궁예를 밀어내고 고려를 건국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이는 옛 수도 철원(鐵原)으로부터 송도(松都)로 이주한 데서 비롯된다. 919년(태조 2) 정월, 태조 왕건은 송악산 남쪽에 수도를 정하고 송악군을 개주(開州)로 승격시킨 다음, 궁궐과 시전을 세우고 10대 사찰을 창건하고 유시(油市)도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송악을 개경(開京)이라 불렀다. 개경은 고려가 멸망한 1392년까지 줄곧 고려의 수도로서 기능하였다. 다만, 몽골 침공으로 1232년(고종 19년) 6월부터 1270년(원종 11년) 5월까지 39년간은 — 강화(江華)로 천도한 기간으로 — 일시적이지만 수도로서의 기능이 유보되었다.¹⁶⁵⁾

그러나 실상 개경은 왕도로서 전국 통치행정과 물류체계의 중심에서 있지 못해 통치상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자연지세와 풍수적 형국도 수도의 입지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었다.¹⁶⁶⁾ 수세(水勢)가 성밖으로 유출되어 동강과 임진강으로 유입되고, 개경 내외 수류(水流)가 외수인 임진강과 합류할 때까지 줄곧 빠지고 물흐름이 급해져 강우기 자연재해에 취약하였다. 이렇게 수도의 입지조건이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개경을 도읍으로 삼은 것은 북으로는 황해·강원지역, 남으로 충청·경상지역의 중심에 입지하여 후삼국전쟁을 수행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송악은 후삼국 시대에 태봉과 후백제를 공략할 전진기지로 유리한 지역이었던 데다 고려 초창기 국왕의 정치적 기반인 패강진 지역에 인접한 곳이었다는 점이 왕도 설정에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개경(開京)은 개성(開城)이란 명칭 외에도 앞서서도 언급한 개주(開州)·

165) 고려의 천도와 관련하여 흥건적 제2차 침입 당시(1361)에 조정과 공민왕이 개경이 위협을 받자 충주(11, 28.)를 거쳐 복주(福州, 안동, 11월 미상)으로 76일간을 파천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본서에서 다루는 천도라는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서의 제3장 제2절 나. 도성방위체제의 형성 중에서 '도성방위체제와 수성전' 항목 참조.

166)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해안, 2018, pp.46-47.

황도(皇都) · 경성(京城) · 경도(京都) · 송도(松都)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고, 고구려 때는 부소갑(扶蘇岬)이라 했고 신라 때는 송악군(松嶽郡)이라 이름하였다. 이후에는 개주(開州)라 불렀다가 다시 개경(開京) 또는 황도(皇都)라고도 하였다.¹⁶⁷⁾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송악군과 개성군 2군에 걸쳐 개주(開州)가 설정되었다고 한 바와 같이,¹⁶⁸⁾ 그 범위가 옛 송악군을 중심으로 궁궐을 둘러쌌던 송악산 · 남산(男山) · 용수산을 비롯하여 시조설화 혹은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시설 등이 분포했던 지역까지를 포함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내(都內) · 성동(城東) · 성서(城西) · 성

남(城南) · 성북(城北) · 동교(東郊) · 서교(西郊) · 남교(南郊) · 북교(北郊) 등과 더불어 그 지리적 범위가 ‘도내(都內)와 교(郊)’로 양분되었다. 1029년(현종 20) 나성(羅城)이 건설된 이후에는 나성을 상징하는 도성(都城)과 그 주변의 동 · 서 · 남 · 북교 지역이 보다 분명해졌다.¹⁶⁹⁾

그런데 지형상 개경은 평지형 도시형태가 아니었으므로 정도할 당시에는 지형고저(地形高低)에 따라 국왕의 공간 · 관아시설 · 민거



신증동국여지승람(한국학중앙연구원)

167) 『高麗史』 권56, 「地理」1 王京開城府沿革, “王京開城府 本高句麗扶蘇岬 新羅改松嶽郡 太祖二年定都于松嶽之陽 爲開州創宮闕.”

16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上; 『高麗古都徵』 권1, 「國都考」開城府; 『高麗史』 권56, 地理1 王京開城府沿革.

169) 신안식, 「고려시기 개경 도성의 범위와 이용」,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p.264.

를 구획하였다. 풍수적 지세에 따라 궁궐은 지세상 높은 곳인 송악산록에 치우쳐 위치하고 도관·사찰은 궁궐 핵심부로부터 차츰 비껴난 평지에 입지하는 한편, 민거는 그 외곽 저지대에 배치하였다.¹⁷⁰⁾

『고려도경』에서도 개경의 형세에 대하여 “그 성(城)의 북쪽에는 송산(崧山)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형세는 서북쪽[乾亥]에서 시작되어 산등성이[山之脊]를 따라 내려오다가 점점 두 갈래로 나뉘어져, 다시 둥글게 모이니, 음양가(陰陽家)들은 이를 좌우에서 용과 호랑이가 뺨어내린 것[龍虎臂]이라고 한다. … 내려오는 등성은 서북 방향으로 떨어지는데[來崗亥落] 그 오른쪽에 산 하나가 꺾어져 서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돌아나가다가 정남(正南)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도 봉우리 하나가 엮어놓은 사발처럼 우뚝 솟아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안산(案山)이라고 부른다. 그 바깥에 또 안산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산은 높이가 두 배이면서도 좌향(坐向)이 서로 짝을 이루니 객산(客山)은 남방[丙]에 있고 주산(主山)은 북방[壬]에 있다. 그 물의 발원은 송산 뒤쪽에서 북쪽으로 정북[子位]을 향하다가 동북쪽[艮方]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¹⁷¹⁾

이렇게 개경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왕과 관련한 핵심 공간으로서 궁성을 지세가 높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왕권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국왕의 공사(公私)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구획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궁궐과 전각·정원·후원이 배치되어 국왕·후비의 정무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개경 궁궐이 위치한 궁성 안은 대내(大內) 혹은 대궐·궐내라 하였다.¹⁷²⁾

170)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p.67.

171)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 성읍(城邑), 지형(形勢), “其城北據崧山, 其勢自乾亥, 來至山之脊, 稍分爲兩岐, 更相環抱, 陰陽家, 謂之龍虎臂, 以五音論之, … 來崗亥落, 其右一山屈折, 自西而北, 轉至正南, 一峯特起狀如覆盂, 因以爲案, 外復有一案, 其山高倍, 坐向相應, 賓主丙壬, 其水發源, 自崧山之後, 北直子位, 轉至艮方.”

172)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p.179.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도성(都城) 제도가 『주례·동관고공기』에 따라 ‘면조후시(面朝後市)’ 원칙이 관철되었는데, 고려에서는 ‘면조’만 그대로 지켜졌다. 개경은 대궐 정문을 동쪽 광화문에 두어 그 내외에 관부를 배열한 결과 남향의 일반적인 면조와는 달랐다. 그리고 후시 역시 도성의 북쪽 끝인 송악산 남쪽에 정궁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관철될 수 없었다.¹⁷³⁾ 정궁은 일반적으로 정전(正殿), 편전(便殿), 침전(寢殿)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외에도 개경 일대에는 많은 별궁이 있었다. 왕의 별종과 그 자제들이 거처하는 곳은 모두 궁이라 하였다.¹⁷⁴⁾ 목종이나 현종대에 등장하는 수창궁(壽昌宮)이나 연경궁(延慶宮) 등이 대표적인 별궁이었다. 후일 강도로 천도했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을 때에 활용한 제상궁(堤上宮), 사판궁(沙坂宮), 수녕궁(壽寧宮) 등도 마찬가지다. 곧 개경의 궁궐 입지는 『주례』와 같이 정전-편전-침전을 남북 주축선 상에 일렬로 배치하지 않고, 광명천 수로를 따라 서북편에 건덕전 구역이 소재하였다. 건덕전 부근에는 편전으로서 선정전, 진사를 친제한 연영전각이 있고, 건덕전 뒤에는 만령전이 있었다. 천령전·만령전은 궁중·비빈·시녀가 거처하는 침전이였다.¹⁷⁵⁾

173) 김창현, 「고려 개경과 조선 한경의 구조 비교」, 『서울학연구』 LVIII, 2015, p.6. ; 『周禮注疏』 권 39, 「冬官考工記」 第6. “國有六職百工與居一焉. 或坐而論道, 或作而行之, 或審曲面執以飭五材以辨民器, 或通四方之珍異以資之, 或飭力以長地材, 或治絲麻以成之. 坐而論道謂之王公, 作而行之謂之士大夫, 審曲面執以飭五材以辨民器謂之百工, 通四方之珍異以資之謂之商旅, 飭力以長地財謂之農夫, 治絲麻以成之謂之婦功. …”

174) 『宣和奉使高麗圖經』 권6, 「궁전」 2.

175)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p.68.

〈표〉 개경 궁궐의 기능과 소재지

궁궐	기능	위치	규모	비고
회경전(會慶殿)	정전	창함문 내	전문, 기단 5장, 행랑 30칸	황제의 조서, 표문
건덕전(乾德殿)	편전	회경전 서북	5칸	
장화전(長和殿)	편전	회경전 뒤 북	양랑, 창고	
원덕전(元德殿)	편전	장화전 뒤	.	군대, 형벌처리
만령전(萬齡殿)	침전	건덕전 뒤	.	
장령전(長齡殿)	편전	건덕전 동쪽 자문(紫門) 내	전 3칸	북송 사신의 하례
장경전(長慶殿)	편전	.	.	북송 사신의 하례
연영전각(延英殿閣)	편전	장령전 북쪽	건덕전과 동일	전시(殿試)
자화전(慈和殿)	전각	.	.	연회
보문각(寶文閣)	전각	.	.	황제의 조서 보관
청연각(淸燕閣)	전각	.	.	도서 보관
임천각(臨川閣)	전각	회경전 서쪽 화동문(會門) 안	기둥4	서적 보관
장경궁(長慶宮)	.	유암산 기슭	.	사왕(嗣王) 조문
좌춘궁(左春宮)	.	회경전 동 춘덕문 안	편액 없음	.
우춘궁(右春宮)	.	승평문 밖 어사대 서	.	왕 자녀, 궁녀거처
계림궁(鷄林宮)	별궁	왕부 서쪽	.	국왕 형제 거처
부여궁(夫餘宮)	별궁	유암산 동쪽	.	"
진한궁(辰韓宮)	.	.	.	"
조선궁(朝鮮宮)	.	.	.	"
장안궁(長安宮)	.	.	.	"
낙랑궁(樂浪宮)	.	.	.	"
변한궁(弁韓宮)	.	.	.	"

* 출처 :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p.69.

도성의 방위시설 고려 수도 개경의 방위시설은 성곽의 축성과 맞물려져 있었다. 방어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성곽을 축성하고 정비하는 것이 왕조의 존립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방어시설의 주축은 성곽이었고, 개경의 안전은 도성은 물론 북방의 축성에 따른 축차적인 방어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고려의 기본 방위전략은 적군의 주요 침공지역인 요해처에 구축된 성곽, 천연장애물인 산이나 협곡, 강과 하천 등을 이용하여 축차적인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경으로부터 수도 개경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역에 축조한 성곽을 통해 중심 깊은 방어지대를 확보함으로써 도성 방위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경은 송악산에서부터 남쪽의 용수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지가 개경을 둘러싸고 있고 그 외곽으로 북쪽에 천마산(天摩山)·오관산(五冠山)·제석산(帝釋山), 동북쪽에 화장산(華藏山), 동남쪽에 진봉산(進鳳山), 그리고 서북쪽에 만수산(萬壽山) 등이 다시 둘러싸고 있다. 이렇듯 겹겹이 둘러싸인 산세의 지리적 조건은 개경이 입지선택에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군사적 방어를 증시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¹⁷⁶⁾

실제로 개경의 수도로서 방위시설은 정도(定都, 919) 이듬해에 궁궐로 받아들여참성(勃禦槩城)의 축성을 시작으로 현종대 나성(羅城) 축조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개경에 성곽을 축조하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은 아니었다. 이미 신라시대인 694년(효소왕 3) 송악군에 축성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고, 896년(진성여왕 10)에 왕건의 아버지 용건(龍建)이 궁예에 귀부하며 ‘송악에 축성’을 건의하자 궁예가 이를 따라 왕건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참성을 쌓게 하고 그를 성주로 삼은 일이 있었다.¹⁷⁷⁾ 게다가 898년(효공왕 1)에는 다시 송악

176) 전경숙,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p.425.

177) 『高麗史節要』 권1, 太祖 元年 6월 15일(丙辰) “世祖因說裔曰, “大王若欲王朝鮮肅慎下韓之地, 莫如先城松嶽, 以吾長子爲其主.” 裔從之, 使太祖築勃禦槩城, 仍爲城主.”

성(松嶽城)이 수증(修葺)되는 공사가 있었으므로 고려 초에는 기존의 성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었다.¹⁷⁸⁾ 게다가 북방의 거란·여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도 새로운 축성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고려 왕조는 정도(定都)와 동시에 궁궐을 창건하고 시전(市廛)을 세우며, 부(部)·방(坊)·리(里)를 나누는 등 수도의 각종 시설을 갖추었는데,¹⁷⁹⁾ 중요 시설은 발어참성 안에 두고, 발어참성의 중간쯤을 가로로 막아 비교적 평평한 지역인 하반부(下半部)를 황성(皇城)으로 삼았다. 그리고 새로 쌓은 그 황성벽(皇城壁)에서 10m쯤의 간격을 두고 만월대(滿月臺) 터에 각 궁궐을 축조하였다. 궁궐을 쌓는 과정에서 궁성(宮城)도 축조하고 시전(市廛)을 세웠다. 광종(光宗) 11년(960)에는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로 고쳤다. 현종대에 왕도는 송악현을 5부방리(五部坊里)로 분리하여 중심성을 부각하는 한편, 개성현을 지방으로 경기에 편성하여 그 분기가 뚜렷해졌다. 종전에 태조대의 왕도 개주(開州)가 중앙과 지방이 분리되지 않고 혼효되어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현상이었다.¹⁸⁰⁾

이런 과정을 거쳐 개경의 도성 건설은 현종대에 나성 축조로 말미암아 개경을 궁성-황성-나성으로 연결하는 3중성 방어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나성은 내·외성으로 된 성곽의 외부를 둘러쌓은 성을 말한다. 개경의 나성은 궁궐과 관청 및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산세를 이용하여 축성하는 것으로 현종 즉위년에 논의를 했으나 거란 침입과 김훈·최질의 반란 등으로 유보되다가 현종 20년(1029)에 가서야 완성하였다. 이로써 개경 도성은 도성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그 군사적 기능을 크게 증대시켰다.

고려 도성의 규모를 성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¹⁾

178) 『高麗史』 권56, 「地理」 1 王京開城府沿革.

179) 『高麗史』 권1, 世家 1 태조 2년 1월 ; 『高麗史節要』 권1, 태조 2년 1월 ; 『高麗史』 권56, 「地理」 1 王京開城府沿革.

180)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p.49.

〈표〉 고려시대 성곽의 규모

구분	규모	문수
궁성	둘레 2,170m, 동서 길이 373m, 남북 길이 725m, 넓이 25만㎡(약 7만 5천평)	4
황성	나각 2,600칸	20
	둘레 4,700m, 동서 길이 1,125m, 남북 길이 1,150m, 넓이 125만㎡(약 37만 8천평)	
나성	나각 13,000칸, 둘레 10,660보, 높이 27척, 두께 12척	대문4, 중문8, 소문13
	둘레(城周) 2만 9900보(혹은 1만 660보, 혹은 60리 ; 실측 23km), 동서 길이 5,200m, 남북 길이 6,000m, 넓이 2,470만㎡(약 747만 1천평)	

이러한 개경의 성곽 정비 후, 개경 궁성 내외로부터 황성 안, 황성 바깥의 일정 구간에 주요 관청이 배치되었다. 개경의 황성 안에는 중서성·추밀원·상서성·예빈성·팔관사·어사대·한림원 등이 있었고, 황성 밖에는 동문(정문)인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난 관도(官道)에 주요 관청이 늘어서 있었다.¹⁸²⁾ 특히 관도의 남쪽에는 병부가 형부·이부와 함께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중추원과 병부 등은 개경 방어를 담당한 군사기구로서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맡고 있었다. 중추원이 군령을 담당하는 기구였다면 병부는 국초부터 행정을 담당하는 군정기구였다.¹⁸³⁾ 이밖에 군사 사열 장소로서 격구경기가 자주 열리는 장소인 구정(毬庭)이 있었다. 구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군사훈련의 주요 수단이었기 때문에 회경전 앞에 펼쳐진 운동장인 구정은 군사훈련과 국왕의 통수권을 확인시키는 강무(講武)·열병(閱兵)의 공간으로서 군사적 기능을 위한 장소였다.¹⁸⁴⁾

181) 전경숙,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p.425. ; 전통철, 「고려 개경성에 관한 연구 (1)(2)」, 『역사과학』 2·3, 1980,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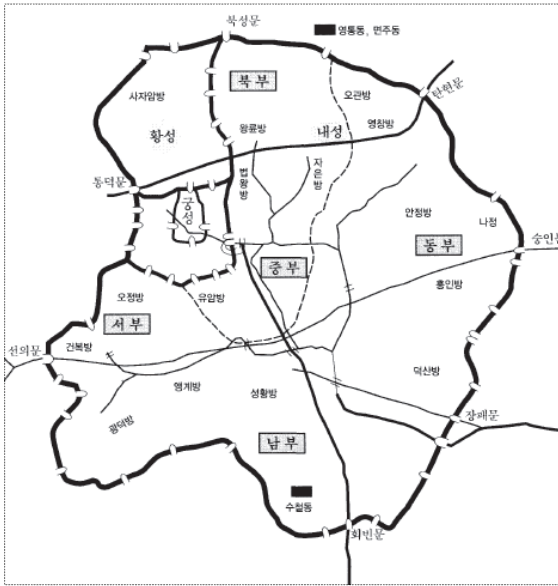
182)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6, 「官府」

183) 『高麗史』 권1, 태조 원년 6월 辛酉.

184) 전경숙,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p.413.

이리하여 나성을 기준으로 도성의 안팎이 명확해졌고, 도성 안을 중심

으로 하는 5부방리가 구획되었다. 고려 도성의 면모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성종(成宗) 6년(987)에 5부 방리(坊里)를 다시 정한데 이어서 동왕 14년(995)에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적현(赤縣) 6개와 기현(畿縣) 7개를 관할하였다.¹⁸⁵⁾ 이후



개경의 5부방리제(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p.80)

현종(顯宗) 9년(1018)

에 부(府)를 없애 왕경개성부(王京開城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개성현 관할과 3현, 장단현 관할과 4현을 모두 관할하게 하였다. 즉 개성에 현령(縣令)을 두어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세 현(縣)을 관할하고, 장단(長湍)에 현령을 두어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개 현을 관할하게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키고, 이를 경기(京畿)라 불렀다.¹⁸⁶⁾ 이로써 경기도에 도성이 포함되고 송악현이 왕경5부(王京五部)로 분리, 독립하였고, 도

185) 『高麗史』 권3, 「世家」 3, 성종 6년 10월 ; 『高麗古都徵』 권1, 「國都考」 3 ; 『高麗史節要』 권2, 성종 14년 추칠월.
 186) 『高麗史』 권75, 「志」 26, 29 ; 『高麗史』 권75, 「選舉」 3.

성의 공간 중심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경기가 지방으로 명확하게 분기되었다.

한편 현종 15년(1024)에는 경성(京城)의 5부 방리가 정해졌다.¹⁸⁷⁾ 동부(東部)는 방(坊)이 7개, 리(里)가 70개인데 7방은 안정방(安定坊)·봉향방(奉香坊)·영창방(永昌坊)·송령방(松令坊)·양제방(楊堤坊)·창령방(倉令坊)·홍인방(弘仁坊)이라 하였다. 남부(南部)는 방이 5개, 리가 71개인데 5방은 덕수방(德水坊)·덕풍방(德豐坊)·안흥방(安興坊)·덕산방(德山坊)·안신방(安申坊)이라 하였다. 또한 서부(西部)는 방이 5개, 리가 81개인데 5방

〈표〉 개경의 5부 방리제

부명	방수	방 명	리수	방당리수
동부	7	안정(安定), 봉향(奉香), 영창(永昌), 송령(松令), 양제(楊堤), 창령(倉令), 홍인(弘仁)	70	10
남부	5	덕수(德水), 덕풍(德豐), 안흥(安興), 덕산(德山), 안갑(安甲)	71	15
서부	5	삼송(森松), 오정(五正), 건복(建福), 진안(鎭安), 향천(香川)	81	16
북부	10	정원(正元), 법왕(法王), 흥국(興國), 오관(五冠), 자운(紫雲), 왕륜(王輪), 제상(堤上), 사내(舍乃), 사자암(師子岩), 내천왕(內天王)	47	4-5
중부	8	남계(南溪), 흥원(興元), 홍도(弘道), 앵계(鶯溪), 유암(由岩), 변양(變羊), 광덕(廣德), 성화(星化)	75	9-10

* 출처 :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p.81.

187) 『高麗史節要』 권3, 현종 15년.

은 삼송방(森松坊)·오정방(五正坊)·건복방(乾福坊)·진안방(鎭安坊)·향천방(香川坊)이라고 했으며, 북부(北部)는 방이 10개, 리가 47개인데 10방은 정원방(正元坊)·법왕방(法王坊)·흥국방(興國坊)·오관방(五冠坊)·자운방(慈雲坊)·왕륜방(王輪坊)·제상방(堤上坊)·사내방(舍乃坊)·사자암방(師子岩坊)·내천왕방(內天王坊)이라 하였다. 그리고 중부(中部)는 방이 8개, 리가 75개인데 8방은 남계방(南溪坊)·흥원방(興元坊)·홍도방(弘道坊)·앵계방(鶯溪坊)·유암방(由岩坊)·변양방(變羊坊)·광덕방(廣德坊)·성화방(星化坊)이라 하였다.

경성의 5부 방리제가 시행된 후, 문종(文宗) 16년(1062)에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가 복치되면서 개성현에 위치한 개성부가 지방인 경기를 관할하게 되었다.¹⁸⁸⁾ 이에 따라 개경의 통치체제는 5부방리(五部坊里)와 개성부(開城府)가 각각 이원적으로 운영되었고, 도성(都省)이 관장하던 11현은 모두 왕경개성부로 예속되었다. 충렬왕(忠烈王) 34년(1308)에는 부윤(府尹) 이하의 관리를 두어 도성 안을 관장했으며 개성현(開城縣)을 따로 도성 바깥에 두었다. 그리고 공민왕(恭愍王) 7년(1358)에 이르러 송도(松都)의 외성(外城)을 수리하고,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경기를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었다.¹⁸⁹⁾

이러한 수도 개경의 성곽 축조는 지방의 성곽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개경의 성곽이 궁성·황성·나성의 3중 성곽체제로 이루어진 반면, 지방에서는 단일 성곽이거나 중성(重城)과 외성(外城)의 2중 성곽체제를 이루었다.¹⁹⁰⁾ 개경의 성곽이 3중성이었다는 점은 도성방위가 방어의 최종단계인

188) 『高麗史』 권76, 「百官」 1 開城府.

189) 『高麗史』 권56, 「地理」 1 王京開城府沿革.

190) 고려조에서 성곽 축조는 태조대부터 현종대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대개 동계·북계 지역에 위치하였다. 성곽은 단일 성곽이나 중성(重城)을 쌓은 2중성 구조를 이루었다. 시설로는 성문·수구·성두를 갖추었고, 그 외곽에는 차성(遮城)이나 보자(堡子)를 두었다. 반면에 개경은 궁성-황성-나성, 서경은 궁성-황성-나성, 강도는 궁성-중성(中城)-외성의 3중성 구조를 이루었다(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pp.15-16).

만큼 군사적으로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 높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개경의 성곽은 도시의 골격을 갖추었고 왕조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경의 궁성·황성·나성의 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¹⁹¹⁾

나. 도성방위체제의 형성

도성방위의 군사 운영 고려의 도성방위는 앞에서 살펴본 궁성, 황성, 나성 등으로 이루어진 성곽 중심의 군사방어체계였다. 일반적으로 해가 지면 성문을 닫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도성 내 통행을 금지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도성 주변의 거주민들을 성안에 모아 도성 군사와 함께 적 침입을 막는 방어태세를 유지하였다. 병력 편성은 전시와 평시가 달랐다. 군제 상으로 중앙군인 2군 6위의 병력과 지방군인 주진군·주현군 병력으로 국가의 방위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시에는 이를 5군으로 부대를 재편하여 전쟁을 수행한 반면,¹⁹²⁾ 평시에는 도성방위만을 위한 별도의 경계 및 수비를 담당하는 숙위체제를 운영하였다. 도성방위에서 궁성을 시위하는 병력은 각 고을에서 풍채가 있는 자를 뽑아 입시하게 했고, 항상 자춧빛 옷을 입고 활이나 칼과 창을 휴대한 채 4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¹⁹³⁾

평상시 도성 방위를 담당하는 숙위 병력은 크게 위숙군(圍宿軍), 간수군(看守軍), 검점군(檢點軍) 세 분류로 나뉘었다. 위숙군은 개경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궁과 성문이나 몇몇 사원에 배치되어 도성을 수비하는 핵심 군사였고, 간수군과 검점군은 도성 주변의 관부나 시장이나 골목 등을 점검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였다. 간수군은 각 관부에 부속된 병력이었고, 검점군

191) 신안식, 「고려 강도시기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군사』 76, 2010, p.31.

192) 『高麗史』 卷81, 「志」35, 兵1 兵制.

193) 『高麗史』 卷82, 36, 兵2, 宿衛, 成宗 원년 6월조 ; 文宗 18년 6월조 ; 毅宗 21년 정월조 ; 忠烈王 원년 정월조.

은 도성 내의 특정 지역·시설과 소방업무의 관할이나 시장 및 골목의 점검을 비롯하여 가구의 감행(監行), 5부 점검·4교 세작(細作)을 수립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병력수는 위숙군이 총 493명이었고, 간수군은 416명을, 검점군은 491명을 각각 운용하였다. 그 구성은 대체로 장상(將相)·산직장상(散職將相)·장교(將校) 외에 군인(軍人) 등으로 혼합 편성되었다.¹⁹⁴⁾

이들 가운데 위숙군이 궁성과 황성 및 나성문 등 도성방위를 주요 시설의 경계 및 수비 병력이었다. 다만 사원 진전(眞殿) 배치 병력(26명), 각릉 배치 병력(146명)을 제외하면,¹⁹⁵⁾ 각 성과 성문에 배치된 순수한 성곽 수비 병력은 321명이었다. 위숙군의 도성방위를 위한 기본 배치를 『고려사』의 「병지·숙위군」에 의해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⁶⁾



〈표〉 각 궁 및 성문 수비 병력

궁/성문	배치 병력	계
광화문(廣化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사장교(職事將校) 6, 산직장상(散職將相) 6, 감문위군(監門衛軍) 5 • 광화문 사지(事知): 장교 1, 감문위군 2, • 광화문 수구(水口): 장교 1 	21
통양문(通陽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44
주작문(朱雀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안상문(安祥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연추문(延秋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194) 『高麗史』 卷83, 「志」37, 兵3.

195) ①사원 진전 병력(26명): 安和寺·弘圓寺·興王寺·天壽寺·大雲寺·重光寺·弘護寺·玄化寺·國淸寺·崇教寺·乾元寺에 散職將相 각 2명, 奉恩寺에 4명. ②각릉 병력(146명): 深陵·良陵·壽陵·宣陵·濟陵·懷陵·明陵·隱陵·德陵·貞陵·齊陵·質陵·宜陵·永陵·定陵·豐陵·成陵·慈陵·穆陵·戴陵·昌陵·寧陵·恭陵·端陵·莊陵·玄陵·夷陵·幽陵·元陵·仁陵·翼陵·惠陵·堅陵·平陵·乾陵·崇陵·靈陵·容陵·和陵·節陵·悼陵·信陵·靜陵·匡陵·簡陵·肅陵·周陵에 散職將相 각 2명, 憲陵·順陵·義陵·景陵·顯陵·英陵·康陵·安陵·榮陵·泰陵에 散職將相 각 4명, 幽陵·緜陵에 散職將相 각 6명.

196) 『高麗史』 卷83, 「志」37, 兵3, 圍宿軍.

통덕문(通德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21
현무문(玄武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44
금요문(金曜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태화문(太和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상동문(上東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조종문(朝宗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청양문(靑陽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선인전(宣仁殿)	•동자문(東紫門): 대장군(大將軍) 1, 장군(將軍) 1, 시위(侍衛)는 중랑장(中郎將) 2 •남자문(南紫門): 중랑장 1명, 가차장상(加差將相) 1, •말문(末門): 장상 1	
강안전(康安殿)	•남문(南門): 장상 1 •동말문(東末門): 장상 1	4
천령문(千齡門)	•장상 1 •서랑후벽(西廊後壁): 장상 1	
저상문(儲祥門)	장상 1	1
정덕궁(靜德宮)	동문(東門): 장상 1	1
경령전(景靈殿)	•장교 1 •병장(屏障): 장상 1	2
집현전(集賢殿) 동문	장상 1	8
목청전(穆淸殿) 동문	장상 1	
봉원문(奉元門)	장교 1	
선경전(宣慶殿) 북문	장교 1	
연친전(宴親殿)	장교 1	
영수전(永壽殿)	장상 1	
운흥문(雲興門)	장상 1	
의봉문(儀鳳門)	장상 1	
체통문(棣通門)	문전(門前): 장군 1, 장상 1, 가차산직장상(加差散職將相) 5	
태정문(泰定門)	•문전(門前): 장군 1, 장상 1, 가차장상 8, •수구: 장교 1	11
여경문(麗景門)	장상·장교 각 1, 가차산직장상 5	28
안흥문(安興門)	장상·장교 각 1, 가차장상 5	

향성문(向成門)	장상·장교 각 1, 가차장상 5	
선교문(宣敎門)	장상·장교 각 1, 가차산직장상 5	
액정국(掖庭局)	장교 2, 잡직장교(雜職將校) 4	6
망운루(望雲樓)	장교 1	1
귀인문(歸仁門)	장교 1, 산직장교 2, 감문위군 2	10
장평문(長平門)	직사장교 1, 산직장교(散職將校) 2, 감문위군 2	
선인문(宣仁門)	•직사장교 1,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수구: 감문위군 2	7
복원궁(福源宮)	잡직장교 2, 산직장상 2	4
승덕궁(承德宮)	산직장상 2	
연덕궁(延德宮)	산직장상 2	
흥경궁(興慶宮)	산직장상 2	
영창궁(永昌宮)	산직장상 2	14
현덕궁(玄德宮)	산직장상 2	
예령궁(禮寧宮)	산직장상 2	
명복궁(明福宮)	산직장상 2	
연양문(延陽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자안문(紫安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12
안화문(安和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덕산문(德山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3	5
앵계문(鶯溪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안정문(安定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홍인문(弘仁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16
성도문(成道門)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숭인문(崇仁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수구: 산직장상 2	9
영창문(靈昌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6
선기문(宣旗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수구: 산직장상 2	9
장패문(長霸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3 •수구: 산직장상 2	10
회빈문(會賓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12
태안문(泰安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영동문(永同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풍덕문(豐德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30
선계문(仙溪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선의문(宣義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진양문(乾陽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보태문(保泰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1, 감문위군 1	5
영평문(永平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2	7
산예문(狻猊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24
선엄문(仙嚴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광덕문(光德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창신문(昌信門)	장교 1, 군인 2, 산직장상 2, 감문위군 1	

이러한 위숙군 편성은 나성 축조로 인하여 위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그곳에서 열병(閱兵)이나 사냥 등 군사활동을 행하거나 25개의 나성문¹⁹⁷⁾에 대한 위숙군의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⁹⁸⁾ 특히 사찰은 단순한 사찰로서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시설로 기능하여 대부분 개경과 그 주변에 이르는 중요한 길목이나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조성되었다.¹⁹⁹⁾ 개경 중심부인 궁궐

197) 나성의 25개문 : 紫安門, 安和門, 成道門, 靈昌門, 安定門, 崇仁門, 弘仁門, 宣旗門, 德山門, 長霸門, 德豐門, 永同門, 會賓門, 仙溪門, 壽安門, 鸞溪門, 仙嚴門, 光德門, 乾禪門, 昌信門, 保泰門, 宣義門, 狻猊門, 永平門, 通德門.

198) 강무나 열병 등은 고대 군사에서 일종의 군례(軍禮)에 속한다. 고려의 군례인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나 사한의(師還儀)에서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의 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대열(大閱)·강무(講武)·사(射)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사냥제도인 전수(田狩)가 고려 군례의 항목에서 보이지 않지만『고려사·세가』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 신라와 고려의 전수(田狩)가 조선시대 강무로 정리되었다고 이해된다(채미하, 「신라의 軍禮 수용과 王權」, 『한국사연구』 149, p.119의 주) 5).

199) 開京 사찰의 군사적·정치적 의미를 다룬 첫 연구는 박운진, 「高麗時代의 開京一帶 寺院의 軍事的·政治的 性格」, 『한국사학보』 3·4, 1998을 참조. 한편, 고려 말, 1378년(우왕 4) 4월 화통방사군(火桶放射軍)을 개경과 지방의 '속'에 편성했는데, 이때 속을 사원이 아닌, 관청으로 이해한 경우가 있어(허신도, 「여말선초 화기의 전래와 발달(상)」, 『역사학보』 24, 1964, p.17) 흥미롭다. 그러나 그도 '속'을 관청으로 해석하는 데 확신을 피력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백은 사를 사원으로 보았다(이기백, 『고려사 병지 역주』, 1969, p.139). 사를 관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당시 화기가 국가 기밀에 관한 중대사란 점에서 방사군 차출이 공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과 고려 말에 '속'란 기관이 15개 관청(사): 典校寺·典儀寺·宗簿寺·衛儀寺·司儀寺·禮賓寺·典農寺·內府寺·小府寺·軍資寺·繕工寺·司宰寺·司水寺·軍器寺·典儀寺)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강성문은 '속'가 개경과 지방의 속'이라는 점, 대·중·소라는 원칙이 사원에서 통례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 차출 총인원이 중을 기준으로 30여 명에 불과한 점, 사원 인력이 경제적이고 기술 습득에서 다른 집단보다 효율성이 높았다는 점, 평시에 사원 소속 인원을 동원하여 훈련하다가 유사시 동원하여 특설부대를 편성했을 것이라는 점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寺院이 타당할 것이라 추론하였다(강성문, 「조선초기 화기 방사군의 실상, 『학예지』 제6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9, p.116-117의 주 2) 참조).

관회 등 국가적인 행사를 거행하거나 왕의 행차가 잦아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게다가 사원에서는 군인을 선발하거나 군기검사 등을 행하며 도성 외곽에서 경계를 제공하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었다.

도성방위체제와 수성전 고려의 도성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형성되는 중심 깊은 산성방어체제와 함께, 개별 군현 단위로 이루어진 방어망인 치소성 중심의 거점방어체제와 서로 연계되었다. 고려 왕조에서 우선 최일선인 국경지역에 진(鎭)과 장성(長城)을 설치하여 이를 운용하였다. 진은 산과 평지를 연결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무장도시를 이루었고, 주거민의 거주와 동시에 군사적 방어 기능을 갖춘 생활공간이었다. 진 주둔 병력은 담당 성곽 외에도 병마사의 명령에 따라 다른 성에서 전투를 수행했는가 하면, 각 진의 전면에는 전초기지로 소규모 성책(城柵)의 수(戍)를 6개 정도 운용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주요 거점에도 중심 깊은 방어망 구축을 위해 성곽을 설치하여 이를 전략적 근거로 삼았다. 이로써 양계(兩界)의 진 중심 방어선이 무너져도 주변에 설치한 산성으로 들어가 적 보급선을 차단하는 작전을 지속했던 것이다.²⁰²⁾

그러나 고려에서는 흥건적 침입 때 조정이 충주로 파천(1361. 11. 28.)한 상황에서 전개한 도성수복전인 개경 전투에서 도성 전투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²⁰³⁾ 다만 도성 전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유형인 주진군(州鎭軍)의 수성전에 비추어 그 일단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형적인 도성전이라고 보기 곤란한 점도 있으나 개경을 점령한

202) 윤용혁, 『고려·몽골군 전쟁사』, 육군본부, 2008, pp.150-151.

203) 당시 공민왕은 충주로 일단 파천했다가 개경이 함락되자 다시 복주(福州, 안동)으로 몽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 165을 참조.

홍건적을 몰아내고자 고려군이 벌인 개경 전투를 살펴보면, 고려군 20만 명이 동교(東郊)에서 진을 치다가 총병관 정세운(鄭世雲)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성내로 진격하여 개경을 포위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성작전을 전개한 성곽공방전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⁰⁴⁾ 홍건적 침입 당시 고려군이 함종 전투에서 패하여 조정이 파천하자 홍건적은 개경에 무혈입성하였다(1360. 11. 24.). 개경이 적 점령 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1362년 초 고려군은 개경 포위전을 감행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1월 17일, 총병관 정세운은 임진강 나루 남쪽 도솔원(兜率院)에 위치하여 안우·이구수·최영 등이 이끄는 20만 병력을 동교 천수사(天壽寺)에 배치한 다음, 개경으로 진격하도록 하여 도성수복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진눈깨비 내리는 악천후에다 적이 성벽에 물을 뿌려 열려 여러 차례의 공성작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고려군은 1월 18일 홍건적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개경 송인문으로 기병 수십 명으로 기습 돌격을 감행하여 돌과구를 마련하였다. 고려군의 선두부대는 성벽 위로 기어올라 홍건적의 진내로 돌입했고, 나머지 부대가 포위작전으로 홍건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성 중앙의 방책(防柵) 안에서 저항을 계속하던 적 괴수들(沙劉·關先生)을 포획하여 참수하였다. 전세를 장악한 고려군은 개경 동쪽 송인문과 동북쪽 탄현문 일대의 포위망을 해제하면서 홍건적의 퇴로를 열어주어 홍건적 파두반(破頭番) 등 10만여 패잔병들이 북상,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퇴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요컨대, 고려군의 개경 전투는 성곽포위와 기습작전, 적의 방심을 이용한 진내 공성작전, 포위망 해제와 적 퇴로 개방을 통한 성곽 회복작전으로 이어진 도성수복전이었다고 할 만하다. 고려군은 단기간에 동원한 20만 대군을 전투

204) 『高麗史』卷40, 世家40, 恭愍王 11年(1362년 1월 17일 甲子); 『高麗史節要』卷27, 恭愍王2, 恭愍王 11年(1362년 1월 17일 甲子).

경험이 많은 탁월한 지휘력을 갖춘 무장들의 지휘 하에 요소에 배치한 후, 선봉부대로 하여금 적 방어태세를 교란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병력을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집중 투입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했던 것이다.²⁰⁵⁾

이제는 주진군이 수행한 일반적인 수성전 양상을 통하여 고려 시대의 도성전을 이해해보도록 한다. 대체로 고려군은 산성을 활용한 종래의 전통적인 청야전술(淸野戰術)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진군에서는 성곽을 중심으로 펼친 고수방어전 개념을 운영하였다. 고려의 주진군이 채택한 고수방어란 주·진의 제성을 거점으로 성곽 문을 굳고 닫고 대치하여 지구전을 펼치면서 적의 예봉을 피하는 견벽고수(堅壁固守)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로 지구전을 펼쳐 적 공격의 기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군량 수송이나 병력 보충 등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적 전력의 약화와 퇴각을 유도하는 전술이었다.²⁰⁶⁾ 그러한 견벽고수에는 청야전술이 병행되거나 일종의 추격전인 인병출격(引兵出擊)이 뒤따랐다. 한반도 산성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관방(關防)으로 주변 강대국인 거란·여진·몽골 등을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평지에서 대적하기보다 산성 같은 방어시설을 이용한 방어 거점으로 끌어들여 장기전을 펼치는 것으로 청야전술이 거의 함께 구사되었다. 고구려군이나 고려군이 공세 이전에서 구사한 인병출격은 견벽고수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틈을 보아 성 내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 적을 공격하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공수전술이었다.

여기에서 고려군은 주요 지점을 방어의 핵심지로 삼는 치소성(治所城) 전략을 유지했는데, 치소성 전략 또한 수성전(守城戰)을 매개로 하는 일종의 거점 중심의 방위전략이었다. 치소성은 양계 신개척 지역의 소수만이 평산

205) 유재성, 『한민족전쟁통사』 II(고려시대 편), 국방군사연구소, 1993, p.357.

206) 김홍, 『한국의 군제사』, 학연문화사, 2001, pp.70-71.

성이었을 뿐 주현과 속현·양계와 남도지역 구분할 것 없이 그 대부분이 산성이었다. 평산성인 것조차 성벽의 일부만이 평지에 걸쳐 있어 포곡식 산성에 가까운 형태였다. 평지와 연접한 높지 않은 산 내지 구릉에 입지한 치소성은 해당 군현의 중심 촌에 자리한 것이었고,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²⁰⁷⁾

고려의 치소성 전략은 국가통치조직 구성에서 치소성 간 연계를 중요시하여 큰 치소성을 연결하는 선(線)인 도(道)를 형성하였다. 고려 통치의 기반(基幹)을 이룬 도(道)는 영역적인 것이 아니고 선(線) 개념의 방면(方面)도(道)였다.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에서 그들이 고려 내지(內地) 깊숙이 들어온 것은 그런 군사방위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몽골은 결국 전국 각 도를 모두 교란하고 마지막에는 강화도란 중심 거점을 고립시키기 위해 서해 연안 지역을 집중 공략하여 왕의 출륙을 이끌어냈다.²⁰⁸⁾ 치소성을 중심으로 한 방위전략은 몽골 침공 직전까지 고려 방위전략의 중심을 이루었다.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된 성은 다음과 같다.²⁰⁹⁾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된 성〉

성	군사 활동	시기
통주성	대규모 중앙군이 통주성 밖에 주둔	1010년 11월
영주성	거란군의 영주성 공격	1015년 9월
정주관성	여진족이 두 관성으로 난입	1104년

207) 서영일 외, 『한국군사사 -성곽』, 육군본부, 2012, p.263.

208) 이태진 외, 『한국군사사 -개설』, 육군본부, 2012, p.18.

209) 최종석 외, 『한국군사사』(고려I), 육군본부, 2012, pp.217-218.

선덕관성		
정주성	정주성 밖에서 여진과 싸워 패배	1104년 2월
영주성	여진병이 영주성 남쪽에 주둔, 영주성을 방어거점으로 하여 수성	1108년 1월
용주성	여진병 수만이 용주성 포위	1108년 2월
영주성	여진병이 영주성 밖에 주둔	1108년 3월
용주성	여진병이 용주성 포위	1108년 4월
용주성	여진병이 용주성 포위	1108년 5월
길주성	여진병이 길주성 포위	1109년 5월
강릉성	민란을 진압하러 온 중앙군이 설복(設伏)하는 성	1194년 5월
영덕성	거란 유종의 영덕성 도륙	1216년 8월
연주성	거란 유종을 격퇴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가 응거할 곳으로 연주성이 지목	1216년 9월
위주성	삼군(三軍)이 위주성 밖에서 거란 유종과 싸워 패배	1216년 10월
박주성	거란 유종과 박주성의 문밖에서 전투, 박주성 안에서는 병사 휴식	1216년 10월
화맹 순덕사성	몽골과 동진군이 화맹순덕사성을 공파	1218년 12월
강동성	거란 유종이 강동성을 거점으로 항거	1218년 9월
진명성	몽골과 동진군이 진명성 밖에 주둔	1219년 8월
화주성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가 성 안 사람들과 함께 화주성 고수	1227년 11월

이렇게 군사적 거점을 기반으로 한 성곽방어전에서 고려군이 사용한 화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용과 공용이 동시에 운용되었다. 개인용으로는 활을 비롯하여 장도(長刀)·과(戈)·모(矛)·궁(弓)·노(弩) 등이 있었는데, 고려 활은 단궁으로 사정거리가 길고 관통력이 우수하였다. 또한 석포(石砲)·포차(砲車)·화구(火毬)·전차(戰車)·대우포(大于浦)·철질려(鐵蒺藜)와 충차(衝車)·운제도 성곽전에서 사용되는 공용의 무기들이었다.²¹⁰⁾

고려에서는 초기부터 수성전의 무기·장비로 노(弩)와 투석기 등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성전의 공세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묘청의 난(1135년) 때 서경성(西京城) 공방전에서 김부식이 성곽을 포위하고 공격한 고전적인 공성법인 운제와 충차를 이용하고 토산 위에서 투석기(쌍조포)로 성을 공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¹¹⁾ 아울러 박서(朴犀)가



고려시대 대외전쟁에 사용된 화차(제주 향파 두리박물관, 필자)

귀주성에서 1231년 9월 3일부터 이해 12월 17일 공격까지(1232. 1. 종료) 무려 4개월에 걸쳐 몽골군의 누차(樓車)·포차(砲車) 등에 의한 파상적인 공격을, 대우포로 맞서 적 운제를 격파하며 수성에 성공한 것도²¹²⁾ 고려군

210)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169.

211)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p.94.

212) 박서가 김경손과 함께 몽골군을 맞아 귀성(龜城)을 지킨 전법(은 조선조 조헌(趙憲, 1544~1592)에 의해서도 항왜대책으로 주목받았다(『重峰集』 권8, 28). 조헌은 유격전술·협곡에 궁수를 배치하는 매복전술, 지구전, 화공, 모든 작전의(朝廷 통제를 배제하고) 장수의 명령만으로 실행하도록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장태, 『조헌의 조선현실인식과 항왜의리론』, 『한국 실학의 정신』, 제이앤씨, 2009, p.49를 참조.

의 수성전 능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²¹³⁾

이밖에도 고려군의 병종에 나타나는 경궁(梗弓)·정노(精弩)·강노(剛弩)·사궁(射弓)·노(弩) 등과 같이 활이나 노와 관련된 군사가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서 볼 때 고려군이 만일 도성방어전을 치렀다면 다른 성곽전과 마찬가지로 재래적인 수성전(守城戰) 방식에다 기병술에 능한 북방민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용한 당(唐)의 북방전술(北防戰術)을 결합시켜 도성 전투(都城戰鬪)를 전개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고려와 몽골군의 전투에서 실제 사용된 궁시(弓矢)가 1232년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이와 수행 기병들에 대한 저격무기로 주요했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²¹⁴⁾

『고려사』의 병지(兵志)에 보이는 수질노(繡質弩), 수질구궁노(繡質九弓弩), 팔우노(八牛弩), 천균노(千均弩) 등은 말할 것 없고, 북계의 주요 성곽에 쇠뇌부대(弩隊)를 배치한 것도 적 기병부대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군에서 일종의 전차로 활용한 검차도 수성전의 후속 전투로서 적의 보병과 기병을 공격하거나 퇴각하는 적을 요격하거나 차단하는 무기로서 주목되는 고려군의 신형 장비였다.²¹⁵⁾ 한편 고려군은 왕조 말기에 화약무기도 사용했는데, 특히 우왕 때 최무선의 노력으로 염초를 자체 생산하여 화약무기의 개발에 성공하고 나아가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기를 만들어 특수부대인 화통방사군(火桶放射軍)을 편성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¹⁶⁾

213) 『高麗史』 卷103, 列傳16, 朴犀. 자세한 전투상황은 부록 [용어 해설]의 ‘수성전 사례(귀주성)’ 및 서인한, 『한국의 성곽 공방전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p.103-118을 참조.

214) 『高麗史』 卷103, 列傳16, 金允侯; 『元史』 208, 高麗傳.

215) 고려군의 검차는 조선 후기에 청의 철기병에 대항하는 전술적 무기로도 활용되었다(백기인, 『조선 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2004, pp.186-208).

216) 화통방사군 역시 발사기와 발사물, 폭탄, 화기 등에서 대장군포·석포·화포·화전·철령전·철탄자 등 신무기 개발과 함께 수성전에서 새로운 전술적 운용을 가져왔다. 자세한 내용은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p.176을 참조.

제3절 수도 이전 전략

가. 강화 천도

강화는 대몽항쟁기 37년 10개월 동안 송도를 대체하는 수도로 개경(開京)을 재현하였다. 고려 왕조의 강화 천도는 군사적으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강화는 북쪽이 조강으로, 동쪽은 갑곶강(염하)으로, 서쪽과



화개산성에서 내려다 본 교동(평자)

다가 섬이라 수전(水戰)에 서투른 몽골군을 막기에 적합한 천혜의 전략지나 다름없었다. 고려 왕조가 수도 개경을 북진정책과 정치적인 이유로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했다면, 강화로의 천도는 그 효과에 앞서 무신정권하에서 긴급한 전세의 필요와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요소가 컸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¹⁸⁾

남쪽은 서해로 둘러싸인 요새이면서 개경 및 육지와 가깝고 조운이 편리해 대몽항쟁기에 피난 수도로 고려할 만한 곳이었다.²¹⁷⁾ 지형적으로 개경에서 가까운 데

217) 김창현,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p.144.

218) 몽골의 1차 침략 이후 고려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화 천도는 해도입보(海島入保)의 전형적인 예다. 당시 각 주현 단위로 북계의 제 지역에서 이른바 ‘해도입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해도입보 차원에서 천도지로서 강화 지역만큼 적합한 곳은 없었다. 강화도는 i)지리적으로 수전에 취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이고, ii)육지에 접근하면서도 조석간만의 차와 조류 등으로 효과가 크다는 점, iii)개경과의 근접성, iv)지방과의 연결 혹은 조운 등의 편의성이 있었다. 해도입보에 관해서는 윤용혁, 「고려의 해도입보책과 몽고의 전략 변화」, 『역사교육』 32, 1982, pp.56-59을 참조.

무신집권자 최우는 1231년(고종 18) 8월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해 11월~12월 개경성을 포위하자 강화 천도를 고려하였다. 천도문제가 고려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몽골군 철수 직후인 1232년 2월의 일이었다. 이후에 강화로 수도를 옮기는 천도 방침이 확정된 것은 6월 16일이었고, 강화로 이어한 것은 이해 7월 7일로 논의 시작에서부터 확정·시행한 것이 불과 6개월도 채 안 걸렸다. 일찍이 백제가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이끄는 3만 명의 공격을 받고서 불과 1개월 만인 10월에 문주왕이 전격적으로 수도를 한성에서 응진으로 천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결정이었다.²¹⁹⁾ 군사적인 위협 속에서 내려진 신속한 결정이 정치적 조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 천도였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몽골군의 제1차 침공이라고 불리는 살리타이[撒禮塔]군이 고려로 쳐들어 온 것은 1231년 8월의 일이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요동을 점령하고 압록강 하류를 건너 함신진(咸新鎭)을 포위하고 철주(鐵州)를 짓밟았다. 몽골군은 몇 대(隊)로 분산하여 북계(北界)의 여러 성들에 대한 공략을 개시했고, 일부 선봉대는 곧바로 남쪽으로 직진하였다. 북계 여러 성[諸城]에서의 치열한 용전과 3군 파견에도 불구하고 몽골 선봉대가 이해 11월 29일에 개경 근교에 도달함으로써 고려는 사실상 국토의 주요 지역이 점령되는 위기를 맞았다.²²⁰⁾ 이에 고려 정부로서는 일단 몽골과 화의를 성립시킨 다음, 1232년 정월에 몽골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강화로의 천도문제를 검토하였다.

1232년 2월 20일, 재추(宰樞)들이 전목사(典牧司)에 모여 이도(移都)를 논의했고, 이어 5월에 다시 선경전(宣慶殿)에서 몽골군 침략을 저지할 대책

219) 백기인, 「수도 천도의 전략적 함의」, pp.223-246.

220) 윤용혁, 「고려의 대몽항쟁과 강도」, 『고려사의 재문제』, 삼영사, 1986, p.766.

을 마련하고자 논의하였다. 이런 토의는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4품 이상 관리들이 모여 의논하는 자리에서는 도성을 수비하여 항거하자는 의견이 비등하였다. 다만 재추인 정무(鄭暻)와 태집성(太集成) 등은 도읍을 옮겨 난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²²¹⁾ 강화로의 천도문제는 제신들 간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렇듯 천도문제가 찬반이 갈리며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은 수전(水戰)을 고려한 몽골군에 대한 전략적 거점 확보라는 군사적 관점 외에도 정치적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대론자의 입장을 보면, 화친론을 들고나와 천도를 반대한 경우와 개경 고수론을 들어 천도를 반대한 경우로 나누어졌다. 화친론을 들고나온 천도 반대론자의 대표는 유승단(俞升旦)이고, 몽골과의 대결을 전제로 한 개경 고수론자로서 천도 반대론자는 야별초지유(夜別抄旨諭)인 김세충(金世冲)이었다. 두 사람의 주장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에 맞는 일이니,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귄다면 저들인들 또한 무슨 명분으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도성과 종묘사직을 내팽개치고 섬에 숨은 채 구차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변방의 백성과 장정들을 적의 손에 죽게 만들고 노약자들을 노예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²²²⁾

“송경은 태조 때부터 역대로 지켜 내려와 무려 200여 년이 되었다. 성이 견고하고 군사와 양식이 족하니, 진실로 마땅히 힘을 합하여 지켜서 사직을 호위할 수 있는데, 이를 버리고 가면 장차 도읍할 땅이 어디냐.”²²³⁾

221) 『高麗史』23, 세가 23, 고종 19년 5월. “辛丑 宰樞會宣慶殿, 議御蒙古, 癸卯 四品以上又會議, 皆曰城守拒敵, 唯宰樞鄭暻太集成等曰宜徙都避亂”

222) 『高麗史』102, 列傳 15 俞升旦. “以小事大, 義也. 事之以禮, 交之以信, 彼亦何名而因我哉. 棄城郭, 損宗社, 竄伏海島, 苟延歲月, 使邊氓丁壯盡於鋒鏑, 老弱係爲奴虜, 非爲國長計也.”

몽골의 대군이 경기지역으로 침입하자 최우(崔瑀, 후에 崔怡)가 재신·재추들을 모아놓고 강화 천도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모두 최우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유승단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인데, 그는 천도론의 허실(虛實)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다만 소수 권력층과 관료들의 피난 행위로 전락하여 천도가 오히려 백성들을 엄청난 환난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의 주장은 의례적인 사대관계의 수립을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이에 반하여 야별초지유 김세충의 개경고수론(開京固守論)은 명분론에 입각하여 천도론자가 논거로 삼고 있는 전쟁불가피성(戰爭不可避性)을 거론하였다. 개경의 역사성에 비추어 마땅히 지켜야한다는 것이지만 개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책을 결여한 것이었다. 실제로 개경은 방어에 한계가 있었고 몽골을 저지할 만한 전력 또한 고려군이 열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왕인 고종(高宗)조차 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유승단과 김세충 역시 당시 중론을 대변한 것이었다.²²⁴⁾

결국, 최우는 1232년 6월 16일 사저에서 재추를 소집해 강압적으로 천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가 강화로의 천도를 결정하고 왕에게 주청했지만 고종은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최우는 당일로 녹전차(祿轉車) 100여 량을 빼앗아 가재(家財)를 강화로 옮기며 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리고 나서 유사에게 명령하여 날짜를 한정하여 오부(五部)의 백성을 보내게 하고, 성중에 방을 붙여 “천연하여 출발할 기일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군법으로 논하겠다”고 고지하였다.²²⁵⁾ 이튿날인 6월 17일 최우는 이령군(二領軍)을 조발하여 동원함으로써 강화에 궁궐을 짓기 시작했으며, 다시 7월 1

223) 『高麗史節要』16, 고종 19년 6월. “松京自太祖以來、歷代持守、凡二百餘年、城堅而兵食足、固當戮力而守、以衛社稷、棄此而去、將安所都乎.”

224) 윤용희, 「고려의 대몽항쟁과 강도」, pp. 769-770.

225) 『高麗史節要』16, 고종 19년 6월.

일 천도 이후의 개경의 관할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문하성사 김중구와 지추밀원사 김인경을 왕경유수병마사로 임명, 팔령군(八領軍)을 지휘하여 개경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7월 6일 드디어 국왕이 개경을 출발하여, 승천부(昇天府, 지금의 개성시 개풍군)를 거쳐 다음날에 강화로 들어가서 객관에서 유숙하였다.²²⁶⁾

이렇게 천도 추진이 갑작스럽게 실행 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 촉급하게 이루어진 데다 우기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된 까닭이었다.²²⁷⁾ 게다가 개경에서는 ‘이통(李通)의 반란’²²⁸⁾이 일어나 경기 지방의 초적(草賊)과 개경 성중(城中)의 노예를 불러 모아 앞서 개경 진수군으로 잔류한 군대를 축출하고 절의 승려까지 초집하는 등 반란이 확대되고 있었다.²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 중에 천도가 단행되어 강도(江都)는 부득불 39년간 전시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무인 정권이 몽골의 제1차 침략을 계기로 강화 천도를 결단하게 된 배경에는 — 윤용혁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²³⁰⁾ “첫째, 고종 6년 강동성 전투로 인한 여·몽관계 성립 이후 몽골이 고려에 대해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무례한 행동이 고려의 반몽의식(反蒙意識)을 자극

226) 『高麗史』23, 세가 23, 고종 19년 6월 및 7월.

227) 강화 천도가 촉급하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몽골의 내침하리라는 정보 때문이었다(김상기, 『삼별초와 그의 난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1948).

228) 『高麗史』103, 열전16, 諸臣 子晟. “明年, 遷都江華, 御史臺自隸李通, 乘開京虛, 嘯聚畿縣草賊及城中奴隸以反. 遂留守·兵馬使, 遂作三軍, 移牒諸寺, 招集僧徒, 掠取公私錢穀. 王以子晟爲後軍陣主, 樞密副使趙廉卿爲中軍陣主, 上將軍崔瑾爲右軍陣主. 討之. 賊開三軍自江華來, 拒于江. 三軍與戰于昇天府東郊, 大敗之. 別將李甫·鄭福綏, 率夜別少, 先至開城, 賊閉門城守. 甫綏曰, “吾等已破官軍而還, 可速開門.” 門者信之卽開. 甫·福綏等斬守門者, 引兵至通家, 斬之. 子晟等繼至, 賊魁計窮逃匿, 悉捕餘黨, 誅之.”

229) 1232년(고종 19) 7월, 몽골 침입으로 고려 왕실이 강화로 천도하자 어사대조례(御史臺阜隸)인 이통(李通)이 개경이 빈틈을 타서 경기 지방 초적과 도성 안의 노예를 불러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 추밀원부사 조염경 등으로 삼군을 조직하여 개경의 난민을 토벌하게 했는데, 이통의 군사가 승천부(昇天府)에서 관군과 싸워 대패하였다.

230) 윤용혁, 『고려의 대몽항쟁과 강도』, pp.776-778.

시켰다는 점이다. … 둘째, 몽골의 경제적 징구(徵求)가 지나치게 과중했다는 점이다. … 셋째, 몽골의 고려에 대한 요구가 단순한 공물의 징구에서 끝나지 않고 군사의 조달 등 인적 자원에까지 미침으로써 고려를 압박했다는 점이다. … 넷째, 몽골의 제1차 침략 이후 고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강화 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도경영(國都經營)이란



강화읍성(필자)

사전준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1232년 6월 16일 강화로의 천도를 결정한 후 바로 다음 날 2령군으로 하여금 궁궐 조영에 들어갔던 것이고, 국왕이 이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강화로 들어가 객관에 유숙할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즉 고종이 강화로 천도하기 직전에 궁궐의 조영을 시작하였고, 1234년(고종 21) 정월에 각 도로부터 장정을 징발해 궁궐과 관아들을 조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강화의 성곽 중에서 궁궐을 둘러싼 성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다. 1233년 강화에 외성(外城)을 쌓았고,²³¹⁾ 1235년(고종 22)에 최이(崔怡)가 주·현의 일품군(一品軍)을 징발하여 강화 연강제안(沿江堤岸)을 쌓았다.²³²⁾ 그리고 1237년(고종 24) 강화 외성을 다시 쌓았는데,²³³⁾ 강화 외성은 1233년에 시작하여 4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었다.

231) 『高麗史』 82, 지제36, 병2 성보, 고종 20년.

232) 『高麗史節要』 16, 고종 22년 12월.

233) 『高麗史節要』 16, 고종 24년 10월.

1250년(고종 37) 8월 비로소 강도 중성(中城)을 쌓았다. 중성은 그 둘레가 2,960여 간이고 대소문이 모두 17개였다.²³⁴⁾ 최항(崔沆)이 주도한 황도 강도가 바로 중성이었다. 중성이 축조되면서 강도의 성곽은 궁궐을 둘러싼 성, 중성, 외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강화 도성은 3성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그런데 1259년(고종 46)에 고려와 몽골 간에 화해가 성립되자 그해 6월에 몽골 사신이 성을 파괴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강도의 내성(內城)을 파괴하였다.²³⁵⁾ 그러나 고려가 강도 내성만 파괴하자 몽골 사신은 외성까지 파괴하기를 요구했으며, 고려가 도방에게 외성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파괴된 성곽은 무인정권이 붕괴돼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방치되어 훼손이 더욱 심해졌다.²³⁶⁾

이렇듯 내성·중성·외성으로 구성된 강도의 성곽은 무엇보다 방어시설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성곽의 구조상으로 3중 구조로 구축



강화도 해안의 군사시설(필자)

된 강도의 성곽에서 내성(內城)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천도 초기에 궁궐의 영조와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내성은 외성과 같이 토축이고 길이는 3,874척이라 하였

234) 『高麗史』 82, 지제36, 병2 성보, 고종 37년 ; 『高麗史』 23, 세가23, 고종 37년 8월 경신.

235) 『高麗史節要』 17, 고종 37년 6월.

236) 김장현,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p.153.

고,²³⁷⁾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략 조선시대의 내성, 즉 오늘날의 강화산성과 거의 일치한다.²³⁸⁾ 내성은 현재 읍내의 송악산·신문리·남산리 일대를 둘러싸고 있으며, 1259년(고종 46) 6월 몽골과의 화의 진전에 따른 선행 요구조건으로 몽골 사신 입회하에 일단 파훼시켰다가 조선조에 이르러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후금군(後金軍)에 의해 1637년(인조 15)에 완파되었다. 이후 조선 초기에 궁지를 중심으로 협소한 내성을 쌓았다가 병자호란 이후인 숙종조에 현존하는 강화성(江華城)을 축조하기에 이르렀다.²³⁹⁾

외성과 중성은 그 축조시기를 보면, 외성이 1233년(고종 20) 혹은 1237년(고종 24)의 두 가지로 나타나며, 중성은 최항 집권기인 1250년(고종 37)에 구축되었던 것으로 전한다. 외성에 관한 두 시기는 시축과 완공의 연대를 각각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미루어 대략 5년이란 기간이 외성의 축조에 소요되었다. 1235년(고종 22)에 최이가 주·현의 일품군(一品軍)을 징발해 강화 연강제안(沿江堤岸)을 쌓았다는 기사는 바로 외성 작업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²⁴⁰⁾ 외성 위치는 지금의 불온면 삼성리·서문동·삼동암리·신현리·덕성리 및 동안 일대를 둘러싼 토루(土壘)로 추정되며, 그 길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37,076척이라고 하여 내성의 10배에 가까운 장성이었다. 또한 중성(中城)은 앞서 언급한 대로 1250년(고종 37) 8월 27일 착공한 것으로 들레는 2,960여 간에다 관련 성문이 17개나 달린 적지 않은 규모의 성이었다. 그 범위는 지금의 선원면 대문동의 대문현을 남문으로 선원면의 선행리·창리·신정리·지산리 및 부내면 국화리·옥림리 일대를 투이연공(透迤延亘)한 토성의 유적과 일치하

237) 『新增東國輿地勝覽』, 「江華都護府古跡」 “高麗高宗時所築內外城具土築. 外城周三萬七千七十六尺. 內城周三千八百七十四尺.”

238)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p. 285.

239) 윤용혁, 「고려의 대몽항쟁과 강도」, p. 794. 강화도 성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江華府志』, 城郭條 및 『江華山城現況調査報告書』 (江華郡, 1985) 등을 참조할 것.

240) 『高麗史節要』 16, 고종 22년 12월.

며, 그 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다.²⁴¹⁾

이렇게 볼 때, 몽골 침공에 맞서 고려 왕조는 항전 시기에 임시수도인 강도(江都)에는 궁궐(宮闕)을 둘러싼 성을 우선적으로 축성하고, 이어서 해안 방어를 위한 외성(外城)을 동부와 동북부 해안에 축조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도성인 중성(中城)을 쌓았던 것이다. 이로써 강도는 궁성, 중성, 외성의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강도의 본궐은 송악산(북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았고 둘레 3874척(1,240m)의 궁성을 지녔지만 황성으로 둘러싸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도 본궐은 개경 본궐보다 규모는 축소되었고 개경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승평문, 구정, 의봉루, 선경전, 대관전, 강안전, 경령전, 산호정, 여정궁 등에서 개경 본궐의 재현을 지향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²⁴²⁾

지금까지 고려가 몽골 침공에 맞서 실행한 강화로의 천도 과정을 살펴보았다. 강화 천도는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강도 지역은 비록 잠시 적의 예봉을 피하여 서서히 국세를 회복하고자 한 것으로 실로 개경에서 가까운 유일의 안전한 방어지대였다.²⁴³⁾ 특히 강도의 내·외·중성의 3성은 무인정권의 강도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성곽방어체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고려 조정이 난공불락의 전시 수도인 강화성만을 사수하면서 내륙의 일반 백성들을 인접한 도어나 산성으로 피난시킨 다음, 전국에서 청야전술을 써서 양곡이나 모든 물자를 몽골군에게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토의 광범한 국토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야 하였다. 따라서 강화 천도는 천혜의 보장처를 배경으로 몽골군의 취약점을 고려군의 강점으로 삼아 현지를 방어 전략기지화

241) 윤용혁, 「고려의 대몽항쟁과 강도」, pp.795-796.

242) 김창현,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p.174.

243)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p.284.

할 수 있었던 반면, 내륙의 주요 국토를 적 수중에 고스란히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를 내포한 임기응변적인 도성방위전략이었다.

나. 개경 환도와 도성방위

전시 수도인 강화로부터 본래 고려 도읍인 내륙에 위치한 개경으로의 환도는 몽골 당국의 고려왕 친조 및 환도 요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²⁴⁴⁾ 그러나 환도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몽골 사절들에 의한 종용과 재추결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환도 준비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출배별감(出排別監) 등을 임명하여 환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²⁴⁵⁾ 원 행성에서는 강화도의 백성들을 왕경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러나 1270년(원종 11) 삼별초는 이 명령을 거부하였다.²⁴⁶⁾ 그렇지만 이해에 원종은 몽골 군대와 함께 몽골에서 돌아와 강화도의 무신정권에 출륙령(出陸令)을 내리고 강화도에서 홍문계(洪文系)·송송례(宋松禮) 등을 시켜 무신집정 임유무(林惟茂)를 피살하였다.²⁴⁷⁾ 이로써 몽골 침공으로 고려 왕조는 도읍을 강화로 옮겨 항전을 선언한 지 40년 동안 수도로 기능한 강화로부터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그러나 개경으로의 환도(還都)란 몽골에 대한 항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삼별초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벌였다. 고려 왕실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고려와 몽골 간에는 강화가 맺어지고 전쟁이 끝났지만 삼별

244) 『高麗史』 24, 世家 24, 고종 38년 10월 21일. “戊申 王出迎于楸浦, 皇帝新即位, 詔國王親朝, 及令還舊京.”

245) 『高麗史』 25, 世家 25, 원종 원년 3월 1일. “太孫欲還都舊京, 以大將軍金方慶, 將軍金承俊, 給事中趙文胄, 中丞金洪就爲出排別監, 發廩米六千四百二十斛, 分給諸王·百官, 人一斛, 以助營屋之費.”

246) 『高麗史』 26, 世家 26, 원종 11년 5월 11일; 『高麗史』 26, 世家 26, 원종 11년 5월 23일. “壬戌 宰樞會議復都舊京, 榜示畫日, 三別抄有異心不從, 擅發府庫.”; 『原高麗記事』, 세조황제 1270년(지원 7년), 1270년 5월 23일(음).

247) 『高麗史』 26, 世家 26, 원종 11년 5월 14일.



삼별초군의 제주에서의 대몽항쟁을 묘사한 기록화 (제주 향파두리박물관, 필자)

초는 여전히 이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것이다. 몽골과의 전쟁 기간 중 대몽항쟁(對蒙抗爭)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장기항전을 계획하고 진도로 옮겨 용장성(龍藏城)을 쌓고 저항하였고,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다시 제주도로 가서 김통정의 지휘 아래 계속 항쟁하였다.²⁴⁸⁾ 그러나 제주도로 이동하여 성을 쌓고 몽골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던 삼별초는 결국 1273년 몽골-고려 연합군에 의해서 섬멸되고 말았다. 1273년(원종 14), 김방경의 토벌군이 탐라로 진격했을 때 최후로 김통정이 70여 명을 이끌고 산속으로 피신하여 목을 매 죽음으로써 4년간의 삼별초 항전이 막을 내렸다.²⁴⁹⁾ 원(元, 1271년 국호를 몽골에서 원으로 개칭) 황제의 공식적인 고려 국왕 입조와 개경 환도에 대한 명령은 1291년 7월 12일에 허락되었고, 이에 따라 충렬왕 재위 18년인 1292년 1월 27일 고려 왕조는 개경으로 공식 환도하였다.²⁵⁰⁾

고려는 몽골 침공으로 인한 굴복(1259)과 원 간섭 시기를 근 100년간에 걸쳐 겪어야 했지만, 대륙에서 명(明)이 흥기하고 원(元)이 쇠퇴하는 정세의

248) 『高麗史』 27, 세가 27, 원종 12년 5월 15일.

249) 『高麗史』 130, 列傳 130, 襄仲孫.

250) 『高麗史』 30, 세가 30, 충렬왕 18년 1월 27일. “庚申 復都開京.”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민왕(1351~1374) 집권기에는 자주성을 회복해가게 되었다. 이때 공민왕은 관제를 비롯한 다른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군사제도를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입각하여 정비함으로써 2군 6위 중심의 고려 전기의 군사제도를 복구하고자 하였다. 군역 분담에서는 양반층은 물론 노비층에 이르기까지 부담층을 확대하여 개병제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냈다.²⁵¹⁾ 이로써 도성방위 개념이 점차 조선 전기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중심 깊은 수도방어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도성 자체의 방어 기능과 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경으로 환도한 이래 훗날 조선 왕조의 수도가 된 한양(漢陽)이 도읍(都邑)으로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공민왕 때부터 표면화되었다. 이때만 해도 한양은 개경(開京, 中京)과 평양(平壤, 西京)과 더불어 3경(京)의 한 지역인 남경(南京)으로서 양주지역에 해당되었다. 세 곳 가운데서 남경은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시기적으로도 가장 늦은 1067년(문종 21)에 설치된 곳이었다. 그리고 1308년(충렬왕 34)에 이르러서야 이름도 한양부(漢陽府)라고 하고 윤(尹)·판관·사록을 두었다.²⁵²⁾ 고려 후기인 공민왕대에 시작된 수도 천도에 관한 논의는 우왕(禡王)이나 공양왕(恭讓王)에 와서 매우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1357년(공민왕 6년) 공민왕은 봉은사에 태조 왕건의 어진을 배알하고 곧바로 한양 천도에 관한 길흉을 물었다. 이제현(李齊賢)이 천도 가부에 관한 점괘에서 길조를 얻자 천도의 향방은 더욱 힘을 얻었다.²⁵³⁾ 2월, 공민왕은 다시 이제현에게 한양의 지세를 살펴 집터와 궁궐 및 성곽 축조를 지시하면서 한양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에 착수하고자 하였다.²⁵⁴⁾ 그러나 이에 대

251)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pp.148-152.

252) 『高麗史』 77, 지 31 백관 외직 남경유수관. “忠烈王三十四年, 改漢陽府, 置尹·判官·司錄.”

253) 『高麗史』 39, 세가 39, 공민왕 9년 1월 28일.

254) 『高麗史』 39, 세가 39, 공민왕 6년 2월 4일.

한 여러 신하의 반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양 성곽·궁궐 수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태묘(太廟)의 점괘마저 ‘불길하다’는 의견에 한양 천도를 포기하였다.

공민왕에 이어서 우왕대에 와서는 한양 천도문제가 관심을 끌었다. 겨우 10세의 나이에 즉위한 우왕은 — 태후 홍씨가 섭정하고 대신 이인임이 국정을 전제한 상황에서 — 성격이 광망하고 방종무도하여 참위술수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도 논의가 재위 14년간 거의 매년 제기되었다.²⁵⁵⁾ 그러나 1375년(우왕 원년) 8월, 서운관(書雲觀)에서 천문에 이상이 나타나고 판삼사사 최영(崔瑩) 등이 갑작스런 도읍 이전에 반대하면서 논의는 일단 중단되었다.²⁵⁶⁾

이후 왜구의 침해가 심하고 그들의 발호가 근기지방은 물론 개경의 문호라고 할 강화·교동까지 위협하면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천도론이 일어났다. 왜구의 침입은 우왕 원년부터 시작하여 경상도 해안과 전라도 일대로 확대되었고, 충청도 한주 일대·덕적도와 자연도·양광도, 심지어 강화부와 수도 개성까지 위협하였다. 이에 1377년(우왕 3) 5월, 개경이 해안 근처라 언제 왜적의 침구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면서 천도 논의가 재개되었다. 대다수의 군신은 이에 찬성했으나 오직 최영만이 반대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경성(京城)을 고수하고자 했다. 우왕은 정당문학 권중화(權仲和)를 철원으로 보내 도읍에 적합한 땅을 살피게 했으나 최영의 간언으로 무산되었다.²⁵⁷⁾

이듬해인 1378년(우왕 4) 11월에 다시 천도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로 인

255)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pp.324-343.

256) 『高麗史』 133, 열전 46, 우왕 원년 8월. “書雲觀言, 近者, 天文示異, 災變屢興, 宜移御避灾, 禡議遷都, 判三司事崔瑩等議曰, 今無大故, 不可遽弃舊都, 乃止.”

257) 『高麗史節要』 133, 열전 46, 禡王 3년 5월. “以京城濱海, 倭寇不測, 欲遷都內地, 會耆老尹亘等… 禡曰, 倭寇密邇, 可從卜耶. 遣政堂文學權仲和, 相宅于鐵原, 瑩諫之, 事遂寢.”

하여 북소조성도감(北蘇造成都監)이란 임시 감역소를 두기까지 했으나, 이 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의 신하들이 조운선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고 협소하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를 중지하였다.²⁵⁸⁾ 이후 1381년(우왕 7)과 1382년(우왕 8)에 자연계의 변이가 일어나자 서운관에서 또 다시 천도를 건의하였다. 당시 이인임을 비롯하여 간관들은 “남경 한양의 진산인 삼각산이 화체(火體)라 하여 천도불가(遷都不可)의 입장으로 중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왕이 이를 물리치고 한양 행행(行幸)을 결정하였다.²⁵⁹⁾ 한양 천도는 8월 8일 명령을 내려 그해 9월에 실현했으나 이는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가천도(假遷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²⁶⁰⁾ 그런 뒤 1387년(우왕 13) 중흥산성(重興山城)의 형세를 둘러보고, 그 이듬해 2월에 개경의 방리군(坊里軍)을 징발하여 산성 축조에 나서 장래 한양을 수도로 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²⁶¹⁾

우왕과 새로 등극한 창왕이 폐위된 후, 고려조 최후의 왕인 공양왕(恭讓王)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그는 폐왕 우·창 부자를 강등하여 서인으로 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처단하였다. 그러나 공양왕은 우유부단하고 음양참위의 설에 혹신하여 불사재회(佛事齋會)나 조궁(造宮)·이어(移御)에 민력·재력을 막대하게 허비하였다. 1390년(공양왕 2) 7월, 공양왕도 서운관으로부터 지리쇠왕(地理衰旺)의 건의를 받고 한양 천도를 검토하였다. 왕은 천도를 의중에 두고서 한양의 궁궐(창경원 내)을 수리하게 했으나, 천도 문제에 관하여 박의중(朴宜中)·이실(李室) 등을 비롯한 유신(儒臣) 측의 반

258) 『高麗史節要』 133, 열전 46, 禔王 4년 11월, “倭寇益州, 禔嘗召左使洪仲宣, 政堂文學權仲和等曰, 京城控海, 慮有不虞之患, … 得北蘇宮闕舊基, 凡百八十間. 於是, 設北蘇造成都監. 朝議尋以峽溪, 僻在山谷, 漕舶不通, 遂寢.”

259) 『高麗史』 133, 열전 47, 禔王 8년 8월~9월 ; 『高麗史節要』 31, 禔王 8년.

260) 고혜령, 「이인임 정권의 연구」, 『역사학보』 91, 1981 ; 강지연, 「고려 우왕대 정치세력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6을 참조.

261)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pp.331-333.

대가 심하였다.

그러나 공양왕은 천도반대론(遷都反對論)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위 2년째인 1390년 9월 한양에 천도를 행하고, 제삼사사 안종원(安宗源)과 문하평리 윤호(尹虎)를 개경에 머물러 다스리게 하고 또 백관들을 시켜 정무를 따로 분사(分司)하게 하였다.²⁶²⁾ 공양왕의 한양 천도는 송경(松京)의 지덕을 쉬게 하고 변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천행(遷幸)이었다. 천도 후에도 호랑이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일이나 감종연·조유 등이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음모사건이 발각되는 등 여러 불상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²⁶³⁾

이렇게 호환(虎患)이나 김종연(金宗衍) 사변 등으로 인해 다시 구도(舊都)로 옮기자는 ‘구도 환행 청원’이 일어 1391년(공양왕 3) 국왕은 환도(還都)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환도 후에도 이상스런 변이는 계속되었고, 이를 다스리고자 호불(護佛)의 역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사회적으로 척불(斥佛)의 기세가 거세었다. 고려 말 정국은 결국 존왕·혁명의 두 파간 알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도한 다음 해인 1392년(공양왕 4) 4월 존왕파(尊王派) 거두로 당시 국상(國相)이던 정몽주(鄭夢周)가 선죽교변에서 혁명과 조영규(趙英珪)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7월, 공양왕은 그의 보위를 새로운 왕조 창건자인 이성계에게 넘겨주었다.

262) 『高麗史』 45, 세가 45, 恭讓王 2년 9월 丙午.

263) 『高麗史』 54, 지제8, 오행2, 금행 9월. “虎人新都門下府, 搏人而去. 時, 遷漢陽纔數日, 虎多害人畜, 人皆畏懼. 王遣使, 祭白岳木覓城皇, 以禳之.”; 『高麗史』 116, 열전 29, 沈德符.

제 4 장 조선의 도성방위

제 4 장 조선의 도성방위

제 1 절 조선의 한양 정도(定都)

1392년(공양왕 4) 7월 17일 이성계(李成桂, 1335~1408)가 개성(開城)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²⁶⁴⁾ 정도전과 조준, 그리고 남은 세 사람이 주동이 되어 대소신료 52명 등과 함께 이성계를 새 국왕으로 추대한 것이다. 고려에 이어서 새 왕조 조선이 출범하는 순간이었다. 창업자 태조 이성계는 즉위 1개월쯤 되어가던 무렵, 새 도읍지로 천도를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8월 13일, 국호를 고려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태조는 도평의사사에게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명하였다.²⁶⁵⁾ 풍수지리설에서도 이미 고려의 수도 개경의 기운이 쇠(衰)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새로운 왕조 개창과 더불어 새 도읍을 건설하려는 건국자로서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양의 여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대다수 대신이 천도에 반대하였다. 정부가 이전하여 수용할 시설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은 물론이고 관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구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대신들은 대놓고 천도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처지였으므로 표면상 절차에 따른 시간의 문제를 제기하며 ‘선(先)수도 건설 후(後)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9월 3일, 결국 시중(侍中) 배극렴(裴克廉)·조준(趙浚) 등의 공동 건의에 따라 한양 천도 추진은 일단 중단되었다.²⁶⁶⁾

그러다가 얼마 후, 이번에는 태조 자신이 직접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 나

264) 『太祖實錄』 1권, 태조 1년 7월 17일(병신).

265) 『太祖實錄』 1권, 태조 1년 8월 13일(임술).

266) 『太祖實錄』 2권, 태조 1년 9월 3일(신사).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되돌아와 전라도 진동현(珍同縣)에 길지(吉地)를 잡고 산수형세도(山水形勢圖)를 그려 바치며, 양광도(楊廣道) 계룡산(鷄龍山) 도읍지도(都邑地圖)도 함께 바쳤다.²⁶⁸⁾

1393년 1월 19일, 권중화가 바친 계룡산 도읍지도를 토대로 태조는 직접 계룡산에 가서 신도 후보지의 지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태조 일행은 개성을 출발한 3일 뒤인 1월 21일, 경기도 양주 내 위치한 회암사(檜巖寺)를 지나칠 즈음에 왕사(王師) 자초(自超, 무학대사)에게 함께 순행할 것을 청하였다. 자초가 순행 대열에 합류하고 일행이 길을 떠나 한강(漢江)에 이르게 되었을 때, 태조가 갑자기 병이 나서 나흘간을 강가에 머무른 까닭에 순행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²⁶⁹⁾ 일행은 가까스로 2월 8일 계룡산에 도착하여 신도읍지를 둘러보고, 다시 2월 13일에 환궁길에 올랐다. 어가가 장단(長湍)에 도착한 26일, 세자(世子)가 마중 나와 이를 맞이했고,²⁷⁰⁾ 이튿날인

었다. 표면적으로는 태실(胎室)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1392년 11월 27일, 이성계는 권중화(權仲和)를 보내어 양광도(楊廣道)·경상도·전라도 세 지역에서 왕자의 태를 묻을 적당한 땅을 안태(安胎)하도록 하였다.²⁶⁷⁾

이듬해 1월 2일 권중화가

267) 『太祖實錄』 2권, 태조 1년 11월 27일(갑진).

268) 『太祖實錄』 3권, 태조 2년 1월 2일(무신).

269) 『太祖實錄』 3권, 태조 2년 1월 22일(무진).

270) 『太祖實錄』 3권, 태조 2년 2월 26일(신축).

27일에 백관(百官)들이 모두 개성 용둔(龍屯)의 들로 나와 태조를 맞이하였다. 이로써 20여 일이 걸린 계룡산 순행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3월 24일 계룡산을 최종적으로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기내(畿內) 81개의 주현(州縣)·부곡(部曲)·향소(鄕所)도 확정지었다.²⁷¹⁾

그러나 1393년(태조 2) 12월 11일, 경기좌우도 도관찰사(京畿左右道 都觀察使) 하륜(河崙)이 ‘계룡산은 풍수상 흉지에 해당하므로 도읍을 건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신도의 역사가 중지되었다.²⁷²⁾ 곧바로 도읍 후보지에서 계룡산 일대가 제외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천도예정지로 무악(毋岳, 서대문구 신촌동·연희동 일대)이 새로 물망에 올랐다. 1394년 2월 23일, 무악을 놓고 천도지로 적합한가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좌중의 의견이 엇갈리자 태조 자신이 직접 시찰한 후에 도읍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6월 27일 또 다시 도읍지 물색에 들어갔다. 도읍지 선정을 놓고 매번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양산정도감(陰陽刪定都監)을 설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7. 12. 설치). 그러나 공교롭게 장마철에 농번기가 겹쳐 도읍을 정하는 문제는 문하부 낭사(郎舍)의 건의대로 8월 이후로 연기되었다.²⁷³⁾



한양의 백악산(지금의 북악산, 문화재청)

태조가 직접 천도할 땅을 찾아 나선 것은 8월 8일이었다. 천도를 위해 자신이 직접 무악 땅을 확인하고자 행행(行幸)한 것이다. 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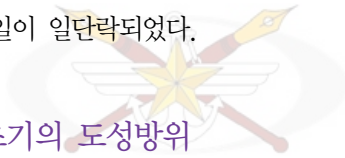
271) 『太祖實錄』 3권, 태조 2년 3월 24일(기사).

272) 『太祖實錄』 3권, 태조 2년 12월 11일(임오).

273)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7월 19일(병진).

번개와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렸다. 임금 친히 무악(毋岳)의 천도지를 보고 자 도평의사사와 대성(臺省)·형조(刑曹)의 관원 각각 한 사람과 친군위(親軍衛)를 데리고 갔다.²⁷⁴⁾ 그러나 대개 여러 재상이 제시한 의견이 천도(遷都)가 ‘옳지 않다’고 한 까닭에 언짢은 기색으로 왕은 개성으로 돌아갔으나 자신이 직접 “개경으로 돌아가 소격전(昭格殿)에서 의심을 해결하겠다”며 다시 남경(南京, 한양)으로 행차하였다.²⁷⁵⁾

8월 13일에는 백악(白岳)의 산세를 관망하며 왕사 무학(無學)과 여러 신하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현지에서 종묘 지을 터를 보고 노원역(盧原驛) 들판에 유숙하였다.²⁷⁶⁾ 태조는 대다수 중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학에게 자문하여 최종적으로 한양을 새로운 도읍지로 결정지었다. 이로써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는 일이 일단락되었다.



제 2 절 조선 초기의 도성방위

가. 한양 도성 건설

1395년 9월 궁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태조는 이듬해 초부터 도성(都城) 축조 공사를 진행하려는 뜻을 밝혔다.²⁷⁷⁾ 이를 위하여 윤9월 1일 종묘에 이안도감(移安都監)을 설치하고 10일에 태조 자신이 직접 도성의 터를 순회하였다. 또한 도성조축도감(都城造築都監)을 두어 판사·부판사·사(使)·부사(副使)·판관·녹사 등을 임명하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

274)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8월 8일(을해).

275)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2일(기묘) 태조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양을 둘러보고 14일 한양을 출발하여 15일 회암사(檜巖寺)에 거둥하여 중들에게 밥을 먹이고, 풍천(楓川) 서쪽에 이르러 유숙하였다(『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5일(임오)).

276) 『太祖實錄』 6권, 태조 3년 8월 13일(경진).

277) 『太祖實錄』 8권, 태조 4년 9월 26일(정사).

여 성터를 정하도록 하였다.²⁷⁸⁾

우선, 태조는 도성 축조 공사에 앞서 여러 도에서 징발한 인부를 동원하



개경의 태평관(한국학중앙연구원)

여 태평관(太平館)을 짓게 하였다. 태평관은 정동행성(征東行省)을 고쳐 부른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태조가 궁궐과 도성을 새로 창건하기로 하면서 이를 태평관이라 하였다. 공사는

각 도에서 인부 1,000여 명을 징발하여 태평관을 건조하고,²⁷⁹⁾ 그 관리는 영접도감(迎接都監) 아래 두어 사신 접대소로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1396년 1월 9일 착공한 도성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월 28일까지 1차 공사,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2차 공사였다. 1월 9일, 1차 공사에서는 민정 118,070여 명을 징발하여 도성을 쌓았다. 할당 구역은 이미 성터를 측량하여 자호(字號)를 나누어 정했고, 백악(白岳)의 동쪽에서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백악의 서쪽으로 조자(弔字)에서 그쳤다. 서쪽 산 돌재(石嶺)까지 합해서 땅의 척수가 59,500척(尺)이고, 6백 척마다 한 자호(字號)를 붙여 모두 97자(字)였다. 한 글자마다 6호(號)로 나누고, 두자(字)마다 감역(監役)을 두고, 판사(判事)·부판사(副判事)는 각 1원(員)을 두고,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은 12원(員)을 두었다. 각도 주군(州郡)의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동북면 함주 이남,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서북면 안주 이남의 동원 인력이 각 구간을 나누어 담당하

278) 『太祖實錄』 8권, 태조 4년 윤9월 10일(신미) ; 『太祖實錄』 8권, 태조 4년 윤9월 13일(갑술).

279) 『太祖實錄』 8권, 태조 4년 윤9월 19일(경진).

었다.²⁸⁰⁾

도성 축성 1차 공사는 1월 9일 공사 첫날 백악(白岳)과 5방(方)의 신(神)에게 치제(致祭)한 것을 시작하여 2월 28일 마무리되었다.²⁸¹⁾ 이때 동대문(東大門) 지역은 낮은 지세로 인해 밑에다가 돌을 포개어 올린 뒤 축성하는 작업공정으로 인해 안동(安東)과 성산부(星山府) 사람들이 미처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태조는 농사철에 맞추어 백성을 돌려보내야 한다며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²⁸²⁾ 공사 후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5부(五部)의 총 52방(坊)에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하였다.²⁸³⁾ 동부가 12방(坊)이니 연희(燕喜)·숭교(崇教)·천달(泉達)·창선(彰善)·건덕(建德)·덕성(德成)·서운(瑞雲)·연화(蓮花)·숭신(崇信)·인창(仁昌)·관덕(觀德)·흥성(興盛)이요, 남부가 11방이니 광통(廣通)·호현(好賢)·명례(明禮)·태평(太平)·훈도(熏陶)·성명(誠明)·낙선(樂善)·정심(貞心)·명철(明哲)·성신(誠身)·예성(禮成)이며, 서부가 11방이니 영견(永堅)·인달(仁達)·적선(積善)·여경(餘慶)·인지(仁智)·황화(皇華)·취현(聚賢)·양생(養生)·신화(神化)·반석(盤石)·반송(盤松)이고, 북부가 10방이니 광화(廣化)·양덕(陽德)·가회(嘉會)·안국(安國)·관광(觀光)·진정(鎮定)·순화(順化)·명통(明通)·준수(俊秀)·의통(義通)이며, 중부가 8방이니 정선(貞善)·경행(慶幸)·관인(寬仁)·수진(壽進)·징청(澄清)·장통(長通)·서린(瑞麟)·견평(堅平)이었다.

1차 공사에 이어서 2차 도성 축조 공사는 1396년(태조 5)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행되었다. 2차 공사는 7월의 폭풍우로 성벽과 수구 일부가 무너진 데다 도성문 건립이 중요한 공역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는 성문

280) 『太祖實錄』 9권, 태조 5년 1월 9일(무진).

281) 『太祖實錄』 9권, 태조 5년 1월 9일(무진) ; 『太祖實錄』 9권, 태조 5년 1월 10일(기사).

282) 『太祖實錄』 9권, 태조 5년 2월 28일(병진).

283) 『太祖實錄』 9권, 태조 5년 4월 19일(병오).

제조(城門提調)를 별도로 두었다. 경상·전라·강원도에서 축성인부(築城人夫) 79,400명을 징발했다.²⁸⁴⁾ 공사는 토성의 일부가 무너진 곳을 석성으로 고쳤으나 어느 정도가 바뀌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성벽 자체는 봄철에 쌓은 곳에 물이 솟아나 무너진 곳이 있어 석성(石城)으로 쌓고 간간(間間)이 토성(土城)을 쌓았다. 운제(雲梯)도 빗물로 인하여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또 운제(雲梯) 1소(所)를 두어 수세(水勢)를 나누게 하고, 석성(石城)으로 낮은 데가 있는 곳에는 더 쌓았다. 이성계는 도성(都城)의 축조 공사를 자주 시찰하고 감독관에게 술을 내려 주었는가 하면, 성 쌓는 역사를 마치면 정부(丁夫)들을 돌려보냈다.²⁸⁵⁾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성의 성문 이름이 지어졌다.²⁸⁶⁾ 오행(五行: 仁·義·禮·智·信)에 따라 남대문을 승례문(崇禮門), 동대문을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을 돈의문(敦義門), 그리고 북문을 소지문(昭智門, 후에肅靖門)이라 하였다. 그리고 4개의 소문을 각각 소의문(昭義門), 창의문(彰義門), 혜화문(惠化門), 광희문(光熙門)이라 했고,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종로 종각은 보신각(普信閣)이라 하였다. 이로써 한양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덕(五德)을 갖춘 도시의 상징을 띠게 되었다.²⁸⁷⁾

이렇게 하여 2차 축성의 역사가 끝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군인이나 승려 등에 의해 도성 성벽의 부분적 보수는 계속되었다. 1398년(태조 7) 2월 8일에야 승례문(崇禮門)이 완공되었다. 2차 공사 때에 도성문의 육축(陸築) 정도만 쌓고 그 위 문루는 추후의 보완 공사로 완성하였다.²⁸⁸⁾ 1397년(태

284) 『太祖實錄』 10권, 태조 5년 8월 6일(신묘).

285) 『太祖實錄』 10권, 태조 5년 9월 24일(기묘).

286) 『太祖實錄』 10권, 태조 5년 9월 24일(기묘). “又作各門月團樓閣。正北曰肅靖門，東北曰弘化門，俗稱東小門。正東曰興仁門，俗稱東大門。東南曰光熙門，俗稱水口門。正南曰崇禮門，俗稱南大門。小北曰昭德門，俗稱西小門。正西曰敦義門，西北曰彰義門。”

287)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p.74.

288) 김응호, 『조선 초 도성의 축조와 수도 경계 기능』, 『서울학연구』 47, p.4.

조 6) 1월 풍해도(豊海道, 황해도)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동대문 응성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해 4월에 준공하였다. 또한 8월에는 경기도 장정들을 징발하여 10월까지 도성을 수축하였다.²⁸⁹⁾

〈표〉 도성8문의 성문 이름

방향/속칭	도성8문 (실록 명칭)	오행	참고 (정도전 작명)
정남: 남대문	승례문	예(禮)	승례문(崇禮門)
정동: 동대문	흥인문(興仁門)	인(仁)	흥인지문(興仁之門)
정서: 서대문	돈의문(敦義門)	의(義)	돈의문(敦義門)
정북: 숙청문(肅淸門)	숙청문(肅淸門)	지(智)	소지문(昭智門, 뒤에 肅淸門으로 개명)
서남(西南, 小北): 서소문(西小門)	소덕문(昭德門)		소의문(昭義門)
서북: 창의문(彰義門)	창의문(彰義門)		창의문(彰義門)
동북: 동소문(東小門)	홍화문(弘化門)		혜화문(惠化門)
동남: 수구문(水口門)	광희문(光熙門)		광희문(光熙門)
중앙: 종로의 종각		신(信)	보신각(普信閣)

두 차례에 걸친 도성 축조가 완료될 무렵, 새 궁궐인 경복궁을 측량하고 석축(石築) 궁성의 축조에 들어갔다. 1398년(태조 7) 1월, 다시 경상·전라·충청·황해도의 군인들을 도성 축조공사에 동원하였다. 경복궁은 중건되었지만 아직 다른 궁성의 축조가 더 남아 있었다. 태조는 직접 궁성을 쌓는 역졸들에게 양식을 주거나 남문에 나가 궁성의 기지 등을 수시로 순시하는 열성을 보였다.²⁹⁰⁾ 궁성 축조 공사는 민정·군정을 동원한 것이었

289) 『太祖實錄』 11권, 태조 6년 1월 15일(무진) ; 4월 28일(경술).

290) 『太祖實錄』 13권, 태조 7년 1월 13일(신유).



현재의 경복궁 전경(문화재청)

으므로 태조의 명에 의해 3월 3일부로 인부들을 돌려보낸 후에도 실제 궁성 성문 공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경복궁 궁성의 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정국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방원(李芳遠)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왕실은 옛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1405년(태종 5)이 되어서야 한양으로 되돌아와 한성부를 새 도읍으로 삼았던 것이다. ‘왕자의 난’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뒤 한양 천도를 단행하고 도성 축조를 진행하며 건국의 기틀을 다져나가던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²⁹¹⁾ 이런 와중에도 도성 축조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성곽 축성을 마치고 궁궐 축조까지 끝내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한성(漢城)의 향교동(鄕校洞)에 이궁(離宮)을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고 창덕궁이라 명명했으며,²⁹²⁾ 태종 때인 1411년(태종 11) 9월 5일, 경복궁(景福宮) 궁성의 서쪽 모퉁이 공사를 진행하였

291) ‘왕자의 난’은 조선 초 지배층 내부의 알력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첫 발단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방원(芳遠, 후일 태종)이 건국의 최고 공로자인 정도전(鄭道傳)과 대립하던 중에 제기된 왕위계승문제였다. 이방원은 정도전·남은(南問) 등이 자기 형제들을 제거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들을 살해한 다음, 방석(芳碩)·방번(芳蕃) 형제마저 살해하였다(제1차 왕자의 난, 1398). 이후 이방원은 자신의 음모 혐의를 피하고자 세자 책봉을 받지 않은 차 둘째 형 방과(芳果, 정종)에게 양보하였다. 정종은 즉위 직후에 도읍을 개경(開京)으로 옮겼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 간 싸움이 재연되었다. 실권을 장악한 이방원에게 셋째 형인 방간(芳幹)이 도전한 것이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로 방간은 이방원에게 패하며 유배당했고 박포(朴訥)가 주살되었다(제2차 왕자의 난, 1400).

292) 『太宗實錄』 8권, 태종 4년 10월 6일(갑술).

다. 그리고 1426년(세종 8) 10월 말, 마침내 궁성 문과 다리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궁성 축조 공사를 종료하였다.²⁹³⁾

나.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과 방어체계는 중앙군의 편제인 오위제(五衛制)의 형성과 맞물리면서 가다듬어졌다. 도성 천도와 이에 이어지는 도성 축조 과정에서 중앙군의 오위제 편성은 군사제도 상의 변화로 보면,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1393년(태조 2) 지휘부인 의흥삼군부의 설치와 함께 고려조의 중앙군인 2군 6위에다 의흥친위좌·우위(義興親衛左·右衛)를 신설하여 10위(衛)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이를 이듬해 10사(司)로 개칭한 뒤 3군에 분속한 제1단계를 시작으로 1457년(세조 3)에 5사제를 5위제로 진법상 5위 전투편성의 원리에 따라 부대편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기까지 총 5회에 걸친 군제 개편을 단행하였다.²⁹⁴⁾

이러한 초기 군제의 개편과정을 도성방위 차원에서 정리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²⁹⁵⁾ 크게 보면 공병·사병의 혼합적 운영, 사병 혁파에 의한 국가공병으로의 흡수과정, 그리고 12사를 5사로 다시 5위로 개편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조선건국부터 1400년 사병혁파 이전의 시기(1392~1400)로서 국왕시위(侍衛)는 태조의 잠저(潛邸) 시절의 친병(親兵)이 주로 담당하고 궁궐과 도성의 수비는 공병(公兵)과 사병(私兵)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중적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음은 사병혁파 이후 1451년 12사가 5사로 개편될 때까지(1400~1451)의 시기로 사병혁파 이후 1451년 12사가 5사로 개편될 때까지는 모든 군사

293) 차용걸, 「도성의 축조와 개축」, 『서울2천년사』, 2013, p.279.

294)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pp.188-192.

295) 김응호, 「조선초기 경군 재편과 '수도방위」, 『서울학연구』 23, 2004, pp.108-109.

력을 국가의 공병으로 흡수하고, 새로 출현한 특수병종을 10사와 별도의 지휘계통하에서 국왕의 시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1451년 이후, 12사를 5사로 개편했다가 다시 5사를 5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금군을 제외한 각종 특수병종들을 5위에 편입시켜 『경국대전』에 규정화한 시기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²⁹⁶⁾

〈조선 초 군제개혁〉

구분	연도	조치 내용	특징
1차 개혁	1393년 (태조 2)	의흥삼군부 설치, 10위 →10사로 개칭 및 3군 분속	고려조 군제 탈피
2차 개혁	1409년 (태종 9)	10사→9시위사(侍衛司)·1순위 사(巡衛司)로 개편	·지휘계통 및 통수체계 정립 ·친위병력의 특수 병종 증강 ·10사의 시위병화 촉진
3차 개혁	1418년 (태종 18)	·12사로 확대(龍奮司, 虎牙司 추가)→3군에 4사씩 분속	·국가 재정 장악 ·부방(赴防)을 주임무로 하는 양계 감사 설치→중앙군의 확장 및 금군 기능 강화
4차 개혁	1451년 (문종 1)	12사→5사로 개편 (中軍: 義興, 忠佐, 忠武司, 左軍: 龍驤司, 右軍: 虎賁司)	·1사에 5량씩 25명 분속 ·특수병, 5사에 분속
5차 개혁	1457년 (세조 3)	5사제→5위제로 개편 (진법상의 편성에 병합)	5군 진법에 의한 5사 편제→5위 진법 전투편성 원리로 편제

296) 백기인, 『한국 군사사상 연구』, pp.191-192.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초기 군제는 태조가 즉위한 직후 바로 고려 말의 경군 조직(8衛)을 10위(衛)로 재편한 데서 출발하였다. 사병을 혁파하여 공병으로 만드는 과정이 조선 초 군사조직의 형성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성계의 친위 병력인 도총중외제군사부(都總中外諸軍事府)를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로 바꾼 다음, 이를 의흥친군좌위와 의흥친군우위로 재편하고, 여기에 8위를 합설한 것으로 친위부대를 공병화하여 경군의 핵심부대로 편성한 것이 조선 초 군사제도의 개편이었다. 이때 각 위마다 5령(中領·左領·右領·前領·後領)을 두어 10위 50명 체제를 갖추었는데, 궁중 수비를 담당하던 종래의 성중애마(成衆愛馬)는 혁파 논의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금군(禁軍)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종친이나 훈신 개개인에 의해 통솔되는 사병적인 시위패(侍衛牌) 등에 귀속시켰다. 이 같은 왕실 및 귀족들의 사병이 주축이 된 중앙군 지휘부로서 1393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설치되고 중방(重房)이 혁파되었다.²⁹⁷⁾

조선 초에 중앙군 형성은 태종대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후, 1400년 사병 혁파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공식화되었다.²⁹⁸⁾ 조선 초 군사제도는 사병 혁파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고, 경군의 핵심이던 10사(司)를 시위병화(侍衛兵化) 하여 갑사제도(甲士制度)를 성립시켰다. 종래 비합법적으로 궁중 수비의 일익을 담당하던 갑사는 삼군부로 이속, 국가의 공적 군사조직에 편입되었다. 그 정원도 1,500명을 증원하여 2,000명으로 정하고 각 위(衛)의 직임에 충당하여 1년씩 서로 교대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²⁹⁹⁾ 이런 제도하에서 갑사는 10사 50명의 각 령(領)에 20명씩 배치되어 궁성시위와 도성 순작의 핵심 병력으로 활동하였고, 1405년(태종 5) 한양

297) 『太祖實錄』 4권, 태조 2년 9월 14일(병진).

298) 『定宗實錄』 4권, 정종 2년 4월 6일(신축).

299) 『定宗實錄』 6권, 정종 2년 12월 1일(신묘). “復立甲士二千, 一千充諸衛之職, 一年相遞爲式.” ; 『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 10월 27일(신축) ; 『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 3월 2일(무진).

으로의 재천도 이후 도성방위의 핵심 전력을 차지하게 되었다.³⁰⁰⁾

이밖에 관제 개혁을 통하여 병조(兵曹)가 승추부(承樞府)의 군령행사 기능을 흡수하여 군령과 군정의 최고기관이 되었다가 1414년(태종 14)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복설되면서 군령기관으로서 병조와 양립하였다.³⁰¹⁾ 이후 세조대 관제개혁 때 최고 군령기관인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로 개칭되었다.³⁰²⁾ 이렇게 하여 조선 초 중앙군은 1451년(문종 1)에 다시 환원된 12사를 5사로 개편한 후 1457년(세조 3) 5위 체제(5위 25부)를 형성함으로써 초기 군제의 편성을 완료하였다.³⁰³⁾

이러한 오위제는 부대 편제를 전투편성인 진법체계와 일치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군사를 모두 분속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종별 독자성을 유지하고 지휘체계를 간소화하여 부대와 실질적인 통솔자가 일체화된 지휘통솔이 가능하게 하였다. 5위 체제는 예종 때에 이르러 소속 병종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³⁰⁴⁾

한편 금군(禁軍)과 오위군(五衛軍)으로 구성된 중앙군은 크게 보면 도성방위체제의 운영 부대였지만 일차적으로 근무지역에 따라 궁성방어와 도성방어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중앙군으로서 왕권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금군이 있고 또한 수도방위를 위한 5위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왕권의 보호와 직결되었다. 궁성방어는 도성방어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이는 도성방어의 구조와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인 경제활동이었다. 기본적으로 금군이나 5위병들은 평시에는 주로 입직과 행순·시위 및 훈련에 종사하고 왕이 행행(行幸)할 때는 이를 호가(扈駕)·시위(侍衛)하였으며, 일단

300) 김용호, 「조선초기 경군 재편과 '수도방위」, 『서울학연구』 23, 104쪽.

301) 『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 8월 11일(경술).

302) 『世祖實錄』 7권, 세조 3년 4월 1일(갑오) ; 『世祖實錄』 38권, 세조 12년 1월 15일(무오) ; 『經國大典』 권4, 「兵典·京官職·五衛都總府」

303) 『世祖實錄』 7권, 세조 3년 3월 6일(기사).

304) 『睿宗實錄』 5권, 예종 1년 5월 7일(경인) ; 『經國大典』 권4, 「兵典·京官職·五衛」

유사시에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도방위 부대로서의 국방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³⁰⁵⁾

중앙군은 5위체제하에서 도성방위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었다. 부대편성은 유사시 지방군과 연결하여 국왕의 통수권 아래에서 조직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도성수비를 위해서는 별도 편성이 필요하였다. 1428년

(세종 10), 도성의 수비와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병조 예하에 도성위(都城衛)와 도성경수소(都城警守所)가 설치되었다. 전자인 도성위는 도성 전체의 방위 임무를 맡은 기구였고, 후자인



도성경수소는 도성내 각지에 배치되어 실제적인 경비

임무를 맡았다. 도성위는 도성 수비 외에도 국왕이 거동할 때에 시위도 담당했으며, 도성경수소는 도성 내외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도성 내외의 검찰(檢察) 업무를 담당하였다.³⁰⁶⁾ 궁성에서의 임무는 국왕 시위, 궁성 입직 및 궁성문 파수, 궁성 안팎의 행순(行巡)이었고, 도성에서의 임무는 도성문 경비, 도성 안팎의 순작(巡緝)이었다.³⁰⁷⁾

305) 차문섭, 「군사조직」, 『신한국사론』 23, 국사편찬위원회, 2002, p.225.

306) 강성문, 「수도 서울 방위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45, p.149.

307) 『經國大典』 권4, 「兵典」의 行巡·宿衛·啓省記·門開閉·侍衛·教閱. 당시 도성 수비에 대한 병력 규모나 운영 실태 등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經國大典』에 따르면 순찰이나 숙위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성에서는 야간 통금을 실시하는데(2更부터 5更, 21:00~05:00), 궁성을 순찰할 때는 궁궐 안에서 위장(衛將 또는 부장(部將)이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시각을 나누어(分更) 순찰한다. 도성 안팎에서는 병조(兵曹)가 궁성의 당직을 마치고 대기하는 군사(出直軍士)를 - 5개 衛에서 각각 1部씩 차출 - 2개소에 나누어 배정하여 순찰

이러한 중앙군에 의한 궁성과 도성에 관한 수비원칙과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와 동시에 도성방위에 관한 전략적 개념도 보다 분명해졌다. 구조적으로 보면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외적에 의해 위협을 당할 경우라는 것은 서해안을 통해 바다로 침입하거나 육지로 침입하는 경우였다. 특히 바다로 침입하는 경우도 강도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가장 위협적인 침입로였는데, 실제로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으로서 왜구가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 가능성은 낮았을지라도 몽골족이나 여진족 등도 북부 국경을 거쳐 침입한다면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주변 외적에 대응하는 조선의 방위전략은 기본적으로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군사력에 의한 대응방식이었다.³⁰⁸⁾

왜구가 침공해 온다면 1차적으로 경기좌우도의 수군이 적을 막게 되고, 2차로 서울의 정예 병력이 도성 밖에서 기병전술을 활용하여 적을 막았다. 최종적으로는 도성에 적이 접근하면 그 틈을 타서 성곽 시설을 이용하여 방어에 임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 실제로 경기 지역에는 수군 외에는 지방군의 병력이 편성되지 않았다. 당시 경기 지역에 군사를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과전(科田) 등 사전(私田)이 설치된 곳인 데다가 주민들이 역(役)에 자주 동원되었고 서울에 중병(重兵)이 있었기 때문이다.³⁰⁹⁾ 태종연간에 조선의 최정예 수군은 왜구가 바다에서 한양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한강 하구의 교동과 강화도에 집중 배치되었고, 세종연간에는 왜

하게 한다(『經國大典』 권4, 「兵典, 行巡」). 그리고 궁성 경비대 편성으로 궁성 숙위대를 운영하며, 병조에서 각 궁성마다 정병(正)과 갑사(甲士)를 배치하여 파수 임무를 부여하고 광화문과 종묘의 문에는 대졸(隊卒) 각 10명씩을 파견한다. 도성의 각 성문은 대기하는 보병(出直步兵)에게 파수하게 하며, 지휘관으로는 흥인문·승례문·동소문에 호군(護軍)급을 배정한다. 이외 문에는 오원(五員)급 상당수의 군관을 배정한다. 각 성문의 병력은 궁성 대문에 각 30명, 중·대문의 좌우 협문에 각 20명, 소·중문 협문에 각 10명씩을 배치하며, 궁궐 안에서 당직하는 제 관원·수장·순관 및 군사도 편성하여 운영한다(『經國大典』 권4, 「兵典, 宿衛·啓省記」).

308)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 과정과 수도방위」, 『한국사연구』 127, 2004, pp.237-239.

309) 『太祖實錄』 2권, 태조 1년 12월 16일(임술); 『太祖實錄』 7권, 태조 4년 4월 4일(정묘)



남산 봉수대 복원(문화재청)

구의 침입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자 경기좌우도의 수군 병력이 해안지역 전반을 방어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되었다. 집중 배치든지 혹은 분산 배치든지 간에 경기 수군의 임무가 수도방위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북방 대륙의 위협이 적지 않았다. 북방의 적이 침입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태세는 건국 초부터 1432년(세종 14) 4군 6진의 개척이 시작된 시기나 이후 1450년(세종 32)부터 세조연간에 걸친 약

20년간 동안은 조선의 조정이 대규모 적침에 대비하던 시기였다. 이때에는 고려 말의 익군체제(翼軍體制)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익군 조직은 고려 초기의 주진군(州鎭軍)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지방군의 일종이었다. 고려 말인 1358년(공민왕 7)에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적 기능이 강한 지역 단위별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국경지대를 요새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편성한 것이다.³¹⁰⁾ 다시 말하면, 익군체제란 평안도와 함경도, 즉 양계(兩界)에 설치한 익군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제로 국경지역으로부터 한양에 이르는 교통로 주변에 산성을 쌓고, 그 가운데 주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지휘체계와 병력동원체제를 갖추고 요충지의 성마다 군량을 비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경방어를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도

310) 『高麗史』 44, 世家44, 공민왕 7년 6월 16일(계미).

성방어와 연결한 단계적 방위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건국 초에는 평양성을 제외한 북방지역에 성곽 시설 등이 미비하여 양계에 성의 신축과 수축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³¹¹⁾ 그러나 지역적으로 광범한 곳에서 성곽을 비롯하여 방어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적으로 익군체제를 동·서북면에서 정비하고 이를 확대시켜 보다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군익도(軍翼道)에 분속시키는 한편, 각 익의 소속 군현을 재조정하여 각 도를 중·좌·우의 3익으로 나누고 북방지역에 부족한 각 지역의 성곽과 읍성을 정비했던 것도 그러한 까닭이었다.

이렇듯 조선 초 국가방위 개념은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국경지대에 병력이나 군수물자를 집중시켰고 이에 따라 양계 후방의 국방태세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였다. 도성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국경지대에서부터 적을 방어하고자 했고, 이후 점차 단계적으로 요해처에서 병참선이 신장된 적의 전력을 약화시켜 도성방어단계에 이르러서는 적의 전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략적 관건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 초 도성방위체제는 병농일치제에 의거하여 국토 전반의 방위를 실현하는 오위진관체제와 연계하여 수도방위를 보장하는 전국의 관방체계 및 중앙집권적 방위체제의 결합이었다. 이러한 관방과 수도 방위의 전략적 구조하에서 조선 왕실의 초기 도성(都城)은 다만 도읍으로서 위용을 갖추고 내란으로부터 중앙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것을 실제적 기능으로 하는 데 머물고 있었다.³¹²⁾ 그러므로 조선 초 도성방위의 요체는 결국 국경지역의 1차방어선과 이에 연하는 2차 방어선, 그리고 도성지역의

311) 오종록, 「조선초기의 국방관」, 『진단학보』 86, 1998, pp.147-148.

312) 오종록, 「조선 초기의 국방정책」, 『역사와 현실』 13, 1994, p.222 ;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 과정과 수도방위」, 『한국사연구』 127, p.240.

3차 방어선의 3단계 연결선의 단계적인 방어전략이었다. 적침이 일어날 경우에 의주와 이성·강계를 1차 방어선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안주를 중심으로 2차 방어선, 평양을 중심으로 3차 방어선을 형성하는 축차적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당시 도성에 대한 중시가 도성의 방어시설 강화나 도성방어책의 마련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국방의 관심도가 국경방어에 집중되었던 까닭이다.³¹³⁾

제 3 절 조선후기의 도성방위체제

가. 북한산성과 도성외곽 축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종래의 도성 성곽 외에 남쪽으로 남한산성과 북쪽의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도성의 축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외형상 도성을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내성과 외성으로 안팎이 완전하게 보장을 이루는 도성의 구조적인 형태를 갖추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군영제(軍營制)의 정착과 함께 도성방위체제(都城防衛體制)가 강화되고 그 수비체계가 정비되었다. 임진왜란과 인조반정(仁祖反正)³¹⁴⁾ 등 내·외적인 전란을

313) 정해은, 「조선초기 도성의 위상과 도성방위론」, 『서울학연구』 49, p.125.

314) 인조반정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데, 이는 사건이 본질적으로 1623년(인조 1)에 서인 일파가 광해군과 집권당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 중(宗, 인조)을 왕으로 옹립한 군사정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선조(宣祖)에 이어 즉위한 광해군(光海君, 1608-1623)은 자신의 기반인 대북(大北)과 함께 서인·남인의 집권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 왕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시켰다. 이러한 광해군의 행동은 사림(士林)들에게 패륜으로 여겨졌고 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반정파에 가담한 서인의 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김유(金鑾)·이괄(李适) 등은 3월 12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거사 직전에 이이반(李以旼)에 의해 계획이 누설되었으나 예정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 장단으로부터 이서(李曙)의 군사, 이천에서 이중로(李重老)의 군사가 모여들어 홍제원에서 김유의 군대와 합류, 이괄을 대장으로 하여 능양군 친술 아래 이날 밤(3월 12일) 창의문을 향해 진군하였다. 대궐은 혼란대장 이흥립(李興立)의 내응으로 무난히 점령되었으며, 그길로 대왕대비의 유히를 얻어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다(仁祖反正). 이로써 광해군이 몰려나고 대북정권이 몰락하면서 60년간 서인이 우세를 점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정국이 형성되었다.

겪은 이후, 조선에서는 남한산성의 축조와 더불어 강도(江都)를 기각지세(掎角之勢)로서 도성방위에 대한 이중적 보장지(二重的保障地)에 의한 방위 전략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병자호란으로 청과 맺은 정축화약(丁丑和約)에 따른 갖가지 제약으로 남한산성을 비롯한 조선의 군사 활동이나 방어시설 구축 등이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런 외중에도 효종은 청에 대한 복수를 천명하며 북벌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성방위를 위시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성지수축(城池修築)과 함께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강도를 집중 요새



남한산성 행궁(문화재청)

태안반도의 안흥(安興)을 강화도 수비의 전초기지로 삼아 강화도 방비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³¹⁵⁾

한편 1674년(숙종 즉위년) 10월, 청나라가 오삼계 반란을 토벌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에 원병을 청해 오자 조정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도성 축조를 논의하였다. 사실은 이미 이해 3월, 오삼계 반란 세력에 경정충(耿精忠)·상지신(尙之信)이 가세하면서 상황이 확대되자 청 정부가 조선에 원병

화하고자 하였다. 효종 때 지향한 강화도의 요새화 전략은 ‘강도 연해(江都沿海)의 설진(設鎭)’이라는 이른바 ‘이중적 보장지’의 구축이었다. 이를 위하여 강도 연변에 진보를 설치하고,

315) 『孝宗實錄』 14권, 효종 6년 1월 17일(임인). “命元斗杓主江華,李厚源主安興,李時昉主南漢山城,洪命夏主紫燕島,使之各自修繕儲峙.”

을 요청해왔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 조정에서는 국방대책에 관한 새 논의가 제기되었다. 1674년 11월 13일, 북한산(北漢山)에 축성하자는 허적(許積)의 의견이 국왕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숙종은 바로 축성을 율허했으나 현지 형세를 살펴본 뒤에 조치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그 실행은 잠시 보류되었다. 그렇지만 이날의 북한산성 축조 논의는 장차 북한산성과 도성 축조의 시발점이 되었다.³¹⁶⁾

1675년(숙종 4) 10월 8일, 허적(許積)·김만기(金萬基)·윤휴(尹鑄)·오시수(吳始壽)·신여철(申汝哲) 등이 북한성(北漢城) 터를 직접 가서 둘러보았다. 이들이 돌아와서 3일 후인 11일 주강에서 국왕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각자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에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북한산성 축성문제는 십수 년이 경과하고 말았다.³¹⁷⁾ 1691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비국(備局) 당상(堂上)인 윤이제(尹以濟)·오시복(吳始復)·권유(權愈) 등이 상소하여 북한산성의 축조를 계속하도록 촉구하였다.³¹⁸⁾ 그리고 1702년(숙종 28) 8월 10일에는 강화유수(江華留守) 이사영(李思永)이 강도의 토성(土城) 보수에 관하여 국왕 숙종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결국 이듬해인 1703년(숙종 29) 3월, 국왕이 직접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산성 축조에 관한 문제를 본격 제기하였다.³¹⁹⁾ 이때 이조판서 김구(金構)는 “나라의 보장(保障)은 다만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이 있을 뿐인데, 전일에 성상의 하교에 또한 이르기를,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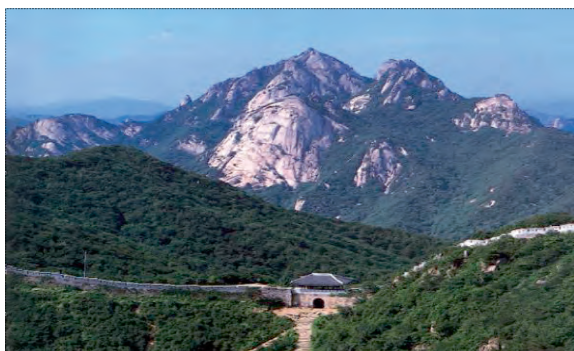
316) 『肅宗實錄』 1권, 숙종 즉위년 11월 13일(임신), 23일(임오) ; 『肅宗實錄』 2권, 숙종 1년 1월 24일(계미).

317) 『肅宗實錄』 4권, 숙종 1년 10월 8일(임술), 11일(을축).

318) 『肅宗實錄』 23권, 숙종 17년 11월 29일(기묘).

319) 당시 유사시 임금의 피난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성 축조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숙종으로서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대보단 설치가 이와 관련된다. 대보단의 설치의 당색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대명의를 내세워 흐트러진 전열을 국왕 중심으로 재정비하기에 적절한 사안이었다. 대보단 설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인 이려(李耆, 1645-1718)나 민진후 등 노론 세력이었다(鄭玉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p.81).

은 외롭게 떨어져 있고 강도는 조금 멀며, 또 해구(海寇)를 피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으나, 신의 염려하는 바는 다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 신이 일찍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이 편리하다고 여겨 다시 가서 거듭 살펴보니, 천지만엽(千枝萬葉)이 둘러싸여 진실로 아주 안전하고 함락되지 아니할 형세가 있었으며, 또 깎아지른 듯한 곳이 많아서 성을 쌓을 즈음에 공역이 크게 줄어들고, 위급할 때에 힘을 얻음이 이곳보다 더 나은 곳이 없었으니, 큰 계책을 빨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산성 축



북한산성(문화재청)

조를 강력하게 제기 하였다.³²⁰⁾ 우의정 신완(申琬)도 이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북한산성 축조 지지론자들의 입장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도성은 크고 넓어서 방어가 곤란하고 국초에 축성과정에서 견고하게 쌓지 못하여 약하고, 둘째 남한산성과 강화도는 멀고 접근성이 불편하여 의지할 만한 곳이 못되며, 셋째 북한산성은 도성에 근접하고 주위가 험준하여 자성(子城)으로 삼고, 도성을 모성으로 삼아 두 성 간에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국을 노론이 주도하면서 숙종의 왕권 강화 기도에 부합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이양선 출현 등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의한 위기의식이 북한산성에 행궁을 짓는 일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결과였다.³²¹⁾

320) 『肅宗實錄』 38권, 숙종 29년 3월 15일(경신).

321) 백기인, 「18세기 조선의 육·해방론 전개」, 『군사』 제104호, 2017, pp.221-222.

이렇게 하여 1703년 3월 25일, 신완이 김구(金構) 등 여러 대장(大將)과 더불어 현장의 성지(城址)로 가서 살펴보고 날을 정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³²²⁾ 그러나 민심은 이에 대하여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상소를 간하는 여러 신하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찬반 격론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도성 수축 반대론자들은 하나의 성도 지키기 어려운 데 두 성을 함께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 산성 안의 지세가 험준하여 서로의 명령계통이 어려워 유리한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북한산에 우물이 부족하여 대군이 주둔할 수 없고 북한산성의 축조는 정축화약(丁丑和約)을 위반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산성 축조에 반대하였다.³²³⁾ 1704년(숙종 30) 1월 29일까지도 사실상 공사는 착수되지 못했다.³²⁴⁾ 그러던 중 2월 15일, 훈련대장 이기하와 어영대장 윤취상이 도성 둘레의 그림을 그려 올렸다. 이때 숙종은 도성(都城)의 축조,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의 증수(增修), 관애(關隘)와 신지(信地)를 설정하도록 명하고,³²⁵⁾ 3월 15일에 도성 개축물자에 관한 승인을 내리면서 수축 전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고유제(告由祭)를 지내도록 지시하였다.³²⁶⁾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산성 축성의 선행과 도성 수축의 선행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마침내 도성 수축을 선행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704년 3월 25일, 먼저 삼각산(三角山)에 고유제를 지내는 것을 필두로 도성 수축이 시작되었다. 이때의 도성 수축이란 도성 성벽의 축조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해 8월 이후 공사가 본격 진행되었고 1709년(숙종 35)에 준공을 보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격적인 수축공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

322) 『肅宗實錄』 38권, 숙종 29년 3월 25일(경오).

323) 『承政院日記』 3책,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 『仁祖實錄』 34권,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 『大東野乘』 권33, 『續雜錄』 4, 丁丑年 上.

324) 『肅宗實錄』 39권, 숙종 30년 1월 29일(기사).

325) 『肅宗實錄』 39권, 숙종 30년 2월 15일(을유) ; 『備邊司謄錄』 54책, 숙종 30년 2월 15일.

326) 『備邊司謄錄』 54책, 숙종 30년 3월 15일 ; 『承政院日記』 22책, 숙종 30년 3월 15일(갑인).

있기 때문에 1704년(숙종 30) 9월 이후, 도성 수축에 대한 시비가 재연되었다.³²⁷⁾ 결국, 숙종은 9월 1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 군문에 대하여 일면 떠놓은 돌을 운반하고, 일면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도록 하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지 말고 점차로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침과 함께 수축공사를 재개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벽두인 1705년(숙종 31) 1월 15일, 한성군(漢城君) 이기하(李基夏)가 병자호란의 화약(정축화약)을 들고 나와 청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³²⁸⁾ 그에 의하면, 성곽의 선축(繕築)은 신구를 막론하고 불허하므로 도성 수축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면 반드시 힐문(詰問)할 것이므로 도성의 수리를 청하는 내용으로 자문(咨文)을 보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좌의정 이여(李馥)는 정축화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국도(國都)와 지방의 성지(城池)는 다르다면서 도성 수축을 청나라

327) 『肅宗實錄』 40권, 숙종 30년 9월 2일(기해).

328) 정축화약(丁丑和約)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도중에 조선과 청이 맺은 강화조약이다.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조선에 군신관계를 강요하며 청 태종(홍타이지, 皇太極)이 1636년(인조 14) 12월 친히 13만 대군으로 침공을 개시하여 이듬해 1월 30일까지 계속된 조선-청 간 전쟁이다. 청은 최초 선봉부대로 마푸다(馬福達, 馬夫大) 군이 12월 2일 심양을 출발, 이달 8일에 압록강을 도하한 후 9일에 백마산성을 떠나 안주·평양·평산을 거쳐 한성을 향해 남진, 14일에 개성을 지나 연서역을 거쳐 한성 근교 양철리에 도착했다. 한편, 조선 조정은 적군이 압록강을 건너 개전한 지 6일이 지난 13일에 첫 보고를 받았는데(황주 정방산성에서 방어 중이던 도원수 김 자점의 보고), 이에 따라 강화로 파천하기로 하고 14일 아침 일찍 종묘의 신주를 강화로 보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국왕 인조는 강화로 들어가려 했으나 이미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세자와 함께 동현로(을지로)를 지나 수구문으로 도성을 빠져나와 살곶이(箭串, 마장리(馬場里)를 경유하여 신천(新川)·송파(松坡) 두 나무를 건너 이경(二更, 밤 10시경)에 이르러 남한산성에 입성하였다. 이로써 1636년 12월 15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5일간에 걸친 농성이 시작되었는데, 조선 측은 청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전론과 화친론이 엇갈린 속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637년 1월 22일 강화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의 전세마저 기울자 결국 28일 항복하기로 하고 화의에 들어갔다. 양측 간 실무적인 합의(정축화약)가 끝나자 조선 군은 농성전을 풀고 국왕이 삼전도 나무터로 나가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는 예식을 갖추어 전쟁을 종결지었다. 정축화약은 ①명나라의 고명(誥命·황제의 명령서), ②책인(冊印·책봉 문서와 도장)을 청나라 황제에게 바칠 것 ③명나라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을 것 ④명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청나라 연호를 사용할 것 ⑤세자와 왕자 및 대신의 자제를 심양에 인질로 보낼 것 등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재성, 『병자호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pp.235-237을 참조.

에 통고할 필요 없이 서서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³²⁹⁾ 이렇게 도성 축조문제는 청나라에 보내는 자문에 축성 사실을 넣지 말자거나 혹은 왕의 ‘성지순심(城池巡審)’ 정도의 표현으로 자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또 다시 격랑을 탔다.³³⁰⁾ 결국 공사는 도성을 축조한 뒤 무고(武庫)의 대완포(大碗砲)까지도 배치하려고 했던 숙종의 의도에 따라 다시 강행되었다.³³¹⁾

그리하여 1705년(숙종 31) 8월, 수어청에서 담당하던 동쪽 도성의 120보를 개축하였고,³³²⁾ 1706년(숙종 32) 9월까지 동쪽과 서쪽의 도성 수축을 끝내고 다시 남쪽과 북쪽의 도성 수축에 착수하였다.³³³⁾ 남·북쪽 도성의 수축에 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지만 1707년(숙종 33) 7월, 어영청에서 분담하던 숙정문(肅靖門) 서쪽 성첩의 허물어진 곳에 대한 수축을 마쳤다는 보고가 보인다. 또한 1710년(숙종 36) 2월 18일, 어영청 낭청이 도제조의 뜻으로 “도성의 여장(女牆) 수축 공사를 결정한 바에 의하여 지금 거행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³³⁴⁾ 이해 봄부터 성첩(城堞)의 수축 공사가 착수되었고, 1709년 10월 이전에 남·북쪽 도성의 수축이 일단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여 수축 완료한 도성은 주위가 9,975보, 성첩이 7,081개였다.³³⁵⁾

그런데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성 수축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북한산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북한산성 축조가 좌절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대체로 탕평정치(蕩平政治)를 지향한 김구·유득일·유집일·이유·홍수주·윤취상·이사영 등은 북한산성의 축

329) 『肅宗實錄』 41권, 숙종 31년 1월 15일(경술); 『備邊司謄錄』 55책, 숙종 31년 1월 22일.

330) 『肅宗實錄』 41권, 숙종 31년 1월 15일(경술), 2월 6일(경인)

331) 『肅宗實錄』 41권, 숙종 31년 2월 6일(경오).

332) 『肅宗實錄』 42권, 숙종 31년 8월 21일(임자).

333) 『備邊司謄錄』 57책, 숙종 32년 10월 9일.

334) 『備邊司謄錄』 58책, 숙종 33년 7월 1일; 『備邊司謄錄』 60책, 1710년 2월 18일.

335)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 학연연구소, 1998, p.68.

조문제를, 보장처인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한계를 북한산성의 축성으로 보완 하려는 입장에서 찬성하였다. 이와 달리 노·소론 봉당세력 대부분은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이른바 ‘수근본론(修根本論)’을 내세우면서 북한산성 축조에 반대하였다.³³⁶⁾

그러나 도성 수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던 1708년 5월, 사재감봉사(司宰監奉事) 이상휴(李相休)가 “성지·군제·병항(兵餉)·기계(器械)에 이르러서는 더욱 군국(軍國)의 대사에 관계됩니다. 강도와 북한산성의 역사는 비록 한꺼번에 일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례로 경영하면 반드시 귀결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부호 중에 한가로이 노니는 무리는 별도로 삼청(三廳)을 설치하여 자주 연습시키면 어찌 정예한 군졸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거듭되는 재론의 단초가 열렸다.³³⁷⁾ 그는 다시 이듬해인 1709년(숙종 35) 도성 수축공사의 완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종묘직장(宗廟直長)이던 이상휴는 종묘서(宗廟署)와 사직서(社稷署)의 명칭을 ‘서(署)’에서 ‘전(殿)’으로 고쳐야 한다며 북한산·홍복(洪福)에 성을 쌓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부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숙종은 2곳의 성(城)에 관한 일은 경솔하게 의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하였다.³³⁸⁾

이상휴의 건의가 있고 난 후 도성 수축이 거의 완료되어 가던 1710년(숙종 36) 9월 28일 청국으로부터 도착한 자문으로 인하여 북한산성 축조문제가 재차 점화되었다.³³⁹⁾ 지금까지 청국의 입장은 조선의 군사 확충에 대하여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입장을 피력해 왔던 것이다. 청국 자문은 해적 소탕과 관련하여 조선 측에 ‘연해방수’에 힘쓰

336)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p.74.

337) 『肅宗實錄』 46권, 숙종 34년 5월 29일(갑진) ; 『承政院日記』 23책, 숙종 34년 5월 29일(갑진).

338) 『肅宗實錄』 47권, 숙종 35년 6월 29일(무진).

339)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9월 28일(기미).

도록 제안한 것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정축화약(丁丑和約)에서 청이 조선에 제한을 가한 축성 등 이른바 ‘군비통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장령(掌令) 유술(柳述)이 상소하여 북한산성 축조를 다시 한번 건의했으며, 무인(武人) 신석백(辛錫百)도 도성을 증수해서 완급할 때 굳게 지키는 계책을 삼고 북한산성을 쌓아 안팎으로 서로 응하는 형세가 되도록 할 것을 국왕에게 요청하였다.³⁴⁰⁾

이렇듯 북한산성에 관한 축성 논의가 재기되자 훈련대장 이기하는 직접 북한산성·홍복산성의 지세를 보고 와서 “도성과 멀지 않은 곳에 이러한 천험(天險)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버려두었으니, 매우 애석하게 여길 만합니다”라고 보고하였다.³⁴¹⁾ 이에 숙종은 1710년 10월 중에 북한산성 축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 데다가³⁴²⁾ 11월과 12월 논의를 거친 다음에는 내심 축성 실행 쪽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³⁴³⁾ 그리고 마침내 1711년(숙종 37) 2월 5일, 숙종은 축성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국왕은 3월 20일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이 북한산성 축조의 불편함을 논하자 다시 한번 “도성을 지킬 수 없음을 익히 헤아린 것이다. 북한산의 축성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지키자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고 국방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숙종은 북한산성 수축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였다.³⁴⁴⁾ 이렇게 북한산성 축조에 관한 국왕의 의지가 확인된 이튿날인 3월 21일,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즉시 사역 개시를 제안하자 국왕 숙종의 윤허가 바로 내려졌다.³⁴⁵⁾ 드디어 3월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입시했

340)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10월 2일(계해) ;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10월 11일(임신).

341)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10월 13일(갑술).

342)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10월 16일(정축), 17일(무인), 20일(신사), 26일(정해).

343) 『肅宗實錄』 49권, 숙종 36년 11월 10일(경자), 12월 1일(신유), 1710년(숙종 36) ; 北漢誌, 「事實」 ;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기능」, 『한국문화』 32, 2002, p.165.

344) 『肅宗實錄』 50권, 숙종 37년 3월 20일(기유).

345) 『肅宗實錄』 50권, 숙종 37년 3월 21일(경술).

을 때에 북한산성 축조일에 관해서도 다가오는 4월 안으로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³⁴⁶⁾

북한산성의 축성 공사는 3군문(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711년(숙종 37) 4월 3일부터 시공에 들어가 축성 작업은 이해 9월까지 체성(體城)과 여장(女牆)을 순차로 완공하였다. 성문의 공사는 10월 중으로 완료되어 10월 18일부로 완료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비변사에서는 “북한산성의 축성 공사를 3군문에 나누어 주어 4월 초3일에 시공하여 체성과 여장은 9월까지 순차로 완공하여 성문의 공사도 이제는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축조한 주위의 보수와 척수와 여장의 첩수 및 사용한 물력을 별단으로 써 올린다는 뜻으로 감히 아뢰입니다.”³⁴⁷⁾라면서 3군문이 6개월간의 공사를 통하여 축조한 성문 주위 보수와 척수, 여장의 첩수, 사용 물력을 별단으로 써 올렸다. 3군문이 축조한 성기(城基)의 총량은 7,620보(21리 60보), 이수(里數)로 환산한 작리(作里)로는 21리 60보였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⁴⁸⁾

북한산성 축조로 도성 외에 수도방위를 위한 거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북한산성 축성만으로는 지형의 특성상 서쪽이 평탄하여 전란을 당했을 때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바로 북한산성에 중성(重城)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이 북한산의 형편상 중성의 축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³⁴⁹⁾ 이에 대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는 조지서(造紙署)에 중성(中城)을 축조하여 그곳에 1명의 대장(大將)을 따로 두어 지키고 도성을

346) 『備邊司謄錄』 61책, 숙종 37년 3월 25일.

347)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0월 18일. “北漢城役三軍門分授，自四月初三日始役，體城·女牆，至九月鱗次畢役，而門役今始完畢，所築周圍步數·尺數，女牆堞數，用下物力，別單書入之意敢啓.”

348)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0월 18일.

349) 『肅宗實錄』 50권, 숙종 37년 10월 1일(병진).

외성(外城)으로 삼기를 청하였다.³⁵⁰⁾

〈표〉 북한축성 별단(北漢築城別單)

구분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담 당 구 역	7,620보 (21리 60보)	수문에서 북쪽으로 용암 합보수(合步數) 2,292보	용암의 남쪽에서 보현봉 합보수 2,821보	어영청 수문 남쪽에서 보현봉 합보수 2,507보
축 성 / 여 장	고축 2,746보 반축 2,906보 반반축 511보 지축여장 1,457보 여장 합계 2,807첩*	고축(高築) 1,052보 반축(半築) 771보 지축여장(只築女 牆) 469보 여장 합계 704첩(堞)	고축 474보 반축 1,836보 반반축 511보 여장 합계 1,107첩	고축 1,220보 반축 299보 지축여장 988보 여장 합계 986첩
문 루	-	수문(水門) 높이 16척(尺), 넓이 50척 북문(北門) 높이 11척, 넓이 10척. 홍예문(虹霓門)으 로 만들 서암문(西暗門) 높이, 7척, 넓이 7척 백운봉 암문(白雲峯暗門) 높이 6척 3촌(寸)	용암 암문(龍巖暗門) 높이 6척 5푼[分], 넓이 7척 5푼 소동문(小東門) 높이 9척, 넓이 10척. 홍예문으로 만들 동암문(東暗門) 높이 6척 6촌, 넓이 6척 5촌 대동문(大東門) 높이 13척, 넓이 14척. 홍예문으로 만들	대서문(大西門) 높이 11척, 넓이 13척. 홍예문으로 만들 청수동암문(淸水洞 暗門) 높이 7척, 넓이 7척 부왕동암문(扶王洞 暗門) 높이 9척, 넓이 8척 가사당암문(伽沙堂 暗門) 높이 7척, 넓이 7척 소남문(小南門) 높이 11척, 넓이 11척. 홍예문으로 만들

* 원사료의 여장합계 2,807첩은 합산 오류, 여장 합계 2,797첩.

350)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4월 9일(신유).

1712년 4월 10일, 국왕 숙종이 직접 북한산성에 행행(行幸)하여 여러 신하와 함께 북한산성 문제를 논하였다. 북한산을 찾은 숙종은 아침 일찍 떠나 서교(西郊)를 경유하여 북한산성에 이르러 서문(西門)으로 들어가 수문(水門)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이어 소석가현(小釋迦峴)에 올라 성 안팎도 두루 보고자 했으나 길이 험하고 닦아지지 않아 단지 시단봉(柴丹峰)에만 올랐다. 이때에 숙종은 서문 가장자리가 가장 낮으니 중성을 쌓지 않을 수 없다며 속히 의논하여 쌓도록 했는데, 국왕으로서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형편을 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이 성을 보니 과연 천험이다. 비록 조그만 흠이 있다 하나 세상에 어찌 십분 꼭 좋은 땅이 있겠는가. 양향(糧餉) 등 일은 반드시 차례로 조치하면 된다. 이전에 성 밖에 창고를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는 꼭 성 안에 들여다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⁵¹⁾



북한산성 성벽(문화재청)

마침내 5월 3일,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중성(重城) 축조공사가 시작되었다.³⁵²⁾ 공사는 총융청(摠戎廳) 주관으로 1714년(숙종 40)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초대로 남북을 연결하는 공사로 완공되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

351)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4월 10일(임술).

352)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3일(을유).

하다. 다만 총융청에서 북한산성에 중성을 쌓는 일은 5월 3일 시작하여 25일쯤 마무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⁵³⁾ 당시 사간(司諫) 권수(權愴)가 상소하여 북한산성의 결점을 거론하고 중성 축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³⁵⁴⁾ 그는 북한산성이 위급할 때 방어 가능한지 믿기 어렵다는 것과 중성을 다시 쌓지 말아야 할 것을 논하며 도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양주(楊州)·광주(廣州)·수원(水原)·장단(長湍)이 네 거진(巨鎭)이 되어 병갑(兵甲)을 수선하고 양식을 저축하여 홀연히 보거(輔車)의 형세가 있다면 도성이 웅장해질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웅장해질 것이며, 광주성 수어(守禦)의 일을 대략 끝냈으니 세 고을은 우선 흠으로 쌓고 적당한 사람을 얻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목차(穆差)의 경계를 정하는 일에 대하여 응변하는 방략을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숙종은 다음과 같이 비답하였다.

“북한산성의 천험은 옛날의 검각(劍閣)과 같다.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져 높은 성을 이제 막 완성했으니, 그밖의 모든 일을 차례로 경리(經理)하여야 할 것이다. 천하에 어찌 아주 흠이 없는 땅이 있겠는가.”³⁵⁵⁾

한편, 북한산성 축성 후 이를 관리하고 관장할 독립 관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사실 1712년(숙종 38) 5월 북한산성 중성의 축조가 시작될 무렵에 숙종이 독립 관청의 설치문제를 거론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종태나 조태구 등은 삼군문에 분속이나 중신(重臣)·장신(將臣) 등에 의한 주관 혹은 남한산성의 예와 같이 수령(守令) 설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즉,

353)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3일(을유).

354)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25일(정미) ; 5월 25일(정미).

355)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25일(정미).



충용청(한국학중앙연구원)

처음에는 서종태가 북한산성의 일에 대해 "김우항(金宇杭)의 말로는 북한산성 안에 마땅히 한 고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 일은 장애되는 바가 많이 있으니, 삼군문(三軍門)이 나

누어 담당하는 외에 특별히 중신(重臣)이나 재신(宰臣) 혹은 장신(將臣) 중에서 한 사람을 가려 주관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했던 것이다. 이에 공조판서 조태구(趙泰耆)는, "대신(大臣)이나 중신(重臣)은 서울에 있으면서 멀리 지방을 다스리는 법이니 민호(民戶)를 거느리는 것은 그 맡은 바가 아니며, 성 안의 백여 호는 모두 오합(烏合)의 무리로서 만약 진정하지 않는다면 창곡(倉穀)을 훔치고 인명을 살해할 우려가 없으리라 보장하기 어려우니, 남한산성의 예에 의거하여 주관하는 사람을 차출하고, 또 수령(守令)을 둬서 마땅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논의에 대하여 숙종은 "삼군문이 나누어 관장하는 것은 종시 영원히 행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니, 일찍이 총융사(摠戎使)로 하여금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융사도 또한 민호를 관할하게 할 수 없으니, 관부(官府)의 설치가 가장 착실한 것이 된다. 다시 더 생각하고 헤아려 품정(稟定)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³⁵⁶⁾ 요컨대 북한산성 중성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아닌 북한산성 중성을 관리하는 담당 관원과 독립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였다.

356) 『肅宗實錄』 51권, 숙종 38년 5월 5일(정해).

그리하여 1712년(숙종 38) 8월 23일, 비국의 여러 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북한구관당상(北漢句管堂上)을 설치하였다. 숙종은 영의정 서종태가 추천한 민진후 대신에 판부사 이유를 주관으로, 병조판서 조태채를 당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산성을 짓는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구관하는 방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를 동래(東萊)와 강도(江都)의 예에 의하여 따로 주관하는 당상(堂上) 1명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숙종은 비변사의 낭관(郎官) 1인과 서리(書吏)·사령(使令) 각각 2인씩 획급(劃給)하도록 승인하였다.³⁵⁷⁾ 북한산성의 주관부서 명칭은 이이명(李頤命)의 건의에 따라 경리청(經理廳)이라고 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산성은 중성의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³⁵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경리청은 북한산성에 보관할 군량미의 확보와 이를 관리할 전담기구다.³⁵⁹⁾ 본청은 도성의 향교동(鄕校洞)에 두었고, 그 예하부서로 관성소(管城所)를 두었다. 1713년(숙종 39) 9월 2일 주장에서 지사(知事) 조태채(趙泰采)는 다음과 같이 경리청의 축조를 건의하였다.

"북한성의 양식을 다만 파주·고양·양주에만 나누어 주면 백성은 적고 곡식은 많음을 면치 못하니, 교하(交河) 또한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경리청(經釐廳)은 다만 이름만 있는데, 북교(北郊) 고사(庫舍) 밖의 좌기청(坐起廳) 및 북한산 9사(寺)에 또 별당(別堂)과 고사(庫舍)를 건축할 일이 있으니, 청컨대 공명첩(空名帖) 5백 장을 더 얻어 그 역사를 완성하게 하소서. 충익위(忠愷衛)에 모속(冒屬)된 자를 비국(備局)에서 본청(本廳)으로 이속(移屬)시켰는데, 액수가 수천에 지나지 않으니, 그대로 본청에 소속시켜 수첩군관(守堞軍官)이라 이름하여 매년 베 1필씩을 받아 승속(僧俗)을 접제(接濟)하는 밀천을 삼도록 하소서."³⁶⁰⁾

357) 『肅宗實錄』 52권, 숙종 38년 8월 23일(갑술).

358) 『肅宗實錄』 52권, 숙종 38년 9월 13일(계사), 9월 20일(경자).

359) 이현수,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 『청계사학』 8, 1991.

360) 『肅宗實錄』 54권, 숙종 39년 9월 2일(병오) "北漢羅羅，只分坡州、高陽、楊州，不免民少穀多，交

이렇게 하여 축조된 경리청은 탕춘대(蕩春臺)의 축성문제로 인하여 그 험파 논의가 제기되었지만,³⁶¹⁾ 북한산성 관하의 군량미 확보 및 보관을 전담하는 지휘부로서 기능하였다. 평창(平倉)과 관성소(管城所)는 북한산성 내의 실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예하 부대다. 이외에 경리청에는 관성소 외에 산성의 수비를 담당하던 곳으로 산성 내 승영(僧營)이 주둔하였다.

경리청의 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²⁾

〈표〉 경리청·평창·관성소 편성

편제		인원	비고
경리청 (經理廳)	도제조(都提調)	1	영의정 당연직 겸임(例兼)
	제조(提調)	1	경재(卿宰) 중 국왕 명으로 임명(啓下兼帶)
	낭청(郎廳)	1	비변사(備邊司) 무낭청(武郎廳) 중 차출 임명
	관성장(管城將)	1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역임한 자 중 국왕이 임명. 행궁소(行宮所) 위장(衛將)이라 부르다가 후에 도별장(都別將)이라 부름. 1722년(경종 2, 壬寅) 관성장(管城將)이라 개칭.
	호방(戶房)	1	지방관아 6방(房) 중 호전의 일을 담당한 향리(鄕吏)의 직소(職所)
	군관(軍官)	3	군사 사무 담당 관리
	서리(胥吏)	4	경아전의 하급 이서(吏胥)
	고직(庫直)	2	관아의 창고 경비 및 감시원
	사령(使令)	5	각 관아의 심부름꾼
	문서직(文書直)	1	
	군사(軍士)	2	
	구종(丘從)	2	하인

河亦直一體分給，而經營廳，只有名號，北郊庫舍外，坐起廳及北漢九寺，又有別堂，庫舍營建事，請加得空名帖五百張，以完其役，忠翊衛冒屬者，自備局移屬本廳，而數不過數千，仍屬本廳，名以守堞軍官，每年收布一疋，以爲接濟僧俗之資。”

361) 『肅宗實錄』 63권, 숙종 45년 2월 2일(을사).

362) 『北漢誌』, 官員條 : 將校 吏卒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산성의 수비에 동원된 병력은 주로 관성소의 인원이나 승영의 인원이었으며, 혹은 전가사변(全家徙邊)에 해당하는 죄



북한산성 대남문 원경(문화재청)

인의 경우에도 북한산성에 속하여 수비를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삼군문에서 설치한 유영(留營)의 병력은 평시에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소속 인원이 미약하였다. 『비변사등록』의 1713년(숙종 39) 2월

23일조에 의하면,³⁶³⁾ 전가사변에 해당하는 죄인을 북한산성에 넣어두는 것에 대한 합의 과정이 나온다.

먼저 행병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북한(北漢)의 성 안에 백성을 모으는 일에, 반드시 명목이 있어 임의로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한(南漢)에는 일찍이 군(軍)을 충당하는 규례가 있으니 이 역시 그 예에 의하여 죄가 전가사변(全家徙邊)에 해당하는 부류로서 우마적(牛馬賊) 외에 모두 북한에 편입해 넣어 두면 비단 그들이 서울에 가까운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역시 백성을 모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영의정 이유(李濡)는 "신이 밖에 있을 때에 역시 이러한 뜻으로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근래 죄를 범하고 다른 곳으로 정배된 부류가 국법을 두려워 않고 함부로 배소(配所)를 옮기고 임의로 서울에 왕래하는 자가 많으니, 진정

363) 『備邊司謄錄』 65책, 숙종 39년 2월 23일 ;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pp.89-90.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전가사변할 자를 북한산성으로 보내 두는 경우, 그 가족(家屬)들은 비록 도성을 왕래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와 다르니 산성(山城)을 수호하는 일에 있어 착실해질 것입니다"라고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숙종은 "전가사변할 부류를 남한산성의 예에 의하여 북한산성에 넣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산성에는 경리청과 그 관련 기관에 속한 인원 외에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관련 병력이 다소 주둔하였다. 이들은 북한산성 축조 과정에서 산성 내의 분수지역의 관리를 위해 삼군문에서 산성 내에 유영(留營)을 각각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공통적으로 유영감관(留營監官) 1인과 약간의 인력 편성이었다.³⁶⁴⁾

지금까지 북한산성 축조와 그 부대시설 등의 설치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도성의 수축과 북한산성 축조는 종래 조선 초의 방위전략과 사뭇 달라진 면모를 보인다. 첫째, 종래 보장처로서 강화와 남한산성 등을 중시하던 보장지 중심의 도성방위전략이, 도성외곽의 관방 외에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를 통해 '도성 자체 방어'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이동하였다. 둘째,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는 도성 방어 자체의 방어능력과 수단의 증대에 따른 자기 보존적 방어전략이었다. 셋째, 도성과 북한산성의 축조는 도성을 모성(母城)으로, 북한산성을 자성(子城)으로 하는 이중방어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나. 삼군문 도성수비체제의 형성

조선 후기의 도성수비체제는 부대편성상으로 보면 오군영체제(五軍營體制)의 구축이었다. 인조대 어영청(御營廳)을 설립한 데 이어서 총융청(摠戎

364) 『北漢誌』, 官員條：將校 吏卒附.

廳)·수어청(守禦廳)을 차례로 설치하면서 군영제(軍營制)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런 기반 위에서 숙종대 다시 북한산성을 축조하는 한편, 금위영(禁衛營)을 추가 설치하여 도성방위의 전략적 운용성을 강화한 오군영체제가 완비되었다. 오군영 가운데 맨 나중에 창설된 금위영은 현종대 창설한 훈련별대(訓練別隊)와 정초청(精少廳)의 통합적 산물이었다. 금위영은 이 두 부대를 군액 감축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다.³⁶⁵⁾ 1682년(숙종 8) 3월, 훈련도감 변통론으로 군제 개편과 군액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는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으로 훈련도감을 개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군영으로서 금위영 설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⁶⁶⁾

〈군제변통절목(軍制變通節目)〉

- ① 훈국(訓局)의 군병 5,707명 중에서 줄일 자는 707명인데, 그 줄인 것은 별대(別隊)로 옮겨 보낸다.
- ② 영(營)·부(部)의 표하별대군(標下別隊軍) 1만 3,949명 중에서 4부(部) 16사(司) 80초(哨)로 나누어 만들고 나머지 3,201명과 그 자보(資保)를 아울러 보인(保人)으로 낮출 자는 6,402명이다.
- ③ 정초군(精抄軍) 3,773명 중에서 1부(部) 25초(抄)를 만들고, 나머지 423명과 그 자보를 아울러 보인으로 낮출 자는 846명인데, 정초군의 보인 1만 1,628명과 원군(元軍)·자보로서 보인으로 낮추어진 자를 합하여 1만 2,474명 중에서 6,595명은 쌀을 바치고 그대로 속하고, 5,879명은 병조(兵曹)에 도로 속하여 별대·정초(精少) 양색(兩色)의 군병으로 합해서 한 영(營)의 제도를 만들어 본영(本營)은 금위영(禁衛營)이라 칭하고, 군병(軍兵)은 금위별대(禁衛別隊)라 칭하며, 7번(番)의 금군(禁軍) 기병·보병과 섞어 배정하여 10번으로 나누어 20개월을 번갈아 임무를 맡는다.

365) 『顯宗實錄』 16권, 현종 10년 2월 5일(무진) ; 『顯宗實錄』 17권, 현종 10년 7월 23일(갑인) ; 『玄宗實錄』 15권, 현종 9년 12월 27일(신묘) ; 『肅宗實錄』 3권, 숙종 1년 4월 10일(무술).

366) 『肅宗實錄』 13권, 숙종 8년 3월 16일(갑자).

이렇듯 금위영은 훈련별대와 정초청의 병력으로 편성한 부대였는데, 별대는 훈련별대 정군과 훈련도감에서 넘어온 707명을 합하여 13,949명이었다. 이 가운데 10,748명의 정군으로 4부(部) 16사(司) 80초(哨)를 편성하고, 정초청은 원래 정군 3,773명을 1부 25초 총 3,350명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정초청의 나머지 인원 423명을 기존의 보인 11,628명과 합한 12,474명 가운데 6,595명을 금위영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금위영은 정군 14,098명을 5부 105초로 편성하고, 자보 14,098명, 관보 54,097명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³⁶⁷⁾ 그러나 금위영 창설 초기의 병력은 모두 보병(步兵)이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684년(숙종 10) 정월, 500명 규모의 기병부대의 창설에 착수하여 이해 6월까지 황해도에서 200여 명을 확보하여 별효위(別驍衛)를 편성하였다. 즉, 황해도에서 별효위를 편성하여 13번(番)으로 나누어 만들고, 번마다 60명으로 조직하여 9월부터 차례로 번갈아 들어가 시위(侍衛)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³⁶⁸⁾ 이렇게 하여 금위영 창설로 5군영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일반 양인층에게 부여된 군역인 양역(良役) 폐단이 심각해져 각 군영의 지휘계통에 혼란이 초래되었고, 불법적인 사모속(私募屬)이 이루어져 피역의 온상이 되었다. 5군영이 연이어 설치되고 난립하자 도성방어 자체의 기능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양역의 폐단을 일으키는 발원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다. 결국 양역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논의되기는 했지만,³⁶⁹⁾ 1703년(숙종 29) 1월 금위영을 혁파하였다.³⁷⁰⁾ 그리고 1704년 12월, 양역대책은「양역변통절목(良役變通節

367)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p.201 ; 노영구, 「5군영제의 확립과 군영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 조선후기』, p.435.

368) 『肅宗實錄』 15권, 숙종 10년 7월 11일(을해).

369) 정연식, 「조선후기 「役廳」의 운영과 良役變通」, 서울대 박사논문, 1993 ; 정만조,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 『국사관논총』 17, 1990.

370) 『肅宗實錄』 38권, 숙종 29년 1월 14일(경신, 2월 8일(계미), 2월 26일(신축). 금위영은 숙위

目)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절목은 기존 군영에 대한 정비와 함께 새로운 삼군문 도성수비체제의 토대가 되었다. 총용청과 수어청, 금위영과 어영청의 편제를 통일함으로써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금위영과 어영청을 좌우로 편제하는 삼군문 도성수비체제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군영의 정비와 군액 감소, 그리고 3군문 도성수비체제가 성립되었다. 도성수비 차원에서 보면, 3군문 도성수비체제를 구비하는 「오군문개군제절목」을 통하여 군영의 정비와 함께 도성수비체제를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삼군문체제(三軍門體制)를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수어청과 총용청은 기보(畿輔)를 관장하는 군영으로 제외시키고, 훈련도감과 어영청·금위영을 중심으로 삼군문에 의한 도성수비체제를 이룩한 것이다.³⁷¹⁾



〈오군문개군제절목〉

- ① 총용청(摠戎廳)은 옛 군제에 좌영(左營)은 수원(水原), 중영(中營)은 남양(南陽), 우영(右營)은 장단(長湍)으로 이에 속한 군병(軍兵)과 장초(壯少) 등 제색군(諸色軍)이 통틀어 2만 1,339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중영이 3부(部)이고, 좌우영(左右營)이 각 2부로, 매부는 각 2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고, 매초는 각 125인데, 제색군(諸色軍)을 그냥 두거나 이동시키며 혹은 가감하여 다시 대오(隊伍)를 만들어 1만 5,181인을 정리해서 일군(一軍)의 체도를 편성하였고, 또 그 나머지 제군(諸軍)과 옮겨서 새로 보탠 자를 아울러 군수보(軍需保)라 칭하며, 양인(良人)은 쌀 12두(斗)를 거두고 노군(奴軍)은 6두를 거두어 군수를 보충했는데 통틀어 2만 3,157인으로서 구제에 비하여 그 수가 증가되었다.
- ② 수어청(守禦廳)은 옛 군제에 전영(前營)이 광주(廣州), 좌영이 양주(楊州), 우

의 약화를 우려하여 다시 2월에 복설되었다.

371) 『肅宗實錄』 40권, 숙종 30년 12월 28일(갑오), "御營禁衛兩軍, 俱以鄉軍, 疎其輪番之次, 除其長征之勞, 創設之善規, 實法唐之府衛兵, 兩營之均敵, 且倣西漢之南北軍, 而鱗次設營, 頗有詳略多寡之不同, 就其兩軍門舊制, 略加刪潤, 定其軍伍之規模, 均其額數之多寡, 使無偏輕偏重之弊, 如車兩輪, 如鳥兩翼, 而訓局居中, 足爲三軍之制."

영이 원주(原州), 후영(後營)이 죽산(竹山)이고 좌우부(左右部)와 중부(中部)에 소속한 제색군까지 도합 3만 9,589인이며, 남한산성의 치첩(雉堞)에는 2,268으로 대첩(大堞)의 수첩군(守堞軍)은 8인, 중첩의 수첩군은 6인, 소첩은 4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매첩에 2인씩 차례로 감축하였다. 우영 원주는 그 거리가 자못 멀어서 급할 때에 쓰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혁파하고, 좌영 양주를 고쳐서 중영을 만들었으나 광주의 군병이 너무 많아 중영과 후영에 분속시켜 삼영(三營)을 균일한 제도로 했으며, 좌부군(左部軍) 3분의 1과 중부군 3분의 2를 대장(大將)의 친병(親兵)에 이속시키고, 나머지 1분은 우부에 이속시키어 단지 좌우부만 두고 중부는 역시 혁파하였으며 중부 아병(牙兵)으로서 호서(湖西)에 있는 자 역시 혁파시켰다. 둔아병(屯牙兵)은 구제에 비해 양인은 감하여 쌀 6두(斗)를 받고 노군(奴軍)은 또 반액으로 감했으며, 좌우부의 아병은 구제에 비하여 양인은 10두(斗)로 감봉(減奉)하였고 노군(奴軍)은 그대로 4두를 받았다. 삼영(三營) 이부(二部)로 정하여, 매영은 각 5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며, 매부는 아병 각 16초요 마병(馬兵) 각 3초인데, 훈어마 보군(訓御馬步軍)·친아병(親牙兵)과 모두 1만 6,500인이며, 대장 이하 표하군(標下軍)·군수노보(軍需奴保) 등 제색군까지 도합 3만 2,350인이다.

- ③ 훈련도감(訓練都監)은 구 군제에 일영(一營)·이부(二部)·26초(哨) 및 제색군의 군수보(軍需保)·포보(砲保)·향보(餉保) 등을 그대로 옛 정원대로 두고 다시 증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대년군(待年軍)·용진(龍津)의 진군(陣軍), 각 읍의 취철모군(吹鐵募軍)·연군(鉛軍)·유황점 모군(硫黃店募軍) 등의 병력은 모두 옛 정원의 반을 감하였으며, 관리청(管理廳) 소속으로 송도(松都)에 예속된 군사도 또한 이를 감하였다.
- ④ 어영청(御營廳)은, 옛 군제는 5부(部)에 각 5사(司)와 별삼사(別三司)가 있고, 매사에 각 5초(哨), 별중(別中) 1초(哨)로 모두 141초이고, 매초에는 134인으로 자보(資保)·마보(馬保)·관보(官保) 등 제색군을 총합하면 10만 6,270인이었는데, 개정한 군제에는 5부(部)로 정하여, 매부에 각 5사(司)요, 매사에 각 5초(哨)이며, 매초에 127명이니, 5부 25사에 도합 125초와 각양의 표하(標下)와 삼보인(三保人)과 치중(輜重) 등의 군대까지 통합 8만 6,953인이 된다.
- ⑤ 금위영(禁衛營)은 옛 군제에 5부는 각 5사와 별양사(別兩司)가 있고, 매사에 각 5초와 별중(別中) 1초가 있는데 모두 136초로, 매초는 127인 및 삼보인(三保人), 경외(京外)의 표하(標下)와 별효위(別驍衛)·별파진(別破陣) 등 군이 통합 9만 1,696인이었는데, 개정한 군제는 5부 25사로 1사에 5초, 1초에

127인은 어영청의 제도와 한결같이 하고 제색군을 아울러 통합 8만 5,274명이다. 요군문에서 줄인 군액은 통계 3만 6,793인인데 이를 각도와 각읍에 나누어서 도망하거나 사망한 군병 대신에 보충하게 하였으며, 군문의 장교 역시 액수를 정하되 간략한 데 따르도록 힘썼다.

흔히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삼군이라 했는데 이는 본래 금위영 성립으로 인한 통칭이었다.³⁷²⁾ 도성방위를 위한 삼군문 수비체제는 1707년(숙종 33)부터 재정문제로 인하여 총융청과 수어청을 배제하고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 중심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체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³⁷³⁾ 이렇게 제도화된 삼군문 도성수비체제가 어떠한 모습(편제)이었고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³⁷⁴⁾ 그러나 영조대에 와서 제시된『수성절목』을 통하여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1743년(영조 19) 11월 도성 3군문에 성곽 수축 공사를 분담하여 추진한 결과,³⁷⁵⁾ 1744년(영조 20) 8월에 소덕문(昭德門)의 성루를 완성하였다.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 부른 소덕문은 금위영이 공사를 담당했으며, 그 명칭도 소의문(昭義門)이라고 고쳤다.³⁷⁶⁾ 도성 수축사업은 일부의 공사이기는 하지만 소의문 공사로 계속되었다. 1745년(영조 21) 7월 6일,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 도성을 분담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별단이 마련되었는데,

372) 『萬機要覽』, 「軍政編二·訓練都監」, 「軍政編三·禁衛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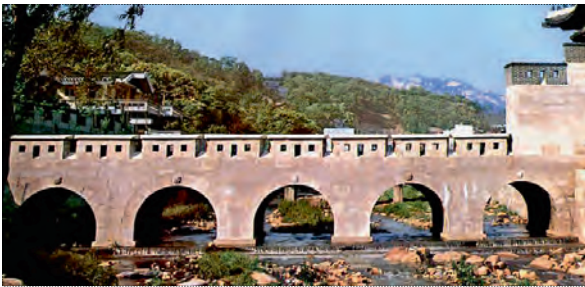
373) 『肅宗實錄』 45권, 숙종 33년 7월 11일(신유). “但訓·御·禁三軍門, 有財有兵, 可以自辦, 守禦·摠戎聽則每當城役, 責出錢布於備局, 此實難繼之道矣.”

374) 여기에서 삼군문 수비체제는 삼군문의 지휘체계가 훈련도감의 대장을 병조판서가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병조판서가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하여 어영청과 금위영을 거느리는 군영의 편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이는 국왕 숙종이 의도한 군권의 장악과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근호, 「중앙 5군영의 확립」, 『한국군사사』 7(조선후기), 육군본부, 2012, p.457을 참조.

375) 『英祖實錄』 58권, 영조 19년 11월 8일(정해).

376)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8월 4일(무신).

총 14,935보의 도성을 3군문에서 분담하여 수축하고 동시에 수비하게 한 것이었다.³⁷⁷⁾ 이날, 삼군문에 끌고루 나눈 도성의 척량보수(尺量步數)를 별단(別單)에 써서 들였다. 즉 숙정문(肅靖門) 동변(東邊) 무사석(舞砂石)에서 돈의문(敦義門) 북변까지 4천 8백 50보를 훈국(訓局)에 분수하고, 돈의문에서 광희문(光熙門) 남촌(南村) 집들의 뒤까지 5,042보 반을 금위영에 분수하고, 광희문에서 숙정문까지 5,042보 반을 어영청에 분수(分數)한 내용이 었다. 군기시(軍器寺)에 있는 주척(周尺)의 보수(步數)와 공장인(工匠人)이 쓰는 목척(木尺) 보수와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척량보수를 써 넣은 것이다.³⁷⁸⁾



홍지문과 탕춘대성(문화재청)

이와 더불어 도성의 방어편제와 군기관리 등을 망라하는 탕춘대(蕩春臺) 정비가 이루어졌다. 탕춘대 정비란 총융청을 탕춘대로 이치하고

탕춘대성을 축성하는 작업으로, 북한산성의 창곡 관리를 위해 1712년(숙종 38)에 설치한 경리청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³⁷⁹⁾ 1747년(영조

377) 『萬機要覽』, 『軍政』 3.

378) 『英祖實錄』 62권, 영조 21년 7월 6일(병자) : 『承政院日記』 54책, 영조 21년 7월 6일(병자) “三軍門分授都城, 尺量步數, 更爲別單入啓之意, … 大將臣金聖應, 大將臣金若魯, 大將臣朴文秀, 商確議定, 自肅靖門東邊舞砂石, 至敦義門北邊, 四千八百五十步, 訓局分授. 自敦義門北邊舞砂石, 至光熙門南邊南村家後, 五千四十二步半, 禁營分授. 自光熙門南邊南村家後, 至肅靖門東邊, 五千四十二步半, 御營分授, 而軍器寺所在周尺尺量步數, 工匠人所用木尺尺量步數, 及輿地勝覽所載尺量步數, 竝爲別單書入.”

379)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도성방위체제』, pp.132-133.

23) 5월 6일, 총융청의 북한구관당상(北漢句管堂上) 김시형(金始炯) 등이 입시하였다. 이때 총융청을 탕춘대로 옮기되 종사관 1원(員)을 출사하게 하고, 총융사(摠戎使)는 훈련원(訓練院)과 어영청(御營廳) 두 군영의 예에 의하여 겸임하도록 하였다. 탕춘대가 도성의 목구멍(咽喉)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총융청에 특별히 옮겨 세우고자 한 것이다.³⁸⁰⁾

총융청의 이설작업이 완료되자 영조는 탕춘대에 거둥하여 총융청 병사들의 총쏘는 것을 시험하고 차등있게 시상하는 한편, 부로(父老)를 불러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묻고서 각각 쌀을 한 말씩 지급하였다.³⁸¹⁾ 국왕의 관심은 영조 자신의 어머니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육상묘를 지나는 길에 탕춘대에 들러 장사들의 활쏘기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³⁸²⁾ 또한 얼마 후에는 탕춘대 이름과 관련하여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룬다”라는 말을 거론하며 탕춘대의 이름은 바르지 않으니 연용대(鍊戎臺)로 고치라고도 지시하였다.³⁸³⁾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연용대의 운용이 종래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보다 오히려 도성의 최근거리에 있는 외곽시설로서 전술적 차원에서 재평가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연용대를 하나의 군기제작소로 만들어 일관된 지휘 아래 총포와 화약을 만들어 보급하고 나아가 연용대의 방비도 강화함으로써 수도방어의 요충으로서 그 가치를 제고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런 방어전략은 도성방위체제하에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강화도를 유사시 피난처로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성방어에 전략적 외곽 요충지의 역할을 설정한 것과 같이 군사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한 판단이었

380) 『英祖實錄』 65권, 영조 23년 5월 6일(을미) ; 『英祖實錄』 66권, 영조 23년 9월 30일(정사).

381) 『英祖實錄』 66권, 영조 23년 10월 1일(무오).

382) 『英祖實錄』 74권, 영조 27년 7월 17일(신사).

383) 『英祖實錄』 82권, 영조 30년 9월 2일(무인). “子曰, ‘必也正名,’ 蕩春臺之名不正. 旣設京營, 時或臨焉, 不可不釐正. 其更名曰鍊戎臺.”

다.³⁸⁴⁾

이렇게 영조대 도성방위전략은 도성 자체의 방어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산성과 이를 지원하는 연용대의 연계적 활용을 통한 도성외곽방어(都城外廓防禦)를 충실히 한다는 이중적 방어대책의 수립이었다.³⁸⁵⁾ 이같은 영조대 도성방위전략은 「수성절목」이나 「도성삼군문분계총록」 등을 아우른 『수성책자(守城冊子)』의 간행 반포를 통하여 전략전술적 체계로 구체화 되었다.

한편 이런 도성의 수성(守城) 전략전술은 삼군문에 의한 도성방어 강화에 더하여 궁성·도성 안팎의 순라체계의 정비 과정을 통해 더욱 가다듬어졌다. 이미 1742년(영조 18)부터 도성수비문제가 전면 대두했을 때 도성수축 사업을 삼군문에서 전담하면서 삼군문이 도성방위의 핵심 군영으로 자리하였고, 수축 후에는 담당 구역의 수비와 보수를 담당하게 하고 궁성과 도성 안팎의 순라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도성수축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도성 위주의 수성방략(守城方略)도 차츰 구비되었다. 1747년(영조 23) 총융청 본영을 탕춘대(연용대)로 이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산성과 상보적인 관계에서 군사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영조는 도성방위를 위한 기본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자 도성수비절목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747년 2월 「수성절목(守城節目)」을 편찬한 데 이어, 1751년(영조 27)『수성책자(守城冊子)』가 간행 반포되었다. 『수성책자』는 「어제수성운음(御製守城綸音)」과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 및 「수성절목」을 합한 것이다.

「어제수성운음」은 국왕 영조의 수성 의지를 밝히고 사민의 도성수비에 대

384)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계의 확립」, 『조선후기의 도성방위체계』, p.133.

385)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해안, 2004, p.110.

한 각성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⁸⁶⁾ 국가가 유사시에 도성을 수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므로 도성민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유사시에 자기가 소속해야 할 군문(軍門)과 수비해야 할 도성의 지역을 평상시에 잘 알아 두도록 책자를 간행 반포하니 모든 도성의 백성들이 이를 잘 알아 두기를 바란다는 유지(諭旨)였다. 또한 유사시에는 해당 부관(部官)이 도성의 백성들을 영솔하되 등성(登城)할 때에는 궁시(弓矢)나 조총(鳥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모두 등성해야 하며, 궁시나 조총이 없는 사람은 모두 돌을 가지고 등성하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국왕의 도성 사수 의지와 사민의 도성 수비에 대한 각성·참여를 통한 군민합일적(君民合一的) 도성방위를 강조한 국왕의 ‘도성사수 천명서’나 다름이 없었다.³⁸⁷⁾

영조는 「수성윤음」의 편찬을 통하여 국왕의 의지를 담은 도성 중심의 도성방위전략이자 국가방위전략의 기초를 분명하게 밝혔다. 종래의 강화도·남한산성과 같은 보장처를 통하여 군사적 전략 목표의 가변성을 고려하면서도, 수도 한양으로 전략 목표를 고정화·명시화하여 도성방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명실상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³⁸⁸⁾ 역사상 전란으로 미루어 볼 때, 도성 자체를 사수하지 않으면 전승의 승패에 앞서 국왕과 종묘사직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역사적 반성에 따른 이른바 ‘도성사수(都城死守)’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려는 방위전략의 제시였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는 도성의 자연환경과 궁궐, 종묘 등의 주요한 건물과 성곽·도로·개천·행정구역 등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로, 특히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이 수비해야 할 도성의 위치를 나누어

386) 『守城論音』(韓古朝31-469-1) “噫今者守城節目國之重者。雖成節目尚不頒布。都城士庶何以知之。何部屬某營何坊屬某字內亦何以知之乎。”

387) 『英祖實錄』 74권, 영조 27년 9월 11일(갑술)

388) 신효승, 「영조대 도성방위의 수성전술 체계」, 『역사와 실학』 56, 2015, p.150.



도성삼군문분계지도(문화재청)

유사시에 한성부(漢城府)의 백성들이 모두 삼군문이 분담하는 도성구역(都城區域)에 배치되어 도성을 수비하도록 하고 있다.³⁸⁹⁾

「수성절목」에서는 국왕의 뜻을 받들어 일심협력하여 도성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도성수비에 대한 실행 사항을 9개 항으로 기록하고 있다.³⁹¹⁾ 수성절목에 나타나 있는 9개의 실행 사항은 국가 유사시 한성부의 주민들은 모두 3군문이 분담하는 도성구역에 배치되어 자기 담당구역의 도성을 수비하도록 배치하는 요령을 제시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를테면, 종전의 국경방어나 보장지 개념의 도성방어전략과는 달리 국왕을 비롯한 도성 주민 모두가 도성을 사수한다는 방위관념을 공유하는 방어체제를 갖추고자 했던 것이다. 삼군문의 각 군문과 한성 오부의 각계, 나아가 해당 영이나 매호에 이르기까지 그 세칙이 매우 치밀하고 실제적이다.

절목에서 각 군영에 분속한 오부의 호수 및 담당 구역은 다음과 같다.³⁹²⁾

389) 『東國輿地備考』 권1, 京都 城郭京城條 및 『萬機要覽』, 「軍政3 : 강성문, 「영조대 도성사수론에 관한 고찰」, 『청계사학』 13, p.241.

390) 강성문, 「영조대 도성사수론에 관한 고찰」, 『청계사학』 13, p.241.

391) 『守城冊子』, 守城節目條.

392) 『備邊司謄錄』 117책, 영조 23년 4월 19일.

〈삼군문에 분속한 오부 호수 및 담당 구역〉

군영	담당구역	성타(城垛)	소관민호(所管民戶)
훈련도감	숙정문(肅靖門)에서 돈의문(敦義門)까지	1,514타(垛)	중부(中部) 3,835호, 북부(北部) 4,766호 총 8,501호 * 원사료의 합산 오류: 8,601호
금위영	돈의문(敦義門)에서 남소영(南小營)까지	1,542타	서부(西部) 12,294호
어영청	남소영(南小營)에서 숙정문(肅靖門)까지	1,449타	동부(東部) 5,691호, 남부(南部) 8,239호 13,930호



수성기요(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이밖에도 「수성절목」에서는 5부 방민을 삼군문에 배속하는 방법과 그 인원을 조정하는 방법 및 실제 도성방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³⁹³⁾

지금까지 『수성책자』로 간행된 국왕 영조의 도성방어에 관한 율음, 즉 ‘수성 율음’을 수록한 「어제수성율음」·「도성삼군문분계지도」, 「도성삼군문분계총록」·「수성절목」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국왕인 영조가 유사시 도성을 사수할 것을 도성민에게 하유한 수성율음이 말해주듯

이, 조선 왕조의 국토방위전략이 최초 국경 중심에서 보장처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성 방어 중심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93) 『備邊司謄錄』 117책, 영조 23년 4월 19일.

한편 도성수비체제 편성이 완료된 후 수비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수성기요(守城機要)』를 통해서 확인되는 도성수비 편성은 도성수비 체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었는데,³⁹⁴⁾ 여기서는 수성훈련(守城訓練)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지휘 본부인 중군(中軍)을 설치한다는 것과, 동시에 수성훈련을 위한 편성으로 도성 내 환자를 제외한 모든 군관민을 전원 등성(登城)시켜 매 성타(城塚)마다 몇 사람씩 배치하도록 하는 행동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야간훈련으로 중군에서 첫 번 호령하면 군사가 상성(上城)하고, 그 다음에는 각관(各官)이 등성하며, 세 번째에는 성주(城主)가 성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 수성작전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³⁹⁵⁾



394) 『守城機要』의 저자와 저작연대가 불확실하다. 영조대의 수성 전법에 관한 저작으로 보거나(원영환, 「조선후기 도성수축과 수비에 대한 고찰」, 『향토서술』 제33호, 1975), 또는 정조대로 추정하기도 하는 것(강성문, 「영조대 도성사수론에 관한 고찰」, 『청계사학』 13, 1997)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守城機要』의 내용은 도성수비에 관한 평상시 훈련에 관한 것으로 성조정식(城操程式)·수성사의(守城事宜)·고훈(古訓)·고사(古事)·제방(諸方)·점후(占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조정식에서는 파수 등 12개 항으로 나누어 수성훈련의 표준적인 방식을 설명하며 그 내용이 『병학지남』에 나오는 성조정식과 비슷하다. 수성사의는 수성에 필요한 식량과 기계의 준비, 전투요원의 편성과 배치, 전투 간에 지켜야 할 제반 규정, 화공(火攻)에 대한 대비책, 전투지휘의 요령, 방어시설의 보완방법 등을 다룬다. 고훈에서는 손자·오자 등 중국의 역대 병가가 강조한 수성작전에 관한 교훈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고사는 중국의 역대 주요 수성작전의 사례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통행첩(通行帖)을 발부하여 군량과 장비를 조달하고 명의 장수인 진린(陳璘)의 횡포를 달래어 협조관계를 증진시킨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제방에서는 전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과 말의 치료법을, 그리고 점후에서는 김홍을 점쳐서 대처하는 요령을 수록하고 있다. 책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지만 조선 후기의 수성작전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정하명, 『수성기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208). 원문은 복사본을 본서 부록에 수록.

395) 수성작전의 구체적인 방법은 『風泉遺響』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3선 방어(三線防禦)로 제1선 강안(江岸) 방어, 제2선 외성(外城) 방어, 제3선 내성(內城) 방어작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백기인, 『조선 후기 국방론 연구』, 제3장 제1·2절(pp.102-110 및 110-120)을 참조.

제 5 장 맺음말

제 5 장 맺음말

1

한국의 군사 역사에서 ‘도성방위’ 개념이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형적인 도성방위체제가 마련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지만 그 기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 대외적으로 외침에 대비하여 구사한 ‘도성방어 전략’으로 소급되는 것이다. 고구려·백제·신라 3국은 삼국 간 각축전에서 철제무기를 사용하고 기동력 위주의 기마전법, 궁사술, 보·기병전과 복병전, 수성전, 수륙병진작전 등 다양한 전투방식과 군사술을 구사하며 각기 자국의 방위를 위한 국경 및 도성 방위를 위한 군사전법을 운영하였다.

고구려 고구려는 최초의 수도인 졸본(卒本)에 도읍(B.C. 37)한 이래, 모두 8회에 걸쳐 국가 통치의 중심지를 옮겨 다녔다. 지리적으로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안전하고 정복전쟁에 유리한 지역을 사전에 확보하여 안정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졸본지역에서 고구려의 도읍은 평지성과 산성을 이용하는 2성 체제를 갖추었는데, 이는 평시에 평지성을 이용하다가 유사시에 군사방어거점으로 산성을 활용하는 방어체제로서 졸본 이후 고구려 도읍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A.D. 3~426)은 생산활동의 수월성과 군사방어의 용이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양호한 조건의 도읍이었다. 여기서도 고구려는 평지성인 국내성과 전시에 이를 지원하는 포곡식 산성인 환도성을 축조하여 고구려식 2성 체제를 유지하였다. 고구려에서는 3세기경에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선이나 거점성 등을 이용하여 국경과 도성 중간지대에서 적군을 저지하는 방어전략을 구사했으며, 4세기 이후에는 평지성·산성의 도성방위는 물론 도성 외곽의 호형방어선과 국경 축선의 방어체계 등 입체적인 군

사방어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북방민족의 발흥으로 인하여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결국 남진정책을 추진하며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다(427). 처음에는 안학궁에 위치했으나 뒤에 장안성을 축조하고 586년(평원왕 28)에 천도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평양성은 내성과 외성을 갖추고 나성(羅城)을 두른 평지성-산성 2성 방식의 고구려식 도성방위체제를 구축한 수도가 되었다. 수도를 평양성에 둔 고구려는 난숙한 문화시대를 맞이했고 삼국 간 주도권 쟁탈을 둘러싼 각축전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천도 이후 고구려는 신진관료의 진출과 더불어 귀족 내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고구려 최후의 전투인 수도 평양성 전투(사)는 도성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해준다.

첫째, 고구려는 평양성 도성방어(都城防禦)와 함께 도성외곽방어(都城外廓防禦)를 동시에 실시했는데, 내·외선작전을 병행하는 2선 작전에 의한 수성전의 전개였다. 고구려군은 이미 앞선 전투에서 상당수가 궤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병력으로 수도방어전을 치렀다. 그러나 당군은 전선의 신장으로 작전에 제한을 받았고 신라군도 평양성 포위전이 장기화 기미를 보이자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근 1개월이나 끌었다. 고구려군의 수성 방어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고구려군은 도성 자체의 방어전과 도성 외곽방어전으로 전선을 내외선으로 이분화하여 수성작전의 효과성을 제고시켰다. 고구려의 중심 깊은 성곽방어체제와 이를 최종적으로 도성방어까지 연계시킨 군사적 운용은 적군의 파상적인 공격력을 완충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고구려군의 수성전에 대항한 나당연합군 전술은 남북 협격에 의한 도성포위작전(都城包圍作戰)이었다. 이미 삼국 각축전 당시부터 남과 북에

서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국력을 소진해야 했던 고구려는 최후 전투인 평양성 전투에서도 남북 협격에 의한 포위작전에 직면했다. 공자의 입장에서 적을 압박하며 공략하는 최종적 군사단계인 포위작전은 평양성의 지세 특성상 동서로 낭림산맥에서 발원하여 평양을 끼고 서해로 흐르는 대동강과 평양 중부 일대에 높이 솟은 대성산이 위치했기 때문에 남북 협격이 주효하였다. 그러나 지형적으로 평양성은 방자에게도 유리한 점을 제공하여 남북 협격의 상황에서도 내부 첩자가 적장과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방어력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도성방위의 근간인 평양성 구조는 난공불락이었다.

셋째, 평양성 전투의 결정적 패인은 고구려군 스스로의 항복(降伏)이었다. 평양성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은 최후 요인은 내부 분열과 저항집단의 자체 붕괴에 있었다. 지형적으로 방어지로서 유리한 평양성도 결국 적군의 포위작전에 의해 내부적 고립감에 시달리던 군사의 동요와 불안으로 인한 자기 붕괴가 최종적인 패인이었던 것이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해진 충격보다 내부의 자체적인 취약점이 더욱 치명적이었다.

백제 고구려가 북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과정에서 천도를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운용했다면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따른 직접 영향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제는 최초로 온조가 한성이라고 불리는 하남위례성에 도읍했는데, 한성은 수도로서 인근 철산지에다 비옥한 농업 환경을 갖추고 서해로 연결되는 교통이 용이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한성 도읍기(B.C. 18~475)의 백제는 도성제도(都城制度)가 북성(北城)과 남성(南城)의 양성 구조를 띄었으며, 이로 인해 단일 궁성인 위례성에서 두 개의 궁성을 갖춘 한성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처음에는 위례성인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한강 이북과 이남에 아차성과

사성을 축조하여 도성 자체 방어에 치중했고, 그 다음에는 거성인 위례성 배후에 몽촌도성을 방어성으로 축조하여 도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외곽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도성방위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장수왕대에 최대 강역의 판도를 이룩하며 강력한 남진정책으로 백제를 압박하자 초기 수도인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백제의 웅진 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임기응변적인 수도 이전이었기 때문에 웅진성이 포곡식 산성이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협소하고 방어체계가 제한되어 얼마 후 사비로 재(再)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비로의 천도는 538년(성왕 16)에 이루어졌는데, 사비성은 내성인 부소산성과 시가 전체를 둘러싼 외성인 나성이 존재하여 도성으로서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었다. 성벽도 내측을 성토하고 석축 성벽을 쌓아 마감하는 방식으로 축조한 방어시설이었다. 그 면모를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백제는 이를 기반으로 사비의 도성수비체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의 도성방위는 지방에 5방의 중심성으로 5방성(方城)을 갖추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성과 200여 개의 지방성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비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비 도성은 한성과 마찬가지로 강의 남쪽에 도읍을 정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도읍지를 조성하여 도성과 그 외곽방어를 강화하는 도성방위체제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왕은 수도를 천도하고 백제 중흥을 위해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도리어 자신이 직접 참전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그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 무렵, 백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는데, 진흥왕의 한강 장악으로 나제동맹이 결렬(553)되자 고구려와 화친을 도모하면서 신라의 대당외교의 전초기지인 당항성을 공격한 것이다(643). 이로부터 당과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당이 신라와 화친을 요구했음에도 고구려와 합세하여 신라의 30여 성을 공략(655)

함으로써 당과의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고 말았다. 백제는 수도 천도를 통해 국가의 중흥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대외관계의 균열을 자초하였다.

백제 최후의 전투인 수도 사비성 전투(사)는 도성방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해준다.

첫째, 사비성 전투에서는 연합군의 상륙작전 및 신라군과 당군의 공조에 의한 남북 협격작전이 구사되었다. 이는 백제 도성이 위치상 서해에 인접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작전 형태였다. 사비성은 고구려나 신라의 공격으로부터 깊은 중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이 직접 서해를 건너 상륙작전을 실시할 경우에는 속전속결을 허용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었다. 전투 양상은 서해를 건너 남에서 북으로 진격하는 당군의 주전투력과 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와서 백제군의 동북방을 압박하는 신라군의 남북 협격에 의한 포위작전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백제군은 도성방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군과 맞닥뜨려야 했고 도성방어전은 불안정한 수성전(守城戰)으로 제한되었다.

둘째, 백제군은 최후의 도성방어전에 앞서 외곽지역에서 결사대에 의한 저지전을 전개하였다. 전선은 당군에 의해 기벌포 지역에서 이미 백제군의 제1선이 무너졌고, 황산벌에서 전개된 결사대의 최후 저항 역시 장렬했지만 끝내 붕괴되었다. 사비성을 둘러싼 인근의 제1선이 단시간 안에 돌파됨으로써 사비성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적의 전면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백이 지휘한 결사대는 백제군의 강인한 전투의지와 군인정신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군인상을 역사 속에 각인시켰다.

셋째, 최후의 사비성 전투는 백제 지도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의지 상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먼저 최고 통수권자인 의자왕 자신이 부소산성으로 들어갔다가 웅진성으로 탈출하였다. 그리고 귀족들도 성을 탈출해 나갔으며

태자 용이 이끄는 수성군만이 남아 전투의지가 현격히 떨어진 상태로 적과 대치해야 하였다. 결국 소정방군의 전면 공격 앞에 백제군은 방어대형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허물어지고 말았다. 백제의 도성방어전은 나당연합군의 전략적 기습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군사적 패배였고, 도성외곽 방어를 위시한 지역방어에 치중한 나머지 수도방위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 실책의 결과였다.

신라 사로국에서 출발한 신라는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고 6세기 지증왕 때 ‘신라(新羅)’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수도 경주는 삼국의 도읍 가운데 가장 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중심 깊은 방어축을 형성하여 방어에 유리한 장점이 있었다. 신라의 산성은 토축(土築)으로 시작했으나 삼년산성 축조 때부터 석축(石築)으로 축성(470)하며 왕도 주변의 성곽방어를 강화하였다. 6세기 후반에는 남산신성(南山新城)을 축조하고 주변에 서형산성(西兄山城)을 쌓았는데, 신라는 나성을 축조하지 않는 대신에 주변 지역의 성곽 정비를 통하여 신라만의 고유한 도성방위체제를 구축하였다.

7세기 중엽, 삼국 간 각축전이 절정을 이룬 상황에서 신라는 당(唐)과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발전시켜(羅唐同盟, 648) 삼국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나당동맹은 삼국 간 체결한 나제동맹(羅濟同盟, 433), 혼인동맹(婚姻同盟, 493), 여제동맹(麗濟同盟, 642)을 연이은 신라 외교전의 최종 승리나 다름없었다. 삼국의 쟁탈전이 계속되는 동안, 외교전은 전선 아닌 또 다른 전선이었다. 결국 나당동맹으로 결성된 나당연합군은 660년 7월에 백제의 사비성을 무너뜨렸고 다시 8년 후인 668년 9월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고구려가 몰락한 후, 신라는 한반도에서 당군을 축출하고자 이른바 ‘나당

전쟁(羅唐戰爭)'을 전개하였다. 이런 와중에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나 673년을 고비로 막을 내리고, 676년 11월 마침내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과 결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로부터 당은 근거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겨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제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는 200년에 가까운 평화가 찾아왔다. 영토와 인구가 늘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 과학기술과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다.

통일 후, 신라의 도성방위체제는 도성의 확장과 이방(里坊) 구획의 단행 등을 통해서 한층 강화되었다. 서라벌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문왕대(681~691)에 달구벌로의 천도를 시도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군사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수비와 변경 방어를 보강한 것이다. 왕성을 월성 동남쪽의 남천-낭산 구간으로 나누고, 효소왕대(孝昭王代, 692~701)에 다시 낭산-명활산 구간까지 전면 확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성을 금성·월성·월궁지의 3궁체제로 정비하는 한편, 도성 중심부와 더불어 왕경(王京)으로 설정된 경주시 외곽의 6부지역을, 부(部)가 아닌 군(郡)으로 재편하며 왕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왕기(王畿)로 설정하였다.

이런 과정은 시가지와 도로를 확대하고 조방제(條坊制)를 본격 실시하여 중국식 9문 체제와 함께 중국식 왕궁·왕경 형태로 개조하는 도성제(都城制)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왕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조직으로 왕도 외곽을 방어하는 육기정(六畿停)과 왕도 내부를 방어하는 시위부(侍衛府, 獅子隊)을 두어 도성방위를 전담하는 부대편성을 이루었다. 육기정은 왕도를 지키는 6개의 군사조직을 갖추고서 왕도 주위의 성곽을 거점으로 주변의 일정 지역을 관할하고 왕도로 진입하는 교통로를 통제하여 왕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 반면, 시위부는 원래 왕실의 경호와 호종 및 궁궐 숙위·경비의 임무를 확장하여 왕도 안에서 최후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천도 없는 신라 왕조는 도성방위의 강화와는 무관하게 장기간

평화 속에서 차츰 귀족들의 무사안일이다 왕위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골육상쟁의 내홍에 빠져들었다. 9세기 초, 신라의 정국은 혼란 속에서 지방에서 성장한 유력자들이 무장한 호족으로 변신하여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왕조를 침몰로 몰고 갔다.

2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 개경에 도읍을 정하고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건국자 왕건은 개경에 수도를 두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평양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는 수도 개경을 방위하는 전초기지이자 장차 도읍지로 여길 정도로 평양을 중시하였다. 북방을 중시한 고려는 919년 정월, 수도인 송악을 개주(開州)로 승격하고 궁궐과 시전을 세우면서 그 이름도 개경(開京)이라 바꾸었다. 개경은 몽골 침공으로 1232년 6월부터 1270년 5월까지 39년간 강도(江都)로 천도한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고려의 수도로 기능하였다.

개경은 정도(定都) 이듬해인 920년에 궁궐로서 발어참성(勃禦槳城)의 축조를 시작으로 현종대에 나성(羅城)의 건설(1029)로 도성(都城)의 면모로 갖추었다. 중요 시설들은 발어참성 안에 이루어졌으며, 그 중간쯤을 가로막아 황성(皇城)으로 삼고 궁궐을 쌓는 과정에서 궁성(宮城)도 축조하였다. 도성으로서 개경 건설은 개경을 궁성-황성-나성으로 연결하는 3중성 방어 체계의 구축이었다. 나성을 기준으로 도성의 안팎을 명확하게 하고 도성 안을 중심으로 하는 5부 방리의 구획을 이루었다.

고려의 도성방위체제는 성곽 중심의 방어망이었다. 성곽 밑에는 황참(隍塹)을 파서 적 침입을 저지하고 성위에 나각(羅閣)을 두어 경계력을 높였는가 하면, 성문에는 경계 임무를 맡는 군인을 배치하여 수도방위에 전념하도록 운용하였다. 병력은 주로 궁성과 황성, 나성문에 배치했는데 궁성의 출

입문이 20개 정도에 이르렀다. 개경의 도성방위는 나성 축조로 인하여 그 영역이 확장되자 숙위군을 편성하고 오부점검군, 사교세작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하였다. 사원은 단순한 사찰로서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시설로서 개경 방어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 같은 고려의 도성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중심 깊은 산성방어체계(山城防禦體系)의 유지와 함께 개별 군현 단위의 방어망인 치소성(治所城)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방어체계(據點防禦體系)로 연결되었다. 일차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진(鎭)과 장성(長城)을 설치하여 이를 운용하고, 전국의 주요 거점인 전초기지에서는 소규모 성책(城柵)으로 이루어진 수(戍)를 6개 정도 운용하였다. 진 중심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해도 인근 지역은 주변에 분산 설치된 산성으로 들어가 항전을 계속하며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전법을 고수하였다. 특히 치소성 전략은 수성전(守城戰)의 일종으로 치소성을 거점으로 삼아 실시하는 거점 중심의 방어전략이었다. 중앙의 도성방어가 3중성 방어체계였다면 지방은 중성(重城)과 외성(外城)의 2중 성곽체제를 유지하였다.

고려는 1231년 몽골군이 침략해오자 강화(江華) 천도를 단행하였다. 찬반 논쟁 속에서도 몽골군이 수전(水戰)에 서투른 점을 이용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천도한 것이다. 1232년 6월, 천도 결정 직후 곧바로 궁궐 조영을 시작하여 강화 외성(江華外城)을 완성(1237)했고 이어서 강화 중성(中城)을 축조(1250)함으로써 강도의 성곽은 궁성, 중성, 외성을 갖추었다. 이런 도성의 모습은 우선적으로 궁궐을 둘러싼 성을 건설하고, 해안 방어를 위한 외성(外城)과 최종적으로 도성방어를 위한 중성(中城) 축조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규모는 축소된 것이지만 개경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몽골군과 화해가 성립(1259)된 이후, 몽골군의 요구로 내성과 외성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몽골의 친조와 환도 요구에 따라 1292년 1월 개

경으로 공식 환도하였다. 그러나 환도한 이래, 고려 말의 정치적 상황의 부침으로 인하여 한양(漢陽)이 천도지로 주목되면서 수도 이전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3

조선은 처음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도읍하였다. 그러나 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계룡산·무악·남경(한양)을 후보지로 검토한 후, 1393년에 한양(漢陽)을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여 천도를 추진하였다. 한양의 도성 축조는 궁궐 공사가 끝난 뒤 1396년 1월에 착공하여 두 차례에 걸친 공사 끝에 이해 9월에 완료하였다. 그러나 1398년 2월에 승례문을 완공하고 이해 8월 새 공사로 경복궁 궁성 축조가 본격화되던 상황에서 — 정국 변화(왕자의 난)로 — 도성화 작업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성부(漢城府)는 1405년 10월에서야 도읍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도성 축조공사는 태종과 세종 때까지 이어졌고 1426년에 궁성 문과 다리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조선 초 도성방위체제는 도성 축조의 기반 위에서 중앙 5위제 형성과 함께 중앙군 중심의 궁성방어와 도성방어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의 설치로 제도화되었다. 도성의 수비와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병조 예하에 도성위(都城衛)와 도성경수소(都城警守所)가 설치되었고, 중앙군의 궁성 및 도성방어 원칙도 정해져 도성방위의 전략적 개념이 마련되었다.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방위전략으로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했는데, 우선적으로 국경지역 방어에 중점을 두었다. 국경지대에 병력이나 군수물자를 집중시켜 국경지대에서부터 적을 방어하고, 단계적으로 요해처에서 병참선 신장으로 약화된 적을 공략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성방어 단계에서 적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것이 전략의 요체였다. 조선 초 도성방위는 국경지역의 1차 방어선(의주-이성-강계), 이에 연하는 2차 방

어선(안주 중심), 그리고 도성지역의 3차 방어선(평양 중심)으로 이어지는 3단계 연결선 방어전략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의 도성방위체제는 유사시 ‘도성사수(都城死守)’를 달성하고자 도성 성곽 외에 남쪽으로 남한산성과 북쪽의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방위망(防衛網)을 강화하는 한편, 도성을 동서남북으로 감싸면서 내성과 외성으로 안팎이 완전하게 보장을 이루는 도성수비를 지향하였다. 이에 숙종대(肅宗代)에 남한산성의 증수(增修)와 함께 강도를 도성방위를 위한 이중적 보장지(二重的保障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과 북한산성 중성(重城)을 축조하여 도성의 이중방어수단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도성의 외곽 방어 시설로 최근 거리에 있는 연용대 등을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보다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시에 완벽하게 도성을 사수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의 도성방위는 실제적인 군사력 운영 측면에서 군영제(軍營制)에 토대를 둔 삼군문수비체제(三軍門 守備體制)로 정착되었다. 영조대(英祖代) 삼군문수비체제가 완성되었는데, 「수성윤음(守城論音)」은 국왕 영조의 ‘도성사수’ 의지를 반영한 도성 중심 방어와 사민의 도성수비에 대한 각성을 천명하고 있는 ‘군민합일적(君民合一的)’인 도성방위의 기초를 잘 보여준다. 또한 「수성절목(守城節目)」 등을 통하여 도성방위의 방책과 궁성·도성의 순라체계를 보다 체계화했으며, 『수성기요(守城機要)』가 보여주듯 도성방위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비병력의 배치 및 훈련, 전투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설정하였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성사수를 실행할 도성방위의 전략적 기초와, 수성전(守城戰) 수행에 필요한 전술적 수비체계를 갖추어 ‘도성사수’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도성방위에 3선방어(三線防禦) 개념을 적용한 것도 전술적 특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든 조선의 도성방위체제는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

면하였다. 정조대 장용영(壯勇營)의 설치와 함께 화성(華城) 축조로, 도성과 화성을 연결하는 이상적인 '환상협수체계(環狀協守體系)'를 이루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장용영 설치로 3군문인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중앙군영이 감축되었고, 호위청은 장용영에 합병되었으며 수어청 경청도 혁파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조 사후에는 장용영마저 폐지되어 도성방위체제가 크게 흔들렸는데, 총융청·수어청 등 군영제 방위체제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3군문 중심의 도성수비와 총융청 중심의 도성 외곽방어와 함께 이양선 출몰에 따른 강화도(江華島) 중심의 해방체계(海防體系)가 한층 중시되었다.

고종 집권기에 이르러 열강의 '외압(外壓)'이 고조되자 조선 정부는 이제 도성방위체제를 국왕 친위부대인 무위소(武衛所) 휘하에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군영체제로 재편하였다. 고종의 친정 아래 군사개혁을 추진하면서 신식화기로 무장한 교련병대와 같은 근대식 군대를 육성하여 도성방위체제는 물론이고 국가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했다. 그러나 군사개혁 성과는 왕권 강화를 위한 근대 군제의 실험적 도입에 불과했고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국체를 보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만 명 정도의 근대식 군대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정부 예산 40%에 육박하는 군사비 부담에다 일제의 강제 군대해산으로 무산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의 '도성(國體)사수' 정신은 최후의 도성방어전(남대문 전투)을 통하여 '독립전쟁의 국수(國粹)'가 되었고, 다시 6·25전쟁 시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수도 서울방어전[死守戰]'을 통하여 '국가수호의 국민적 구심'으로 재현되었다.

【용 어 해 설】

각루(角樓) 치성의 일종으로 모서리 부분에 설치한 성벽에서 돌출한 성. 성벽의 회절부(回折部)나 우각부(隅角部)에 만든 다락집. 성우(城隅), 궁우(宮隅)라 일컬음.

강안성(江岸城) 강을 방어하기 위해 강 언덕에 축조한 성.

개구부(開口部) 성의 내외를 연결해 주는 통로.

검차(劍車) 수레 위에 방패를 설치하고 앞쪽에 여러 개의 창검을 꽂아 돌출시킨 무기. 전투시 수레를 활용한 일종의 전차(戰車)로 적 보·기병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린 적을 요격함으로써 패주하는 적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

고려시대에 적 기마병에 대항하기 위해 강조(康兆)의 부대가 거란군에 맞서 싸우면서(1010) 사용한 장비로도 알려져 있음. 조선 후기에 군사전문가 송규빈(宋奎斌)이 자신의 저서 『풍천유향(風泉遺響)』에서 상승진(常勝陣) 운영을 제시하는 가운데 검차의 사용문제를 재론함.

전벽고수(堅壁固守) 수성전에서 실시하는 작전술. 주·진의 제성을 거점으로 성곽의 문을 굳게 닫고 대치하여 지구전을 펼쳐 적 예봉을 피하는 방어전술.

기본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로 지구전을 펼치며 적 예봉을 피하고, 적에게 군량 수송·병력 보충 등의 어려움을 강요하여 적 전투력이 약화하기를 기다리느를 전술.

경기(京畿)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한 왕도의 외곽지역. 본래 왕성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

고려 초 정도(定都) 당시에 협소한 개성현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설정했으나 성종대 적·기현제(赤·畿縣制)를 실시하여 제도화.

도성의 경계 성곽을 순차적으로 축성하여 도성 바깥을 명확하게 부각하는 경기제(京畿制)로 정비. 조선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시행, 경기 좌·우도를 경기로 합칭.

경도(京都) 일본 가마쿠라(鎌倉) 막부 초기, 좌우대칭형 구조의 왕도를 지칭하는 지명. 헤이안(平安)시대에 도시화가 지방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어 상경(上京)·하경(下京) 또는 좌경(左京)·우경(右京)의 대칭적 구조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새롭게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

경성(京城) 도읍지의 성, 도성(都城).

국궁(鞠躬) 경의(敬意)의 표시로 몸을 굽히는 인사 예식.

고성(古城) 사용하지 않는 성곽 유적.

관찰사(觀察使) 조선조 지방장관으로서 최고의 직, 종2품 문관. 각 도에 1명씩 배치, 대부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무관직을 겸직하고, 민정·군정·재정·형정 등을 통할하며 수령을 지휘 감독.

교축성(交築城) 석축, 전축, 토축 등으로 성벽 일부의 재료를 달리하거나 혼합하여 축조한 성벽.

국경성(國境城) 국경 방비를 위해 접경지역의 요새지에 축조한 성.

관문(關門) 요새나 국경에 설치한 문.

관방(關防) 적 침입로를 차단하고자 설치하는 일체의 방어시설물. 도성·읍성·진성·산성·행성 및 영애(嶺隘)·현(峴)·치(峙)·항(項), 관문(關門)을 설치한 용도(甬道), 목성(木城) 등 국경 방비 위한 방어시설을 통칭.

궁성(宮城) 평상시에 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나 담장. 궁궐, 궁전, 궁실이라고도 부름. 국왕의 공사 업무가 이루어지

는 영역으로 왕권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공간, 국왕이 있는 성이라는 의미에서 ‘재성(在城)’이라고도 함.

삼국시대 궁성으로는 고구려의 안악궁터, 신라의 월성터, 백제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부여 나성 등에도 궁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궁궐터가 발견되지 않음. 경주의 월성은 도성이 아닌, 일종의 궁성에 해당(발굴조사시 ‘在城’이란 글자 새겨진 기와편 출토). 고려시대 개성의 만월대(평지 아닌 송악산 남사면의 고지대에 조성). 조선시대에 궁성과 궁궐로 발전, 정궁인 경복궁을 비롯하여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이 있음.

이밖에 국왕의 임시 거처에 축조된 행성(行城), 행성(行城)도 있음. 행재성(行在城)은 재성에 대비되는 ‘국왕이 임시로 행차하여 머무는 궁성’이라는 의미로서 ‘궁성’과 구분하기도 함. 산성의 경우, 평지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읍성 또는 고구려의 환도산성과 같이 도성이나 궁성으로 사용된 예가 있음.

경관(景觀) 도시를 경치·풍경의 가시적 조영물로 접근하는 생태학적 용어, 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의 변화는 ‘촌락의 도시화’를 의미하는 도시지리학적 용어.

금군(禁軍) 궁궐을 호위하고 국왕 신변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는 국왕 친위 부대.

금성(金城) 신라 왕경의 고유명사. 혁거세 21년(B.C. 37) 경성(京城)을 쌓고 이를 금성(金城)이라 함.

나곽(羅郭) 중성(重城)에서 외곽으로 둘러친 성벽, 나성(羅城).

나성(羅城) 내·외성으로 된 성곽의 외부를 둘러쌓은 성. 왕도에 시가지 전체를 에워싼 성으로 나성 축조, 이를 도성(都城)이라 함.

고구려의 국내성과 평양성, 백제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부여의

사비성, 고려의 개성, 조선의 한양 성곽이 대표적인 나성. 신라의 경우, 도시 주변을 둘러싼 나성의 존재를 확인되지 않음.

백제도 사비 도성 외에 웅진 도성 시가지를 에워싸는 나성은 존재하지 않고, 신라 왕경처럼 궁성 주변의 산성이 나성 역할. 익산 도성에서도 웅진 도성이나 신라 도성의 경우와 같이 주변 산성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

남한산성(南漢山城) 조선 후기에 도성 주변에 수축한 대표적 산성인 북한산성 축조와 더불어 남쪽에 도성방어의 외곽 산성으로 축조. 조선 전기 태종대 수축 논의, 인조반정으로 재론되어 1624년 총용사이서(李曙)가 개축 추진하여 완공(1626). 총길이 11.76km. 신라 문무왕 때 이곳에 처음 축성하고 주장성으로 명명. 일명 일장산성 또는 백제 온조왕의 성이라고도 함.

내성(內城) 내·외성을 쌓을 때 안쪽의 성곽을 일컫음.

노대(弩臺) 활을 쏘기 위해 높게 만든 평평한 대(臺).

녹각(鹿角) 수성전에 사용한 장애물로 고려시대에 빈번하게 쓰임. 창이나 날카롭게 깎은 말뚝을 여러 개 연결해 만든 장애물로 주로 이동로나 성벽 부근에 설치, 적의 접근을 지연시키고자 사용함.

농성(籠城) 수성전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는 전투를 총칭.

누각(樓閣)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게 지은 집.

누대(樓臺) 높은 대 위에 세운 누각.

답판(踏板) 성랑(城廊, 성위에 세우는 복도)의 바닥판을 들어 올려 열 수 있도록 하여 성랑 아래에 달라붙은 적을 공격하도록 한 시설.

대우포(大于浦) ‘큰 칼날을 가진 무기’라는 의미의 수성용 무기. 큰 칼을 장착하여 적 사다리(운제)를 분쇄하는데 사용한 무기였을 것으로 추정.

고려시대 귀주성 전투에 등장, 몽골군이 운제를 써서 공격하자 귀주성 방어군이 대우포를 이용하여 이를 저지.

대포혈(大砲穴) 대포를 쏘는 구멍. 포혈(砲穴), 포안(砲眼).

도성(都城) 한 나라의 수도인 도읍(都邑)을 둘러싼 성으로 왕이 거주하는 왕성(王城)과 관부를 둘러싼 성을 말함. 기본적으로 왕궁과 이를 보호하는 시설로 안쪽의 왕성[宮城, 皇城], 바깥쪽의 나성(羅城)으로 구성. 대표적인 한국의 도성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국내성, 평양성, 백제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부여 사비성, 고려의 개성, 조선의 한양 성곽. 이밖에 고려시대 강화성, 수원화성도 도성 경역을 목표로 축조된 성곽임.

도성사수(都城死守) 조선 후기 수도권 중심의 도성방위체제가 영조대 도성 중심의 도성방위체제로 전환, 숙종대에 기초가 잡힌 도성과 북한산성 보완하고 군권을 국왕에게 귀속시키는 조치 취하면서 삼군문 중심의 도성방위체제를 성립함.

이에 따라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도성사수관념(都城死守觀念)강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쾌속북진에 대하여 전수(戰守)와 거빈(去邠) 양론으로 맞서던 도성방어관념이 조선 후기에 전수(戰守) 방향으로 전환, 적 침략에 맞서는 적극적 방어전략으로 나타남. 『영조실록』의 ‘도성사수’ 관념: “남한(南漢)·북한(北漢)·강도(江都)는 모두 보장(保障)의 중요한 땅이다. 일찍이 어느 대신이 도성(都城)의 형세를 논하면서 한 산성(山城)으로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이치가 있었다. 도성은 위로 종사(宗社)를 받들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이 있으며 공경(公卿)과 사서(士庶)에게는 모두 부모 처자가 있으니 만약 조가(朝家)에서 굳게 지키려는 뜻을 알게 되면 시석(矢石)을 피하지 않고 반드시 힘을 내어

사수(死守)할 것이다.”(『영조실록』 권16, 영조 4년 3월 갑자)

도시(都市) 정치 중심지로서 도(都)와 경제 중심지로서 시(市)가 결합된 지역. 인구가 집중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활동의 중심점으로 정보와 물류가 집결되는 곳.

등(磴) 계단식 통로, 봉수 내부로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한 시설.

마름쇠(菱鐵) 철질러(鐵蒺藜). 가시처럼 날카롭게 돌출된 쇠붙이로 진지에서 적 접근을 막기 위해 성벽 바깥쪽에 흩어놓은 장애물의 일종.

망대(望臺) 먼 곳을 조망하거나 적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세운 누대. 망루(望樓).

목책(木柵) 나무 말뚝을 땅에 박은 다음 가로 세로로 엮어 울타리나 담을 둘러친 방어시설.

목책성(木柵城) 나무 말뚝을 박아 세워 울타리처럼 만든 성. 청동기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오랜 기간 사용. 성곽의 한 종류로 군사방어시설을 만들고자 축조한 것이지만 본격적인 성곽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마을 주변에 목책으로 방어시설 구축한 약 430m 정도의 흔적이 출토됨. 이후 패총 유적 및 마을 유적 등에서 환호(環壕)와 함께 목책의 흔적 발견. 점차 토성이나 석성으로 대체됨.

조선시대 목성의 축조 방식을 설명하는 「관방집록목성지법(關防集錄木城之法)」에는 느티나무, 버드나무, 탕자나무, 가시나무 등을 뺨뺨이 심고 엮어 목책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옴. 유성룡의 「설책지법(設柵之法)」에도 석성과 토성을 대신하여 목책성 축조하는 방식 기록.

모성(母城) 원성(元城). 성곽 가운데 기본이 되는 성.

무비사(武備司) 조선 시대 병조가 장악하는 군무 가운데 인사관계(武選司)와 왕 행차·수레·구목(廢牧) 등에 관한 의장사향(乘輿司) 등

외의 모든 군정 업무 관장. 즉 군적·병기·훈련·진지구축·병력조정·봉수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음. 각 지방의 진관에서 파악 작성한 군적(각도의 병마절도사와 병조에 배치, 관리)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군역 부담자와 가용병력의 행정상 장악, 무예의 훈련, 숙위와 순작(巡緝), 진지구축 등 계획 및 감독, 이외의 방위업무나 전투 수행도 담당.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건국 초 『진법(陣法)』을 『병장도설(兵將圖說)』로 재간행한 데 이어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1749), 『수성책자(守城冊子)』(1751) 간행, 그리고 영조가 직접 찬술한 『위장필람(爲將必覽)』과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 간행 및 『병학지남(兵學指南)』 복간 통해 조선의 병학체계가 발전됨.

정조대 종래의 여러 병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선적 병법체계 완성을 위한 노력 전개, 그 결과 통일적인 조선 병법을 모색한 『병학통(兵學通)』(1785)과 『무예신보(武藝新譜)』의 편찬 위에서 조선의 무예를 24기로 집성한 『무예도보통지』를 편찬 간행.

문루(門樓) 궁문·성문이나 지방 관청 바깥문의 위에 지은 작은 다락집. 누각(樓閣).

발병부(發兵符) 군사 동원령을 발할 때 국왕의 명령서와 함께 보내는 약속 표지.

방(坊) 행정구역 단위로 오늘날의 동(洞)과 비슷.

조선시대의 경우, 수도를 한성부라 하고, 도성을 동부·서부·중부·남부·북부 등 5개 부(部)로 구획. 다시 각 부는 방(坊)으로 세분. 동부 12개 방, 서부 8개 방, 중부 8개 방, 남부 11개 방, 북부 10개 방 등 총 49개 방으로 편성. 1개 방에는 관령(管領) 1명 배치, 주민의 통제 및 행정 담당.

방리제(坊里制) 도성을 축조할 때 광성이나 황성을 중심으로 종횡으로 구획하여 지은 도시계획 제도.

신라 문무왕에서 신문왕대에 걸쳐 왕성을 이방(里坊)으로 구획, 효소왕대에 낭산-명활산 구간까지 전면 확장하며 도성제 구축을 도모. 고려조에는 정도(定都)와 함께 궁궐 창건 및 시전(市廛) 건설, 성종대 개경을 방리(坊里)로 구분, 5부(五部)를 나눔. 현종대에는 송악현을 5부방리(5部坊里)로 분리, 방리제 실시, 개성현을 지방에 편입하여 분기가 뚜렷해짐.

벽등(壁磴) 벽돌로 쌓아 성벽 위아래를 오르내리게 한 계단. 벽돌 계단.

보(步) 거리의 단위, 1보는 주척(周尺) 기준 6척, 즉 1m 20cm에 해당.

보루(堡壘) 적을 방어하기 위해 돌, 흙 등으로 만든 방어시설. 보성(堡城), 보책(堡柵).

보자(堡子) 성벽이 있는 도시나 촌락 또는 보루. 소성(小城).

보장(保障) 성채(城砦)나 보루(堡壘)를 일컫음.

봉수(烽燧) 봉(烽, 횃불)과 수(燧, 연기)로 변방 급보를 전달하던 군사적 목적의 통신 수단.

봉안(縫眼) 적을 관찰하기 위해 성랑(城廊)의 포혈(砲穴) 위에 설치.

북한산성(北漢山城) 삼국시대 백제의 도성인 위례성의 북쪽 방어성. 조선 후기에 도성 주변에 수축한 대표적인 산성.

조선 후기 임진왜란·병자호란으로 도성을 지키는 외곽 산성으로 1659년(효종 10)에 송시열에 명하여 수축, 1711년(숙종 37) 대대적인 축성 공사로 7,620보의 석성 완성. 체성의 둘레는 8.4km, 전체 성벽 길이 9.73km. 성벽은 비교적 낮으나 해발 700m 이상의 지점까지 축조.

분수(分數) 성곽의 규모. 성곽 크기의 기준.

분첩(粉堞) 석회를 발라 희게 보이는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인 성가퀴. 여장(女牆).

사복시(司僕寺) 조선 시대 여마(輿馬)·구목(廩牧)을 장악하는 마정(馬政) 기관.
사혈(射穴) 성벽 위의 여장에 만든 장방형의 구멍. 활이나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으로 소총안(小銃眼), 총안(원총안·근총안).

산성(山城) 산지의 성곽으로 산악지대의 중요한 길목의 산줄기나 요충지에 축성.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성곽의 높이에 변화를 주거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 산지성(山地城).

산탁(山托) 성벽 축조시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외부만 석축으로 하고 내부는 흙으로 축조하는 방식.

상승진(常勝陣) 조선 후기 송규빈이 제시한 진법으로 조선의 종래 진법과 명의 척법의 장점을 결합, 『병학지남』과 『기효신서』에 따른 고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새로운 진법.

기본적으로 척법의 원양진에 기초하여 검차를 운용하는 검차영(劍車營). 말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을 감안, 청 기마병에 대응하고자 차영(車營)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독자성 지님. 진형 중에서 지휘부 보강 위해 오위진법 적용, 삼진법이나 팔진법의 대형을 포괄, 보병-전차-기병 삼결합에 의한 양익포위 시도가 가능한 전투대형.

석성(石城) 돌을 재료로 해서 쌓은 성. 축성법은 성벽의 안팎을 수직에 가깝게 쌓는 협축(夾築), 바깥쪽만 석축으로 하고 안쪽은 흙과 잡석 등으로 다져 쌓는 내탁(內托)이 있음.

석축성(石築城) 돌을 잘라내거나 가공하여 외벽을 축조한 성. 축조하기 어렵고 축조 기간이 오래 걸리며, 석재 조달 및 가공 기술이 숙련된 석공 필요.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토성에 비해 내구성이크

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음.

석포(石砲) 성곽을 방어하기 위한 돌대포로서 포차(砲車)라고도 함. 긴 봉 한쪽 끝에 가죽주머니를 만들고 여기에 돌을 올려놓아 긴 봉의 다른 쪽 끝에 수십 가닥의 줄 매달고서 이를 힘껏 당겨 가죽주머니의 돌이 날아가도록 만든 무기.

석포는 성곽에 고정시킨 것이고, 여기에 수레를 장착하여 이동하거나 수성 및 공성에 동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포차.

성(城) 우리말로 ‘갯’ 혹은 ‘재’ 등이라 함. 협의로는 성벽(城壁)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적 습격을 막기 위하여 만든 방어시설의 총칭. 협의의 성 외에도 군사적인 방어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구축된 모든 시설물을 통칭하여 성이라 말함(성곽이라고도 함). 여기에는 보루(堡壘), 토벽(土壁), 석벽(石壁), 목책(木柵), 해자(壕子) 등이 있음.

성곽(城郭, 城廓)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방어시설로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의 전체를 의미하거나 혹은 성(城)은 내성, 곽(郭)은 외성을 의미. 전형적인 성곽은 네모꼴로 쌓은 성(城)과 다시 그밖으로 둘러쌓은 곽(郭)이 이중으로 중복된 방어시설 지칭. 안쪽에 쌓은 성벽을 성 또는 내성, 바깥쪽에 쌓은 성벽을 곽 또는 외성이라 함. 세 겹으로 쌓은 성곽은 가장 안쪽부터 내성,中间的 것을 중성, 바깥쪽의 것을 외성이라 함. 도성의 경우, 안쪽의 것을 왕성(王城), 궁성(宮城), 황성(皇城)이라 하고, 도시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것을 나성(羅城)이라 부름.

인류 역사상 신석기시대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마을 주변을 둘러싼 구덩이를 파거나 여기에 목책과 같은 시설을 두른 취락 방어시설 출현.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보다 문명이 발전하여 도

시 발생,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도시의 외곽을 성으로 둘러싼 성곽도시 등장, 중국에서는 성곽도시를 성시(城市, citadel)라 함.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유적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랜 성곽도시는 이스라엘의 예리코 유적(B.C. 9,000년경부터 도시 형성 시작, B.C.8,000년경 도시의 외곽에 성벽 축조).

한국 청동기시대부터 마을 주변에 설치한 방어시설 흔적 나타남.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마을의 주변에 단면 V자 형태인 도랑 파서 둘러싼 방어시설 발견.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에서 구릉지 정상부의 마을 중심으로 주위에 도랑 파서 둘러싼 흔적 발견. 창원 남산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울산 검단리유적 등에서는 취락 유적의 외부를 둘러싼 방어시설인 환호 출토. 대평리 유적은 평지지만, 나머지 유적은 구릉 정상부나 경사면에 군집된 취락 중심으로 설치, 모두 취락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일종의 방어시설이자 성곽의 의미 지님.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양산패총, 성산패총, 김해패총, 운천패총 등에서도 방어시설의 흔적 노출. 마산 양산패총에서 목책 설치한 흔적, 웅천패총·성산패총·김해패총에서는 성책 시설로 추정되는 유구 확인. 대체로 낮은 아산의 정상 부분에 위치, 주위에 평탄한 경작지 보유. 선사시대의 방어시설의 보다 발전된 형태는 경남 양산 평산리 유적으로 구릉지 정상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유적 발견. 마을 주위에 V자형의 호 파서 방어시설 설치. 호의 안쪽으로 목책 설치, 바깥쪽으로 굴토 과정에서 나온 흙은 쌓아 올리는 등 3중 방어시설 설치. 토성의 초기적 모습과 연결, 본격적인 토성 축조 단계 이전의 방어시설 형태(2세기경 원삼국시대로 편년, 육군본부, 『한국군사사-성곽』14, pp.6-7).

성기(城基) 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기초, 기저부(基底部) 또는 기초부(基礎部)라고도 함. 체성벽의 무게가 집중되는 곳.

성두(城頭)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쌓은 시설물로 흔히 치(雉) 또는 치성(雉城), 또는 곡성(曲城). 삼국시대부터 성의 정면이나 측면에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조기에 관측하거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시설.

성등(城磴) 성위 문루 등에 올라가게 만든 돌계단.

성문(城門) 성곽 출입문의 총칭, 일반 성문과 암문으로 구분.

성조(城槩) 성에서 병력을 배치하고 운용하는 일체의 조련(훈련·연습). 중군을 세움(立中軍), 파수(派守), 수성(守城), 출시(出示), 비계(備戒), 중군에 이림(到中軍), 발복로(發伏路), 등성(登城), 일면조(一面操), 우마장준비(牛馬牆準備), 해면유병응원(該面遊兵應援), 사면제조(四面齊操), 하성(下城), 야간조련(夜操), 공성(攻城) 등을 포함.

성지(城址) 성 이외에 파놓은 못. 해자, 참호.

성책(城柵) 방어용의 둘러친 담장과 울짙. 성채(城寨), 성채(城砦)

성첩(城堞) 성가퀴, 또는 성벽. 성비(城陴), 성치(城雉), 성피(城坡)

성탁(城柝) 밤에 성을 순찰하며 두드리는 딱따기.

성토법(城土法) 성벽 축조시에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토루를 마련하는 방법.

속마현거(東馬懸車)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毌丘儉)이 244년(동천왕 18)에 1만 군사를 앞세워 고구려를 침공할 당시 이용한 수레(전차)에 의한 기동 전술. 말을 묶어 수레에 연결한 일종의 전차를 이용하여 신속한 돌파술. 고구려는 관구검 부대에 맞서 2만 군사(步·騎 2만)로 비류수(沸流水, 渾江) 상류와 양맥곡(梁麥谷)에서 재차 격파(3천여 명 참획). 이에 관구검은 방진(方陣)을 펼치며

결사적으로 대항, 전차용 수레를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공략함.

쇠뇌 노(弩), 활 틀 위에 활을 장전한 후 손이나 기계 이용해 활시위를 당기고, 방아쇠 이용해 발사하는 무기. 활에 비해 쇠뇌는 기계를 이용하여 쉽게 쓸 수 있고, 사거리가 길고 화살 힘도 세어 관통력이 우수함. 중국 전국시대에 출현.

고조선의 쇠뇌는 구진천(仇珍川)이 제작, 활에 격발장치를 부착하여 화살의 발사 속도와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형무기로 널리 알려짐. 고려시대에는 수질노, 수질구궁노, 팔우노, 천군노 등 여러 가지 노의 명칭 등장, 북계의 주요 성곽에는 쇠뇌 부대 즉 노대(弩隊) 운영.

수구문(水口門) 성 안에 있는 물을 성 밖으로 흐르게 하는 개울이나 도랑에 설치한 문.

수령(守令) 각 지방관의 총칭. 관찰사를 제외한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懸鈴, 종5품)·현감(縣監, 종6품)

수문(水門) 성곽의 성문 가운데 하나로 정문과 함께 성곽 유지에 중요한 문. 성벽에 개구부를 내어 물이 흐르도록 축조, 주로 성벽 아래쪽에 설치.

수성(水城) 개울이나 호수, 바닷가에 쌓은 성.

수성전 사례(귀주성) 『고려사』(권103, 열전 16 박서)로 본 고려의 수성전 사례: “몽골이 정예 기병 300명을 뽑아 북문을 공격하므로 박서가 이를 쳐 물리쳤다. 몽골은 누차(樓車)와 대상(臺床)을 만들어 소가죽으로 덮어씌우고 그 안에 군사를 감춘 채 성 밑으로 포복, 땅굴을 뚫었다. 이에 박서는 성에 구멍을 내 쇠물을 부어 누차를 불태웠다. 여기에 땅까지 꺼져 몽골군 압사자가 30여 인

이나 되었다. 또 썩은 이엉을 불에 붙여 목상(木床)을 불태우니 적이 놀라 흩어졌다. 몽골군이 또 대포차(大砲車) 15문으로 성 남쪽을 급히 공격하므로 박서가 성 위에 대(臺)를 쌓고 포차(砲車)로 돌을 날려 물리쳤다. 몽골군이 기름을 섞어 적서 두텁게 쌓아놓고 불을 질러 성을 공격해왔다. 이에 박서가 물을 뿌렸더니 불길이 더 치열해졌다. 이에 진흙을 가져오라 하여 물과 섞어 던져 불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몽골군이 또 수레에 풀을 싣고 이를 태우면서 성 위에 방어시설을 공격하므로 박서는 미리 물을 모아두었다가 망루에서 쏟아 불을 켜다.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길 30일 동안 하면서 온갖 계교로 공격했으나 그때마다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굳게 지켰으므로 몽골군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蒙古兵，擒渭州副使朴文昌，令入城諭降，屛斬之。蒙古選精騎三百，攻北門，屛擊却之。蒙古創樓車及大床，裏以牛革，中藏兵，薄城底，以穿地道。屛穴城，注鐵液，以燒樓車，地且陷，蒙古兵壓死者，三十餘人。又蘘朽茨，以焚木床，蒙古人錯愕而散。蒙古又以大砲車十五，攻城南甚急，屛亦築臺城上，發砲車飛石却之。蒙古以人膏，漬薪厚積，縱火攻城，屛灌以水，火愈熾。令取泥土，和水投之，乃滅。蒙古又車載草，蘘之攻譙樓，屛預貯水，樓上灌之，火焰尋息。蒙古圍城三旬，百計攻之，屛輒乘機應變，以固守，蒙古不克而退。) 이에 대해서는 『한국군사사상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158-159 참조.

수성조약(守城條約) 이시발(李時發)이 함경감사로 있을 당시 여러 가지 성곽 축조와 부대시설 정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 수록. <주요 내용> 성곽이 크면 지키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규모여야 함. 성벽은 대성(大城)은 아래 넓이가 5장, 위쪽은 그것의 반으

로 하며, 소성(小城)은 아래 넓이가 3장 위쪽 넓이는 그것의 반으로 축조. 성벽 높이는 3~5장으로 하되 낮아도 3장 이하는 불가. 타(堞)의 높이는 6척, 폭은 7척으로 하며, 타의 간격은 포백척 1척 2촌. 타 안에는 현안혈(懸眼穴) 등 설치 등.

수성전법(守城戰法) 성곽을 중심으로 펼치는 방어전 형태의 수성전(守城戰)에서 사용하는 전략전술.

고대 삼국 가운데 고구려에서 사용한 청야입보(淸野入堡)와 이 일대로(以逸待勞)가 전형적인 수성전법에 연동되는 기본적인 전술원칙임. 고려조에는 견벽고수(堅壁固守)와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추격전(追擊戰) 개념의 인병출축(引兵出擊), 즉 주·진을 근거로 하여 적 배후나 퇴각하는 적을 공격하여 후방을 교란·습격하는 전술로 기병 중심의 기동력을 활용한 수성전에서 공세이전(攻勢移轉)으로 나아가는 개념을 결합하여 운용 따라서 견벽고수는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는데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는 형태(백기인, 『한국군사사상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pp.154-159). 일종의 농성전(籠城戰) 포함하는 한국적인 수성전법은 조선 후기 ‘도성수비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완성됨. 이에 반해, 한반도 침략의 주된 세력인 중국의 전통적인 전법은 분진합격(分陣合擊)으로 적보다 월등히 우세한 병력을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진격, 적의 군사력을 분쇄하고 최종 목표지점에서 강력한 군세를 집중하여 적에게 심리적 압박 가한 후 항복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하여 점령하는 방식임.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북방 제 민족은 기마병 중심의 전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역대 왕조에서는 재래적인 고구려식 전술을 지속적으로 운영.

수어청(守禦廳)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을 개축하면서 수도 외곽의 경비 강화를 위해 설치한 군영, 경기·강원·충청 지역의 일부 군병을 남한산성에 소속시켜 군영체제 정비.

순행(巡幸) 국왕이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며 여행하는 행사.

심도(沈都) 강화의 별칭, 강도(江都).

암문(暗門) 성의 후미진 곳에 만든 작은 성문. 평시에는 막아두고 전시에만 사용하는 비밀 통로. 구원 요청이나 물자 등 지원에 이용하거나 기습작전에 활용하는 전술적 통로로 활용.

양마장(羊馬牆) 성벽과 해자 사이에 시설하는 낮은 울타리형(牛馬牆)의 방어시설.

여장(女牆) 성벽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 적의 화살이나 총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낮은 담장.

영조척(營造尺) 목수용 목재 자, 토목·건축에 기준으로 삼는 자(尺). 영조척 1척은 주척(周尺) 1자 4치 9푼 9리, 즉 약 30cm에 해당.

주척은 곡척(曲尺)의 6치 6푼(약 20cm)을 1자로 삼음, 주로 토지·도로의 측정과 축성(築城) 및 사격장의 보법(步法) 등에 준용.

오군영(五軍營) 임진왜란 이후 설치된 훈련도감, 어영청, 충융청, 금위영, 수어청 등 5개 군영의 통합 명칭.

오위(五衛) 조선의 군사조직으로 세조 재위시 군제 개혁을 통해 기존의 삼군을 오위로 편성. 오위진무소(오위도총부)가 총괄, 오위는 의흥위, 용양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오위장(五衛將) 조선시대 중앙군 5위(衛) 지휘관의 최고직. 종2품으로 12명이 정원.

옹성(甕城) 성문 바깥에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벽. 성벽보다 앞으로 돌출시켜 축조한 시설.

왕경(王京) 신라 초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 지금의 경주 지역. 사로국(6부)이 신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6부가 곧 왕경. 왕경은 궁궐, 시장, 관부, 저택 및 외곽에 군사시설이나 수공업 공방 배치. 왕경의 외곽은 왕기(王畿)를 포함.

신라 수도의 호칭은 금성(金城)·동경(東京)·도(都)·건모라(健牟羅)·동도(東都)·왕도(王都)·왕성(王城)·왕경(王京)·옥경(玉京)·경(京)·대경(大京)·금경(金京)·경성(京城)·경읍(京邑)·경사(京師) 등 매우 다양하게 불림.

왕기(王畿) 왕경 주변에 설정된 지역, 예컨대 신라의 경우 왕경 주변에 대성군·상성군의 왕기 지역 설정. 왕기제 성립은 도내와 교외를 포함하는 도성 공간의 확립을 명확하게 드러냄.

왕성(王城) 궁성이나 왕궁의 둘레를 쌓은 성, 도성 시설 중에서 내성(內城)에 해당.

왜성(倭城)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남해안 일대에 축조한 성.

요망대(瞭望臺) 적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 높이 쌓아서 사방을 관망하도록 만든 관측소 같은 시설.

요해처(要害處) 지세가 험준하여 적 방비에 편리한 곳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 고려시대 초기에 개별 군현 단위의 치소성(治所城) 중심 방어전략이 몽골군 침입으로 보다 광의적인 요해처 개념으로 변화됨. '해도입보(海島入保)'는 요해처 개념에 따른 방어책이라 할 수 있음. 조선시대에는 왜구나 북방 이민족의 침입요로에 설치하는 관방(關防) 개념으로 발전. 관방은 적의 침입로를 차단하고자 설치하는 방어시설물 일체를 가리키며, 주로 요해처에 방어 시설을 설치함(관방 항목 참조).

용도(甬道) 체성(성벽)에서 갈라져 나와 좁게 외부로 뻗게 한 후 양쪽에 여

장까지 쌓은 성도(城道).

운제(雲梯) 대표적인 공성 장비로 일종의 이동사다리. 수레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성벽에 쉽게 오르도록 만든 기계. 운제가 길 경우에는 천교(天橋)라고 부르기도 함.

원양진(鴛鴦陣) 명 나라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진법. 일명 ‘일두양익일미전(一頭兩翼一尾戰)’으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로 간주됨. 가지를 남긴 대나무 끝에 날카로운 창날을 부착시킨 창인 낭선(狼筈)이나 방어무기인 방패로 가벼운 등패(藤牌)를 채용하거나 산림과 습지가 많은 지형을 고려, 가벼운 호준포(虎蹲砲) 사용하여 전술적 변화의 도모가 가능. 기본적으로 원양진은 수풀이 울창하고 도로가 좁은 지형에서 적절히 기동할 수 있고, 근접전에서는 각 병사가 새로운 장비로 협동하면서 일본의 검술에 대응함. 원양진법은 기동성과 방어력, 공격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효과적인 전법. 단, 대규모 부대의 전형에서도 단순한 방진의 형태 취하여 대규모 평야전에서 기동력이 뛰어난 상대를 대적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에 제한되는 취약점이 있었음.

월단(月團) 성문 석축시 윗부분을 반달 모양으로 둥글게 틀어 만드는 아치(arch). 무지개처럼 위부분을 둥글게 만듦, 홍예(虹蜺).

월성(月城) 성곽의 평면 형태가 만월형, 반월형의 형태로 생긴 성. 반월성(半月城).

위(衛) 5위(五衛)의 중·좌·우·전·후는 부대 서열. 의흥위·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는 그 명칭.

육조(六曹) 의정부의 수장 영의정(領議政) 예하에서 주요한 실제 국무를 분담 처리하기 위한 6개 관서,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

조를 지칭.

읍례(掛禮) 인사하는 예식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에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읍성(邑城) 지방도시인 군현의 치소에 축조한 성곽.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읍(邑) 전체를 둘러싼 성으로 대부분 평산성(平山城),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사행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축조.

우리나라에서 읍성은 고려 초기에 등장, 주로 지방 행정 중심지 배후에 위치한 산성을 평지 쪽으로 확대하거나 삼국시대 산성을 확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주변의 평지에 새로운 성곽 축조하여 읍성으로 기능하게 함. 경기 안성의 죽주산성, 안성 비봉산성(안성군), 안성 무양산성(양성현), 이천 설성산성(음죽현) 등은 삼국시대 산성 바깥으로 외성을 덧붙여 축성. 평택 비파산성(거성현성)은 삼국시대 축조된 자미산성의 주변에 새로운 성곽으로 축조. 읍성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고려 후기에 왜구 침입이 빈번해져 연해지역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해안지역 방어 강화를 위해 읍성 축조하기 시작.

조선시대부터는 일정한 부·목·군·현 등 도(道) 산하에 있는 행정단위 통칭하여 ‘고을’이라 하고, 고을을 둘러싸서 축조한 성을 읍성(邑城)이라 부름. 조선 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읍성이 있는 현 수가 약 160여 개에 이룸. 당시 330개 행정구역 가운데 평균 1/2의 행정구역에 읍성 축조.

의정부(議政府) 국왕을 보좌하여 정무를 총괄하는 국가 최고기관. 조선 초 개국 초기에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1400년(정종 2)에 의정부로 개칭.

익성(翼城) 방어상 취약한 부분이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래 성벽 밖으

로 날개가 달린 듯이 좌우로 뻗은 성벽.

임진왜란 평양성 전투(平壤城戰) 명(明)의 조승훈(祖承訓)이 이끈 5천 명의 군사가 평양성을 점거한 일본군을 공략하다가 실패한 전투(1차), 명군의 본격적인 파병 이후 조선군과 연합하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지휘의 일본군과 벌인 전투(2차).

조명연합군은 경략 송응창(宋應昌)이 군사행정을,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4만 명의 명군을 지휘, 도원수 김명원(金命元)과 순변사 이일(李鎰)이 승병 2천여 명을 포함한 조선군 1만여 명 지휘. 조명연합군은 칠성문·보통문·합구문의 세 방향으로 화포·화전과 같은 화기 사용하여 치열한 공격을 가하고, 총통을 소지하고 있는 단병전에 능한 남병(南兵)을 투입하여 일본군 격퇴.

명의 남병은 화공(火攻)으로 일본군의 기선을 제압, 다양한 단병기를 든 병사가 돌진해 적 공격하는 방법을 구사. 기병을 사용하지 않고 화기와 단병기의 긴밀한 협조하에 보병 중심의 전술적 운용. 기병 없이 군사를 소대(小隊)로 편성, 각 병사가 단병기 휴대하고 개인 전기로 공격과 방어를 동시 수행.

임진왜란 당시, 육전에서 조선군과 명군은 척법(戚法)을 구사하며 방진(方陣)과 5선(線)에 의한 밀집대형 중심의 공격술을 운용한 반면, 일본군은 사(士)와 아시가루(足輕)로 편성된 조직을 가지고 소총을 주무기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술을 운용. 일본군은 명군의 기동력과 충격력을 따돌리고 적을 협애지로 몰아넣어 좌우에서 우회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투 수행(벽제관 전투). 정유재란시 명군의 기병은 평야전에서 밀집된 화력과 기동력 이용(『기효신서』의 鴛鴦陣), 조총으로 무장한 경량화된 보병 중심의 일본군 제압(직산 전투).

입보(入堡) 적 공격을 피해 현지를 소개(疏開)하여 안전한 성곽(城郭)이나
해도(海島)·동굴 등으로 들어가는 행위.

입보(入堡) 적 공격을 피해 성곽 등 인공적으로 축조된 방어시설로 들어가는
행위. 입보(入堡)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방어시설로 들어가는
행위라면, 입보(入堡)는 축조 시설의 발전적 형태인 성곽(城
郭)·진(鎭)·보(堡) 등 방어시설로 들어가는 의미 내포.

자성(子城) 본성에 비해 규모가 작은 내부의 성. 지성(支城).

재성(在城) 왕성(王城). 임금이 평시에 있는 성.

장대(將臺) 성이나 보 등에 높게 쌓은 지휘대.

장성(長城) 행성(行城). 성벽을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국경지대와 같은 곳에
길게 축성한 성. 개방성(開放城). 대표적인 장성은 고구려와 고
려의 천리장성.

전축성(塼築城) 벽돌을 가지런히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토성이나 석성의 단
점을 보완하여 축조한 성. 벽성(壁城). 성벽 전체를 벽돌로 쌓지
않고 성벽의 일부인 석성 위의 여장이나 장대, 포루 등에 부분
적으로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벽돌을 건축 재료로 썼으나 성벽
에 벽돌을 사용한 사례는 없음. 강화 외성과 수원 화성의 중요
시설물에 벽돌을 사용한 축조 예가 있음. 대체로 세종대 북방지
역의 읍성을 벽돌로 축조한 기록 보임.

주척(周尺) 영조척(營造尺) 항목 참조.

중성(中城) 성곽에 내·외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 축조한 성, 3중 성 형태를
이름.

중성(重城) 겹성. 본래 성 밖이나 내에 따로 작은 성을 쌓은 성.

지도(地道)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지하로 판 땅굴.

진법(陣法) 근대 이전, 군대에서 병력과 무기를 실제 전투 지형에서 전투대형으로 편성하는 일종의 전투편성 방식. 최초에 고대 중국에서 삼진법(三陣法)을 기본으로 오진(五陣)·팔진(八陣)으로 발전. 진법의 발전은 무기 발달과 결합한 전투유형에 따라 화력의 증강과 병종간의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대형으로 진전됨.

삼진은 기본전투대형으로 좌우측 양군에 구(矩, 方陣)을 두고 중군을 배후에 둔 어려(魚麗)의 형. 이를 5부로 나누어 배열하는 오진, 그리고 다시 평야전의 전투형태인 야전(野戰)과 성을 에워싸는 전투형태인 위성전(衛城戰)을 고려한 팔진 전법 형성.

조선의 진법은 정도전(鄭道傳)의 『진법(陣法)』 간행에서 시작, 세조대에 5위진법으로 완성. 정도전의 진법은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실용성을 중시한 것으로 정진(正陣)에서 좌작진퇴(坐作進退)와 창검·궁시를 이용한 공격법, 그리고 결진십오지도(結陣什伍之圖)에서는 부대편성을 통한 결진법 설명. 군사편성은 기본적으로 5인을 오(伍), 10인을 십(什) 또는 소패(小牌), 5십을 중패(中牌, 10십을 총패(總牌)로 편성, 곧 100인의 총패를 전투의 기본단위로 삼음.

세조 때의 오진법은 전투편성의 원리인 중·좌·우·전·후의 오위제(五衛制)로 재현한 것으로 부대 편제를 진법과 일반적인 편제를 일치시킴. 이로써 오위제 내에 여러 종류의 군사 분속, 병종별 독자성 유지 및 지휘체계의 간소화, 부대와 실질적인 지휘통솔자의 일체화 구현.

진보(鎭堡) 진과 보루.

진성(鎭城) 진 주변으로 둘러 친 성, 진영(鎭營).

집수시설 물을 저장하는 시설의 총칭. 집수시설. 저수시설 외에도 저수지,

저수조, 집수정, 연못, 연지(蓮池), 지당(池塘), 우물 등 여러 용어로 부름.

집수정(集水井) 성 안의 식수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으로 굴착하고 내벽을 진흙이나 석재로 마감한 시설.

차단성(遮斷城) 적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이나 요새지 등 일정 구간의 요로를 막아 길게 성벽을 쌓은 성. 차성(遮城).

차성(遮城) 이중 성벽이나 옹성처럼 성벽 본체에 딸린 보조 성곽, 성 밖에 별도로 막아 쌓음, 성두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부터 성곽의 중심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물로 중시함.

철옹성(鐵甕城) 쇠로 만든 독처럼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을 일컫음.

철질러(鐵蒺藜) 수성전에서 사용한 장애물로 고려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이용. 마름쇠라고도 함. 중심에서 세 방향으로 가시가 나와 삼각형을 이루며, 가시 하나에는 구멍이 있어 여러 개를 꿰어 댄. 현대전에서는 철조망 역할을 하며 적이 성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애물로 사용하거나 적에게 던져 적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 밧줄로 묶어서 개인 휴대.

첩원(堞垣) 여장(女牆)이라고도 함. 본체 성벽 위에 쌓은 낮은 담장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 고려 시대에는 925년 축조한 성주(成州, 평남 성천군)의 성에만 나타나 일반적인 시설은 아니었음.

청야전술(淸野戰術)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 밖의 물자를 모두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 농성전을 전개하기 위한 작전술.

몽골군 침공시 고려군은 주민들과 재물, 곡식을 모두 성 안이나 섬으로 옮기는 한편,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 적이 거처할 집과 먹을 양식을 없애버려 적의 현지조달 능력을 완전히 제거함.

체성(體城) 성곽의 부속시설을 제외한 성벽의 몸체 부분을 가리킴. 성벽.

성체(城體), 성신(城身).

총혈(銃穴) 성가퀴나 돈대(墩臺)에서 총을 쏘기 위해 원형이나 네모 형태로 만든 구멍.

치성(雉城)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조기에 관측하고 측면에서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 일부를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 치(雉), 성두(城頭). 치성 위에 누각이 있으면 포루(鋪樓), 포사(鋪舍), 적루(敵樓)라 함. 포(砲)를 설치하는 치성을 포루(砲樓), 석루(石樓)라 함.

치소성(治所城) 지역 세력의 거점으로 일종의 요새지. 교통 조건과 맞물려 평지나 평지를 깬 곳이 아닌 고지에 위치. 고려 때 양계의 새로운 개척지역의 소수만이 평산성, 주현과 속현·양계와 남도지역 등 대부분 산성(포곡식) 형태를 취함.

타(塚) 화살을 막기 위한 성벽 위의 구조물, 성가퀴.

타구(塚口) 성벽 위의 여장 구간마다 잘린 부분 구간의 터진 구간.

테피식 산성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능선을 마치 테를 두른 듯이 쌓은 산성.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7-8부 능선에 따라 성벽 축조하는 산정식(山頂式) 방식, 일명 시루메. 대체로 규모가 적고, 산정에 둘러 쌓으므로 발권산성(鉢圈山城)이라고도 함.

토광(土壙) 저장구덩이, 가장 오래된 형식의 저장시설. 암반이나 풍화 암반을 수직으로 굴착, 단면 주머니형의 저장구덩이로 만들. 저장공(貯藏孔), 저장혈(貯藏穴), 구덩유구, 소형 유구.

토루(土樓) 땅을 깊게 파서 땅속으로 굴 형식으로 지은 움집 형태의 가옥. 중국 객가(客家)들이 사용한 주거 형태. 대문 위에는 물을 담아 불을 이용한 적 공격에 대비함. 원형 건물 가운데에는 우물, 식량 창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배치하고, 거주민의 공동 공간을 갖춤.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 돌과 흙을 모두 활용하여 축조하는 성벽.

토성(土城) 축조재료가 흙으로 쌓아 올린 성. 축조법은 흙을 단단하게 다져서 쌓은 판축법(版築法), 축조할 곳 안팎의 흙 파낸 둔덕을 쌓아 올리는 삭토법(削土法)이 있음. 성루(城壘). 토축성(土築城). 토축성을 축조하는 방식으로는 삭토법, 성토법, 판축법이 있음. 판창(板窓) 성랑에 설치하는 창. 아래쪽이 열리도록 만든 것으로 성벽 아래 근접한 적에 활을 쏘는 데 편리하게 함.

판축성(版築城) 성 내부에 돌이나 흙을 판축식(땅을 파고 흙·돌 등으로 펴서 다지는 방식)으로 다지며 쌓은 성.

편축성(片築城) 성벽의 외부만을 돌이나 벽돌로 쌓고 내부는 비탈진 산이나 언덕을 의지하거나 흙을 경사지게 다져 쌓은 성벽.

평산성(平山城) 평지성과 산성의 장점을 취한 성으로 배후(북쪽)에 낮은 산을 끼고 축조한 성. 전면(남쪽)에는 강이나 하천을 둬. 대체로 산을 끼고 있는 쪽으로 산성 형태 취하며, 전면으로 평지성을 취하여 군사와 행정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성으로 읍성에 많음. 한국 성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평지성(平地城) 바닥이 고른 평지에 쌓은 성, 평지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 이점 확보하기 어려워 성곽의 입지 조건상 불리하여 우리나라에는 그리 많지 않음. 대체로 평지가 많은 지역인 한반도의 남부에 분포.

삼국시대 초기부터 축조 시작, 풍납토성이 대표적인 평지성. 고구려의 수도 집안(集安)의 국내성(國內城), 신라 경주의 월성, 낙랑의 토성으로 추정되는 평양 토성리성 등.

포곡식(包谷式) 산성 내부에 넓은 계곡을 포용하고 계곡을 둘러싼 주위의 산 능선에 성을 쌓는 방식의 산성. 1개 이상의 계곡 포함하여

축조. 성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장대(將臺)를 만들어 사방을 살필 수 있게 하고 계곡 옆 평탄한 곳에 군창(軍倉) 등을 세움.

포차(砲車) 석포(石砲). 바퀴가 달려있어 수레 모양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고려시대 포탄은 돌이었으나 화구(火毬)를 사용, 화공을 실시한 경우도 있음.

한량인(閑良人) 무관 출신으로 아직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자 또는 향리(鄉吏)로서 14~15년을 복무한 후 면역(免役)된 자를 가리킴.

한성부(漢城府) 조선조 때 수도 한성(漢城, 서울)의 인구·시장·가옥·토지·산악·도로·교량·하수도의 운용 관리 및 민간의 형사·민사 사건 처리, 경비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관서. 장관은 정2품 관 판윤(判尹), 그 외 좌윤(左尹, 종2품)·우윤(右尹, 종2품) 각 1명, 서윤(庶尹, 종4품) 1명, 판관(判官, 종5품) 2명, 참군(參軍, 정7품) 3명, 서리 38명, 조례 40명, 차비노 11명, 군수노 15명.

해안성(海岸城) 해안을 통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 상륙지점에 축조한 성.

해자(垓子) 성벽의 주변에 물을 담거나 둔덕을 만들어 적이 공격해 올 때 방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 자연 하천이나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는 해자나 호(壕)라 함. 물 없는 구덩이만 판 경우는 황(隍).

행성(行城) 적침을 막기 위해 변경이나 요해처 등 요충지에 축조한 성, 출정군이나 지방군의 주둔지 일대에 구축하는 임시 성곽. 장성(長城).

행재성(行在城) 국왕이 상주하지 않으나 군사·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임시로 머무는 성.

행재소(行在所) 국왕이 도성 밖 교외에서 사냥 또는 군사훈련을 거행하거나

또는 지방 농묘에 제사하기 위하여 도성을 나가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머무는 장소.

현문(懸門) 성문의 통로부를 성벽 중간부에 만들어 사다리와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만들어진 문. 다락문.

현호(懸戶) 성 위의 타구(垛口)에 설치하는 문.

화성(華城) 조선 후기 도성방위 강화 차원에서 수축된 숙종대의 강화성(江華城)과 더불어 도성 남쪽 수원에 설치한 행성. 1794년(정조 18) 2월 채제공 주관하에 석재 채취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축조 개시, 1796년 9월 여장과 내포사 공사를 끝으로 축성공사 완료. 둘레 5,520m. 팔달문, 장안문, 창룡문, 화서문 등 4대문, 행궁·옹성·포루·적대·공심돈·봉돈·장대·각루·포사·치성·노대·압문·수문·사직단·공자묘 및 그외 부속건물 등 배치. 정조대, 중국·일본의 성제의 우수한 점을 고려한 조선 축성술의 압권을 보여주는 성곽. 도성과 더불어 도성 주변의 외곽 방어체제를 구성, 군사적으로 '환상협수체계(環狀協守體系)'를 이루었음.

후원(後苑) 궁성에 소재한 조경 시설로 국왕과 후비의 사적 공간 또는 휴식 공간.

훈련원(訓練院) 병조에 속한 군정 기관의 하나로 군사시재(軍士試才), 연예(練藝), 무경습독지사(武經習讀之事)의 임무, 곧 군사의 선발·훈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능 수행. 무과의 초시를 중앙의 훈련원이 장악, 복시 때 병조와 공동으로 주관. 취재와 연무까지 훈련원이 주장, 군정 상의 위치가 매우 중시됨.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築城啓草』

『江華府志·城郭條』

『江華山城現況調査報告書』

『經國大典』

『經世遺表』

『經濟野言』

『癸丑陣說』

『高麗古都徵』

『高麗史』

『高麗史節要』

『舊唐書』

『琴堂初藁』

『南塘集』

『農圃問答』

『訥齋集』

『東國輿地備考』

『東國李相國集』

『萬機要覽』

『武備要覽』

『民堡議·總義五則』

『潘溪遂錄』

『兵將說·陣法』



- 『兵政』
『北漢誌』
『備邊司膽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西厓集』
『宣和奉使高麗圖經』
『星湖僊說』
『星湖先生文集』
『孫子』
『宋書拾遺』
『守城機要』
『守城綸音』
『守城冊子』
『承政院日記』
『神器秘訣』
『新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與猶堂全書』
『歷代兵要』
『研經齋全集』
『燃藜室記述』
『五衛陣法』
『遼史』



『迂書』

『原高麗記事』

『元史』

『魏書』

『李衛公問對』

『日省錄』

『臨官政要』

『資治通鑑』

『朝鮮經國典』

『朝鮮王朝實錄』

『周禮』

『中國兵書集成』

『重峰集』

『陣圖法』

『陣法』

『陣說問答』

『懲毖錄』

『風泉遺響』

『後漢書』



2. 2차 자료

- 강민식, 『5세기~6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관계』,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 강성문, 「수도서울 방위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45집, 1993.
- _____, 「영조대 도성사수론에 관한 고찰」, 『청계사학』 제13집, 1997.
- _____, 「조선초기 화기 방사군의 실상」, 『학예지』 제6집, 육군박물관, 1999.
- _____,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 2000.
- _____, 「망암 변이중의 화차전 검토」, 『망암 변이중 연구』, 삼우사, 2003.
- 강종원,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 『백제연구』,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2.
- 강지연, 『고려 우왕대 정치세력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6.
- 강진철, 「高麗 初期의 軍人田」, 『淑明大論文集』 3, 1963.
- 고동환, 「조선시대 한양의 수도성」, 『역사학보』 제209호, 2011.
- 고소진, 「백제 성왕대 사비천도와 도성」, 『계명사학』 21, 2010.
- 공석구, 『고구려 영토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 공석구 외,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 도성과 성곽』,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무기발달사』, 1994.
- _____, 『한민족전쟁통사』(I~IV), 1994~1997.
- _____, 『국토개척사』, 1999.
- _____, 『나당전쟁사』, 199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동국병감』, 1984.
- _____, 『의병항쟁사』, 1984.
- _____, 『독립군항쟁사』, 1985.
- _____, 『병자호란사』, 1986.
- _____, 『임진왜란사』, 1987.

- _____, 『대몽항쟁사』, 1988.
- _____, 『병인 · 신미양요사』, 1989.
- _____, 『여요전쟁사』, 1990.
- _____, 『고구려 대수 · 대당 전쟁사』, 1991.
- _____, 『왜구토벌사』, 1993.
- 고구려연구재단,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2005.
- 권영국, 『고려후기 군사제도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5.
- 권오영,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6, 1995.
- 금장태, 「조현의 조선현실인식과 향왜의리론」, 『한국 실학의 정신』, 제이앤씨, 2009.
- 기경량, 『고구려 왕도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환도성 · 국내성의 성격과 집안지역 왕도 공간의 구성」, 『사학연구』 129, 2018.
- _____, 「고구려 평양 장안성 중성 · 내성의 성격과 축조의 배경」, 『고구려 발해연구』 64, 2019.
- 김광수,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 『육사논문집』 50, 1996.
- 김기섭, 「백제전기 도성에 관한 일고찰」, 『칭계사학』 7, 1990.
- 김기웅 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 김낙진, 『고려 금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대중, 「삼국시대의 성곽전투와 운제의 운용」, 『학예지』 5, 1997.
-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53, 2011.
- 김동주, 『藏書閣 韓國本 圖書解題 -軍事類』,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 김병곤, 「신라 왕성의 변천과 거주 집단」,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김병남, 「백제 웅진천도 초기의 한강 유역상황」, 『한국사상과 문화』 26, 2004.
- 김상기, 「삼별초와 그의 난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1948.
- 김상현, 「신라의 역사와 사상」, 『한국사사상대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김성수 외, 「韓國軍事類 典籍의 發展系譜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9, 1993.
- 김순규, 『몽골군의 전략·전술』,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김영수, 「삼국시대 병법서의 수용과 그 활용」, 『민족문화』 29, 2006.
- 김영태, 「불교신앙의 전개양상과 생활세계」, 『한국사사상대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 김용호, 「조선초기 경군 재편과 ‘수도방위」, 『서울학연구』 23, 2004.
- _____, 「조선후기 도성중심 방위전략의 정착과 한강변 관리」, 『서울학연구』 24, 2004.
- _____, 「조선초 도성의 축조와 수도 경계 기능」, 『서울학연구』 XLVII, 2012.
- 김은국, 「虎巖 文一平의 大小思想과 渤海史 認識」, 『고구려발해연구』 33, 2009.
- _____,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2012~2013년 발굴조사 보고서), 동북아 역사재단, 2015.
- 김인호 외, 『한국군사사』(고려 II), 육군본부, 2012.
- 김정배,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역사적 위치」, 『고조선·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2013.

- 김종복, 「집안의 고구려 도성」, 『집안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6.
-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 해안, 2003.
- 김준석, 「조선후기 국방의식의 전환과 도성방위책」, 『전농사론』 제2집, 1996.
-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 _____, 「고려 개경과 조선 한경의 구조 비교」, 『서울학연구』 LVIII, 2015.
- 김철준, 「能步戰과 便鞍馬」, 『韓洵劬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_____, 『한국고대국가발달사』, 한국일보사, 1975.
- 김태식,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_____, 『사국시대의 사국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2014.
- 강현숙, 「동아시아 도성과 신라 왕경의 비교연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9, 2008.
-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김호일, 「눌재 양성지의 국방사상」, 『유교사상연구』 22, 2005.
-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과 축성』, 서경문화사, 2017.
- 김 흥, 『한국의 군제사』, 학연문화사, 2001.
- 김희상, 「군사이론의 체계와 역할」, 『생동하는 군을 위하여』, 전광, 1996.
- 김희선, 「고구려 장안성과 신라 왕경」,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 _____, 『동아시아의 도성제와 고구려 장안성』, 지식산업사, 2011.
- 노대환, 「숙종·영조대 對明義理論의 정치·사회적기능」, 『한국문화』32, 2002.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칙법 논의」, 『군사』 34, 1997.
- _____,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제3집, 2000.

- _____, 『영조대 한양 도성 수비 정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 _____,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1995.
- _____,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_____,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 노태돈, 「고구려유민사연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_____,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 1990.
- _____, 「연개소문」, 『한국사 시민강좌』 31, 2002.
- _____,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 성』, 2006.
- 류창규, 「사병의 형성과 도방」, 『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93.
- 마종락, 「고려시대의 군인과 군인전」, 『백산학보』 36, 1989.
- 문경현, 「신라왕경고」, 『신라왕경연구』(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16), 1995.
- 문은순, 『고구려의 평양천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2007.
- 문일평, 「大高句麗 가고 小高句麗 立國」, 『호암문일평전집』 1, 민속원, 2001.
- 민현구, 「고려후기의 군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 _____, 「오위치제의 확립과 중앙군제의 성립」, 『한국군제사』(근세조선 전기편), 육군본부, 1968.
- 박남수, 「新羅內省毛接文書와 신라 내성의 馬政」, 『신라문화』 제54호, 2019.
- 박방룡, 「도성·성지」, 『한국사론』 15, 국사편찬위원회, 1986.
- _____, 「6세기 신라왕경의 제양상」,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6, 2005.
- _____, 『신라도성』, 학연문화사, 2013.
- 박성수, 「조선후기 실학의 국방론」, 『도산학보』 5, 1996.

- _____, 『한국고대문화론』, 『한국독립운동사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박성수 · 長野 覺, 『韓國 · 檀君神話と英彦山開山傳承の謎』, 福岡, 海鳥社, 1996.
- 박순발, 「사비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백제연구』 31, 2000.
- _____,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출판부, 2010.
- 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윤진, 「고려시대 개경일대 사원의 군사적·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34, 1998.
- 박용운, 『고려시대 개경연구』, 일지사, 1996.
- _____, 「신라 왕경과 고려 도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9, 2008.
- 박재광 외, 『한국군사사 -군사통신·무기』, 육군본부, 2012.
- 박종진, 「고려시기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2000.
- 박찬식, 「신현의 국방론」, 『역사학보』 제117집, 1988.
- 박한남, 「공민왕대 왜구침입과 우현보의 '상공민왕소'」, 『군사』 34, 1997.
- 박현숙, 「궁남지출토 백제목간과 왕도 5부제」, 『한국사연구』 92, 1995.
- 백기인, 『중국 군사사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6.
- _____,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 『군사』 36, 1998.
- _____, 「18세기 북벌론과 대청방어론」, 『군사』 제41호, 2000.
- _____, 「18세기 오위진관체제론의 일고찰」, 『청계사학』 16·17합집, 2002.
- _____,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해안, 2004.
- _____, 「조선 후기 국왕의 열무 시행과 그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006.
- _____, 「한국전쟁사상의 전쟁 기록과 해석의 양상」, 『군사』 59, 2006.
- _____, 「수도 천도의 전략적 함의」, 『원광 군사논단』 제5호, 원광대학교,

- 2009.
- _____, 「고대 한국의 군사적 전통과 병학의 형성」, 『군사』 74, 2010.
- _____, 「연개소문 병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전쟁과 유물』 제3호, 2011.
- _____, 『한국근대 군사사상사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_____, 「한국 군사사상의 전개와 그 성격」, 『군사학연구』 제12호, 대전대, 2015.
- _____, 『한국 군사사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 _____, 「18세기 조선의 육·해방론 전개」, 『군사』 제104호, 2017.
- 백기인 외, 『韓民族戰爭史總論』, 교학연구사, 1988.
- _____,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2016, 재간).
- 백종오, 「남한산성 신남성의 구조와 축성 의미」, 『문화사학』 35, 2011.
- 변태섭, 「삼국의 정립과 신라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한국사 시민강좌』 제5집, 일조각, 1989.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 서영교, 『羅唐戰爭史研究』, 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신라 통일기 기병 증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2002.
- _____, 「신라 시위부 - 경호와 경비의 상이」,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 _____, 「부산 영도, 신라왕실목장」, 『향도 부산』 제33호, 2017.
-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일조각, 1988.
- 서영일 외, 『한국군사사 - 성곽』, 육군본부, 2012.
- 서울시, 『서울 성곽』, 1976.
- 서인한, 『韓民族戰爭通史』, 국방군사연구소, 1994.

- _____, 『羅唐戰爭史』, 국방군사연구소, 1999.
- _____, 『한민족역대파병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한권으로 읽는 역대 병요 · 동국전란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_____,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_____,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 _____, 『한국연합작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_____, 『한국의 성곽 공방전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 91, 2004.
- _____, 「웅진 왕도와 사비 도성」, 『한국사 시민강좌』 44, 2009.
- _____, 「백제 웅진 왕도와 대통사지」, 『한국사연구』 155, 2011.
-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혜안, 1999.
- _____, 「조선후기 실학자의 방어체제개혁론」, 『역사와 실학』 28, 2005.
- 성주탁, 「백제 웅진도성과 사비성 연구」, 『백제연구』, 1980.
- 손승철, 「정조시대 〈風泉遺響〉의 도성방위책」, 『향토 서울』 54, 1994.
- 손영중,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 송양섭, 「17세기 강화도 진보의 운영과 둔전책의 추진」, 『한국사연구』 176, 2017.
- 송인주, 『신라시대 금군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고려시대 친위군 연구』, 일조각, 2007.
- 신상화 외, 「고대 신라의 도성 · 경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6(7), 2001.
- 신범규, 「6~7세기 新羅 軍律의 운용과 그 양상」, 『한국고대사연구』 78, 2015.
- _____, 「신라 중고기 군역의 형태와 운영 양상」, 『한국고대사탐구』 30,

- 2018.
- _____, 「신라 중고기 시위부의 역할과 배치 양상」, 『신라사학보』 47, 2019.
- _____, 「신라 중고기 시위부의 활동범위와 주둔지 운용」, 『한국사학보』 78, 2020.
-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2000.
- _____, 「고려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 제89호, 2004.
- _____, 「고려시기 개경 도성의 범위와 이용」,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_____, 「고려 강도시기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군사』 76, 2010.
- _____,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혜안, 2019.
- 신효승, 「영조대 도성 방위의 수성전술 체계」, 『역사와 실학』 56, 2015.
- 신형석, 「신라 자비왕대 방리명 설정과 그 의미」, 『경북사학』 23, 2000.
- 신형식, 「한국고대사에 나타난 충효사상」, 『성신연대논문집』 11, 1979.
- _____, 「역사적 측면(고대·중세)」, 『한국사사상대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신희권, 「백제 한성도읍기 도성방어체계 연구」, 『향토서울』 86, 2014.
- 심승구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_____,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4(개정증보판, 2009).
- 안주섭, 『고려 거란 전쟁』, 경인문화사, 2003.
- 양기석, 「백제의 사비 천도와 그 배경」, 『백제와 금강』, 2007.
- 양정석, 「신라 왕경의 지리학적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의 검토」, 『역사와 담론』 80, 2016.

- 여호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 군사편찬위원회, 1996.
- _____, 「국내성기 고구려의 군사방어체계」, 『한국군사사연구』 1, 국방군사연구소, 1998.
- _____, 「고구려 후기의 군사방어체계와 군사전략」, 『한국군사사연구』 3, 국방군사연구소, 1999.
- _____, 「新羅 都城의 空間構成과 王京制의 成立過程」, 『서울학연구』 18, 2002.
- _____, 「고구려 국내성기의 도성 경관과 토지이용」, 『고구려 발해연구』 65, 2019.
- _____, 「삼국통일 전후 신라 도성의 공간구조 변화」, 『역사비평』 128, 2019.
- 연민수, 「6세기 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동향」, 『新羅文化』 7,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1990.
- 오영선, 「고려전기 군인층의 구성과 위속군의 성격」, 『한국사론』 28, 1992.
- 오종록,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 『사총』 제33집, 1988.
- 오종록, 「조선 초엽 한양 정도 과정과 수도방위」, 『한국사연구』 127, 2004.
- 오종록 · 김철웅 · 배우성, 「역사 속 천도」, 『역사탐험』 14, 2004.
- 원영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출판부, 1990.
- 위가야,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체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2020(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한국고대사탐구학회 공동학술대회).
- 유월재, 「웅진도성의 나성문제」, 『역사와 담론』 19 · 20, 1992.
- _____, 「백제의 대외관계」, 『한국사』 6, 군사편찬위원회, 1995.
- 유재성, 『병자호란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 _____, 『麗遼戰爭史』,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 _____, 『한민족전쟁통사』 II(고려시대 편), 국방군사연구소, 1993.
-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33, 1996.
- _____, 「조선전기 경상도의 지역거점 산성연구」,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010.
- _____, 『한국군사사 - 성곽』, 육군본부, 2012.
- 육군본부, 『한국고전사 - 고대편』, 1975.
- _____, 『한국고전사 - 고대편』, 2007.
- 윤무병, 「한국청동유물의 연구」, 『백산학보』 12, 1972.
- _____, 「扶餘羅城發掘調査概報」, 1991.
- 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용혁, 「고려의 해도입보책과 몽고의 전략 변화」, 『역사교육』 32, 1982.
- _____, 「고려의 대몽항쟁과 강도」, 『고려사의 제문제』, 삼영사, 1986.
- _____,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1991.
- _____, 『고려·몽골군 전쟁사』, 육군본부, 2008.
- 윤훈표,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군사』 81, 2011.
- _____, 「오위체제의 성립과 중앙군」, 『한국군사사』(조선전기 I), 육군본부, 2012.
-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 이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_____, 「백제국의 정치이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69, 1990.
- _____,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기백, 「고구려의 경당」, 『역사학보』 35·36, 1967.
- _____,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 _____, 『고려사 병지 역주1』, 1969.
- _____, 「군사조직 -주현군과 농민」,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 _____, 「한국의 전통사회와 병제」, 『한국군사사논문선집 -고대편』, 국방 군사연구소, 1996.
- 이기백 · 이기동, 『한국사강좌』 1, 一潮閣, 1985(重版).
- 이기봉, 『고대 도시 경주의 탄생』, 푸른역사, 2007.
- 이도학, 「백제 한성시기의 도성제에 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 1992.
- _____, 「백제 사비 천도의 재검토」, 『동국사학』 39, 2003.
- _____, 「백강전투의 위치 확인에 대한 접근」, 『한국고대사탐구』 25, 2017.
- _____, 『백제도성연구』, 서경문화사, 2018.
- 이동주, 『신라 왕경 형성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19.
- 이문기, 「신라 시위부의 성립과 성격」, 『역사교육논집』 9, 1986.
- _____,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1997.
- _____, 「신라 경덕왕대에 재편된 왕도방어 군사조직과 성곽의 활용」, 『신라문화』 34, 2009.
- 이병도, 「서경의 재성과 나성」, 『고려시대의 연구』(개정판), 아세아문화사, 1980.
- 이부오 외, 『한국고대사』, 육군본부, 2007.
- 이상배, 「조선시대 도성의 치수정책과 준설사업」, 『중앙사론』 30, 2009.
- 이상훈,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연합군 진군로」, 『한국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2020.
-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휘문출판사, 1978.
- 이성무, 「조선시대사 서설 - 군사」, 『역사학보』 제170집, 2001.

- 이영식,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
- 이영호, 「7세기 신라 왕경의 변화」,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6, 2005.
- 이우태,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원재, 「'局堂'재고 : '局堂'의 기능성에 대하여」, 『연세교육연구』 12-1, 1999.
- 이인철,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재준,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2017.
- 이정빈,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고구려-수 전쟁 :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대전』, 주류성, 2018.
- 이종욱, 「『삼국사기』에 나타난 초기 백제와 풍납토성」, 『서강인문논총』 12, 2000.
- 이태진 외, 『한국군사사 - 개설』, 육군본부, 2012.
- 이태진, 『조선후기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문화원, 1985.
- 이현수, 「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 『칭계사학』 8, 1991.
- _____,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 45, 2002.
- 이흥두, 「호란 이후 조선군의 전술변화」, 『군사사 연구논총』 제2집, 2002.
- 임기환, 「고구려의 변천」,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 _____,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연구』 137, 2007.
- 임민혁, 「임진왜란 전후 국방의식 변화와 국방전략」, 『군사사 연구총서』 제4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임용한, 『전쟁과 역사』 2, 혜안, 2004.
- _____, 『한국군사사』(조선전기 II), 육군본부, 2012.

- 장동익, 「고려전기의 선군」, 『고려사의 재문제』, 1986.
- 장원섭, 『신라 삼국통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신라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 장종진, 「5세기 전후 국제정세와 고구려 평양천도의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 장필기, 「정조대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 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 _____, 『조선후기 무반벌열가문 연구』, 집문당, 2004.
- 장학근,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_____, 『고려의 북진정책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조선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전경숙,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 전덕재, 「新羅 里坊制의 施行과 그 性格」, 『신라문화학술발표논문집』 26, 2005.
- _____,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 _____, 「한국 고대의 왕경과 도성, 지방도시」, 『역사학보』 207, 2010.
- 정경현, 『고려전기 2군·6위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군사조직-경군」, 『한국사』 13, 군사편찬위원회, 1993.
- 정동민, 『고구려와 수 전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양상」, 『한국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2020.
- 정만조,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 『국사관논총』 17, 1990.
- _____,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한국사』 32, 1997.
-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 정은정, 『고려 개경·경기연구』, 혜안, 2018.
- 정학수, 「고려 개경의 범위와 공간구조」, 『역사와 현실』 59, 2006.
- 정해은,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 2002.
- _____,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_____,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_____,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I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조선 초기 도성의 위상과 도성방어론」, 『서울학연구』 49, 2012.
- 정해은 외, 『한국군사사 - 군사사상』 12, 육군본부, 2012.
- 조성을, 「실학자의 역대 수도·천도론」, 『한국사연구』 127, 2004.
- 조인성, 「고려 양계의 국방체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 _____, 「군사조직-주현군과 주진군」,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고구려 연구재단, 2006.
- 진석용, 「군사사상의 학문적 고찰」, 『한국적 군사사상의 정립 방안 모색』 (제5회 군사학술 세미나, 대전대, 2009.)
- 차문섭, 「군사조직」, 『신한국사론』 23,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차용걸, 「행성·음성·진성의 축조」,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 _____, 『한국의 성곽』, 눈빛, 2002.
- _____, 「도성의 축조와 개축」, 『서울2천년사』, 2013.
- 채미하, 「신라의 군례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2010.
- 채용석 외,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혜안, 2019.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한국학보』 3, 1976.
- 최종석 외, 『한국군사사 - 성곽』, 육군본부, 2012.
- _____, 『한국군사사(고려I)』, 육군본부, 2012.
- 최중현, 「조선개국 초기 도성 성곽 축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집』 9-4, 2008.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36(고대 동아시아 천도 특집호), 2004.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허선도, 「여말선초 화기의 전래와 발달(상)」, 『역사학보』 24, 1964.

홍원기, 「고려 2원6위제의 성격」, 『한국사연구』 68, 1990.

_____, 『고려전기의 군제연구』, 혜안, 2001.

홍을표, 「조선후기 척계광의 전법에 대한 논의」, 『한일관계사연구』 제44
집, 2013.

Stoyakin Maksim, 「발해성곽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연구」, 『고구려발해
연구』 42, 2012.

V. I. 볼딘 외,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2004.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 『朝鮮學報』 37·38, 1966.

黃斌·黃瑞, 『走進東北固國』, 長春, 遠方出版社, 2006.

〈 색 인 〉

(ㄱ)		강화도	147, 172
가리촌	39	강화성	217
가림성주	70	강화외성	187
가천도	125	강화유수	148
각루	191	개경 15, 88, 112, 123, 186	
간수군	99	개경고수론	115
갑곶강	112	개구부	191
갑사제도	140	개로왕	37, 64, 70
강노	111	개성	12
강덕진	86	개성군	89
강도 15, 148, 150, 186, 206		개성부	96
강도연해	147	개성현	96, 98
강동성	109	개원례	48
강릉성	109	개주	88, 94, 186
강무 95, 103		거란	87
강무전	45	거란군	108
강민식	38	거성현성	209
강성문 13, 103, 142, 173, 175		거점방어체계	15
강안성	191	거점성	25, 179
강안전	120	거진	158
강음	96	건국방략	15
강지언	125	건덕전	91, 92
강현숙	44	건복방	98
강화 88, 206		결루	64
강화 중성	187	검점군	99

검차	191	고대국가체제	62
견벽고수	47, 107, 191	고려	83
견장출정의	103	고려사 병지 역주	103
결사대	78	고명	151
경관	193	고모리산성	35
경궁	111	고목성	68
경기	96, 191	고분	67
경덕왕	47	고성	192
경도	89, 192	고소진	37
경령전	120	고아촌	39
경리청	160, 169	고유제	150
경복궁	137	고이산성	59
경산	40	고조선	39
경상도	130	고직	161
경성	40, 97, 124, 192	고허촌	39
경아전	161	고혜령	125
경외매장	38	골암성	86
경재	161	공격개시일	76
경정층	147	공민왕	98, 123, 144
경주	84	공석구	27
계룡산	65, 66, 130, 188	공성작전	56, 106
계림궁	92	공세이전	47, 205
계백	75	공손씨	26
계족산성	56	공양왕	98, 123, 125
계필하력	56, 74	공장인	169
고구려	84	공조판서	159
고국원왕	28, 62	과전	143
고니시 유키나가	210	곽	11

관구검	26, 202	국조오례의	103
관문	192	군관	161
관미성	35, 51	군기시	169
관방	192	군량수송작전	57
관방집록목성지법	196	군비통제	154
관산성	72, 73	군사	161
관산성 전투	182	군사방어거점	22
관성소	161	군사방어체계	87
관성장	161	군사전략전술	47
관찰사	192	군사지휘체계	144
광개토왕릉비	34	군사협력체제	38
광덕방	98	군수노보	167
광명천	91	군수보	166, 167
광종	94	군영제	146, 189
광주	158	군익도	145
광해군	146	군인	100
광희문	135, 169	군인정신	78, 183
교축성	192	군제변통절목	164
구근	58	군창	216
구야국	34	궁사술	179
구정	95, 120	궁성	12, 104, 192
구종	161	궁성방어	141, 188
구태묘	71	궁시	111
국경성	192	궁실	40
국궁	192	권수	158
국내성	11, 12, 23, 24, 30, 179, 215	권오영	34
국도경영	117	권유	148
		권중화	124, 130

귀주성	203	김병남	30
근비조지방	63	김상기	116
근초고왕	62	김석주	164
금강	66	김세충	114, 115
금군	140, 141, 164, 193	김시형	170
금성	40, 193	김우항	159
금위별대	164	김옹호	135, 138, 141
금위영	155, 164, 165, 166, 167, 168, 169, 174	김유	146
금장태	110	김유신	58, 74
금현성	41, 72	김인경	116
기각지세	147	김인문	60, 74
기경량	25, 27	김자점	146
기계	153	김종복	24, 26
기마병	87	김종연	126
기마전법	179	김중구	116
기별포	76	김창현	90, 91, 112, 118, 120
기현	96	김통정	122
기효신서	208	김품일	74
길성리토성	35	김호준	110
길주성	109	김홍	107
길흥요례	48	김흠춘	74
김경손	110	(ㄴ)	
김구	148, 150	나각	186
김만기	148	나곽	193
김명원	210	나당동맹	184
김방경	122	나당연합군	55, 58, 60, 61, 73, 75, 76, 78, 180, 183
김법민	74		

나당전쟁	184		180, 182
나성	11, 12, 19, 29, 38, 42, 43, 66, 85, 93, 180, 182, 186, 193	남천	51
나성문	103	남한산	33
나제동맹	38, 54, 182, 184	남한산성	16, 146, 151, 158, 163, 167, 170, 172, 194
나합성지	20	낭선	208
낙랑	28	낭청	161
낙랑궁	92	내선	61
남건	55, 61	내성	11, 15, 29, 194
남경	15, 132, 188	노	110, 111
남계방	98	노군	167
남교	89	노대	194
남당	62	노대환	154
남대문	135	노령산맥	23
남병	210	노영구	165
남부여	71	노중국	38, 62
남산	61, 89	녹각	194
남산리	119	녹전차	115
남산성	43	농성	194
남산신성	43, 44, 184	농성전	151, 205
남산토성	43	누각	194
남생	55	누대	194
남소영	174	눌지왕	40, 64
남양	166	능양군	146
남양만	34	(ㄷ)	
남은	129	단궁	110
남진정책	14, 29, 49, 54,	단병기	210

단병전	210	대성산성	29, 43, 52
달구벌	43, 50, 185	대수촌	39
달기	72	대안주	86
달성	40	대야성	73
달솔	36	대열	103
담로	37	대완포	152
담로제도	67	대우포	110, 194
답관	194	대장군포	111
당향성	34	대관차령	27
대관전	120	대포혈	195
대구	40	대한제국군	190
대년군	167	덕물도	74
대당대총관	60	덕산방	97
대도호	84	덕수	96
대동강	14, 60, 181	덕수방	97
대두산성	66	덕풍방	97
대두성	67	도관찰사	131
대릉하	28	도내	89
대막리지	59	도별장	161
대명의리	148	도살성	41, 72
대몽항쟁	122	도성	11, 16, 19, 42, 66, 132, 150, 155, 186, 195
대몽항쟁기	112	도성)사수	190
대문현	119	도성경수소	142, 188
대방	28	도성방어	78, 141, 180, 188
대보단	148	도성방어단계	145
대북파	146	도성방어전	79, 183, 184, 190
대성	132	도성방어전략	173
대성산	55		

도성방위	13, 42, 43, 60, 147, 164, 168, 171, 179, 182, 185, 187, 188, 189, 217	도읍	19
도성방위전략	20, 121, 138, 163, 171	도제조	161
도성방위체제	15, 16, 21, 24, 25, 27, 29, 31, 33, 35, 38, 46, 47, 57, 64, 72, 105, 141, 146, 170, 179, 180, 182, 184, 185, 186, 188, 189	도총중외제군사부	140
도성사수	16, 172, 189, 195	도평의사사	132
도성삼군문분계지도	171, 172	돈의문	135, 169, 174
도성삼군문분계총록	171, 173	동가강	19
도성수복전	106	동경	15
도성수비	13, 78, 189	동교	89, 106
도성수비절목	171	동대문	134, 135
도성수비체계	16, 182	동명묘	62
도성수비체제	163, 166, 168	동성왕	40, 67, 70
도성수축사업	171	동진군	109
도성외곽방어	60, 79, 180, 184	동천왕	26
도성위	142, 188	동현로	151
도성제	46, 52, 66, 185	동황성	25, 27
도성제도	32, 181	등	196
도성조축도감	132	등성	175
도성포위작전	180	등패	208
도솔원	106	(口)	
도시	196	마름쇠	196, 213
도원수	210	마산	86
		마장리	151
		마전	96
		마푸다	151
		만령전	92
		만수산	93
		만월대	94

망대	196	무학대사	130
매복전술	110	문루	197
면역	216	문무왕	44
면조후시	91	문서직	161
명활산성	43	문수산성	16
모락산성	35	문종	98
모성	163, 196	문주왕	66, 70
모용씨	28	문학산성	35
모용황	28	물길	63
모원의	197	미사리유적	34
목저성	60	미천왕	27
목책	11, 35, 196	미추성	35
목책성	196	미추홀	31
몽골	87, 88, 108, 186	민진후	154
몽골군	113, 187	(ㄴ)	
몽촌토성	12, 30, 32, 64	박방룡	19, 43
묘청의 난	110	박서	110, 203
무낭청	161	박성현	35, 40
무령왕	68, 70	박순발	33, 71
무비사	196	박용운	40, 46
무비지	197	박주성	109
무악	131, 188	박포	137
무양산성	209	박혁거세	39
무예도보통지	197	반월산성	35
무예신보	197	발권산성	214
무위소	190	발병부	197
무위영	190	발어참성	93, 186
무학	132		

방	197	별효위	165, 167
방군성제	71	병농일치제	123
방령군	77	병력동원체제	144
방리군	125	병사	161
방리제	198	병자호란	16, 119, 147, 151
방명표	134	병장도설	197
방성	37	병조	141, 164
방어	13	병조판서	154, 164
방위	13	병학지남	175
방진	210	병학통	197
방효태	55	보	198
배극렴	129	보급작전	58
백가	70	보루	11, 198
백기인 12, 13, 14, 25, 28, 46,		보문각	92
47, 55, 87, 105, 110, 111,		보법	206
113, 123, 138, 139, 149,		보신각	135
171, 175, 205		보인	164
백마산성	151	보자	98, 198
백씨	67	보장왕	61
백약	132	보통문	210
법민	56	복병전	179
법왕방	98	복주	88
법흥왕	48	본피부	45
벽등	198	봉상왕	27
벽성	211	봉수	198
변양방	98	봉안	198
변한궁	92	봉요지지	50
별파진	167	봉향방	97

부방	139	비변사	161
부소갑	89	비봉산성	209
부소산성	36, 38, 79, 182	비열홀주	42
부여	19	비유왕	63, 64
부여궁	92	비파산성	209
부여성	59		
부족국가	48	(스)	
북교	89	사간	158
북방고토	84	사교	46
북방영토	85	사교세작	187
북방전술	111	사궁	111
북방정책	84	사령	161
북번인	85	사로국	39, 184
북소조성도감	125	사모속	165
북위	41	사민	84, 86
북진정책	84, 186	사복시	199
북한구관당상	160, 170	사비	38, 66, 69
북한산	148	사비성	12
북한산성	16, 146, 148, 149, 154, 157, 158, 163, 164, 169, 170, 189, 198	사비성 전투	183
북한산성 중성	189	사비시대	31
북한성	148	사씨	67
북한축성 별단	156	사원	103
분수	198	사재감봉사	153
분진합격	205	사전	143
분첩	199	사직서	153
비류수	20, 26, 202	사천왕사	44
		사판궁	91
		사혈	199

사환의	103	서경	15, 84, 85
삭도법	215	서경성	110
산고수려	83	서경천도론	15
산성	11, 16, 199	서교	89
산성방어체계	15, 57, 105, 187	서대문	135
산수형세도	130	서라벌	13, 48, 185
산정식	20, 214	서리	161
산직장상	100	서소문	168
산탁	199	서안평	26
산호정	120	서영교	47
살곳이	151	서영일	11, 13, 108
살리타이	111, 113	서운관	124
삼각산	150	서울방어전	190
삼국통일전쟁	44, 55	서인한	27, 54, 60, 74, 76, 111
삼군문	159, 169	서정석	31, 38, 66, 72, 75
삼군문수비체계	189	서종태	158
삼군문체계	166	서천왕	27
삼군진무소	141	서형산성	43, 184
삼년산성	41	석벽	11
삼별초	121, 122	석성	11, 199
삼성동토성	33	석촌동	34
삼송방	98	석축성	199
삼진법	212	석포	110, 200
상서도성	96	선경전	113, 120
상서성	95	선덕관성	109
상승진	191, 199	설봉산성	35
상영	75	설성산성	35, 209
상지신	147	설인귀	74

설지	22	성지수축	147
설책지법	196	성지순심	152
설하수	59	성책	105, 187, 202
성	200	성첩	152, 202
성곽	12, 16, 85, 200	성체	213
성곽방어전	110	성타	175
성기	155, 202	성탁	202
성남	89	성토법	202
성동	89	성호	46
성두	202	성화방	98
성등	202	소덕문	168
성량	215	소석가현	157
성루	215	소수림왕	29
성문	202	소의문	135
성문제조	134	소정방	56, 58, 74, 77
성방시설	46	소지문	135
성북	89	소판차령	27
성산부	134	속마현거	202
성서	89	속마현차	26
성왕	68, 69, 70, 72	속병장도설	197
성읍국가	19	손승철	13
성조	202	손영종	29
성조정식	175	송경	126
성종	96	송도	88, 89, 112
성주	86	송령방	97
성주탁	66	송림	96
성중애마	140	송송례	121
성지	46, 153, 202	송악	83, 88, 186

송악군	88, 89	수성전법	47, 205
송악산	88, 89, 93, 119, 120	수성전술	56
송악성	93	수성절목	168, 171, 173, 189
송악현	96	수성조약	204
송응창	210	수성책자	171, 197
송파	151	수성훈련	175
쇠뇌	203	수송작전	58
쇠뇌부대	111	수어청	163, 166, 168, 206
수곡성	68	수원	158, 166
수구문	203	수질구궁노	111
수근본론	153	수질노	111
수녕궁	91	수창궁	91, 129
수도방어전	180	수첩군관	160
수도방위	141	수촌리	65
수령	203	수축수비	168
수륙병진작전	179	숙빈최씨	170
수륙양면작전	63, 74	숙위군	187
수문	203	숙위체제	99
수사	161	숙정문	152, 169, 174
수성	203	숙주	86
수성기요	175, 189	숙천	86
수성방략	171	순라	171
수성방어전	61	순변사	210
수성사의	175	순작	142
수성윤음	189	순주	86
수성작전	175	순행	206
수성전	78, 107, 111, 183, 187, 189	승례문	135
		승례전	45

승산	90	(○)	
습비부	45	아단성	35
승천부	116	아시가루	210
승추부	141	아차산성	35
승평문	92, 120	아차성	32, 64
시단봉	157	안동	134
시루메	214	안변	42
시위	141	안북부	86
시위부	47, 185	안수진	86
시위패	140	안신방	97
시전	94	안우	106
시호제	71	안정방	97
신문리	119	안정진	86
신문왕	43, 44, 185	안종원	126
신범규	48	안학궁	29, 52, 180
신상화	46	안학궁성	55
신석백	154	안흥	147
신성	26	안흥방	97
신안식	85, 86, 89, 98, 99	암문	206
신여철	148	압록강	151
신완	149	야별초지유	114, 115
신중동국여지승람	209	양계	144
신천	151	양광도	130
신효승	172	양기석	63, 65, 71
신희권	32, 33, 64	양덕	86
심도	206	양마장	206
쌍수정	66	양맥곡	26, 28, 202
쌍초포	110	양산촌	39

양압	86	연맹국가	19
양역변통론	165	연모	69
양역변통절목	165	연민수	68
양오	58	연서역	151
양제방	97	연씨	67
양주	16, 158	연영전각	92
양철리	151	연용대	170, 171, 189
어사대	95	연정토	55
어사대조례	116	연주	86
어영청	155, 163, 166, 167, 168, 174	연주성	109
어제수성윤음	171, 174	연해방수	153
어행	217	열기	58
여도	65	열병	95
여장	16, 152, 155, 206, 213	염전사상	14, 49
여정궁	120	영덕성	109
여제동맹	184	영동대장군	68
여진	87	영의정	161, 162
여진병	109	영접도감	133
여진족	84, 108	영조척	206
여호규	21, 22, 25, 27, 30, 33, 46, 53	영주성	108
연개소문	58	영창대군	146
연경궁	91	영창방	97
연남건	59	영청진	86
연남산	60	영청현	86
연남생	59	예맥	19
연등회	104	예빈성	95
		오관방	98
		오관산	93

오군문	168	왕경개성부	96, 98
오군문개군제절목	166	왕경유수병마사	116
오군영	206	왕궁	62
오군영체제	163	왕궁지	35, 66
오녀산성	11, 20, 21	왕기	45, 207
오두산성	35	왕도	19, 42, 62, 88
오부점검군	187	왕륜방	98
오삼계	147	왕륜사	104
오시복	148	왕성	11, 30, 40, 62, 185, 207
오시수	148	왕식렴	84
오위	206	왕위계승문제	137
오위군	141	왕자의 난	137
오위도총부	141, 206	왜성	207
오위장	206	외선	61
오위제	138, 212	외성	11, 15, 29, 98, 117, 156
오위진관체제	145	요망대	207
오위진무소	206	용강현	86
오정방	98	용건	93
오제신	71	용도	207
오종록	143, 145	용산	23
온조	31	용성	28
용산성	56	용수산	89, 93
용성	206	용장성	122
용주성	109	우산	23
용진성	79, 183	우왕	123
왕건	83, 84	우춘궁	92
왕경	42, 43, 45, 185, 207	우회공격	76, 210
왕경5부	96	문제	110, 208

웅진	35, 65	유영	163
웅진성	77	유영감관	163
웅진시대	30	유원재	67
원군	164	유재성	107, 151
원덕전	92	육기정	47, 185
원사무기	61	육조	208
원양진	208	윤무병	67
원양진법	208	윤용혁	105, 112, 113, 115, 116, 119, 120
원영환	175	윤이제	148
월단	208	윤호	126
월릉산성	35	윤휴	148
월성	13, 40, 43, 185, 208	은주	86
위	208	을아단현	35
위가야	38, 41	을지로	151
위나암성	23	음양산정도감	131
위서	21	읍례	209
위성전	212	읍성	11, 209
위숙군	99	의봉루	120
위장	161	의상	44
위장필람	197	의자왕	73, 75, 77
위주성	109	의정부	209
위지해	28	의흥삼군부	139, 140
유리왕	22	의흥친군우위	140
유백영	55	의흥친군위	140
유송	63	의흥친군좌위	140
유술	154	이팔	146
유승단	114, 115	이구수	106
유암방	98		

이귀	146	이일대로	47, 205
이근호	152, 153, 162, 168	이제현	123
이기동	19, 26, 28, 34	이조판서	148
이기백	103	이종욱	30
이기하	151	이중적 보장지	147, 189
이도학	30, 70	이태진	13, 108, 165
이동주	43, 46	이통	116
이령군	115	이통의 반란	116
이문기	48	이현수	160
이방원	137	이홍립	146
이병도	15, 19, 27, 119, 120, 124, 125	익군체제	144
이사영	148	익성	209
이상휴	153	인목대비	146
이선근	50	인병출격	107
이성계	126, 129	인병출축	47, 205
이세적	59	인조반정	146
이식	77	일두양익일미전	208
이안도감	132	일품군	117, 119
이여	151	임강	96
이여송	210	임기환	52, 53
이영호	44, 45	임당토성	40
이우태	38	임류각	67
이유	155, 162	임유무	121
이이명	155, 160	임진	96
이이반	146	임진강	35, 58
이인임	125	임진왜란	16
이일	210	임천각	92
		임해군	146

임해전	45	장원섭	59, 76
입보	211	장학근	23, 53, 68
(ㄱ)		장화전	92
자남산	104	재성	40, 85, 211
자미산성	209	저장공	214
자보	164	저장혈	214
자비마립간	41	적성	96
자성	163, 211	적현	96
자운방	98	전가사변	162
자초	130	전경숙	93, 95
자화전	92	전덕재	29, 39, 43, 45
장경궁	92	전라도	130
장경전	92	전룡철	95
장교	100	전면공격	77, 183
장단	96, 158, 166	전목사	113
장단현	96	전술원칙	205
장대	211, 216	전연방어선	53
장령전	92	전쟁불가피성	115
장미산성	35	전차	110
장상	100	전축성	211
장새	58	전투대형	212
장성	211, 216	전투의지	78, 183
장수왕	64	정관례	48
장안궁	92	정노	111
장안성	29, 180	정당문학	124
장어영	190	정도	15, 50, 66, 83, 93, 186
장용위	190	정도전	129, 132, 137, 212
		정동민	61

정동행성	133	조선궁	92
정만조	165	조양진	86
정몽주	126	조염경	116
정무	114	조영규	126
정방산성	151	조원전	45
정복전쟁	23, 179	조준	129
정세운	106	조준호	169, 171
정연식	165	조지서	155
정원방	98	조태구	158
정유재란	210	조태채	162
정은정	88, 90, 91, 92, 94	조현	110
정주	96	존왕파	126
정주관성	108	졸본	19, 30, 179
정주성	109	졸본성	11, 14
정초군	164	종묘서	153
정초청	164	종묘직장	153
정축화약	147, 151, 154	종사관	170
정하명	175	종심방어선	30
정해은	85, 146	종심방어체계	53
제상궁	91	좌작진퇴	212
제상방	98	좌춘궁	92
제색군	166	좌평	69, 75
제석산	93	주군제	47
제조	161	주군춘	42
조강	112	주몽	19
조계숙	55	주진군	144
조명연합군	210	주척	169, 206, 211
조방제	45, 185	죽산	167

죽주산성	209	진지촌	39
중방	140	진평왕	44
증서성	95	진한궁	92
중성 11, 15, 98, 118, 155, 211		진흥왕	41
중천왕	27, 28	집수시설	212
중흥산성	125	집수정	213
지개성부사	98		
지구전	110	(ㄷ)	
지도	211	차단성	213
지리풍수설	83, 87	차령산맥	65
지문하성사	116	차문섭	142
지성	211	차성	98, 213
지역방위	87	참위사상	83
지증왕	40	창령방	97
지추밀원사	116	창암성	60
지층	69	창왕	125
직산	67	창의문	135
진국성	86	채미하	48, 103
진덕왕	48	책인	151
진명성	109	처인성 전투	111
진법	212	척법	210
진법체계	141	천관우	70
진보	212	천교	208
진봉산	93	천균노	111
진성	212	천도	15, 50
진씨	67	천도반대론	126
진안방	98	천마산	93
진영	212	천수사	106

천연장애물	93	축성술	11
천행	126	출륙령	121
철령전	111	출배별감	121
철옹성	213	충렬왕	98, 122
철원	88	충상	75
철주	113	충익위	160
철질러	110, 213	충주	88
철탄자	111	충차	110
첩원	213	취철모군	167
청야입보	205	치성	43, 214
청야전술	47, 107, 213	치소성	15, 107, 187, 207, 214
청연각	92	친군위	132
청천강	87	칠성문	210
체성	16, 155, 213	칠중하	58
초기국가	19		
총용사	159	(ㄷ)	
총용청	157, 163, 166, 168, 169, 171	타	214
총패	212	타구	214
총혈	214	탄화목층	66
최석항	154	탕춘대	161, 169
최영	106, 124	탕춘대성	16, 169
최우	115	탕평정치	152
최이	117	태봉	83
최종석	108	태안반도	147
최항	118	태집성	114
추격전	47, 205	태평관	133
추밀원	95	테피식	214
		토광	214

토루	119, 214		180, 181
토벽	11	평양성 전투	180, 210
토산	96	평원	86
토석혼축성	215	평원왕	180
토성	11, 21, 35, 40, 215	평지성	11, 16, 215
토성리성	215	평창	161
토축성	215	포곡식	36, 215
통주성	108	포보	167
통해진	86	포석정	43
투석기	110	포위작전	61, 183
(표)		포차	110, 216
파두반	106	표하군	167
파평	96	표하별대군	164
판부사	155	풍납토성	12, 30, 32, 64
판삼사사	132	풍수춘	58
판중추부사	155	풍천유향	13, 191
판창	215	풍해도	136
판축성	32, 215	(충)	
판축식	215	하고성자성	20
팔관사	95	하남위례성	30, 31
팔관회	104	하륜	131
팔령군	116	하북위례성	30
팔우노	111	한강	130
편축성	215	한기부	45
평산성	215	한량인	216
평양	29, 84, 86, 87, 123	한림원	95
평양성	12, 29, 57, 59, 61,	한성	31, 62

한성군	151	허적	148
한성부	16, 173, 188, 216	현도	28
한성시대	30	현문	217
한양	12, 123, 188	현성	59
한양부	16, 123	현종	96, 97
한영우	135	현호	217
함구문	210	형조	132
합신진	113	혜화문	135
합중 전투	106	호	216
합중현	86	호가	141
합흥평야	42	호남평야	65
해구	70	호방	161
해도입보	112	호준포	208
해명	23	호형방어선	25, 179
해씨	67	호환	126
해안성	216	혼강	21
해자	11, 64, 216	혼인동맹	40, 54, 184
행궁소	161	홍건적	88, 105
행병조판서	162	홍도방	98
행성	216	홍문계	121
행순	142	홍복산성	154
행재성	216	홍인방	97
행재소	216	홍타이지	151
향교동	137	화구	110
향리	161, 216	화맹순덕사성	109
향보	167	화성	16, 190, 217
향천방	98	화장산	93
허선도	103	화주성	109

화친론	114	홍국방	98
화통방사군	103, 111	홍덕진	86
환도	121, 126	홍수	75
환도산성	12	홍원방	98
환도성	27, 28	홍인지문	135
환상협수체계	190, 217		
환인	11		
황	216		
황도	89, 94		
황산벌	75		
황산벌 전투	76		
황성	94, 104		
황성벽	94		
황참	186		
황해도	165		
회경전	92		
회암사	130		
회흘군	57		
효소왕	45		
후삼국시대	83		
후원	217		
훈국	164, 169		
훈련도감	155, 164, 166, 167, 168, 174		
훈련별대	164		
훈련원	217		
훈요10조	85		
흘승골성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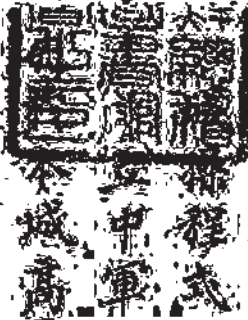


【수성기요(원문)】



* 자료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76-44

守城機要



守城機要
 守城高廣立三夫統并上兩夫總一條千三幅
 夫白旗一面下立樓舖或房屋一所預備燈籠油燭
 夫鎮夫砲碗口及隨逐應該物件俱掌印官下親隨
 管收又派守法親兵各方嚴戒外夫砲機炮鼓等一
 副專執號令

守城

關城並近城及入城避過人等計城壕若干先除策

應駐隊外每隊可添參人每五隊宜添長一人三千
 五隊宜添長一人五千隊宜添總一人以小官當之
 每城一面五城將一人以城內見任官當之每正鋪
 內大夫五名以小官一員專管驛旅炭火每近門通
 衢或要口遠所往相近有沼好溝若干名當之每處
 立頭目以領之滿開城上有聚兵賊登城即應拔城
 內有奸細即防察每門樓角上軍士或民兵若干名
 亦與信炮專備應援預選軍民技藝勇者厚其工食
 清令下城在平馬潘內防察

出示

每年操一次預十日出示廳各設備停妥

刻中軍

至期必天氣晴明城上于中軍高處放炮三聲鳴
金大吹打軍播鼓鳴鑼東起天自旗在城文武大小
官俱戎裝錦鋪到中軍參見畢各排列于左右

設伏路

坐堂放炮三聲鳴金遠設伏路與海面于右俱起
中軍領三眼銃起火等器出城亦伏于四面要害每
伏一名相去十里

發城

俟伏路者。徑到城下。報賊在二十里外。撞鐘如鼓。方
 數北。一東。二南。三西。四掌號。三播鼓。三各派定守城
 備兵人等。盡數執器上城。放火砲。三替鳴金。大吹打
 開城門。放火砲。一替吹天鵝聲。判以兩城共三鳴。鳴
 鐘各兵休息。坐立。從便務。要甯靜。不許亂走。喧嘩。

二面備

伏路人。亦城外。奉面放砲。放起火。中軍集賊。從東面
 已到首。步內。奉面不待中軍。讓令自舉砲。攻打賊。登
 五斗。步內。奉天。齊發中軍。舉砲如鼓。各擊。即播鼓。鳴
 鐘。賊。美。盡出。攻打賊。到步。馬。播。外。城。上。打。石。

牛馬牆準備

一面牛馬牆內安堆備城上探夫看見牆外有賊與
 賊相對該探夫只高聲喝云來了牆內遊兵籠
 手就眼向外賊勢小着催打銃勢大對處放火料
 軍連說兩聲來了已到牛馬牆下預備利鎗西孔中
 看料在賊腹不平則備兵牆擊打若賊轉過數步再
 叫罷了別探相對又呼來了照前準備

該面遊兵應援

本面城將奉地捕敵賊象登城中軍放火砲捕敵賊
 該方也火槍該面遊兵飛趕應援報賊已敗退該面

徑行令止跪入款賊已遠進中軍鳴金鐘鼓俱止鳴
金大鼓打進兵各面信地一面掃完大寨一面

四面齊掃

四面掃畢中軍鳴鐘各在城面休息候城外賊路回
面砲火齊舉賊四面來攻中軍砲水撞鐘照前擊

下城

中軍放火砲三聲鳴金大鼓打鳴鐘每五掃留一人
看瞭餘俱下城休息

夜掃

候夜中軍舉起撫掌二號各派上城掌二號各官到

齊寧三號城主到軍放火砲三聲車起焚燈陷城
 城長火火各懸燈如我城內人家閉上各懸燈一
 俱開鎖大門以奉家之人守也演海光放火砲
 各城軍報响城共三次軍聲也鼓撞鐘軍傳更中
 軍打更鼓三次柝鳴各城一休傳柝一更盡放砲吹
 長聲哨以轉更約三更之時城外伏路照砲大報警
 俱如自畫例操軍守過夜各照令下城

守城事宜

守城之法凡寇賊將至於城外五百步內悉拔木斷
 橋焚棄甬草撤屋埋井有水泉皆殺毒藥末石磚瓦

爰躬糗糧督徒與居民竹器盡徙入城內絕不遠者
 焚之至將闕視守禦器械各令守兵以預備亦無數
 惟升無並城大備糧糶布帛芻草蘆葦茶荻石灰沙
 土鐵炭松檉蒿艾膏油麻皮檀刺棘金鐵盆甕桶在
 木石磚竹鐵鏗鏡斧鉞鑿標等之類凡委積及樓棚
 門看門棧位火攻可及之處悉皆燒覆泥塗樓棚下
 隨處積捨斧及他短兵外立營車砲架城中立望樓
 籍民中壯男為一軍以充防守壯女為一軍以雜雜
 杖老弱為一軍以供餉餉杖燕標三軍無得相過
 至將返問中軍部謀勇力機捷跡地積仗械口之士

如鷄鳴狗盜之類無不加禮以備防用城上每將各
 立一典掌呼索百用先作小旗數千枚有牙索即大
 書物名貼於旗上舉以示城市仍預輪絞備用之物
 各為部不使吏主當謹伺衢巷通夜張燈燭察姦人
 出入典軍士之私相過從者量城上之步置一甲士
 十步增五人防非時抽易五步有五長十步有十長
 百步有別將令虞候領數隊作唯雄勢附註此不遠
合處料持以巡城兩空與守隊動同乃過若賊勢外
 振士心預戒或易前軍仍置後或一日數易或數日
 不設元間使入持偽勢巡行以驗敵將士

城上立四隊別立四表以爲攻城之候若敵欲攻之
 處去城五六十步即舉一表撞櫓逼城舉二表敵若
 登城舉三表敵攀女牆舉四表夜則舉火如表法城
 上四隊之間各置八旗若旗木標榜板舉蒼旗旗木
 皮鋪鐵舉赤旗旗木編木復葉舉黃旗旗木石磚瓦舉
 白旗旗木楊木漆之物舉黑旗旗木麩麻絲鐵鐵鏡
 斧鑿琴篋危旗旗木賊者執赤旗無虎旗旗木賊者
 刀劍舉鷲旗當主之官隨色以候城內老弱婦女除
 營外皆令應役於城上亦爲八幡使識文字者懸
 綵帛旗備物供與

守城者深溝高壘藏城藏兵常令防城戰身戰棚樓
櫓完壯活備急使用

一多設備城種黨羅雜牌枋備遮其矢石

一多置救火水桶要隄防積薪燒城門樓櫓用

一多設照城燈籠防夜後有敵人鑿城於黑暗處無常

入城中焚火亂軍

一城上以絲旗赤為號徒敵大仰望城上即順風吹

糠糶石屎絲其眼自吹用金針猛火油燻之動有破

擊射之以糞砲汚之燒石打之即退

一在城中糞穢用水澆掃順風流汚焚城駭人

一賊若於城外高山置起望樓觀我虛實者如城中軍
 馬數亦即於居民牛馬盡與放掛率掠街市擄刑
 又彼居民止城以壯者在後俱要相接沈爾婦女被
 擄拘之不可與少壯男子相雜恐生姦邪可代正軍
 修守門戶律悉巡城急應使用

一城內多用泥草及濕搭蓋積聚柴薪令人宿護防
 賊火燒

一賊有勇卒乘突我城門我當橋為木扣開門必持
 於道路設陷馬坑機捕於重牆曲巷內伏兵掩擊
 一城內自給百用柴薪米鹽皆有限量令民虛為天

并高突勝大仍預下令凡失火者斬杜姦人也賊城
內大震况今本務官更領示裡社秋仍急報主將主
將遣左右親信入巡徃

此城中失火及非常驚動主將令擊鼓五通城上下

吏卒聞鼓不得輒離職掌民不得奔走街巷

凡賊至城外禁城中不得妄舉高物如竿表等類及

吹擊樂器巡賊內應

此城中有使至門者經道主將軍校民吏不得輒見

如得城中飛書不得執讀持送本營對眾封送主將

軍中約束

凡行軍及在營，一應軍中條約，臣將並預先出榜曉
告各將士知審。

凡軍行大將，子明與諸將論一日之事，暮與諸將議
一夜之事。

凡前有關敵軍將先預下令，令到速進，處所及收軍
號號，准節符牌各類當期並為號。

凡行軍在路四面各三里止，絕行人不得各報，犯條
條犯者並執送所在官司，其山川被隘處，更不遠地

里，但犯隊伍者即坐。
凡將位，在行營應交代者，舊將不得出進，並令嚴兵

守備待新將到營發符教令同即聽悉代

及賊已臨境事機急切而主將不在軍天馳報不及

者即副使相議與發兵為仍飛報主將

凡將佐及將士內有宿相離擾者不得相監視及同

營隊主將副使其事中

凡未發軍之日以前所積排比軍定臨行一日預內

外寂靜如常日

凡行營吏卒非親戚不得轉受他人饋遺財物

凡營幕作舍事訖未嘗以前預賊火夜中有火賊欺

竄預火燭者申主將判押行聽

虎營營已空軍出獲出探獲及市易者入探水啤
書其姓名門司亦軍前驗認始聽出入者之必以此
不得獨自行

凡破敵所得軍器糧儲即收入官餘正給攻獲之人
凡隨軍糧運領主將密運村期間無官司不得漏泄
凡一軍正給糧數外更多具其數以備無兵之用
凡士卒及弓弩須各款煖為三等量入力強弱均配
衣甲並造長短為三等量入財大小給之
凡朝廷問機密事宜及兵甲錢糧文字宗不得洩而
宣預親見宣勅方得奏報

凡士卒臨事務熟主將指守如已令之使臣主領其
所管部隊不得頗有移易

凡軍中不得多營伴虜虛占防守之人

凡賊境有狹隘險阻泥陷處不得雜過以防掩襲

凡軍行有水泉及放牧草地並差人監當不得令滿

亂踐蹂

凡士卒隨身私物各書姓名色件付本隊職重主者

凡將臨陣中卒不能執作勞後應補緝衣履務令妥

速

凡士卒乘馬張本軍將統遺為輪輪令謹切受護以

將缺劍馬軍未見賊騎十里步十里事非警急不得
輒馳走以損馬力

凡馬預擇揀選速相等者給配同隊有跌蹶者別揀
為群以備衝突若性急不可制者不得給配戰士
馬有鈍弱不堪入戰者許自白主將聽與發給

凡軍行主將先令士卒回軍行所到處不得踐踏由
苗兵割稼播種林木被穴畜掠財物奸犯婦女

凡將佐三日一巡本部吏士營幕閱其飲食精麁時
勞逸恤疾者

凡軍中不得疎風言及受匿者論公是非者恐賊人

謀害更善

凡軍中不得誦歌詩曲調感切人者及為悲涼之

聲

凡軍糧暴凌人不受羈刑者並當除去

凡軍中依時教閱外主將不得勞擾務令休息

凡軍行恒營三日外並須教習武藝繕備器械

凡輜重常令在中軍不得在前後恐賊偏攻

凡軍營無利不在往時大則弛慢賊因得計恨時有

移易則人不懈怠賊亦不測

凡合戰時不許伏賊器械恐軍號錯雜

凡陣中不使羸老疾病人在戰列恐牽攢行陣及不
使工巧人戰聞妨善理軍器

凡書生雜吏不許臨陣觀瞻

凡得降人自陣軍中利害不可即聽預受而審覆

凡得生口無問逆順答不得殺縱以招來者誘聞敵
情亦不可縱送防為間謀

凡軍中器械器械並金耳兩標記色號槍劍弓弩
箭並各記之軍司明立天簿軍邊送納按簿交受

凡軍士請納器甲損本營將校部勒同畢不得前後
自便

凡軍中除燒炮及應得存火外餘並不許轉留

凡軍士不得轉議敵中事宜

凡軍中除習武藝為虛外餘博戲三類並皆禁斷無

三三敵無許開圍一角者有伏也退圍數里者謀也

宗以老弱者誘也敵攻其西謹備其東敵示以開暇

者此必緩我而欲求懈險將衝突也

一更士奉受到軍令各行告諭衆人知者不得妄有增

減言語或動搖衆情則生利害

一承受到軍期密約諜令及關報賊情聲息事宜文字

凡令長吏自知常作隱備不許漏泄令衆人知之如

滿漚致賊發生者斬之

所屬官司告報文字不合符者杖徒論衆人知之即不
移時須審分明一名名盡知不得轉托他人有諸告
報致有錯誤或有閉報申察不得時刻遲滯如謀常
程文字則罪有所歸拒謬軍期違文字者斬

士衆實有病患難於行履驅使者即時報覆王將違
令擅往窺而不可杜占火壯撞行或避後而托病者
罪之吏士相容者同罪

士衆間自家軍中變動或賊軍消息不拘晝夜即時
引報王將不得時刻遲滯報而不實者罪之

一出軍在外常切點檢隨身衣甲器械鞍轡整齊準備
被邊用之

一宵夜點檢更號喚伺戰馬檢校大隊恐有容隱務細
之人偷竊軍機夜號

一常備隨身器械不可缺一等槍無絃箭無羽鏃或有
而不家及有等牙殺不利槍及不行去將用此點檢
一衣甲破損尋常帶熟官給皮線縫刀務在整齊

一行刑不齊槍頭不整全故不鳴者並坐罪

一與賊私相交語與書疏同罪之

一天獲頑節越者全隊斬之

臨難不相救護戰開矢開河險隘之處者斬

軍士無故驚奔逃走妄言相慶事者斬

遺棄隊伍軍器兵裝不謹或見而不拾拾而不納者

以其罪罪之

進發前隊遺下兵器及錢物等後隊拾得在路須要

收拾將至營寨令本主承認給付

自相竊盜一釘一錢同罪

吏卒不許相容賊情事理情由

恃勝凌弱忿爭酌量無禮不服者罪之如官賜

摘帶醉者不坐

一軍無故不許奔走軍馬

一擅棄兵衣甲欲貪汚弁蓋賊獲軍罪之

一入他境不奉令不得擅掘水塘砍伐柴燒積聚

一更鋪表記接連夜號及此宿他大吏士給而相察者

問罪

一不許將帶異軍及他貨并婦女入軍中

一應有兵器軍士配之隨身雖一月一箭須書名在上

記號或遺失易為照驗

一先鋒遊奕校兵入他境不得先取糧食他驚自家人

為及賊見預備

一探報自旗子見賊即開無賊即捲

一配定諸隊旗號不得雜亂若遇後突加如有不便即

上請

一配定人馬隊伍不許私自轉接如有病弱即與生吏

押隊人說知報所屬別差人填替

一賊量相近事有招誘不許高聲叫喚恐賊聞知此至

將有指揮事須令押隊之人當面一隊一隊告報押

隊人員逐名曉諭令會得事意或向動押隊人員主

持當面指揮如兩軍對陣即不得向動押隊人員須

使備特親行告諭各各會意則曉事不誤

一野營日出開門日在閉門其守門人要辨認奸諜

一野營日暮差出伏路人馬心出營門其有事回報即

開門傳報先辨軍號及辨語音識認是有家軍人方

可向前問得事宜次第報知不可開門

一伏路人馬在外多恐被賊軍捉了於夜黑監放家詐

詐有事故報覆寨中及賊施詐謀欲陷我寨者須是

備門仔細辨認

一野營中夜後伏路人去先已被其號別營中別令放

號不得令伏路人知之恐被賊忽偷號亂營

一營中專令一人主管夜號簿籍被號不詳重疊恐有

交錯預是玉將臨夜親行發放不得預也

一野營中遇夜遇入仔細在營內但傳令士眾不得動
身呼喚肅靜禁聲諸隊安坐則細作自然不敢與動
候天明識認如身動者即賊也

一野營賊壘相近不鳴更鼓多是暗坐五更若要知更
數預是於營裡外周圍數里傳箭為准如今夜初更
至晚傳得五更傳則每更得十傳以此為約令置傳
記更何年月日夜營圍里數者四時晝夜長短臨時
增減為約如賊相近鼓樂鳴更疏者則不然也計在
臨時變通

一安營日各軍士不得眠睡人多因倦精神不爽難全
無力銳氣漸衰須令巡隊圍子開一人坐更一人睡
於前後半夜為定庶幾人得眠睡精神不爽

懸門懸板為門也賊執之如獲板用之懸懸板懸我
賊柵上上皆懸板受敵之時則板起後夫石突門於
城中對敵營有懸板為暗道多少臨時存五六十勿
穿或於甲夜行敵初未營列未定精騎從突門躍出
擊其不意重者以砲砲無門可守及備大擊為敵
所逼先自擊門扇千數孔出弩射之長矛刺之敵不
得進布幔以覆布為障用馬竿懸柵於女牆外去牆

去八尺以遮砲石之勢則天衣亦復進牆矣連捷如
 打未連加狀打女牆非城上人杖竿如槍刀為兩段
 用又飛標及入鉤竿如槍刀傍有曲可以鉤人長柄
 鉤城上以木為棚容兵一隊作長柄鐵鉤隨要便以
 為之備若敵攀女牆躡身待其身出衆鉤齊搭擊入
 城中陌刀雖奔助之轉開牆及珠城之兵禦捍大石
 頭戴盔帽傾視不便衣甲重厚進退又難前既不得
 上城退則即逼迫入衆煩鬧我作轉開女牆騰出城
 外繞牆隊鐵索索頭安鴉脚當聚開處擲下披大索
 繫以黃漆繩為弓長一丈二尺許徑七寸兩粗三寸

故集張之大矢之發聲如雷吼松明炬以松木為之
 燒令明用鐵鑿墜下通成照之惡敵人素暗山城鎔
 鐵汁鑊昇行於城上以酒敵毒藥烟壘燒重五斤用
 硫黃一十五兩草烏五兩縮精一斤十四兩皂豆五
 兩狼毒五兩桐油二兩半水油二兩半木炭末五兩
 瀝青二兩半硫霜二兩黃燻一兩竹茹一兩一分麻
 紙二兩一分搗合為卷貫以麻繩一條長一丈二尺
 重半斤為絃子更以故紙一十二兩半麻皮十兩瀝
 青二兩半黃燻二兩半黃丹一兩一分炭末半斤搗
 合塗縛于外若其氣熏人則以真血出之物並以施

故之害攻城者隔馬坑長五尺闊三尺深四尺坑中
 植鹿角槍竹箠二物皆削去尖尖令堅其坑排如之
 安或解槍為之覆以葛草或種草苗務令敵人不覺
 此敵來路及城門內外皆設之地聽於城內八方穴
 地如井谷深二丈勿及泉令聽事聽審者以新甕自
 覆於井中坐而聽之凡賊至去城數百步內有大城
 鑿地道者聲聞甕中可以辨方面遠近若審知其處
 則鑿地道之用蓋妙法

凡守城於城外別築一城如雉制而空其中使容人
 前面及左右鑿絕命上建敵樓樓去而後置大砲賊

集城下施旌仗的處交發若是則也據雖無兵使數
千人守地樓敵不敢進矣

古訓

夫守者不失其險者也守法城一夫亦守之五食
不與焉出者不守守者不出一而當千十而當百百
而當千千而當萬故為城郭者非特費稅民聚土壤
也誠為守也

若彼城堅而敵不誠則愚夫蠢婦無不守陣而後下
此人之常情也遂致其害厚然撫則亦不能出矣必
破其要害然後堅守利兵勁弩強矢并發前必獲數

濟者并於後

太公曰外亂而內整示亂而實能而精而外絕一合
 一離一聚一散修其謀密其機高其量伏其銳去其
 若無聲敵不知我所備然其西襲其東三軍齊整陳
 勢以圖深溝高壘又有大風甚雨之利三軍無故強
 獲前指金鑿之聲揚以清擊擊之聲忽以鳴此得神
 明之助大勝之徵也
 行陳不固旌旗亂而相逐連大底甚雨之利也率恐
 然氣絕而不屬或向驚奔兵車折軸金鑿之聲下以
 濁擊鼓之聲濕以沐此大敗之徵也

北城圓邑城之氣也。北城可屠。城之氣出而北城可先。城之氣出而西城可降。城之氣出而南城不可拔。城之氣出而東城不可攻。

城之氣出而彼入。城之氣出而此入。城之氣出而彼我軍之。上軍必滅。城之氣出而無所正。用兵長矣。

聽其鼓無音。釋無聲。望其壘上多飛鳥。而不驚。上無氣。必和。敵詐而為獨人也。

敵人奔走不速。未之而後反者。彼用其士卒。卒為疾也。大疾則前後不相決。不相決則將陣必亂。如理者。憑出與擊之。以少擊衆。則必敗矣。

武王曰敵人必爲三四戰而後掠我地或止而執
 我乎馬其大軍未盡至而使寇薄我城下致委三軍
 恐俱爲之奈何太公曰謹候敵人未盡至則設備而
 待之若城四里而爲壘金鼓旌旗皆列而張別備爲
 伏兵令我壘上多積強弩百共一突門門有行馬車
 騎居外用刀鉞士隱伏而處敵人若至使我馳卒舍
 戰而祥走令我城上立旌旗擊鼓完爲守備敵人
 以我爲守城必譁我城下設吾伏兵以衝其內或擊
 其外三軍疾戰或擊其前或擊其後勇者不得開懸
 者不及走若曰突擊敵人雖衆其將必走

武王曰敵入遠避我前急攻我後斷我死兵絕我材
 吾身內外不得相聞三軍擾亂皆敵而走者棄無聞
 遷將吏無守心為之奈何太公曰審明號審令出我
 勇冠百將之士人孫孫夫二人同敵必知敵人所存
 或擊其表裏微流相知令之滅大敵音皆止市非相
 應期約皆當三軍疲戰敵必敗也

太公曰北三軍處山之高則為賊所棲處山之下則
 為敵所囚既以被山而處必為烏雲之陣為雲之陳
 陰陽皆備或屯其陽處山之陽備山之陰處山之陰
 備山之陰處山之左備山之右處山之右備山之左

敵所能陵者去備其表街道通谷絕以武車高置旌旗謹勅三軍無使敵人知吾之情是謂山城

太宗曰敵之前後行陳未定即隨之旌旗擾亂人馬駭動即隨之士卒或前或後或左或右即隨之陳不堅固士卒前後相顧即隨之前往而趨後往而怯即隨之三軍卒驚皆薄而起即隨之戰於易地暮不能解即隨之遠行而暮舍三軍恐俱即隨之

孫子曰凡先處戰地而待敵者佚後處戰地而趨敵者勞故善戰者執人而不致於人能使敵人自至者利之也能使敵人不得至者害之也敵佚能勞之能

能觀之安能動之。出其所不意。趁其所不意。攻而必
 取者。攻其所不守也。守而必固者。守其所不攻也。故
 善攻者。敵不知其所守。善守者。敵不知其所攻。兵
 自敵人。遠來。行。至。行。則。未。定。可。擊。既。會。未。設。備。可。擊。
 奔走。可。擊。動。勞。可。擊。未。得。地。利。可。擊。失。時。不。從。可。擊。
 波。長。道。後。行。未。懸。可。擊。涉。水。半。渡。可。擊。險。道。狹。路。可。
 擊。旌。旗。亂。動。可。擊。陳。數。移。動。可。擊。將。離。士。卒。可。擊。心。
 謀。可。擊。凡。若。此。者。選。銳。衝。之。以。兵。繼。之。急。擊。勿。遲。進。
 退。疾。無。其。來。無。依。可。震。而。走。士。轉。其。背。而。有。歸。志。塞。
 易。開。險。可。邀。而。取。進。道。易。退。道。難。可。乘。而。前。進。道。險。

退道易可薄而擊居軍下無水無而道疎而擊是
灌而沉居軍危澤草盡出無風飛幾至可焚而感得
夫不務特去懈怠其軍不備可陷而集

古事

吳平之潰入事門出皆以軸折被擒田單以鐵籠附
車繼得免及為將能反問者無殺與新王有隙欲連
兵王齊燕使人代殺單曰將有神師降我有一子曰
臣可為師乎單遂帥之及宣言君恐無刻所得齊人
置之前行即退敗矣然如其言城中皆恐惟恐見得
天首吾俱燕抵吾城外家燕抵之齊人皆泣單知可

用身操板扉與士卒同功令甲士皆伏老弱棄械約
降纔盡擄軍得牛千餘為絳繒衣畫龍文宋兵乃於
角灌脂束葦於尾鑿城數十穴夜縱牛燒葦端絳士
丑牛隨之牛尾熱怒奔燕軍燕軍視牛皆龍文大駭
城中鼓譟夜之大敗之

孔明攻郝昭昭兵絕牛餘亮起雲梯衝車臨城昭不
大箭遂射入皆燒死又以繩連石磨壓衝車車折亮
為井關以射城中以火填懸壺直攀城陷入內寨
重圍亮為地突欲踊出城裡昭穿地橫截之相距二
十餘日亮糧盡引還

魏滿寵聞吳將攻合肥表請各兵吳人尋退寵以爲
大舉而退狹害滿兵必將倒還遂不驚兵吳兵果來
不然而還

孫權欲圍新城二市餘日不下無滿寵曰權雖不敢
至必當上崖權兵以市有餘乃伏步騎六百於肥水
隱處權果至伏殺斬數百級

盧循入寇劉裕守海鹽兵少裕直衆開門使老弱數
人乘城賊問裕何在曰走矣賊闖入裕奮擊破之魏
元英攻馬頭拔之城中糧儲悉亡之北或曰魏亦復
南矣魏王曰此欲進而爲詐計魏嘗義之爲守備備

鍾離城。英果來圍。表之拒之。魏人員出。填壘嚴。請戰
之。未及。而以去。遂。俄而。壘滿。衝車。既撞。城土。縣。壞。表
之用。泥。丸。補之。事。不能。壞。

侯景圍臺城。以未贖。數百。攻城。城上投石。碎之。景更
為尖頂。軍。據以。雉。尾。相。焚之。未。奔。請出。擊。景曰。不。則
不。是。破。敵。若。多。而。失。利。門。隘。橋。亦。必。致。亡。夫。并。果。敗
景。作。三。出。山。晝。夜。交。數。會。大。雨。城。內。山。崩。賊。去。八。恒
鄉。大。為。城。孫。於。內。築。城。賊。不。得。進。景。出。山。稍。遠。賊。懼
作。地道。取。出。山。山。崩。壓。賊。其。盡。不。解。絕。其。東。山。樓
柵。為。盡。

魏攻肝貽以釣車鈎城樓城內繁以猛繩引之車不能退夜縱繩懸卒出截其鈎獲之魏人不能克魏攻齊壽陽垣崇祖欲治外城堰肥水以自固皆曰自造外城大難守退保內城未嘗堰肥水恐勞而無功崇祖曰若棄外城慮在據之外脩樓櫓內築長圍坐城奮矢乃於城西築堰肥水堰北築小城周為深塹曰虜見城小必悉力攻之決水則為流苑矣魏兵果至崇祖決水魏人溺死千數乃走

高人厚討東洋賊不出長厚別寨圍守賊夜出掩擊諸寨皆走長厚開門列炬賊之卒兵伏道左右賊

見門開遠去。狀擊大破之。

淮南攻蕪州。推洞崖。攻城。派茨置輪於岸。垂紐。投錐。以獨之攻者。盡露。有水通城中。淮南入。張綱發。於懸之。燕。緊。過。皆。和。之。司。馬。福。破。入。城。故。以。竿。觸。綱。殿。門。於。舉。綱。福。得。入。自。是。城。中。及。後。兵。號。無。相。進。

高歡圍玉麟。幸。寬。拒。之。城。中。無。水。及。於。路。歡。移。於。一夕。舉。兵。起。立。山。欲。乘。以。入。當。山。歡。先。有。兩。高。樓。幸。寬。縛。米。接。樓。登。高。峻。精。守。具。以。禦。之。歡。鑿。地。平。道。幸。寬。掘。長。塹。遊。之。穿。道。至。塹。難。逾。之。密。築。拔。火。以。攻。排。次。之。在。地。道。內。看。亦。皆。懸。關。歡。以。攻。車。撞。城。幸。寬。登。

和爲慢。隨車所向。懸空飛。其車不駭。壞鞍。縛於麻。於茅。灌油。而燒。而樓。者。竟。以。長。釘。進。割。之。歎。又。於。城。西。面。穿。池。道。中。置。梁。柱。燒。之。焚。折。城。前。陷。入。地。者。寬。數。樹。木。耕。以。行。之。數。乃。引。遠。

劉。鴨。攻。滎。陽。大。守。李。雅。詐。降。鴨。不。爲。備。却。欲。夜。襲。雅。雅。懼。相。矯。子。產。扇。揚。言。子。產。當。遣。神。異。相。助。衆。隨。雅。擊。破。之。

尹。子。奇。寇。雒。陽。張。巡。拒。之。夜。鳴。鼓。嚴。隊。若。將。出。擊。賊。警。備。既。明。巡。寢。兵。絕。敵。賊。飛。梯。瞰。城。中。無。所。見。遂。解。甲。休。息。巡。與。南。霽。雲。雷。萬。春。十。餘。人。在。將。五。十。騎。突。

出直衝城營斬將五守華五守巡統射守奇而不議
 刺萬為矢射之中者謂巡矢盡跪自守奇乃得其狀
 使審雲射甲其在目獲之子守乃是尋復入寇城
 中食盡將士兵守六百人皆飢病不堪聞賊為雲務
 勢如半虹置精卒其上推之臨城欲誘入巡預潛擊
 城三穴候楊將至一穴甲出天亦未置賊鈞鈞之使
 不得退一穴出一木柱之使不得進一穴出一木亦
 置鐵籠或火焚之賊又以鈞車鈞城上相圍巡以火
 木置連鋪大礮發其鈞而盡之賊以木驢攻城巡鎗
 金汗灌之賊以土囊積柴為登道欲登城巡者旋松

明乾蒿積千餘日使人順風燒之賊所為應燒去解
賊不救復攻

冬孤潮圍寨兵張巡堅守城中矢盡得蒿為人示餘
後以蒿不夜燒下城賊爭射得矢數亦為復夜燒人
賊笑不備乃以死士五百詐營賊來大亂

吳丹入寇張齊賢約褚英會戰其使為虜所執齊賢
曰賊知我來示知及送殺三百人持一賊首來齊賢
殺之于吳別賊然相虞驚走伏兵歸路大破之

獨孤永業守洛州周茂之永業得書救至通夜解馬
精二千回兵以表軍至退走

朱泚反。渾瑊從德宗守奉天。賊遣僕標高潛數次窺
泚。泚五百賊迎所來。穿地道。積薪蓄火。以待雲梯。樓
地道輪陷。火終地。出類史。天盡賊乃退。

至後。遣段疾陸春市。秘攻石勒勒。敗張寶。曰。我
勇。兵精。今攻此城。謂我不敢出。意。公。憐。宜。勿。出。以。示
怯。多。鑿。城。為。突。門。出。其。不。意。必。克。其。餘。不。走。也。勒
望。其。將。士。或。釋。仗。而。寢。從。突。門。出。擊。不。克。亦。掘。遂。入
門。殺。執。疾。陸。春。等。皆。退。

金圓順昌初。劉錡率四萬人。至滿中。忽暴風拔坐帳。
錡曰。賊也。至暴兵至。進捨無德。行三百里。至順昌。

時東京已陷皆請避賊鋒騎令殺言去者斬繫舟池
 之明亦撰募去人為間探男子情戰婦人勵勿時守
 備無一可恃騎取車輪緣埋城上撤戶扉聞賊之賊
 游騎至騎預設伏槍其特問賊而至夜遣千餘人擊
 之賊兵傷賊騎令開門賊疑不進初騎傳賊集羊馬
 垣穴垣為門至是賊垣為陣賊矢皆自懸繩懸著于
 城或中垣時賊益盛騎募壯士夜斫營會電光四起
 見斫髮者賊之賊却復募百人持一竹篙示樹枝
 直犯賊營電止則止電起則擊百人圍器即聚賊莫
 測終夜自賊遂大敗正末師衆千萬未助或言宜者

虞勝之勢全軍而歸騎曰吾軍一動彼關其後前功
 俱廢使賊侵軼而誰震驚江浙則非計也約賊為五
 浮橋使賊得濟河毒其上流及葦中時大暑賊人馬
 食水草者輒病騎分五牛兵為五隊備暑藥酒肉敵
 遠來晝夜不解甲騎士氣悶酸牙晨晡疎緩兵不動
 置穢甕於庭中烈日以手授之待極熱喫所糝一
 陳其出祀之賊喘息如火甚隊歸即飲以暑藥又遣
 一隊出為分賊以斃奔把之賊兵重鎧甲戴鐵漚弁
 被長簷三人為伍每進如拒馬擁之官軍以槍標去
 其兜弁大斧碎其首大破之是戰騎兵各帶一竹筒

實以爲豆八賊陣劉案三虜馬方能抵頭倉三入爲
竹筒兩索轉去馬俱飛

吳玠守和尙原元末夜之玠以勁弩分番巡射賊
隙夫繁如雨賊却以舟兵旁擊繼糧道度其固直走
玠伏歸路大破之其後移守穀金平賊復入寇玠系
璘遣玠書云殺金平之地關遼前陣敵後後陣阻福
宜益備索三隘以示死戰玠從之璘冒圍入後賊以
雲梯攻壘薛揚攻以撞竿碎其梯表子刺之賊攻西
鉉獲玠仲登樓射賊樓傾以鼎爲繩挽之賊以大攻
獲玠以頭爲撞滅之玠急遣兵以長刃大斧左右擊

明桂明自遣王喜王武承白旗衝賊陣大破之金
 圍襄陽孟宗攻雲之賊擁雲梯矢奮先登運斧直
 抵圍樓下欲焚樓宗先毀樓梯絕地道劫賊
 相防賊積害牢絕透施毒烟熱火鼓踏薰之賊雲以
 濕禮折路以刺之賊額樓陷宗攻撤樓蓋奔架大山
 以絕其路列勇士備其衝去樓陷所數為落糧自城
 翼傳正城賊被身鎧覆於鐵面而前入以濕禮滿軍
 乘大山推梯登城城中以長戈奔其賊多墜死者
 秋至夾擊大破

金圍襄陽寇并與夜以鐵梯登布地黎明得走賊遂

三甲者皆外却走再興追之而已賊薄城再興縱令
 決濠半度擊之又令守垣者伴走賊爭垣因急擊賊
 多墮水死李全圍楊州趙范趙葵擊之全亦却范傳
 西門賊閉壘不出落曰賊待我收兵身乃伏騎放燒
 間投炭卒誘之賊果趁壕側城上矢石如雨賊退有
 頃賊別隊馳至范葵揮步騎夾浮橋吊橋並出為三
 逸陣大戰連馬步五百出賊背范以輕兵橫衝之三
 道夾擊賊敗走范葵夜議朝所向葵曰東向利范曰
 西出害不利賊必易之宜出西門乃悉精銳數千而
 西取官軍素為賊所易者張其旗幟以驕之全輕之

突關前。前送揮兵力戰。全始。與非前日軍。欲還。走管軍已。禦其甕門。全敗。走死。

元國全立。攻具。以壕列。柵使老弱婦人負薪草。填擊為半。夜洞屋。直至城下。掘城為窟。問守者。人即城上。不可奈何。全入。以鐵繩。懸震。突雷。至掘處。火發。人與半。夜皆碎。又有飛火。槍。入。不救。近宋。遣徐敏。子入洛陽。元入。聞之。派兵。城。外。驅民。出城。誘之。宋師。至城下。寂。無。應。者。曉。有。民。二。百。家。登。城。降。敏。子。入。城。明日。揚。旗。繼。至。洛。寨。三。十。里。敏。子。身。會。忽。數。里。外。立。欲。背。涼。離。衆。乃。駭。異。伏。起。宋。師。大。敗。

劉廷守遠東築城望海城立相敵將望其地持高可
 望諸島冠所必由一日將者言東南夜奉火江計倭
 至遣兵備嶺上亦遣望日賊二千餘乘船遠隔下營
 危江遣兵伏山下令壯士潛繞賊船截歸路賊至奉
 旗殺狀大破之諸將曰公見敵安聞雖能去馬及戰
 作真武被髮成道賊入堡開圓縱之何也曰以逸待
 勞治敵之道賊始魚貫而來蛇陣故以此鎮服之賊
 沈入堡必致死無其生路即圍師必缺之意也
 英宗皇帝時各處草米豆料數百萬計于謙開虜路
 開邊統之一面奏聞或謂宜待報至謙曰虜在自前

若待命通以資虜虜至京城戰守嚴議陳情曰兵敗
 之餘宜且固守賊迭來難久可伏兵歸路擊之復瑄
 言虜粗於攻城堅壁不戰虜遂無所得退必沮然後
 可擊且虜深公當夜所營宜設伏特遣者且虜舉國
 入寇邊無所禦宜調遣兵入援且我軍依城進無死
 志退有所歸如為三隊前隊前戰退令後隊悉斬以
 備則士畏法矣詔行其策虜尋遁

許遠守樂陵流賊方微遠預脩城池使民家各起堵
 萬過其藩開牆實堊容入壯者執刀候實內餘各入
 隊伍狀兵巷中洞開城門賊至伏發賊大無所施兵

無所加蓋遺之

靖難時郭寶延廣者守北平南兵攻城殺然蓋其後
城上呼譟然蓋聞門擊之南兵敗走又夜繼死士
劫南兵或遺繫十八遠伏幕間夜紫火鳴砲使南兵
不得息輒出精兵奮擊破之

李延守帝陽石勒襲之延遣老弱入山今所在散帝
馬回設伏以待之賊爭取帝馬然蓋大破之

靖康金虜犯京延友仲禦之弓弩槍斧手相問本作
三查更其勞逸宣化門設龍河內賊橋已壘過半友
仲還神臂弓強弩下臨亦布球子等弩多置砲座級

縛及勝棚一日而此賊橋不能進賊壘橋之法先用
 碎浮水面法用一重柴一重席一重土增護如初矣
 石大不能入又有大標雲梯網橋鴉軍洞子撞竿之
 類難撞竿禦之其法用木長數丈者又有橫木較
 于橋中穿而下留手把可以致力頭以鐵裹或以木
 鑄或安以托木頭須及標雲梯竿至城下徐應之
 既撞定標橋則衆手用鐵鈎鈎之進退不得則大自
 滅橋亦壞人亦頂矣若撞竿不中則用狼牙鎗未洞
 守可以治道可以攻城快如合掌上鉅下洞入在其
 中上用牛皮生鐵裹之內用濕糧中用木藥矢石大

不能入洞子用鐵炭袋懸下而敷之其法以熟鐵表
 及餘四條繩橫布如蒸棗狀袋法鍊灌其中夾重五
 十斤上安其真連鎖擲下敷罷以繩纏絞之若洞子
 上牛皮并泥敷着即塞透坎大堆油燒火賊用洞子
 穿地道連於地上直下穿井以待之積薪草其中如
 大薰之或有火砲則敵自焦灼又有游火用鉄筥盛
 火加脂蠟毒藥紐下燒薰穴中攻城入天用燕尾炬
 縛草為兩枝如燕尾以誦蠟燭之紐下騎洞子燒之
 撞擊至則作屋飛木為之揚雷相連撞擊須連以環
 串竿頭於兩旁令壯士牽之乘勢猛放則竿與火俱

側惟砲架最難禦禦砲架四旁并用黑榆木緣密築
 又用生皮鐵索裹之砲輪大不能入其砲筒七精
 五精二精兩精單精旋風虎躡等砲及伸先砲樓上
 綫縛棚上羅索網并正擺繩布滿馬糞又於砲頭馬
 面上懸穿濕榆木法難拾遺雖慢然亦可遮砲也
 城上地坑安砲亦城下地窟藏一夜換砲其平餘座
 城上人死者日二三十人

平州刺史崔益說高句麗段氏守支氏攻慕容廆
 百餘為寇野語欲以邀利軍勢初合難以爭鋒彼為
 谷而來莫相歸服必勢盡然後擊之此之必也三

國攻株城。虎堅守。獨以牛酒。餉守。夫。氏。二國。無守。夫。氏。有。其。各。刑。歸。守。夫。氏。人。悉。獨。官。白。二。國。雖。歸。吾。當。獨。取。之。處。守。翰。曰。彼。衆。我。寡。難。以。分。勝。請。為。奇。兵。於。外。伺。間。擊。之。若。奔。兵。為。一。彼。將。身。意。攻。城。非。計。也。虎。從。之。悉。獨。官。聞。之。遣。騎。襲。翰。翰。為。殺。氏。使。者。遂。於。道。殺。伏。擊。盡。獲。之。衆。歸。往。連。虎。亦。出。兵。戰。大。破。之。

漢。翻。為。武。都。太守。時。有。羌。寇。翻。至。郡。令。張。繁。勿。豫。者。張。小。繁。賊。謂。張。為。朝。意。故。翻。令。張。潛。擊。殺。美。大。賊。明。自。合。軍。卒。從。東。郭。門。出。攻。郭。門。入。而。轉。殺。四。百。焉。家。賊。竟。不。測。遁。去。

曹魏與馬超戰，營將成超輒出，陳之不得，或曰：天
實可起，然為賊孫乃多作，壞或決，灌以水，一夜賊生
賊孫喜，故獨州都將，遂行，襲伏兵，江南自乘，小舟迎
謂曰：州人得良牧，無不歸心，但見兵多，猶恐，操掠若
與腹心，輕騎進，必服，喜從之，既度，江伏，發，斬，喜。

李抱真為豫州賊，重人困，軍伍，賊乃籍戶，三丁釋
一，蠲其徭，粗給，身，天，開，月，得，曹，備，習，射，賊，終，大，表，親
按籍，券，餘，皆，賞，贖，三，年，皆，為，精，兵，既，不，黨，于，官，而，請
軍，資，得，兵，二，萬，為，天，下，雄。

宗澤空衛南與賊戰，大破之，計賊千，糧，我必復來。

鐵騎夜襲危矣暮獲營賊果來得空營大驚

陳規守順昌先令帝入狎從圍虜未放下滿街虜馬
備不能動

王清討黃浦春至沙浦尾舟膠淺水有小艇載柴並
萬奔逆若避賊狀官軍問賊何在言係賊口狀兵出
奔清盡滅其軍

慕容寶至谷忽有大風黑氣狀如堤防或高或下
隨軍上沙門曇猛曰風氣暴逆軍至之候宜備之寶
不從猛固請乃遣慕容構為殿備之後縱騎遊獵俄
黃霧四塞日月晦暝是夜魏軍大至寶軍大潰

後難時李舜臣在徐島慮糧乏作海路通行船無者
 以好細論使納米受帖以船六只為差入裝載物入
 海不以為難得米萬餘石募民輸銅為稅米為船
 事皆辦天將陳瑋暴猛軍士臨械將南下人皆為憐
 臣憂舜臣乃天備酒餼待之天兵無不拜他曰果良
 將也賊犯近島舜臣遣兵獲數千賊與瑋為功瑋遂
 喜此事必咨之舜臣約唐兵犯禁耶林之島甲爾然

諸方

人為兵器所傷出血者必甚渴不可即與水飲所食
 之物雞毛在吻須乾食食肥膩之物無所好客貴鮮

得而止者可多食粥則血滯出入必死矣所忌者有
 八爲一真怒二喜笑三大言四勞力五妄想六熱羹
 粥七飲酒八鹹酸此八者犯之未有不死者矣大金
 瘡不可治之者有九爲一傷腦戶二傷天窓三傷臂
 中跳脈四傷脾中陰股五傷心六傷乳七傷鳩尾八
 傷小腸九傷五臟此九者皆死處不可療也又金瘡
 不可治有四爲一腦髓出二腦破而咽痛中沸聲連
 兩目直視三痛不在瘡處者此謂傷經絡四出血不
 止前赤後黑或有肥肉腐臭寒冷堅硬其瘡難愈此
 四者皆不可療也此外除其脈脈虛細者生數實者

死沈水者生浮水者死其所傷在陽處出血過度而
脈微緩者生惡疾者死

金瘡方五月五日平旦使四人出四方持五葉採一
方草木莖葉每種各半把勿令脫漏一事日平時切
唯精令並爛仍先揀好者灰一斗同拌之復選大桑
樹三兩株鑿作干窠令可受藥然後分藥實於窠中
緊築之畢即以麻皮條之用麻搗石灰密泥不令泄
氣更以皮纏之令牢到九月九日平時取出陰乾百
日藥成持之曝令並乾更搗凡有金瘡傷折出血用
藥封裹勿令轉動于日即瘥矣不腫不膿不畏風若

復按數日始得藥類先用溫水洗令盡出即得之此
 藥大驗如神論金瘡中風瘧疾不語方赤箭一兩桂
 心三分防風三分去蘆頭已良一分去皮及心然後
 研之極爛用紙裹壓去渣用 萊菔半兩湯浸七遍
 焙乾微炒天南星三分他令製白附子半兩炮製珠
 砂一兩水飛過乾姜一分炮製附子三分去尖皮購
 炮製乾蝎半兩去用石件搗羅為末用醱醋三布煮
 成膏丸如桐子大每服三丸不計時候熱酒下服
 後汗出滿效金瘡得風止痛去瘡歸半兩剉微炒川
 椒半兩去目及開口者微炒出汗擇瀉半兩弩箭一

兩附子二兩去皮臍石羅為末若金瘡有出瘀血以
溫酒調下一錢日三食瘡內漏者金瘡通洩血者為
內傷筋脈不能食者死瘀血搏在肝腹內脹卒大者
去沉者死以方身黃虫三十枚去翅及足微炒桃仁
二兩湯浸去皮尖雙仁麩炒微黃桂心一兩華州大
黃三兩剉碎微炒水煙三十枚微炒黃石竹為末點
如膏藥候肉微痒即取兩手感之其箭自出付毒箭
及為汁方瘡出大首者去其核端平自收之陰乾為
末每服一錢搗破瘡口以藥傅之然後醋糊紙緊
手貼之即出毒也又方石天赤二兩以羊糞火燒令

赤色露花僧一兩黃柏半兩生膩粉一分右為二分
 除乾去皮為末傳瘡上部瘡灸出箭頭方燒銀自死
 者一枚狗子三枚婦人髮灰少許右先將銀去壳
 取其白肉與三味同研如泥用生油塗中箭處每服
 二錢用童子小便一鍾煎至五分溫和時服自五服
 夜三服如平無小便用水并酒代之服訖然後以胡
 粉散傅上瘡胡粉方粉二兩乾姜二兩生栗子末每
 用先以鹽水洗瘡後用藥傅之自一換

時氣疫方用茵陳二兩大麻仁五兩研如膏取五合
 炒乾常山三兩槌末二兩茵陳三兩細研龍甲二兩

案醋炙令黃去襍補杏仁二兩湯浸去皮尖雙仁麴
 炒微黃色已豆一兩去皮心炒冷黃紙裹壓去油細
 研石滿赤合勻煉蜜和搗五六十百杵丸如桐子大每
 服兩飲下三丸或吐或瀉或汗或不吐痢或不汗耳
 餅之若更不止痢以熱粥飲之觀其症候加減霍
 亂吐瀉方赤葉一握搗碎竹一握右細剉末用水二
 大盞煎至天盞服山楂瘡方常山三兩烏梅二十七
 枚紙帶三寸獨顆蒜一枚以酒二大盞煎至一大盞
 作二服初一服先未發時與次一服臨發時服即止
 溫瘧方麻黃一斤去根節壯蠟絲一斤一作蜀漆甘

草藥角有知母各半兩右為末用水三大盞慢火煎
 一盞半去粗余三服早起日午初夜服之治手足軟
 痿血出方以酒猪眼洗之或止手足軟痿方右取川
 椒四合以水煮之去滓清米醋出令燥復與後洗乾
 即塗羊猪眼髓丸炒沙水冑霜等之凍裂方右取麥
 葉濃煎汁熱洗之即愈手足凍裂成瘡方右以羊髓
 熬成膏油入少黃丹攪勻冷凝塗之三五次即愈
 厥瘦法壬午大疫當取虜復首級不計多少按上風
 焚之入庭穴或則有用此法疫亦亦假用之令其烟
 氣衝襲疫者經時撤去可以辟瘴氣者厥敵將法敵

將之命感於我將者謂為將也時也時者謂也以我即

以師壯相天也可以克彼者隨所壯日月及時密制

夜通肌着之所謂日時者取將大命與我則擇火日

戰陣當以皂旗為衝此者伏兵藏為法夜伏兵於林

薄處禽鳥驚啼者當愁方書亦于之號有十二辰之

名十二月之號有二十八宿之號懸於巢上林上則

禽鳥不驚啼而兵可伏矣所謂夜甲到秀取謂夜子

補提按承香若
於此亦眼也

泊馬溫示若以懶肝肚內去糞黃汁灌之治馬眩熱

結寒顛不食方黃連末二兩白鮮皮末二兩油五合

以膽猪脂四兩白米一升半調下牽行拋糞立效治
 馬卒熱壯脹欲死方以藍汁二升并米三升同灌之
 立效治馬急起方取礞石多末石灰細研羅入用
 油調二兩灌之立效治馬黑汗方葱酢不起汗流如
 珠肉顛氣喘者掌汗液即死汗賦不死以人脚下汗
 糝以水二升洗取汗灌之立瘥治馬不進水草方煎
 硝一兩雜酪半升已上和薑金散灌之并刺帶血出
 一升良治馬傷水方石以葱鹽油相和搗成團子內
 鼻中以手捉馬鼻冷不通氣良久待眼中淚出即止
 治馬傷食方石以生蘿蔔三五箇切作片子焙之生

效治馬候中腫方然物暴刀子露三寸利順情令散
 便度又方以乾馬糞置瓶中將頭裝蓋之以火燒烟
 出熏馬鼻中五度治馬草積方白礬末一兩赤石三
 兩每服和水飲後即嚼之又方以米捻令餅如不餅
 大槐掃葉桐葉之效治馬瘡方以馬糞乾石灰勻捏
 作餅子候晒乾後搗為末先以口含水洗淨用藥貼
 之治駒兒肚瀉方以薑末為末將大麻子研汁調三
 錢灌下便效將黃連末麻子麻餅之

占候

地裂者兵戈之兆也營中地生錢者下謀叛也急備

之營中地生毛者吏去其在敵嚴令防之軍在野營
 地震者有災星到也營地生五穀者將士有喜慶大
 將有封邑營中地色忽變者大慶之兆也營中地
 忽拆裂者軍敗將死也遷移營避之地忽陷者主將
 被斃之兆也營中地忽生血者賊來急速避之城
 與營內山忽有夜崩者吏士欲急移營避之屯兵
 之城山春崩者敵來攻城山夏崩者有大水至山秋
 崩者有暴兵至山冬崩者軍民饑饉結營之地如雪
 者敵來急速備之流水無故絕者該代兵至水邊赤
 如血者軍士欲自亂備之

攻敵人之城有虹繞窟曲從外入者三日內城者五
 色虹繞然軍井者大山終管遊之虹繞者營中者亦
 賊兆也五色虹繞城城中將亂是敵之白虹見於
 軍上者軍賊流血白虹貫日中則不可出自白虹繞城
 而不血者終不血處攻之必捷矣繞城而血者即備
 後漸銷處攻之亦虹從天直垂地者所無之地敵兵
 至十一月應虹出彼軍敗將天有白虹如霧者營中
 防森賊及兵將反黑虹所見之地天來到其處利積
 高處置營亦虹半隱雲上有火夜而雷賊黃虹在營
 上矣士卒驚擾者虹亦如之不為災

營中雷折木者大將凶利修軍政春三月內甲子乙
 丑戊寅辛卯戊午有雷及霹靂下石殺人者軍在野
 營將有大戰一月內應之雷一聲而止者將軍有重
 令行將戰之時雷聲自我陣後起漸漸入敵者必勝
 隨其聲而擊之吉得敵震而來者凶也急避之天
 陰不雨雷聲在我軍上隨而擊之者大勝合戰之時
 大雷一聲而止光動者勝諱諱圓長者益來歲者聲
 迴起東西南北不定者軍有大血戰兩軍傷大雷疾
 速自我入敵者勝有敵來必霹靂當牙快急搜檢之
 營中有益人為賊虜我兵至夜半無雲而雨者吏

去不從令也。憑施息布慮以獲其禍。

交戰之時五音牙旗。制後不動者大勝候也。敵強力
戰俱不可退之。臨戰之時擊鼓之音鳴牙常者勝候
也。角聲清徹者勝候也。風不起而旌旗悠揚前指敵
者勝候也。馬騰嘶而喜躍欲進者勝候也。牙旗無故
倒折者敗候也。擊鼓之音重濁者敗候也。角聲洪濁
不清潔者敗候也。真而四亂者敗候也。橫而不圓者
內亂將發。旌旗撩亂不整者敗候也。馬多驚嘶。退縮
者敗候也。臨陣之際勝敗之候宜詳審之。
結營之地。天大焚林。野者賊兵。疾到大無故自焚焚。

其帳幕者有大水到澆澗中水忽出至有陰賊到其
 地山移營避之或出軍之時或將戰之際有虎及麋
 鹿之類走過者急殺之勝兆也營中黃龍見者大勝
 也營中山池沼溪澗有水自非分者士卒凌主將龍
 關營中及左右者賊大至亦防大水解地集營前道
 上者有急兵至營中行樹生魚者大將有重要營中
 不雨而樹濕者賊兵起營中忽得五色魚者勿殺之
 殺則大水立至不然暴兵到有魚上下于樹者水立
 至急移營處避之鷄有重翅重翼飛來營內者勝兆
 也殺則大雨軍相當遠見敵上有龍者不出三月

敵當大敗大水斷營前大道者移營避之有穴至營
 中馬忽驚嘶者即起卒兵立具兵器備之恐賊潛到
 馬在營生角者多殺傷馬毛無故而赤者將失也將
 帥之馬夜無故嘶者其主臥城忽出水者賊兵相侵
 鼠噬甲冑兵器者損吏士氣群行即有大水鼠類出
 軍中防叛逢虎狼入營者賊兵至傷人大山
 攻城圓邑經旬不雷雨者城中將輔疾去之出征之
 月細雨沐兵捷之徵也若大風雷雨陰不見日展平
 而表自刺之日兵象大寇也臨戎之際逆風忽來陰
 氣多殺牙紅折陰不見日謹慎抑揚此敗徵也樓風

此氣從敵所俱來我勝惡繁之反是凶在旗軍彙頭
 風搖曳舉向賊者即擊之勝也大將馮牙旗之日風
 勢順動旌旗前指擊賊之音清亮此勝兆也持此可
 以之安三軍之心風從塵成穗如地形屈曲者凶盛
 備之風來東而掃地者敵兵至速高則來緩營中大
 風折來者大將失位風無常而無定者賊即至合戰
 之際大風晝昏揚塵衝敵大勝反是以兵初至所獲
 之城天色陰翳又無風而細雨淫淫者軍將敗者初
 臨敵而大雪兩隱隱而至者大勝兆也有旋風入營
 折旗幟壞帳幙必有盜賊入營將死

爲後子。上來大將不可震威。武敵來勿與戰。若上來
 者不宜出兵。進戰內有陰謀。實上來者有吉音。至那
 上來者利進戰。大將有祿慶之事。辰上來者有吉信。
 至出營六步忽見牛羊大吉。見死物凶。己上來者不
 利。戰陣兩軍俱傷。辛上來不利。出兵未上來戰。開主
 吉。容凶。申上來不利。出兵有上果。利出兵有喜。戌上
 果。史士有異心。潛備之。亥上來不利。戰兵十二。辰往
 去爲之精也。若鳥按四散。祥來到營上作德。養而止
 者賊兵心入境矣。急飛過者賊勇銳。疾如雷。電速爲
 之備。後疾與戰。我可勝。鷲鳥飛來。將軍手帳上持

擊者有賊不可出戰三之高飛來營前後謂之飛鷹
 鳥也賊將來至營中者凶急備之赤鳥入營者防寇
 八刺塔群鳥三三五五營上往來無聲而凶散者史
 兵有逃潰之心鶴鶴急來營上作巢而鳴速移營避
 之大水至鳥至營探于窠鷄者史兵謀大將即有禍
 速避之鳥鷄忽來賊上作巢者史兵謀大將潛驗之
 方戰之時忽有鳥狀如鷹鶴飛赴敵者兵力擊之大
 勝也自有敵來赴我者凶急退軍勿戰
 出師之日高于軍前逆飛者征無功在左者凶在右
 則凶逆軍而作急擊逆者大凶兆也或從在後擊

和順有大將後而適在復擊者大兵有慶之兆也鳥
惡相呼于前者吉也鳥于軍前一足卓立地者進也
值冠也在枯井上鳴者凶振迅法飛視顧周章而不
止者前有賊也鳥來牙旗上立者急移營避之其地
不祥鳥立牙帳上作惡聲者有失去階謀逆遠後驗
之必得奸狀鳥來鼓角上鳥者將軍失心心離蓋奮
也器械上鳴者即有戰陣也遠營而飛鳴者所來之
處賊兵至也尤鳥之來大將宜別念以入候之此皆
能通天地鬼神之情者也

發明方鳴者凶神后大吉功曹等方者吉大衛天也

正太乙方者凶勝光小吉傳送方者吉德魁河魁方
 者凶更看神與日將相克假令登明是凶神在寅卯
 申酉即相生為吉也假令傳送是吉神在寅卯巳午
 卯相克為凶也他皆依此宜細認方位辨其吉凶
 為在青龍上鳴者聞賊不來與賊大吉逢星上鳴者
 合有吉音無他賊博明堂上鳴者喜信之兆也陰甲
 上鳴者防慎在丙當有細人潛為賊應不然有謀叛
 者天門上鳴者軍無他賊地丙上鳴者有賊信至天
 獄上鳴者聞賊必來急備之不利戰凶兆也天穿上
 鳴者亦慎之或有小盜必殺之不然當有大驚天庭

正鳴者防吏士 正進奉蓋上鳴者將有戰事 正吉陽
飛上鳴者有賊信 正陰孤上鳴者防內有奸人 正
賊應鐘備起 夫占鳥之法 正營之地 非鳥所巢 而有
鳥來鳴 方可論 占若叢林 群鳥之所 栖泊 而朝暮無
常者 不是也

□ 저자 백기인(白奇寅)

육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문학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졸업(문학석사)

동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전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교수

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요 논저

『한민족전쟁사총론』(공저, 교학연구사, 1988)

『건군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도서출판 혜안, 2004)

『한국 근대 군사사상사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한국 군사역사의 재발견』(공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한국 군사사상 연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공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공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외 논문 다수.

□ 감 수

서인한(문학박사, 전 연구소 군사사부장)

김대중(문학박사, 전 전쟁기념관 학예부장)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변천

발행일 2020년 6월 12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국군인쇄창 편집디자인과
인쇄 국군인쇄창 M20050382



신규유형
 복간일/제4차형/보안사고(위반)
 외국물/방산/소재/군사기밀유출

상급내역
 관공선/관청 : 최고 20억원
 해외/국내 신고 : 최고 1억원

신규항법
 전국 어디든 국군인쇄창 1337
 온라인 신고 www.dpsc.mil.kr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守城機要
 城標程式
 五中軍
 左控本城高處立三大炮杆上用大砲一除十二福
 大白旗一面下立樓舖或房屋一所預備燈籠油燭
 大鐘大砲碗口及隨統應該物件俱拿印官下親隨
 管汛又派守法親兵分方瞭城外大砲標吹鼓手一
 副專執號令
 派守
 關城並進城及八城避患人等計城壕若干充除策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비매품/무로

93390

9 791155 980668

ISBN 979-11-5598-066-8